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박사 학위논문

현대 한국 민속축제의 전승 주체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

-강릉 단오제 사례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조진곤

현대 한국 민속축제의 전승 주체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

-강릉 단오제 사례연구-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 류 학 과

조 진 곤

조진곤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황 익 주 (인)

부위원장 강 정 원 (인)

위 원 강 윤 희 (인)

위 원 김 종 대 (인)

위 원 박 환 영 (인)

국문초록

조진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릉단오제는 1967 년에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2005 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된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유명한 지역축제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제의 핵심인 전통의례와 단오통속의은 현대적으로 변용된다. 변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강릉단오제를 주최하는 집단이다.

강릉단오제의 주재집단은 주최, 주관, 후원과 협찬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주최이다. 주최는 강릉단오제보존회와 강릉단오제위원회 두 개의 단체이며 전자는 단오제 전통의례의 전승과 보존을 담당하고 후자는 도시축제 전반을 기획·운영한다. 주최의 이중적 구조는 지역의 다양한 세력이 축제 개최에 개입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는 대부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며 후원은 축제에 행정과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고 협찬은 축제에 비용을 기부하는 지역의 업체를 가리킨다.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적 참여와 협력은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시간과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축제 주최 단체는 민간주도의 성격을 강조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는 유연한 신공공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제에 개입하고 있다. 2007 년에 단오제 보존회와 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면서 축제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와 아울러 축제의 주관단체들도 전문화와 법인화의 추세가 나타난다. 축제의 효율적 운영은 이들 법인의 지속적 관여에 의해 확보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축제 개최에서 전문 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은 점점 중요해진다. 법인화된 단체들은 공정과 투명, 미래 지향 등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들도 문화재 제도와 교육 제도 등에 의해 현대적 주체로 생산된다. 다른 한편으로 강릉단오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점점 약해지고 이러한 보편적 무관심은 축제 산업화와 맞물리는 현상이며 전통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맥락이다.

현대사회의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강릉단오제는 문화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인식에 맞추어 변화한다. 축제장이 정비되고 공간이 전시와 소비 등 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축제 내용도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축제 관람객의 인구학적 특징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에 청소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음식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축제 주최 단체가 미래 관람객을 양성하는 전략이며 같은 목적을 위해 그들은 축제 기간 외도 다양한 상품 개발과 공연,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단오제를 홍보하고 있다.

단오제의 이러한 현대적 변용은 주최 단체의 법인화에 힘입고 있으며 축제 산업화를 수반한 현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오제의 전통문화가 재맥락화되는 또다른 차원인데 즉 주최측 관계자들은 단오제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 보존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경제성은 현대적 전승의 맥락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강릉시 등 정부기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강릉단오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만들기 전략의 일부로서 무형문화재를 형체가 있는 기록물로 만드는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의례와 전승자는 오히려 소외되고 민속문화는 의도적으로 표현된 결과물로 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지역문화를 만든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상인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단오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또한 단오제를 반대하던 종교 단체도 기타 종교나 무종교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적 담론은 축제 참여의 기제로 작동되고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도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한다.

주최 단체가 시민 참여를 확보하는 방법은 제도 외에도 사회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민의 삶에서 연줄을 포함한 다양한 사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오제의 개최는 여전히 지역의 사회관계에 의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제보자들은 다양한 사회관계를 실천하는 목적으로 단오제에 간다. 이런 행동은 단오제를 지역 사회관계 생산과 재생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지역민들의 축제 참여는 새로운 단오풍속을 실천하는 것이며 단오택에서 사고 행위를 통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택의 주기적 개최는 지역사회 인간관계의 율동과 맞물려 있다. 주최 단체는 국가의 문화재 정책을 집행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단오택은 이처럼 주최와 지방정부, 축제 관람객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그 중에서도 전승 주체의 행위는 단오택의 전승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주요어: 전승 주체, 상호작용, 민속, 축제, 지역사회

학 번: 2014-31406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7
1) 강릉단오제	7
2) 민속의 현대적 전승	14
3 연구내용 및 방법	18
4 논문구성	24
II 주재집단과 전통 지속	26
1 주재집단	26
1) 주최	26
2) 주관	42
3) 후원과 협찬	51
2 전통의 지속과 준수	60
1) 시간의 전통	61
2) 내용 및 구성의 전통	67
3 전통 지속에 나타난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82
4 민간주도와 축제 거버넌스	92
III 강릉단오제 전승 맥락의 변화	102
1 주최단체의 법인화	102
1) 법인화의 경위	102
2) 법인화에 따른 변화	107
2 축제 산업화와 관람객의 분리	120
3 무형문화재의 현대적 전승	129
1) 전승자의 재량과 국가 체계의 개입	129
2) 다양한 산업의 참여와 경제성의 강화	135
3) 법률과 교육 제도의 영향	147
IV 현대문화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	161
1 지역의 상징으로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모습	161
2 축제의 현대적 모습	172

1) 정돈된 축제장	172
2) 정제된 행사 내용	187
3 상품화된 민속	203
1) 관련 상품의 개발	204
2) 단오제 관련 공연과 교육	211
3) 무형에서 유형으로	220
V 지역민의 축제 참여와 민속의 실천 양상	229
1 축제 참여와 배제의 기제	229
1) 관심 정도의 차이와 노인, 청소년의 참여	230
2) 상인의 의견	239
3) 종교갈등과 해결책	244
2 단오제 참여의 사회적 범위	254
1) 사회관계에 대한 의존도	255
2) 단오제 참여와 사회관계의 생산/재생산	269
3 축제 참여와 단오풍속의 사회적 구성	283
1) 실천되는 단오풍속	283
2) 단오제 참여와 지역민의 정체성	289
VI 결론	295
참고문헌	301
Abstract	312

표, 사진, 그림 목차

표 1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업무 분담	36
표 2 “길위의 신명 In 월화거리” 행사와 강릉단오제 내용 비교	38
표 3 2018 강릉단오제 행사 및 주관	44
표 4 2018 강릉단오제 주관단체 분류	45
표 5 강릉단오제 협찬 업체	52
표 6 강릉단오제 행사운영비 결산	56
표 7 강릉단오제 본행사 시간	65
표 8 영신제와 송신제 시간	65
표 9 강릉단오굿 연행 순서	74
표 10 관노가면극 공연 일정	76
표 11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 변화 1	78
표 12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 변화 2	80
표 13 일부 행사와 주관의 연혁	81
표 14 단오제 체험존 행사	83
표 15 강릉단오제 현관 명단	85
표 16 2017 년도 강릉단오제위원회 사업 내용	115
표 17 2018 년도 강릉단오제보존회 사업 내용	116
표 18 2018 년 무대공연예술제 내용	122
표 19 조전제와 송신제 축문 내용 변경	141
표 20 강릉단오제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상황	157
표 21 강릉단오제 행사장 구역	174
표 22 2017-2018 년도 강릉단오제보존회 공연	214
표 23 일부 보존회원의 가입경위	275
사진 1 1977 년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29
사진 2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서	29
사진 3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캐릭터	40

사진 4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팸플렛.....	40
사진 5 단오제 타일 벽화.....	47
사진 6 2018 강릉단오제 협찬 업체와 상품.....	53
사진 7 2017 년과 2018 년 대관령산진제·국사성황제 안내	70
사진 8 강릉단오제 망기와 분방.....	72
사진 9 축제 조명 및 음향 용역업체의 차량.....	123
사진 10 관노가면극에서 연행되던 모의 성행위 장면.....	132
사진 11 세계화를 지향하는 강릉단오제의 이미지.....	162
사진 12 노암동에 위치한 단오장.....	164
사진 13 노암동에 있는 단오제 캐릭터.....	165
사진 14 강릉단오제 캐릭터로 조성된 강릉의 도시경관.....	166
사진 15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2 층 전시실 전시품	167
사진 16 2018 강릉단오제 행사장 안내도.....	174
사진 17 2018 강릉 경포벚꽃잔지 및 문화재야행 행사장 공간 배치	177
사진 18 AR 게임 ‘단오퍼즐’과 가족뮤지컬 ‘다노다노’ 포스터	207
사진 19 1994 년과 2018 년의 강릉단오굿	216
사진 20 신주근양과 산신제 행사 장면.....	223
사진 21 2019 년 강릉단오제 온라인 홍보대사.....	239
그림 1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사무실 위치.....	34
그림 2 강릉단오제 주최의 이중적 구조.....	41
그림 3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조직도.....	113
그림 4 2018 강릉단오제 음식점 배치도.....	260
그림 5 제도와 사회관계의 연속체.....	265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학전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본 연구는 현재 강릉단오제의 전승 주체에 관한 민속지(ethnography)이다. 연구자는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강릉단오제 구성 요소들의 현대적 변용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도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강릉단오제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규모 축제로 인정받았으며(장정룡 2003: 3) 1967 년에 중요무형문화유산 13 호로 지정되었다. 2005 년 11 월에 유네스코(UNESCO)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사건이 중국에서 보도된 후 연구자는 처음으로 강릉단오제를 접해 보았으나 자세히 조사할 기회는 없었다. 강릉단오제 등재 사건은 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인들이 자국의 문화정책을 비난하자 중국 정부는 전통문화 진흥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강릉단오제를 배우려는 중국 학자들이 늘었으며 강릉에서 현지조사를 했다는 학자도 나왔다(高静 2016; 贺学君 2006; 张国强 2009). 그러나 이들의 논문에서 재현된 강릉단오제는 유교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만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주류를 이룬 축제 담론과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강릉시청과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주로 지정문화재를 소개하고 있으며 여러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¹ 이런 내용을 인용한 논문, 예를 들어 김남일 (2009: 74-78)과 이경화 (2009)는 상술한 지정문화재 행사의

¹ 강릉시청과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강릉단오제의 구성은 각각 제례와 관노가면극, 단오굿, 그리고 제례, 민속놀이, 난장, 단오유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의 링크 참조.

강릉시청: <https://www.gn.go.kr/www/contents.do?key=663>

강릉단오제위원회: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149>

또한 지정문화재 행사 중심으로 강릉단오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는 아래의 동영상 참조.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1999 년, 『강릉단오제』.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XoIfG4p6o>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2018 년, 『신과 인간의 축제, 대관령 강릉단오제』.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_IkhR5PC9M&t=81s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담론을 통해 재현된 이미지는 연구자가 2016년에 처음으로 구경한 강릉단오제의 장면과 다르다.

2016년 6월 단옷날에, 연구자는 강릉단오제 현장에 처음으로 가 보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의 난장과 서커스단의 커다란 노란색 텐트였다. 그리고 남대천 강가에 1킬로미터가 넘을 정도로 하얀 몽골텐트 수백 개가 펼쳐져 있었으며 그곳이 바로 강릉단오제의 행사장, 현지인들이 말하는 단오장이었다. 단오장 주변에 주차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곳당에 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먹거리촌과 난장에 모여 있었다. 그런 장면은 상술한 축제 담론과 명백한 차이를 보여준다.

2017년 단오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전체 규모에서 지정문화제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고 거기에 전시된 “원형”에도 현대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시에 진행되는 조전제(朝奠祭) 현장에서 전자스크린으로 제례 이름과 참석한 헌관의 이름을 게시한다. 이것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전통의례”의 성격과 위화감이 없지는 않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의례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한담하고 있었다. 현장이 조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전통의례가 진행되는 중에 촬영하거나 진행을 도와주는 관계자들이 수시로 성스러운 공간인 무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장면이었다. 조전제는 현대적으로 편성된 퍼포먼스로서 종교신앙의 비중이 원래 열어서 금기라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했다. 그러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종교적 역할을 강조하거나(이경화 2009; 황루시 2012) 아예 단오제의 핵심 요소를 한국의 무속/샤머니즘이라고 주장하는(Hogarth 2001; 김용훈 2011) 제의중심의 축제 담론은 어느 정도로 강릉사람들의 축제 참여 동기를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대규모 난장과 먹거리촌,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민속경기가 오히려 축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화된 단체가 기획·운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제의 전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최나 운영인데 그것은 단순히 시민의 자발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릉단오제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자세히 보면 문화예술공연과 상품거래 시장, 음식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축제의 구조이다. 축제 난장은 지역의 상인이 아니라 전국의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도한다. 그리고 다양한 놀이시설과 서커스, 문화공연을 하는 행상인도 난장 상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역축제라고 하지만 사실 인적 구성은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강릉단오제는 국내외 축제와 교류도 하고 강릉시에 관광객을 포함한 외래인구도 많고 매년 인구이동도 발생하고 있다.² 이러한 문화교류의 맥락에서 개최되는 강릉단오제는 결코 “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지역축제의 개최는 문화 외의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그 중에서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에 대해 대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학자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부터 축제들이 급증하였고 2000년 이후 증가의 추세가 더욱 빨라졌다(김창수, et al. 2013: 77; 최경은 2006: 211). 서울시(백선헌 2011: 127)와 강원도(김병인 2004: 80-88) 지역축제의 증가에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를 육성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이현식 2006: 62).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관광, 문화 사업의 개발을 추진하는 현실적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각 지자체 중에서도 강원도는 유난히 지역축제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김창수, et al. 2013: 76-78). 이런 상황은 지역축제의 개최를 통해 지역정체성의 구축과 문화자원의 상품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김병철 2006: 609-610).

² 2016년에 강릉시 인구는 모두 213,846 명이며 그 중 전입·전출된 인구는 각각 30,907 명과 31,404 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14.45%와 14.69%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남쪽의 동해시(총인구 93,958 명)의 전입과 전출 인구 비율은 각각 11.28%와 11.95%이고 서쪽의 평창군(총인구 43,782 명)은 각각 9.60%와 9.54%이며 인구이동 비율은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료 출처:

『2017 강릉시 통계연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https://www.gn.go.kr/www/selectStatsAnlrptWebList.do?key=1510>

『2017 동해시 통계연보』, 동해시청 홈페이지.

http://www.dh.go.kr/pages/sub.htm?nav_code=dh1473657928

『2017 평창군 통계연보』, 평창군청 홈페이지. <http://stat.happy700.or.kr/year/year01.asp#>

최초의 개최 연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릉단오제는 여타 신설한 지역축제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단오제는 세시풍속과 전통의례에서 기원된 민속축제이고 여전히 지역민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 지역축제이다. 비록 많은 지역축제처럼 중앙과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제 개최에 관여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주최와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규모의 민간주도형 지역축제로 전승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도시 지역공동체의 소속감을 함양하는 도시 이벤트(urban event)로 인정받고 있다(황익주, 정현목 2012).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는 한국에서 민속문화의 전승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이는 단오제를 본 연구의 내용으로 선택한 중요한 원인이다.

비록 강릉단오제는 지역축제라고 하지만 완전히 지자체나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개최한다고 볼 수 없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어 강릉시의 정치는 상당한 정도로 독자성을 확보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욱 수도권권을 포함한 타지역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고 강릉단오제 등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도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강릉시는 자주적으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면서도 그것을 국가의 체계로 깊이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 일본 나가노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성(locality)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을 재현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역사적 과정이다(김희경 2017). 따라서 지역의 역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새로 만든 지역축제는 사실상 지역 만들기의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다(유철인 2004).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강릉단오제를 구성한 요소 중에 지역의 독특한 민속 외에도 “한국문화”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있다. 특히 후자는 민속축제의 현대적 변모를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민속축제는 한국의 전통문화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민속이나 대표전승에 집중된 관심과 민속의 탈맥락화, 예능일변도 등의 문제가 있다(이경엽 2004). 그렇지만 강릉단오제 현재의 모습은 오랜 세월을 거쳐가면서 “취사선택”된

문화양식이 축제민속의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고(장정룡 1996: 117-118) 지금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속이 전승되는 맥락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 민속이 새로 형성되고 세시풍속도 도시민의 생활습관에 맞추어 새로운 형식으로 전승된다. 전승 맥락의 역동성을 민속에 대한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의 역학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강릉단오제는 비록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무형문화재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에 매우 현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었다. 1967 년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200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각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권력이 지역의 전통문화에 개입한 사건이다. 소멸의 위기에 있는 민속의 원형을 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형을 지정한 순간부터 민속문화는 화석화되고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지 않게 보호해야 할 것으로 대상화된다. 그리하여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시도하는 전승주체의 노력은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승 주체들은 현대사회와 절연된 사람이 아니다.

전승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의 권력은 지역의 전통에 개입하여 전승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강릉단오제의 현대사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 1966년에 작성된 『지정보고서』에 “소멸의 위기에 있는 민속을 계승보존함이 시급하다”고 기술되고 있지만 강릉시장과 지방관리, 덕망있는 인사 등이 축제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다(임동권 1966: 288, 330-332). 지역의 정치인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가 왜 소멸의 위기에 있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중앙정부가 지식인의 문화 권력을 통해 전통을 재구성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단오제 전승과 국가 권력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남근우 (2006)는 강릉단오제의 재구성을 지역의 로컬한 단오 민속이 국가 공인된 내셔널한 무형문화재로 전화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지식인의 개입이 자체 전승의 흐름을 바꿔서 강릉단오제는 “페이퍼상의 원형” (p.248)만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이런 관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에서 외부의 힘이 개입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전승 맥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속축제는 전승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나 중앙, 지방 정부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민속학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의 축제일수록 제의성과 의례성이 강하고, 현대사회의 축제일수록 유흥성과 경제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표인주 2007: 24). 그런 관점에 따르면 현재 도시축제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 공간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제의적 요소가 약화되고 이벤트성이 강하더라도 민속장터와 풍물공연, 민속놀이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박환영 2006: 60). 특히 강릉단오제는 세시풍속에서 기원된 지역축제로 민속적 요소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오 풍속이 한국 기타 지역에서 사라진 것을 감안할 때 강릉에서 전통문화가 유지되고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그런 세시풍속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전승은 원형 보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변용도 포함한다. 현재까지 강릉단오제에 관한 민속학 연구는 전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승 주체에 관한 연구도 전통 기예능을 전승하는 사람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이나 변용을 입체적으로 다루려면 전승 주체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자체의 지역개발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주최, 주관 단체와 일반시민 간의 상호작용은 축제의 변용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 같은 대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주최 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축제 주최 단체를 전승 주체로 보고 그들이 다양한 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의례를 포함한 강릉단오제의 지속과 변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아래의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강릉단오제를 전승하고 운영하는 단체의 상호작용 기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둘째, 전통의례를 포함한 강릉단오제가 전승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셋째, 지역축제로서 강릉단오제가 어떻게 강릉시를 대표하는 민속문화로 변화하는가?

민간전승을 연구하는 민속학은 일반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내용이나 “원형 보존”에 집중되고 있는데, 전승자들이 현대사회의 조건에 맞게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중들의 민속 실천이나 전승자들의 창조적 계승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적응(adaptation)의 기제와 함께 달라진다. 또한 축제에 관한 민속학은 시민의 일체감과 경제 활성화를 전승의 두 축으로 강조하는데(표인주 2007: 361-36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나 정책,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주체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단오제는 시민의 소속감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참여가 그들의 정체성과 연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강릉단오제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전승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 강릉단오제를 최초로 기록한 문헌은 조선 중기의 문신 남효온(1454~1492)의 『추강냉화(秋江冷話)』이며 당시 영동 지역에서 매년 3·4·5 월 중에 택일하여 무당과 함께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영동의 산신제를 기록한 것이고 강릉의 단오 풍속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보다 좀 정확한 것은 허균(1569~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 1603 년에 명주(강릉) 사람들이 대관령산신을 맞이하는 행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에 기술된 제사는 산신인 신라 장군 김유신에게 지내는 것이고 시간은 매년 5 월 초이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이 오늘날의 강릉단오제의 전신인 것은 분명하다. 그 외에 강릉의 향토지인 『임영지』 권 2 풍속조(風俗條)에 고려 태조 때부터 왕건을 도와준 승속이인(僧俗二人)에게 대관령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기록되고 있다. 제사를 받는 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임동권 (1971: 214)은 이 기록에 의거하여 강릉단오제의 유래를 천년 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선시대의 기록은 모두 단편적 정보만 제공하고 행사의 자세한 내용이나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당시의 행사 주체와 지식인 사이에 계층적 차이가 있어서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행사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생활경험과 색다른 풍속을 축제의 핵심 내용으로 기술했을 것이다.

선택적으로 단오제를 기술하는 경향은 일제시대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남긴 자료 중에 『역사민속조선만담』(이마무라 토모에 今村 鞆, 1931)과 『생활상태조사 3 강릉군』(젠쇼 에스케 善生永助, 1931),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44 집인 『부락제』(무라야마 지준 村山智順, 1937), 『조선의 연중행사』(오청 吳晴, 1937), 『조선무속의 연구』(아키바 다카시 秋葉隆 · 아카마츠 지조오 赤松智城, 1938) 등 자료가 있다. 이런 자료에서 강릉단오제는 주로 조선의 종교신앙으로 기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연중행사』는 대령(大嶺)산신제의 제의와 전설을 간단히 기록하고 『생활상태조사 3 강릉군』에는 “미신·전설” 부류에 대관산신과 대관령 새신(賽神), 국사성황강신제, 단오굿 등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부락제』는 상대적으로 자세히 제신과 제의, 신악, 단오제 네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오제 부분에 여성의 그네대회와 남성의 축구대회가 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일본인이 남긴 자료는 조선시대의 자료보다 비교적 상세한 편이지만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내용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조선총독부가 의뢰한 것으로서 식민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조사하는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남근우 1998). 따라서 그들은 단오제 행사 중에서도 종교신앙과 관련된 내용만 상세히 기록하고 세시풍속이나 난장 등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단히 언급했다. 그런 선택적 기술의 문제로 인하여 해방 전의 많지 않은 자료는 사실상 강릉단오제의 전반적 상황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해방 후에도 그런 경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

1960년대 이전에 강릉단오제에 관한 학술연구는 없고 최초의 연구는 앞서 언급한 임동권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9 호-강릉단오제』가 있다. 임동권은 1966년에 작성한 지정보고서를 1971년에 자신의 저서인 『한국민속학논고』에 실었고 같은 시기에 강릉 학자 최철(1971)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두 사람의 논저에서 강릉단오제의 지리 조건과 역사 배경, 근원 설화, 의례 내용 등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주로 강릉의 문화를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역사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고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속의 재구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1967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민속학과 역사학을 포함한 많은 학문분야에서 강릉단오제 연구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다. 그 중에 국문학과 민속학 연구는 주로 제의와 전설, 단오굿, 관노가면극에 대해 다루고 있다(김선풋 2002). 많은 선행연구 중에 본 연구에서 자료로 참고한 것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강원도편』 (문화재관리국 1977)과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강릉단오굿』 (장정룡 1996), 『강릉단오제 연구』 (김선풋, 김경남 1998), 『강릉단오제 백서』 (강릉문화원 1999) 등이다. 이런 자료들은 주로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전통의례의 전승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재관리국의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전승자와 주최의 상황도 기재하고 있다. 그런 자료에서 구현된 강릉단오제는 지역성과 전통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지정문화재 행사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축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속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정룡 (1996: 118)는 강릉단오제가 북방형 전작 파종축제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며 축제를 통해 조화되는 세시풍속의 사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황루시 (1999: 164)는 종교의식과 세시풍속, 난장이 기존의 강릉단오제를 형성해온 기반이고 기타 행사들이 공동체의식을 연마하기 위한 부차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기설 (2011)은 강릉단오제의 구성 요소를 신화와 제의, 놀이, 난전이라고 하는데 놀이의 오신(娛神) 기능도 강조하고 있다. 김현기(Hogarth 2001)는 현재의 강릉단오제를 한국의 샤머니즘 유산이 민속화된 것으로 보고 강릉사람의 토착신앙이 단오제를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술한 학자들은 강릉단오제의 핵심을 전통의례와 세시풍속, 난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다양한 강릉사람들의 축제 경험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축제 주최 단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승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승 주체에 관한 연구도 살펴보고자 한다. 강릉단오제의 행사 주체가 누구지에 대한 기술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해방 후 출판된 아키바 아카시(秋葉隆 1993[1954]: 193-202)의 『조선민속지』에는 단오제의 기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노인들의 진술을 통해 갑오경장 이후 단절된 강릉단오굿(江陵端午祭)³의 내용, 즉 팔단오의 상세한 의례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키바 다카시의 기술에 따르면 팔단오는 호장과 부사색, 수노, 성황지기 등 향리들이 제사를 주관했고 영신행렬이 강릉시에 도착하면 부중육반의 관속들이 마중하러 나오고 기병청, 부사, 전세, 대동, 사창의 여러 관청을 들른 후 대성황사에 도착했다. 그런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조선시대의 강릉단오굿은 향리계층이 주관하는 “대읍락제”나 읍치성황제였으며 허균이 처음 보았을 때 몰라서 물었다는 기록과 접목해 볼 때 적어도 조선 중기까지는 양반 계층이 강릉단오굿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황루시 (1999: 153) 등 한국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의거하여 조선시대의 강릉단오굿이 “관행(官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어 원문에 없는 말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강릉단오굿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축제의 민간주도의 성격과 대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키바의 조사 외에도 역사학 연구는 조선시대의 강릉단오제가 관행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규대 (1998)는 조선 중기 이후 강릉의 향리계층이 불교 세력과 결탁하면서 국사성황제를 읍치성황제로 연행하기 시작하면서 강릉단오제의 주신도 산신에서 국사성황신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연구결과는 조선 중기의 강릉단오굿의 관행 성격을 방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임동권 (1971) 과 최철 (1971)의 논저에서 1960,70 년대의 강릉단오제에 지방 공무원과 상공인들이 주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해방 후 지방정부가 다시 단오제에 개입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학자들은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이미 민간주도가 관주도를 대체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은주 (1993: 71-81)는 강릉단오제의 행사주체가 강릉시에서 특수법인체 강릉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순수한 민간주도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 나중에 장정룡 (1996: 122-123), 황루시 (1999: 166), 이경화 (2009:

³ 남근우 (2010: 40)에 따르면 아키바 다카시가 강릉단오제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아키바 다카시는 당시 현지에서 사용하던 어휘 ‘단오굿(端午祭 タノクツ)’을 일본식으로 표기했으며 『일본민속학』 2 권 5 호(1930 년)에 논문 「江陵端午祭」를 게재했고 같은 내용을 『조선민속지』에 수록했다.

4) 등은 이러한 “민간주도”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릉단오제에 관한 중요한 축제 담론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김남일 (2005: 116-120)이 지적하듯이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민간의 참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순수한 민간주도는 결코 쉽지 않다. 사실 축제 예산 외에도 행사장 공간 확보와 교통 단속, 시민참여행사 준비 등 문제에 있어 축제 주최 단체는 민간기구로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민간주도의 축제 담론과 맞물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체 변화는 조선시대 이후 일제식민 통치와 한국 독립 등 정치 사건과 맞물리고 있다. 황루시 (1999)는 강릉단오제의 전승주체가 조선시대의 향리에서 일제시대의 중앙시장 상인, 해방 후의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하며 강릉단오제의 성격도 관행(官行)의 읍락제에서 민간주도의 축제, 문화자원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황루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승되던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지정 대상을 중심으로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새롭게 재편성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새로운 의미 부여의 과정은 나중의 연구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있다.

남근우 (2006)는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임동권 교수가 의례 일정을 바꾸고 관노가면극을 복원했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다른 논문 (남근우 2010)에서는 영신제(迎神祭)의 일정과 제의 내용 재구성, 호환전설에서 남녀성황신의 혼배 전설로의 변모 양상을 분석하고 대성황사 복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남근우는 이런 연구를 통해 지식인들의 개입을 통해 국가가 원하는 강릉단오제의 모습을 생산하는 이른바 쉼비지 민속학을 비판한다. “강릉단오제의 진정성은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종다양하게 해석되고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남근우 2006: 248)은 정치와 문화 권력에 의한 전통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민속 전승의 맥락을 단순히 지역민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 정치 세력과 지식인이 가진 문화 권력은 민속의 전승과 변화 내지는 창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강릉단오제의 단절과 복원, 문화재·문화유산 지정 등 과정은 한편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오제를 실질적으로 전승하는 주체들도 그런 정책을 이용하여 단절된 전통을 회복하고 있다.

윤동환 (2014)에 따르면 관행의 제사인 강릉단오제는 일제의 무속통제 정책 때문에 단절되었고 단오굿도 마을의 공동재산 기부에 따라 1930년대부터 강릉의 대부분 내륙 마을에서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것은 단오 시민운동회 때 행해지는 장별신굿이었으며 그것은 시장상인들이 사업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하는 곳이었다. 별신굿, 풍년굿 등 이름으로 전해지던 단오제는 1960년대 문화재 지정 사업 때문에 보도되고 강릉과 명주 시민 공동의 행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윤동환의 논의는 정치적 조건이 단오제의 전승에 거의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강정원 (2008)은 일제시대의 서울의 단오 행사가 중단된 것은 양력의 시간체계 편입과 무관하고 1930년대부터 조선인 집회를 감시·금지하는 일제의 강압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주장은 강릉의 단양운동대회의 개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남근우 (2006)에 따르면 1938년 후 단양운동대회에 관한 보도가 없어지고 다시 나타난 것은 1947년이었는데 이는 서울에서 단오 행사가 금지된 시기와 같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개입이 만든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상술한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의 전승과 단절은 단지 지역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지역의 전통 보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역의 전통에 개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의 전승자들은 그런 정책을 이용하여 전승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정은주 (1993)는 강릉단오제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정한 전통 보존에 관한 문화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되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본다. 즉 국가는 지역의 전통 발명을 통해 통일된 국가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지 관광업을 추진하고 지역에 대한 현지인의 자부심을 함양하는 “경관”으로 단오제를 구성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전통은 현지인 우선의 원칙을 반영하고 “민간주도”의 축제 원칙은 “강릉사람 주도”로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 축제를 통해 국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양자 간의 상호 관계, 특히 지방정부와 다양한 계층의 현지인들이 국가 정책을

전용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은주의 논문에서 논의된 현상은 강릉단오제의 만들어진 전통으로서의 성격을 조명하고 있다.

정은주의 연구는 오늘날까지 이미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한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자체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축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선정 사업과 문화재청의 독립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강릉단오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도 강화되었다. 또한 2005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큰 기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간에서 단오제에 부여한 중요한 상징 가치는 주최 단체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초에 비해 현재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개입한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론 축제 개최에 직접 관여하는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2005년 이후 강릉단오제의 뚜렷한 변화는 주최단체의 독립과 법인화, 그리고 강릉시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강릉단오제는 비록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지되고 다양한 시민단체나 관공서가 프로그램을 출현하거나 주관·지원하고 있지만 강릉단오제위원회와 보존화회, 강릉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황루시 2015). 특히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신주미 봉정(神酒米 奉呈)이나 단오등 관람, 신통대길 길놀이 등 시민참여 행사를 신설하여 시민참여형 지역축제를 만들고 있다(박부원 2016).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2005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하여 강릉단오제가 지닌 긍정적 가치가 더욱 많은 지역민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한 선행연구에서 주최 단체의 운영 상황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주최 단체는 한편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축제 정책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강릉시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강릉시에 각 계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사회관계와 문화 소비 패턴은 강릉단오제 참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상술한 황루시 (2015)와 박부원 (2016)의 논문에서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지역민과 민간단체들의 축제 참여 양상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측면의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려고 한다. 하나는 민속예능의 전승을 포함한 전승 주체들의 실제한 운영 상황을 살펴볼

것이고, 다른 다하는 주최 단체와 기타 시민단체, 다양한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킨다.

2) 민속의 현대적 전승

강릉단오제는 단오라는 세시풍속, 그리고 관련된 전통의례에서 기원한 것이 특징이다(임동권 1985: 81-85, 187-194). 그러나 오늘날의 단오 풍속은 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사라졌다. 세시와 농업의 현대화가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특히 양력의 사용과 공휴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단오가 많은 지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강정원 2009; 임재해 1989).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강릉단오제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과거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단오제는 시민들의 소속감을 함양하기 위해 일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도시축제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과거 농촌의 생활리듬을 반영하던 세시풍속과 다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은 민속의 형식과 의미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현대화는 민속의 내재적 유연성으로 인하여 가능하고 전승 주체의 삶의 조건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민속의 현대적 전승에 대한 관점은 늘 긍정적이지 않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우선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속의 자의적 창출에 대해 미국 학자 리처드 도슨(Dorson 1950)은 “가짜 민속(fakelore)”이라고 논의한 바가 있다. 그의 고증에 따르면 1940 년대 당시에 미국 서부에서 유행하던 카우보이 빌(cowboy Pecos Bill) 등 인물에 관한 구비문학은 모두 최근에 작가나 광고상인들이 조작한 이야기들이다(Dorson 1964: 214-226). 따라서 가짜 민속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구비문학의 날조 현상을 비난하는 말인데 모든 민속 창출이나 변용 현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알란 던데스(Dundes 1985)는 위기 대처나 열등감 해소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영웅 서사시나 민족의 풍속을 만들어 국민 정체성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가짜 민속이라는 현상은 전통 발명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긴밀히 연관된다. 그러나 국가를 상징하는 전통과 달리, 민속은 민중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목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르게리타(Margherita) 피자 발명의 전설은 이탈리아 국가 통일에 배경을 두고

있지만 처음에는 피자 가게 주인이 만든 이야기였고 나중에 국가가 그 이야기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Nowak 2014).

전통의 발명에서 민족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민속의 창출에서도 특정한 사회문제나 역사 배경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1994 년에서 2004 년 사이에 유행했던 “빨간 모자”의 도시괴담은 일본에서 전래된 “입 찢어진 여자”를 모방한 것이지만 전승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이야기가 유행한 것은 그 당시 청소년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심리 등 사회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김종대 2005). 구비문학 등 민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출의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창출이나 변모를 모두 가짜 민속으로 규정하면 전승자의 가치 부여 과정을 간과하게 된다. 특히 변화가 빠른 도시 환경에서 민속도 전승자나 민중의 생활방식에 따라 빨리 변하기 때문에 도시전설 등 민속의 변화나 창출은 더욱 흔한 현상이다. 따라서 1960 년부터 독일 민속학을 풍미했던 포클로리즘(folklorism)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속학자들은 민속의 변모나 창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독일 학자 한스 모저(Hans Moser)가 창안한 포클로리즘의 개념은 민속이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보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Bausinger 1990: 126-127). 민속학자들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상품화 등 민속의 현대적 전승을 설명하는데 기존에 가짜 민속이라고 분류되던 것에 반영된 사회현상이나 전승자들의 가치 부여도 민속학의 연구 내용이 되었다. 특히 지역의 민속이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될 때 발생하는 변화는 민속의 전승에서 드문 일이 아닌데 보다 구체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를 살펴보아야 민속의 가치 부여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강릉단오제의 사례를 보면 1967 년 무형문화재 지정이라는 사건은 지역의 전통민속을 국가가 회망하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고 나중에 관광 상품화와 축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축제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서 원형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남근우 2006). 지역의 전통에서 기원된 축제로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전승과 변화를 만든 역학관계가 다르다. 강릉단오제는 상대적으로 원형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여타 지역축제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상품화 경향을 수용하면서 국제기구보다 국가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한양명 2008).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이와 달리 지역 축제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에서 좌절되어 아예 세계화 전략을 통해 전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의 무형문화재 원칙인 원형 보존은 글로벌한 문화상품화로 인하여 주변화된다(정수진 2009).

이들의 연구는 국가나 국제기구 등 외부의 개입과 전승자를 포함한 현지인들의 기준 수용이나 전용에 따라 변화하는 민속의 전승 양상을 다루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민속이 원래의 전승주체와 무관한 사람에 의해 전승하게 되고 기존의 상징체계도 재구성되고 있는데 이른바 탈맥락화 현상이 일어난다. 민속의 탈맥락화와 선택적 전승의 상황은 국가의 무형문화재 전승 제도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되지만(이경엽 2004)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전승주체의 이용이나 전용도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고싸움놀이 축제의 사례에서 축제를 통해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마을 전문가집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축제를 대규모 이벤트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이용하여 고싸움놀이를 칠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없는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만들고 있다(김경화 2004). 그리고 춘향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축제를 만드는 지역의 기관 단체들은 무조건 국가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제 평가나 선정 제도를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수용하고 조정하면서 국가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유목화 2015). 바꿔 말하자면 민속이 전승되는 맥락이란 국가 정치라는 한 차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지자체와 전승자, 지역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민속의 전승은 탈맥락화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맥락화의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영산줄다리기의 사례는 이러한 탈맥락화와 재맥락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한양명 2009b).

또한 민속의 전승 맥락이라고 말할 때 민속을 규정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전승자와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 예를 들어 현재의 핵심적 가치관이나 윤리 도덕, 특히 법률 제도의 강화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대규모 축제의 경우 축제 주최단체가 법인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화는 단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사항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의 변화는 민속의 전승 방식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006 년에 운영조직이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임의단체가 주최했을 때보다 민간인 전문가의 독립적,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게 되었다(이진교 2013). 따라서 법인 등록은 사실상 지역축제의 전승 주체가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으로 국가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가 법인화를 통해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축제에 정치, 경제를 포함한 국가 체계가 강력하게 개입되어 축제의 전승이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배영동 (2017)과 오창현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마을공동체 축제도 단지 지역민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이나 산업화, 시장경제의 논리 등 현대사회의 제도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그것을 재구성하거나 복원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이 민속 전승을 방해한다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강정원 (2002)은 국가를 동제 전승의 주체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민이 전통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가 민속 전승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 강릉단오제가 과거의 형태에서 오늘날의 대규모 도시축제로 발전된 과정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은 어떻고 그런 역할은 전승주체들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왜냐하면 갑오경장 이후 강릉단오굿이 단절된 것(秋葉隆 1993[1954]: 194)과 반 세기 후에 무형문화재로 복원된 것은 국가 체계의 변화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술한 연구는 민속의 현대적 전승을 국가의 전통 발명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다루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재 정책이나 축제를 관리하는 제도는 전승 주체를 통해 작동되는데 무형문화재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 때 민속 전승 외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수 있다. 특히 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는 다양한 도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전승 주체는 한편으로 국가의 축제 정책을 집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를 동원하여 지역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이때 전승 주체의 개념은 작은 규모의 무형문화재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승 주체의 개념을 도시축제 운영으로 확대하여 축제 주최 단체의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단오제 전승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국가나 지자체, 주최 단체, 전승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강릉단오제의 전통 지속과 변화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행사 주체인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축제 준비와 개최 상황이다. 그리고 강릉단오제 개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강릉시와 축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다양한 단체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다.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들도 함께 축제를 만드는 주체인데 선행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 양상과 담론을 분석하는 것도 연구 내용에 포함한다.

이러한 미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국가 제도나 지역의 민속이 반드시 행위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고 해도 지역민의 실천이 없으면 한국에서 최대의 축제로 발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강릉의 일반 시민들이 현재 다소 축제의 주최에서 유리된 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 그들의 축제 참여나 관람, 소비 행위에 지역사회의 풍속에 대한 실천이 반영되고 그런 행동이 여전히 축제 주최측이 고려하거나 이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보존회, 위원회, 강릉시, 다양한 주관 단체 등 축제의 주재집단 외에도 그것을 함께 만드는 지역민의 축제 참여와 관람, 그들과 축제 주최측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축제 주재집단의 관계자와 축제에 참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은 모두 강릉사람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강릉단오제 등 대규모 도시 축제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단오제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주재집단 구성원과 일정한 사회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도 비슷한 사회계층의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축제 주최에 나타난 계급의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령이나 종교,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따른 축제 참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술한 정은주 (1993)과

박부원 (2016) 등의 논문에서 주최 단체의 전통 발명과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은 다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다.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드워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민의 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민속의 현대적 전승을 논하고자 하지만 지속과 변화라는 시간적 범주는 강릉단오제의 기원과 변화를 기록한 문헌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을 뜻하지 않는다. 인터뷰와 참여관찰 일지 등 필드워크를 통해 수집한 자료, 그리고 단오제 주최 단체가 편찬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속축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논했듯이 강릉단오제가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재구성된 역사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기 때문에 축제 관계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구의 초점을 두기로 한다. 그리고 무당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그리고 전통의례에 대한 연구도 현지의 학자와 주최측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단오제 전통의례의 과정이나 상징체계, 그리고 전승자의 전수 및 교육 활동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⁴

상술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자는 강릉시에서 1년간(2017년 7월~2018년 7월) 필드워크를 실시하여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인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강릉시 공무원, 그리고 단오제를 관람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조사했다. 본 조사는 강릉시에서 1년 간 거주하면서 수행했으며 그 외에도 수 차례의 사전조사(2016년 5월 8일, 6월 9일, 6월 29일, 9월 2~4일, 10월 27~28일, 11월 4~5일)와 보충조사(2018년 8월 12~13일, 9월 15~17일, 12월 22일, 2019년 3월 7~8일, 3월 24~25일) 차로 강릉시를 방문하여 행사에 참가하거나 제보자를 만났다.

조사 방법은 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 문헌조사 등이 있으며 참여관찰의 내용은 강릉단오제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이 중심이고 난장 상가분양과 단오제 해설사 양성교육 등 중요한 사건도 포함된다. 그 중에 신주빚기와 대관령 산신제,

⁴ 나중의 내용에서 언급되겠지만 여러 학자와 문화재청 등 기관은 강릉단오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관하여 이미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또한 강릉단오제보존회 등 단체가 편찬한 『강릉단오굿 양중연구』(2014), 『강릉단오제 제례 전수교육 교본』(2017) 등 연고총서와 강릉단오제 보존회원들이 작성한 여러 학위논문에도 단오제의 의례와 전승자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국사성황제 등 전통의례 및 준비 과정, 그리고 난장 상가분양 등 사건을 관찰했으며 2018 강릉단오제 본행사 기간에 중국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했다.

상술한 방법으로 조사된 내용은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치중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위원회가 축제 개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환경에서 고정된 참여관찰 집단이나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주로 강릉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7 년 1 월에 한 차례의 사전조사를 제외하고는 마을에서 조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제보자들이 평소에 활동하는 장소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규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단오제위원회 사무실이었다. 위원회 관계자의 협조와 허락을 구한 후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자료실에서 자료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직장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빈번한 방문은 그들의 일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하여 방문의 빈도를 위원회 사무실의 업무 패턴에 따라 조절해야 했으며 2017 년 11 월부터 한가할 때 주 1 회에서 3 회 정도 방문했으며 2018 년 1 월부터 위원회 사무실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방문 횟수를 주 1 회에서 2 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였다. 5 월부터 단오제가 끝날 때까지는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강릉단오제보존회 사무실에 대한 방문의 빈도는 더욱 낮았으며 그것은 상술한 위원회의 일상 업무 방해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이고 보존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이유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술한 두 단체에 대한 방문이나 관찰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기업인류학에 해당하며 그들의 단체에 대한 접근권(access)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접근을 허락받은 후에도 직원들의 일상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오제위원회나 보존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해서 예약해야 했으며 방문할 때 임의로 관계자들과 대화하지 못했다. 단오제 전통의례나 정기 공연에 대한 관찰도 관객의 행동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했다. 따라서 단오제 주최 단체에 대해 밀도 있게 조사하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강릉시에서 일년 간 거주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현지인과 사교를 시도했다. 주로 단오제 행사나 기타 기회를 통해 만난 시민과 그들의 사회관계망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는 일본의 도시축제를 조사한 베스트(Bestor 2010)가 사용한 네트워크 따르기(following networks)이며 그런 방법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강릉단오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민들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켜 연구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다양한 시민의 단오제 참여를 살펴보는 데에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필드워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이다. 연구자는 주최 단체의 행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축제 참여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부족하다. 두 번째 한계는 다양한 시민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부족한 문제이다. 외부인으로서 연구자는 단오제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축제와 무관한 사람을 접근하는 것은 도시 환경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늘 실패했다. 도시민의 공동체 생활에 동참하여 라포를 형성하고자 했지만 연령, 성별, 외국인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쉽지 않다. 연구자가 강릉시에서 자주 만나던 시민은 주로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연구자가 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과 고객들인데, 그들의 단오제 참여는 본문에서 제시되듯이 매우 제한된 것이다.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가 제공한 답이 짧거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연구자는 현지인처럼 강릉시에서 거주하면서 단오제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런 조사 방법으로 인하여 단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도시민의 단합을 추구하는 지역축제의 정책이 실제 상황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강릉단오제의 지속에 대한 주최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

주최 단체 중에서 보존회원이 축제의 핵심을 전승하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연구자는 공연 관람 등 기회를 이용하여 관노가면극부와 제례부(祭禮部)의 보존회원과 접촉해 보았다. 이에 비해 무격부(巫覡部) 회원을 조사하는 기회가 없었다. 무당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은 만큼 그들에 쏟아진 학계의 관심이 이미

많은 편이라 외국인 연구자가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또한 평소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보존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무격부 회원이 가장 바빴다.

축제 참여에 있어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신분은 중국어 해설사였다. 2018 년 강릉단오제를 준비하는 동안 연구자는 해설사 양성교육에 참가하면서 기타 해설사를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정기공연에 대한 수 차례의 관찰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강릉시에 있는 노인회관 다섯 군데를 방문하여 중요한 인터뷰 자료를 얻었다.

연구자는 주로 상술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으로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요제보자를 모집했다. 첫째,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와 그들의 지인들을 만났다. 둘째, 강릉단오제보존회의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보존회원과 기타 관계자를 만났다. 셋째,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을 접촉하여 그들의 사회관계망에 들어갔다. 넷째, 강릉에서 거주하던 집의 주인과 그의 가족의 소개를 통해 현지인을 만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주요제보자들은 크게 보면 단오제에 관련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외에 무작위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 헬스장, 노인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현지인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 논문에 언급된 제보자들은 모두가 명의로 처리하고 인터뷰를 인용하거나 사례를 언급한 주요제보자들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다.

해방 후 강릉단오제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도 진행했다. 주로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강릉문화원 등 기관의 회의자료와 모니터링 보고서, 홍보책자, 동영상 등을 단오제의 역사 변천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와 소식지 『수릿날, 강릉』 등 내부 자료와 강릉단오제보존회가 편찬한 『연구총서』 I, II 등 공개적으로 발행한 자료, 강릉시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백서』 등 비공개 발행 자료 등도 상세한 역사기록을 제공했다. 본 연구는 강릉단오제의 개최에 관한 현대 민족지로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상술한 데이터와 여러 학자들의 논저를 함께 참고하여 작성한 결과물이다.

순번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1	이동준	남	60	대학원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2	김상훈	남	46	대학	강릉단오제 해설사
3	박영자	여	58	고등학교	게스트하우스 주인
4	최한별	여	31	대학	자유직업
5	김영희	여	30	대학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6	이세훈	남	43	대학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7	이명준	남	80	중학교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8	장병훈	남	45	대학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9	정희철	남	71	고등학교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10	황찬희	남	58	대학원	강릉사진작가협회 관계자
11	이성민	남	55	대학원	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12	박병호	남	56	대학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13	이옥미	여	56	대학원	학원 원장
14	이영표	남	62	대학	강릉시 전직 공무원
15	함태호	남	61	대학	강릉시 공무원
16	송영희	여	69	대학원	관동대 전직 교수
17	최진학	남	43	대학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18	이창수	남	60	대학원	강릉시 공무원
19	장희진	여	44	대학	강릉단오제 해설사 양성교육 강사
20	박민수	남	58	대학원	학원 운영자
21	최창민	남	53	대학	부동산 업자
22	최재민	남	39	대학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23	이슬기	여	32	대학	미술학원 원장
24	이단비	여	29	대학	미술학원 장사
25	정진우	남	35	대학	식당 주인
26	홍아름	여	32	대학	미술 강사

4 논문구성

상술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연구 질문을 해답한 내용은 아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II 장은 강릉단오제의 주재집단, 즉 주최와 주관, 후원, 협찬의 상황과 그것이 형성된 역사를 분석한 내용이며 그들의 단오제 주최에 지역 전통을 실천하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부와 기관, 단체들이 협력하면서 민간주도형의 행사를 만드는 현상을 논의해 보겠다. 민간단체가 행사의 운영을 주도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유연한 축제 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도 분석할 것이다.

III 장은 민속의 재맥락화 시각에서 강릉단오제가 전승되는 새로운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축제의 핵심요소인 전통의례에 초점을 맞추어 축제 산업화와 문화재 관리 제도 등 현대사회의 규범화된 질서가 단오제에 개입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는 지역의 민속을 국가의 문화(재)로 편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되어 축제의 전승이나 운영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승자들이 실천하는 법률 제도와 윤리 도덕 등 현대 국민국가의 체계의 영향에서 단오제의 현대적 변용을 분석해 보겠다.

IV 장은 위의 논의를 이어 도시의 “문화”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의 양상을 서술하여 지역의 민속이 현대사회의 제도와 윤리 등에 의해 변형되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맥락에서 전통을 지속하기 위해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끔 축제의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요소의 상품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기관 단체도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행동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재와 그것의 전승자를 핵심에서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연구자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런 의도치 못한 결과도 함께 기술할 것이다.

V 장은 현재 다양한 강릉시민의 축제 참여와 민속 실천 양상을 살펴보겠다. 강릉시의 인구는 사회적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200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욱 많은 시민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계층이나 종교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지역 문화를 만든다는 대의명분 하에 단오제 주최 단체와 타협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단오제 행사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사회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축제 관람이나 소비를 통해 지역민 정체성을 구축하고 강릉시의 새로운 단오풍속을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다.

II 주재집단과 전통 지속

축제의 주재집단(organizers)은 그것을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를 주로 가리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축제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 단체도 주재집단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우선 강릉단오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지자체를 비롯한 한국의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8일간 수백 개의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난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상인, 기업체들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 본장에서는 단오제 개최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을 살펴볼 것이다.

강릉단오제를 만드는 단체들은 행사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 보통 주최와 주관, 후원으로 나누어진다. 주최는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에 책임을 지는 단체를 말하며, 주관은 축제의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후원은 축제에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기업체나 기관, 단체 등을 가리키는데 보통 축제의 주최측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은 업체들이다. 또한 강릉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단오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강릉시는 주최측에게 중요한 후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담론과 달리, 이 축제는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이나 운영의 원칙에 있어서도 지역민의 자발성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축제라기보다 전문 단체의 운영과 계획적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축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주최측과 주관하는 단체들의 의도적 행동은 축제의 성공개최에 필수조건이다.

1 주재집단

1) 주최

(1) 연혁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강릉단오제”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 두 단체의 공식사이트가 나온다. 이 둘은 강릉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다. 한국에서 지역축제는 보통 주최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강릉단오제의 주최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집단들이 지역축제의 개최에 관여하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정은주(1993: 55-68)는 강릉단오제를 운영하는 단체가 3 개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주최자, 강릉문화원은 주관자,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연회자로 표현되는데 현재의 강릉단오제의 양상은 이와 다르다.

주최자인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990 년대에 강릉문화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강릉단오제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 운영은 문화원에서 맡고 있었다. 당시 강릉문화원 원장이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담당했고 강릉단오제를 운영하는 인력도 강릉문화원 사무실의 직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은주는 강릉문화원을 “주관자”로 표현했는데 이는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말로서 현재의 의미와 다르다.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로, 강릉단오제의 주관은 세부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는 강릉문화원을 포함한 수많은 단체나 업체들이다. 그 다음에 강릉단오제보존회를 연행(performance), 특히 전통문화 행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현재 강릉단오제보존회가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표현이 달라졌다. 현재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축제의 주최자로 표현된다. 당시 축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강릉문화원은 현재 투호대회와 단오차체험 두 가지 행사를 주관한다. 이것은 “주관자”의 의미와 다르다.

현재 강릉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는 위원회와 보존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의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지정문화재 행사가 축제에서 가진 비중과 그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관여가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를 만든 필요조건이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축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강릉단오제의 주최를 놓고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개입하고 그들 간에 협업이나 갈등이 일어난 결과 현재와 같은 강릉단오제의 이중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축제의 주관자였던 강릉문화원은 해방 후 재구성된 강릉단오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주관하는 첫 번째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릉단오제는 갑오개혁 때부터 중단되었지만(秋葉隆 1993[1954]: 194)

중앙시장 상인이 무당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단오굿의 전승을 도와 주었고 성남동 주민단체가 개최하는 “단양운동회”가 있었다(남근우 2006; 황루시 2006). 그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실상 갑오개혁 이후,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원래 강릉단오제를 주도했던 조선시대의 향리 계층이 주최집단에서 물러나고 상인을 비롯한 강릉시민들이 주최를 하게 되었다. 그때 강릉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로는 단양대회 중앙시장 상인의 모임과 성남동 부락번영회, 단양대회위원회 등이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단오제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조직은 1920~60년대 사이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면서부터 강릉단오제의 주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대부터 단오제 일을 해 온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의 진술에 의하면 강릉단오제는 1960년까지 특정한 주최없이 했다가 5.16 이후 강릉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이상혁이라는 강릉시장이 퇴임하고 강릉문화원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강릉단오제의 주최가 시에서 문화원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강릉문화원 안에 구성되었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도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⁵ 이상의 자료로 미루어볼 때 강릉단오제위원회라는 조직은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구성되었다가 1973년 경부터 정식으로 나타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볼 수 있는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는 197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강릉문화원이 그 전의 다른 단체로부터 행사 운영을 인수인계 받는 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73~1976 사이는 강릉단오제의 주최에 있어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지정문화재 행사를 담당하는 단체인 강릉단오제보존회도 1967년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⁶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단오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정돈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시기도 늦었다. 1967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전승자들은 조직화된 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로 활동했다. 그후 1986년에

⁵ 1967. 01. 16 무형문화재 제 13 호 강릉단오제 지정

1973 강릉문화원 內 강릉단오제 행사팀 구성

1973 ~ 1983 초대 위원장 이상혁

강릉단오제위원회 페이지 주소: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13>

⁶ 1967. 01. 16 국가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제 13 호 지정

강릉단오제보존회 페이지 주소: http://danoje.or.kr/web/sub1/1_sub2.html?Table=1_sub2

품에 한해서도 간혹문과 참조지 제기가 되도록 한다.

3. 형사기본 재판

가	형 사 명	:	판 결 관 조 제
나	참 조	:	직권판결판결장 및 합의전 특수법
다	기 관	:	PP 6.19 ~ 23 (5월간)
라	수 피	:	중복판조지 개정의
마	주 안	:	상 불 문 특 제
바	<u>부 호</u>	:	신(하)공무부 내부예출건통제 감청도 공문서 경수단 제출 공문서류



단오제보존회가 상대적으로 늦게 조직화된 것은 그 당시 이런 행사의 전승에서 발생한 문제와 보존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과 연관된다.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책임지는 단오제위원회와 달리, 단오제보존회는 유교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 등 지정문화재 행사만 연행한다. 그중에서 단오굿과 관노가면극은 문화재 지정 그 당시에 전승하는 전문 단체가 없었다. 1960년대 문화재 지정 당시에 강릉단오굿은 현재처럼 세습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선택된 사람이 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 필요한 무속에 관한 자료는 경상도에서 온 무당에게 얻은 것이었다(정은주 1993: 32-33). 또한 관노가면극도 노비들이

29

없어지자 전승자가 일반 시민이나 학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공연팀마다 탈과 춤사위 등이 다르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은 임동권 교수가 김동하와 차형원 두 노인을 찾아서 인터뷰한 내용에 의해 복원한 것이다.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주로 강릉여고, 관동대학 등 학교의 학생에 의해 전승되고 있었는데 1980 년대에야 유천동 주민들이 보존회 팀을 만들었다(장정룡 2003: 101-112). 따라서 1990 년대 이전의 결산보고서에 기록된 단체는 강릉단오제보존회가 아니라 제례와 굿을 연행하는 “제전부(祭典部)”와 관노가면극부였다.⁸

다른 한편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강릉단오제보존회는 형식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오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강릉문화원 안에서 활동했고 문화원 관계자들이 보존회 일도 함께 했다. 그런 역사에 대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여러 관계자들이 “문화원 시절”이나 “문화원에 있을 때”로 표현한다. 그들의 진술에서도 2007 년 전에 강릉단오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강릉문화원이었다. 명의상의 주최자인 강릉단오제위원회와 지정문화재 행사를 맡은 “연희자”인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릉문화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강릉단오제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원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 부담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 단오제 주최를 놓고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원 간의 의견 충돌도 많아졌다. 여러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아래에 인용된 자료를 통해 1999 년 7 월경에 강릉단오제의 주관을 놓고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원, 그리고 기타 외부 기관들이 논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3. 21 세기 강릉단오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릉단오제는 지난 73 년부터 강릉문화원이 주관하여 99 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문화원은 단오제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정열을 쏟아 부었으며, 그 결과 강릉단오제를 전국 최대 · 최고의 축제로 발전시켰고, 이는 각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⁸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강릉문화원이 편찬한 『강릉단오제 백서』 등 자료 참조.

그러나 지난 7월 10~12일 보도된 사항은 지금껏 그 누구 보다 강릉단오제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한 우리 위원회와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허탈하고 심심할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의 요지는 “강릉문화원은 단오제를 주관하는데 한계에 다다랐으므로 더 이상 단오제를 이끄는 것이 무리여서 시에서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단오제를 주관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또한 단오제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나, 새로운 조직을 전제로 한 세미나의 개최 발언 등은 그간의 단오제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간 변변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한 단오제위원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이 같은 보도 내지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1999,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총평 내용 발췌

위에서 인용된 내용을 보면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문화원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강릉단오제의 실질적 운영권을 다른 전담기구에 맡기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원회와 문화원은 이것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비슷한 시기의 신문 보도를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절충안”을 제기했다고 한다. 즉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를 단오제보존회에 맡기고 나머지 행사를 강릉시가 운영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절충방안은 강릉문화원이 완전히 단오제의 운영에서 물러나라는 외부의 의견과 강릉문화원이 계속 단오제를 운영하겠다는 문화원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이었다.⁹ 그 당시 문화원 직원이 단오제위원회 일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단오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즉 단오제 업무를 보는 문화원 직원들은 문화원이 운영권을 내놓는 것을 반대했고,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는 위원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늦어도 1999년부터는 강릉문화원이 단오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과 단오제를 운영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⁹ 『강원도민일보』, 1999년 7월 28일 보도. 제목: 강릉단오제 주관싸고 ‘힘겨루기’.

위원회에 비해 단오제보존회는 전반적인 축제 운영에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요구는 위원회보다 약했고 계속 문화원과 같이 활동했다. 위에서 인용한 결산보고서 내용과 신문 보도에서는 단오제보존회를 “강릉문화원 산하”의 기관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보존회가 위원회보다 늦게 독립한 것은 문화원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된 후에도 위원회와 달리 강릉문화원과 보존회는 계속 가까운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 2월까지 강릉문화원 사무국장이 단오제보존회의 사무국장을 겸임했으며 현재의 단오제보존회 사무국장은 그 당시 겸임 국장 밑에서 실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2017년 2월에 국장으로 승진했다. 연구자가 처음에 사무국장을 만난 것은 2017년 1월 강릉문화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강릉문화원 사무국장을 만나서 강릉단오제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고자 했는데 마침 보존회 사무실장도 문화원에 일을 보러 왔다. 따라서 문화원 사무국장의 소개로 보존회의 사무실장을 만났다. 두 사람은 전부터 강릉문화원에서 같이 일했고 단오제보존회 제례부의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일이 많았다. 사실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하는 단체로서 단오제보존회와 강릉문화원은 평소에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강릉단오제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전신은 문화원 시절 이전부터 있었다. 단오굿과 관노가면극의 전승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유교제례부의 전승 상황은 나은 편이었다. 강릉단오제의 핵심요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유교제례는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현지의 공무원이나 상인, 기업인 등 소위 지역의 유지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1960년대부터 강릉단오제 주최의 이중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임동권 (1971: 222)의 서술에 따르면 1966년 강릉단오제는 지역축제로서의 단양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와 핵심요소인 대관령국사성황제를 주최하는 단체가 따로 있었다. 전자는 전통의례를 계기로 개최되는 그네대회, 씨름대회, 체육대회 등을 주관하는 집행부서(執行部署)였으며 집행위원장이 강릉시장이었다. 그 외에 전통의례를 연행하는 “대관령국사성황유지회”라는 단체가 있었으며 역시 회장과 부회장, 총무와 유사 두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물론 대관령국사성황제가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¹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헌관의 신분이다. 임동권의 기술에 따르면 그해 성황제의 초헌관(初獻官)은 강릉시장이고, 아(亞)헌관은 명주군수이며 종(終)헌관은 강릉경찰서장이었다. 강릉단오제의 유교제례가 그런 기호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당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아 별도로 치르게 되고 주관 단체도 따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강릉단오제의 개최에 다양한 힘이 개입되었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읍치성황제의 주재집단이 향리에서 시장상인으로 이전되며 1930 년대에 새로 생긴 “단양대회”를 운영하는 단체와 함께 오늘날의 강릉단오제의 전신이 생겼다. 늦어도 그때부터 오늘날의 강릉단오제의 이중적 구조, 즉 제의 중심의 민속축제와 오락 중심의 도시축제가 형성되었다. 무형문화재 지정은 단지 그때 있었던 이중적 구조를 합법화한 것이며 그런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축제의 이중적 주체가 형성된 것이다. 즉 지정문화재 행사는 단오제보존회에서 운영하고 도시축제의 기획과 운영, 특히 지정문화재 행사 이외의 기타 프로그램은 단오제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이들은 모두 축제의 주체로 자리잡았다.

두 단체가 실질적으로 축제의 운영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강릉문화원에서 독립될 때부터였다. 2005 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강릉단오제의 위상이 한 단계 위로 제고되고 축제의 규모도 점점 커져서 별도의 운영단체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 맥락에서 2006 년 3 월부터 단오제위원회가 먼저 강릉문화원에서 나와 단오문화관(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이층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2007 년 1 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정식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했다.¹¹ 강릉단오제보존회도 위원회의 뒤를 이어 2006 년 6 월경에 단오문화관 1 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2007 년 3 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강릉단오제를

¹⁰ 이규대(1998)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부터 강릉의 호장(戶長)을 비롯한 향리층이 신불성향과 전통계승 의식이 강해지면서 불교계통의 범일국사를 강릉 읍치성황제의 주신으로 설정했다. 그때부터 국사성황제가 강릉 읍치성황제에서 핵심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상류층에서 상징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¹¹ 자료출처: 강릉단오제위원회 공식사이트. 페이지 주소: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13>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단체가 되었다.¹²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단체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에 있지만 입구가 서로 다르다. 위원회 사무실은 전수교육관 입구를 이용하여 2 층에 올라가야 하며 보존회 사무실은 건물 서쪽 편 1 층의 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공간적 배치는 두 단체가 각자 독립하여 사무실을 구하면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림 1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사무실 위치

(2) 업무 분야 및 역할 분담

위에서 논의했듯이 강릉단오제의 두 주최 단체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역할을 했고 단오제의 운영 주체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후에도 서로의 독립적인 역할을 유지하려고 했다. 두 단체는 강릉단오제를 공동 주최하는 협업자의 관계지만 문화원에서 독립되면서부터 각자의 사무실과 전문인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실체로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단오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단체는 문화원에 있을 때 사이가 더 좋았고, 오히려 지금은 서로 간에 알력이 생겼다.

“단오제보존회 위원회라고 있었어. 원래 문화원 안에 있었어. 문화원장 밑에

¹² 자료 출처: 강릉단오제보존회

웹페이지(http://danoje.or.kr/web/sub1/1_sub2.html?Table=1_sub2) 및 『수릿날, 강릉』 제 2 호, 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등 제보자의 인터뷰.

위원회, 보존회. 근데 이걸 유네스코 등록하면서 별도로 갈라졌지. 갈라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서로 알력이 생기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회의록에 다 있어. 그래 가지고 막상 되고 나니까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자기 이해 관계가 있으면 그걸 안 하거든. 따라서 문제가 생겼잖아.”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

“제가 생각했을 때 단오제가 문화원 안에 있을 때 단체 간의 알력이 없었고 좋았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2006 년에 위원회와 보존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됐어요.”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관계자들이 연구자에게 두 단체의 관계를 말한 적도 있지만 함태호와 이창수의 시각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함태호는 2008 년에서 2010 년 사이에 강릉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에서 근무했고 이창수는 1996 년부터 15 년 간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과거 단오제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에 기초하여 위원회와 보존회 간의 협력보다 갈등이나 마찰 등에 더 예민하다. 공무원의 관점이 그렇지만 위원회와 보존회는 사실상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조나 협력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강릉단오제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두 단체 간의 협력이 성공에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따라 주역과 조역의 역할을 바꾸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정문화재 행사를 연행할 때 보존회가 주역이고 위원회가 조역이며 기타 경축행사를 운영할 때 위원회가 주역이 된다. 예를 들어 2018 강릉단오제 때 보존회와 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신주빚기(2018.5.19)	산신제·성황제(2018.5.29)	본행사(2018.6.14-21)
강릉단오제 보존회	제물 및 장소 준비, 의례 연행, 현장질서 유지	제물 및 장소 준비, 의례 연행, 현장질서 유지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영신제, 송신제 주관
강릉단오제 위원회	신주미 봉정 및 시민체험 행사 진행	수송버스 제공, 신주와 떡 제공	신통대길 길놀이, 기획공연,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민속놀이 행사, 경축문화예술행사, 부대행사
--	--	--	--

표 1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업무 분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존회는 주로 지정문화재 행사를 주관하고 나머지 단오제의 행사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도시축제이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의 별도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자의 업무 분야 간에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신제·성황제 현장에서 보존회 관계자들이 행사를 관람하는 시민에게 신주(神酒)와 떡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준비한 단체는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매년 신주비 봉정 행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산신제·성황제에 시민 수송 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신주빚기 행사는 보존회원들이 주역으로 연행하는 의례가 핵심이지만 부대행사인 시민체험이 있었다. 이 행사는 단오제위원회가 기타 업체의 대행을 통해 주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신주빚기 행사 때도 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도와 주었다. 위원회 직원의 말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행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회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고 부대행사나 시민 섭외 등 활동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맡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위원회와 보존회는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오제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다. 정리해 보자면 보존회는 지정문화재 행사의 보존과 교육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도시축제 운영을 하는 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 → 지정문화재 → 작은 범위에서 운영

강릉단오제위원회 → 도시 축제 → 큰 범위에서 운영

이런 성격은 2018 동계올림픽에서 두 단체의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강릉시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의 개최도시로서 대회를 앞두고 기념행사인 G-2, G-1 페스티벌을 열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두 번의 행사에 모두 참여했고

특히 2017 년의 G-1 페스티벌에서 “단오”라는 키워드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는데 강릉단오제위원회 상임이사가 축제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사무실 직원 3 명이 기획운영팀장과 공연 1 팀, 무대감독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¹³ 2018 년 2 월 6 일부터 시작된 “문화올림픽” 행사에서도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축제를 운영하는 경험이 가장 풍부한 단체로서 “길위의 신명 IN 월화거리”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았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올림픽”의 중요한 부분으로 2018 년 2 월에 강릉시 구시가지에서 개최되었다. 2017 년 12 월 중 강릉시 올림픽추진단의 공무원이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원, 강릉예총, 강릉농악보존회 등 “강릉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책임자들과 회의를 하여 문화올림픽에서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상임이사는 “강릉단오제 때 신통대길 길놀이를 펼친 것을 바탕으로 강릉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참여해 공연과 체험 놀이를 하나로 풀어내 길 위의 실명을 펼쳐낼 것”이라고 했다.¹⁴ 그리고 이 행사의 내용은 많은 부분 강릉단오제와 유사했다.

행사명	행사내용	강릉단오제 행사내용 비교
웹캠강릉 길놀이	강릉시 21 개 읍면동의 스토리를 활용한 길놀이	신통대길 길놀이
공연	대한민국 전통연희단 공연 강릉시 자매도시, 위원회 교류 축제 조직위원회 초청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거리공연 노래, 악기, 무용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 K-pop 을 기반으로 한 방송댄스, 문화댄스를 활용한 거리공연 캐릭터 코스프레를 활용한 거리공연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기획공연
전시	강릉단오제 홍보영상 상영 강릉단오제 사진 전시 강릉단오제 포토존	경축문화예술행사-깃발사진전

¹³ 강원도민일보, 2018 『하나된 열정, 감동의 순간-2018 평창동계올림픽 화보집』, p.201.

¹⁴ 강릉시, 2017, 『술향강릉』 겨울호, p.31.

체험	웰컴강릉 단오수리취떡 맛보기 체험 웰컴강릉 단오신주 맛보기 체험 웰컴강릉 엽서 보내기 체험 웰컴강릉 월화거리 뱃지 만들기 체험 웰컴강릉 민속놀이 체험	사리취떡 맛보다 단오신주 맛보기 단오부채 그리기 관노탈그리기 단오캐릭터 탁본하기 오륜주머니 체험 단오등 만들기
라이브 사이트	주요경기 중계 및 시민들의 열띤 응원의 장	수리마당에서 월드컵 한국 VS 스웨덴(6.18)

표 2 “길위의 신명In 월화거리” 행사와 강릉단오제 내용 비교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8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개최한 “길위의 신명” 행사는 강릉단오제의 본 행사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길놀이의 내용은 21 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것으로 복장이나 스토리 등 측면에서 신통대길 길놀이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 행사의 참여를 통해 도시축제를 운영하는 전문단체로서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동계올림픽에서 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예를 들어 그 당시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서 “1 시·군 1 대표 문화예술공연지원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강릉시에서 만든 공연 프로그램은 “단오향”이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과 출연자들은 모두 강릉단오제보존회 회원들이고 공연 내용도 단오 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을 노래와 음악 등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무대화한 공연이다. 그 외에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보존회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 회원들은 약 20 번의 공연을 했고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 기타 용역업체의 섭외를 통해 갔다고 한다. 위원회가 운영한 “길위의 신명” 행사에도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의 공연이 있었다. 이런 상황은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다른 성격을 보여주며 그들이 강릉단오제 주최에서 담당하는 다른 역할도 시사하고 있다.

성격과 업무 분야가 서로 다른 두 단체는 강릉단오제 행사나 기타 행사에 협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와 보존회가 같이 만든 “굿 with Us” 라는 공연이 있는데 위원회가 기획하고 보존회 무격부 회원들이 출연한 무대작품이다. 이 공연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오굿을 현대식으로 무대화한 작품으로,

보존회의 입장에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는 같은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업무 분야의 연관성과 사무실의 근접성은 물론 중요한 이유이지만 양쪽 관계자 간의 사교 행위도 필요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와 보존회, 그리고 전수교육회관 관리사무실 직원 중에 젊은 사람들은 종종 퇴근 후에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며 근무 시간에 서로의 사무실을 들를 때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마찰이 일어날 때도 있다. <사진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단체가 행사 때 사용하는 단오제 캐릭터는 서로 다르다. 위원회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로 통일해서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존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각자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으며 전통의 보존과 변화에 있어서도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두 단체의 의견의 충돌은 사실 같은 분야에 대한 각자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주최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도 두 단체의 해석이 다르다. 바꿔 말하자면 양쪽에서 모두 공동 주최라는 국면을 인정하지만 누가 더 중요한지는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그들이 만든 홍보책자에 나타나는데 위원회가 만든 단오제 팸플렛에는 “위원회, 보존회”의 순서로 되어 있고 보존회가 만든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에서는 주최가 “보존회, 위원회”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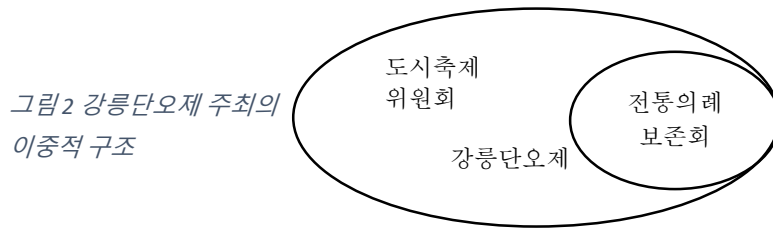
<사진 4>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가 각자가 제작한 홍보책자에 자기 단체의 이름을 앞에 두는데 이런 순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각자가 단오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자면 첫째, 축제 공간과 시간의 차이와 둘째, 후원의 차이에 있다. 우선 강릉단오제위원회의 팸플렛에 나타난 축제의 기간은 8일간의 본행사 시간이고 장소도 본행사 장소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단오제보존회가 제작한 팸플렛에는 신주빚기 때부터 시작되는 단오제 전통의례의 시간과 장소가 나타난다.



사진4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팜플렛

강릉에서 만난 시민들은 단오제의 성격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단오제가 전통의례나 도시축제로 표현되는 담론이 있다. 상술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 담론에 나타난 단오제의 이중적인 성격은 주최의 이중적인 구조와 연관된다. 전부터 축제의 핵심과 부대행사를 운영하는 단체가 따로 있었으며 현재 두 단체의 독립과 법인화에 따라 이중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후원에 나타난 차이도 이런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시축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관람객들을 섭외한다. 그러나 보존회는 민속을 전승하는 단체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더 많이 접촉하는 편이다. 따라서 보존회의 팜플렛에 문체부와 문화재청 이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구체적 담당부서의 이름이 나온다. 그들이 위원회보다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일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두 단체의 성격은 이렇듯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각자가 맡은 분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의 관계를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010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직원 김영희는 단오제 두 주최 단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친하나고 물어보면은 약간 한국과 일본 같은 관계? 나쁜 의미가 아니고 되게 가까운 듯하면서도 서로 오해할 일도 많고 조심해야 될 일도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단오라는 똑같은 걸 하는 거니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다른 회사이다 보니까 어찌니 업무하는 방식이나 생각도 많이 다르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김영희)

김영희의 진술은 단오제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즉 같은 회사/단체 내부에서도 분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사의 결정을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두 단체 간의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회 관계자가 보는 위원회와 보존회의 관계는 이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임 단오제위원회 위원장은 보존회 제례부 성원이고 보존회 회장도 역임했다. 또한 현재 단오제위원회의 정관에 보존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보존회 성원 3 명이 단오제위원회의 당연직 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인사 측면에서의 중복으로 인하여 위원회와 보존회는 적어도 의사결정에서 양쪽의 의견 격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다. 또한 보존회와 위원회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 외의 사교활동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인적 교류는 강릉단오제를 서로의 경쟁 내용이 아니라 공동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2) 주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릉단오제의 이중적 성격은 주최의 이중적 구조에서도 반영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핵심은 물론 유교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으로 구성된 지정문화재 행사이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 단체는 단오제보존회이다. 그러나 위원회나 보존회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보존회를 주관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최로 표현한다. 이는 보존회가 연행하는 전통의례가 가진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연구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분류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도시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나 조직을 가리키는 말이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매년 나오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단체들을 각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한국 최대의 지역축제로 본행사의 기간만 해도 8 일이다. 본행사 기간에 대규모 난장에 수백명의 상인이 전국 각지에서 오고 수리마당, 아리마당,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을 비롯한 공연장, 체험촌에서도 수 백개의 프로그램이 연출된다. 2018 강릉단오제는 14 개 분야 72 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팜플렛과 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해 주관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항목	분야	수	상세프로그램	주관
1	지정문화재행사	12	①신주빔기,②대관령산신제, ③국사성황제,④구산서낭제, ⑤학산서낭제,⑥봉안제, ⑦영신제,⑧영신행차, ⑨조전제,⑩단오굿, ⑪관노가면극,⑫송신제·소제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불교청년회
2	기획공연	2	①가족뮤지컬 다노다노 ②년버벌 발레, 춤추는 호랑이	사)강릉단오제위원회
3	인류무형문화유산창작공연	3	①춤, 단오 그리고 신명 -“굿 with Us” ②강릉아리랑 소리극 - 울어머이 왕산덕 ③아리랑, 대중민요에서 대중가요로 이어지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4	전통연희한마당	4	①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②무형문화재 초청공연 ③지역무형문화재 공연 ④전통혼례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성균관 여성유도회

5	무대공연예술제	3	①무대공연예술작품 선정작 ②국내예술단 초청공연 ③골드페스티벌	사)강릉단오제위원회
6	경연대회 페스티벌	6	①제 37 회 KBS 농악경연대회 ②제 24 회 전국사물놀이(무속악)경연대회 ③제 25 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④제 51 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⑤제 6 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솔향아리랑제> ⑥제 2 회 전국한국무용대회	KBS 강릉방송국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원일보 사)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강릉지부 사)강원민요연구회 사)강릉예총 &사)한국무용협회 강릉지부
7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4	①제 22 회 청소년가요제 ②2018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③ 청소년 단오마당 D.Y.F ④블링블링 강릉단오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사)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사)강릉단오제위원회
8	국외초청공연	1	①국외초청공연	사)강릉단오제위원회
9	단오제 체험존	13	①수리취떡 맛보기 ②단오신주 맛보기 ③창포머리감기 ④단오부채 그리기 ⑤단오빔 체험 ⑥관노탈그리기, 목걸이만들기 ⑦단오캐릭터 탁본하기 ⑧단오차 체험 ⑨단오등 만들기 ⑩단오컬러링 체험 ⑪신주교환 ⑫강릉단오제패션타투 ⑬단오캐릭터 나무소품컬러링	배다리회 오죽헌시립박물관문화교실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단오부채연구회 강릉적십자 햇살봉사회 적십자 강릉지구협의회 관동대 금석문연구회 강릉문화원 한송정다도회 강릉문화의집 고임돌봉사회 경포회 월드아트 자작나무
10	시민참여행사	4	①신주미봉정행사 ②신주빚기 체험행사 ③단오소원등 행사 ④주민자치센터 스마일한마당	사)강릉단오제위원회 파랑달
11	신통대 길길놀이	1	①신통대길 길놀이	사)강릉단오제위원회

12	민속놀이	5	①씨름대회 ②그네대회 ③투호대회 ④줄다리기대회 ⑤웃놀이대회	강릉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강릉문화원 임영문화재보호회 라이온스클럽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13	경축행사	6	①대한민국 전통주 선발대회 ②단오깃발사진전 ③학생미술실기대회 ④제일고·중앙고 축구정기전 ⑤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대회 ⑥단오사진촬영회	강원도민일보사 사)임영민속연구회 사)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강릉제일고 총동창회 강릉문인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14	부대행사	8	①다문화체험촌 ②한청실버가요제 ③팍투어 ④불꽃놀이 ⑤경품추첨행사 ⑥오륜주머니던지기 ⑦외국인단오체험 ⑧강릉단오제캐릭터체험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 강릉시지회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여성포럼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위원회

표 3 2018 강릉단오제 행사 및 주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8 년 강릉단오제를 구성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양한 단체들이 주관했다. 이 다양한 단체들을 짧은 기간 동안 모두 방문할 수 없었으나 현지인의 인터뷰나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 주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KBS 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현지의 시민단체나 현지에 지부를 둔 자원봉사단체들이다. 둘째, 시민단체 중에서 임영민속연구회, 사진작가협회 등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많다. 셋째, 강릉여성포럼이나 배다리회, 한송정다도회 등 여성단체들이 많다.

상술한 세 가지 특징 이외에도 단체의 구성 원리에 따라 <표 4>와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변단체	강릉문화의집,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현지업체	KBS 강릉방송국, 강원일보사, 강원도민일보사, 월드아트(공방),

	자작나무(공방), 파랑달(여행사),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강릉문화원 임영문화재보호회, 강릉문화원 한송정다도회, 강릉여성포럼, 경포회, 배다리회, 성균관 여성유도회,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교실
	청소년단체	강릉불교청년회, 강릉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청소년회, 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 강릉시지회,
	지역복지 봉사단체	고임돌 봉사단체
	전국 자원봉사단체 강릉지부	라이온스클럽, 강릉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적십자 강릉지구협의회, 적십자 햇살봉사회
직능인단체	강릉예총,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한국무용협회 강릉지부,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동호인단체	가톨릭관동대 금석문연구회, 강릉문인협회, 강원민요연구회, 단오부채연구회, 임영민속연구회,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강릉지부	
학연집단	강릉제일고 총동창회	

표 4 2018 강릉단오제 주관단체 분류

강릉단오제의 행사 내용은 기획공연이나 전통연희한마당 등 강릉단오제위원회나 보존회가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기타 주관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다. 주관 단체들은 거의 강릉에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구조가 강릉단오제를 통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강릉시의 인구가 20 만 명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 그 중에 자원봉사단체가 많다. 그 중에 그네 대회와 씨름대회, 줄다리기대회 등 프로그램은 전국 자원봉사단체의 강릉지부에서 맡고 있다. 이런 단체들은 현지인이 만든 기타 자원봉사단체보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크다. 따라서 이들 자원봉사자단체는 오래 전부터 강릉단오제의 행사를 주관해 왔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축제 참여는 “민간주도”의 축제 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주도는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 4>에서 제시되듯이 관련단체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는 강릉시가 행정적으로 축제에 개입하는 형식 중의 하나이다.

이은진 (2004)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말하는 관변단체는 준행정기구에 해당하는 통반 조직과 법에 의해 구성되고 재정지원을 받고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릉문화의집과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 중앙동 개발위원회였으며 2006년부터 강릉단오제에서 경로 율놀이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는 매년 각 읍면동의 70세 이상의 노인이 팀을 짜서 참가하고 있다. 그 외에 이 자치위원회는 강릉단오제 난장 중앙동 지역의 상가분양도 주관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6년 위원회가 강릉문화원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단오제 난장의 상가분양은 지역에 따라 중앙동과 강남동, 내곡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했다. 단오제 위원회가 독립하자 난장 상가분양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현재 남대천 남쪽의 강남동 지역은 단오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남대천 북쪽에 있는 중앙동 지역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그들의 상가분양 주관에 대해 양쪽의 책임자가 “업무대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난장은 남대천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중앙동 지역이고 중앙동 새마을협의회가 거기에 있는 상가를 분양했다가 2006년에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하면서 상가분양의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었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들은 강남동보다 중앙동 상가가 훨씬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중앙동 주민단체에 계속 맡기고 있고 대신 업무대행의 비용을 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단오제위원회는 호혜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상가분양의 권한을 회수하면서 단오제위원회는 대신 업무대행과 기타 행사의 주관을 맡긴 것이다. 지금의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원래 상가분양을 맡았던 새마을협의를 관리하는 관변조직이다. 같은 중앙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밑에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여성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협의회,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자생단체”들이 있다. 단오제위원회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참가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관변조직은 단오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주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에 상가분양사무실에서 상주

하면서 난장의 운영을 감독한다. 어느날 연구자가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를 따라 상가분양사무실을 들렀는데 거기서 당직을 선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우리에게 난장 운영에 발생한 민원을 설명했다. 그런 사건을 통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난장 관리에 있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행사 내용은 2006 년에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단오제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 중에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전부터 주관해 온 단체도 있고 그때부터 협력하기 시작한 단체도 있다. 그 중에서 강릉문화의집은 2006 년부터 강릉단오제 타일 벽화라는 프로그램을 주관하게 되었으며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 10 년 간에 강릉단오제를 찾아온 관람객들이 그린 타일을 매년 천 개씩 모아서 벽화를 만들었다. <사진 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외벽과 근처 지하도의 벽에는 당시 만든 타일 벽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강릉문화의집은 현재 강릉시립 모루도서관 일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열람실과 시민교실 등의 시설이 있다. 이 조직은 2009 년까지 강릉시 서부시장에 있었고 시민들이 영화를 감상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었다. 2000 년 7 월 1 일부터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강릉문화재단이 이곳을 관리한 적이 있었지만 2009 년 6 월에 명주군청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모루도서관 1 층으로 옮겼다. 그 전부터 운영 주체가 이미 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이곳을 관리하는 모루도서관 평생교육센터의 직원 두 명이 강릉문화의집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이다. 강릉문화의집은 단오제 타일벽화 프로그램을 2015 년까지 운영했고 현재 단오제 체험촌에서 단오등 만들기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5 단오제 타일 벽화

이와 비슷한 관변단체는 매년 다문화체험촌을 주관하는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 조 1 항에 의거하여 설립했고, 강릉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서비스,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역량강화, 정서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변단체다. 이곳은 원래 강릉문화원 안에 있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강릉 구시가지 근처로 옮겼다. 강릉문화원 사무국 직원의 말로는 현재 강릉시에 있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단체가 외국인근로자공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군데이며 강릉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센터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강릉문화의집처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관변단체이다.

강릉시에는 한국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외국인이 있다. 관광도시로 해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외에 농업이나 목축업, 건설업, 제조업 등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른바 다문화가족을 꾸려 나가는 외국인 이주여성도 적지 않고, 국적으로 보면 베트남인과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볼거리가 된 다문화체험촌은 강릉단오제의 메인 공연장 사이에 있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 세 나라의 복장체험과 음식체험을 한다. 연구자가 다문화체험촌 건너편에 있는 제 1 안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때도 기타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서 외국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강릉단오제에 나온 이들이 주관한 프로그램은 강릉단오제의 관람객에게 이국적인 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릉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강릉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구임을 전시하면서 단오제 주최측이 추구하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강릉단오제”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관변단체들은 구체적 업무 분야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의 관리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이 강릉단오제에 참가하는 것은 강릉단오제의 성공개최에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에 관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주최측이 주장하는 “민간주도”는

전적으로 민간인의 힘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민협력”의 현실에서 “관”의 역할을 숨겨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주관 단체 중에는 민간단체가 압도적 대다수이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주관은 강릉단오제의 민간주도 성격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물론 주관하는 단체들은 주최측과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지역의 단체들이 강릉단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은 사실 일본의 사례와도 비슷하다. 즉 지역축제에 기업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에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진교 2011).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현지의 업체나 단체인 것은 이들이 지역사회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 정희철은 다양한 단체의 행사 주관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네 했잖아, 줄다리기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파생되는 많은 단체의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한몫을 했다 이거야. 구경하는 것과 틀리잖아. 남이 해낸 걸 보는 것과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과 틀리잖아요.”(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위의 내용은 “민간주도”의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즉 주민이 다양한 주관 단체를 통해 축제의 주인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업체계에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만드는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릉단오제는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주최하는 축제이면서 주관하는 단체나 참여하는 개인에게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강릉단오제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생계와 관련된 이유로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도 있고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하는 단체도 있다. 강릉단오제에 이렇게 다양한 단체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최측이 추구하는 “강릉사람이 화합하는 장”이라는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즉 강릉 주민을 구성하는 인구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여성,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노인, 예술인과 상공인 등으로 다양한 신분이나 계층을 포함한다. 단오제 주최측이 그들에게 주관 맡기는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적극적 축제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며 이런 행동은 지역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드러낸다. 비록 강릉시의 인구가 20 여 만에 불과하지만 도시인구와 도시 공동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강릉단오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으로 구성된 도시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는 해당 사회의 규칙이나 통제력이 집합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축제 기간이 아니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쉽지 않지만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동안 다양한 도시민의 공동체가 다양한 이유로 축제에 참여하여 자기의 존재를 알리면서 지역사회의 존재나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움직인다. 위원회 직원 김영희도 다양한 사회단체의 주관이나 참여가 단오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 적이 있다. 즉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주관이나 운영은 지역의 사회단체 간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오 때, 이런 거 같아요.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단오제를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거라고 보면 그 청소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그런 거 다 시민분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큰 범주에서 주관하고 그 아래의 일들을 해 주시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김영희)

상술한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소에 행사 주관 단체, 특히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관계자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구조를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면서 단오제라는 지역사회의 전통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보존회나 위원회 등 주최 단체의 존재가 필요한 조건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대규모 도시축제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은 주관 단체의 지속적 참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후원과 협찬

강릉의 지자체와 사회집단들은 행사 주관 이외에도 후원과 협찬이라는 중요한 방식을 통해 강릉단오제에 관여한다.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홍보책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강원도, 강릉시가 “후원”으로 표시된다. 한국에서 후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데 축제 등 행사에 대한 후원은 보통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주체가 후원과 협찬으로 구분되며 그 중 후원은 정부기관을 가리킨다. 단오제의 주최측에게 강릉시를 비롯한 한국의 정부 기관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행사비는 외부에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가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가 현지 상공인의 찬조금을 거두어서 행사를 치렀다는 기록들이 있다(문화재관리국 1977: 207-209; 임동권 1971: 230-231; 정은주 1993: 72-74).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 제보자들이 이런 역사를 언급했다. 또한 강릉단오제에 관한 회의자료와 홍보자료도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단오제위원회는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면서 많은 지출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난장 상가분양의 방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현재 기부금과 난장 상가분양의 수입은 단오제위원회의 운영비와 행사비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릉단오제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업체는 주로 롯데주류와 농협,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등 업체들이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016 년과 2017 년에 이들 기업이 각각 팔천만 원과 일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제공했다.¹⁵

¹⁵ 강릉단오제위원회, 2017, 2018 『강릉단오제위원회 정기총회 자료』.

연도	기부금액(단위: 원)	업체명
2016	84,050,000	롯데주류, 강릉농협, 농협 강릉시지부, 대산농촌재단, 개인
2017	127,200,000	롯데주류,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강릉농협, 농협 강릉시지부, 대산농촌재단
2018	미상	롯데주류,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강릉농협, 교보생명, 농협 강릉시지부, 강원한우

표 5 강릉단오제 협찬 업체

상술한 정은주와 문화재관리국의 자료에 의하면 1970~90 년대에 강릉단오제에 기부를 많이 하는 업체는 역시 축제 개최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숙박업이나 버스회사, 주류회사였다. 단오제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에 운집하는 관광객들의 소비행위에서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강릉단오제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업체 중에서 롯데주류가 매년 칠천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가장 큰 스폰서로 자리잡았다. 이는 단오제 주최측이 축제 기간에 행사장 안에서의 주류 판매권을 제공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지인의 말로는 2006 년 전에 단오제위원회가 난장 상가분양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상가분양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강패나 조폭들이 상가분양에 개입하기도 해서 질서가 정돈되지 못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지만 축제에서 주류 판매량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당시 수 많은 업체들이 주류 판매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은 단오제위원회가 난장 상가분양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면서 개선되고 주류 판매권을 정해진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7 과 2018 단오제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막걸리 이외의 주류는 롯데주류의 제품인 소주 처음처럼과 피츠(Fiz) 맥주만 있었다.

그 외에 현대자동차 강릉지사에서 기부금과 자동차 한 대를 제공했다. <사진 6> 오른쪽에 제시된 이 자동차는 2018 년 강릉단오제 경품추첨대회에서 대상의 상품이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의 말로는 현대자동차 강릉지사의 책임자와 좋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사진 6 2018 강릉단오제 협찬 업체와 상품



한편, 단오제보존회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을 면할 수 없다. 보존회의 관계자 장병훈과 이명준은 사무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부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특히 사무국장에서 일하는 장병훈의 말로는 한국 문화재청의 예산은 대부분 유형문화재의 관리와 보수에 투입되고 무형문화재에 투입되는 예산이 5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했다.

“현황 유지에도 부족한 돈을 가지고 발전을 하려면 힘들어요. 일년에 삼백 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유형문화재를 한 번 보수하면 삼백 억이 들어요.”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지금 그게 어려움이 있지. 이것만 하면 못 살잖아. 다른 일도 하면서 보존회 일을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지. 시에서 도에서 공연을 하면 급여가 나가니까. 그건 몇 푼밖에 안 돼. 그걸로는 어렵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사를 한 거야.”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이명준)

나이가 젊은 장병훈은 보존회에서 근무하면서 수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운영 경비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이명준(80 세)은

과거의 가난한 시절을 겪어보았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존회 운영경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보존회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상술한 이명준의 말에 따르면 보존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강원도와 강릉시에서도 예산을 신청하고 있으나 운영에 넉넉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많은 보존회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에 종사하는데, 이런 상황은 전문성을 키우는 데 불리하다.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존회의 관계자들은 평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공연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경비의 일부를 조달한다. 물론 그런 경영방식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 강릉문화원 등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운영한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을 여러 명의 제보자에게 반복 확인하여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또한 위원회 관계자들은 보존회가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임금이 보장되고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다고 평가한 적도 있지만 연구자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존회가 위원회처럼 외부인의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오제보존회가 만든 홍보책자에 보존회에 기부하는 내용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있다. 기부금은 주로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체계적인 전승자 역량강화, 강릉단오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강릉단오제 전승자 장학기금, 그리고 강릉단오제보존회 전수교육관 건립 기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기부하는 개인은 해당연도 개인소득세의 30% 등 일정 한도내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기부하는 기업은 법인 소득의 10%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된다고 한다.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 기부자는 수리회원, 아리회원, 마리회원, 푸리회원 등으로 등록되어 강릉단오제 공개행사 초청과 간행물 발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¹⁶ 이런 내용은 국가 제도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오제가 소비자를 만나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에는 국가 정부만 아니라 지역민도 포함되고 있다. 그들이 따르는 원칙은 결코 자기들끼리 노는 축제를

¹⁶ 강릉단오제보존회, 2018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 pp.44-45.

만드는 자발성에 한정되지 않고, 더 큰 체계에서 형성된 교환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논리도 강력하게 개입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강릉단오제의 행사 운영과 주최측 단체의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더 좋은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업체의 이름은 강릉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가 만든 팜플렛에 후원이 아니라 협찬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단오제 주최측에서 생각하는 후원과 협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강릉단오제의 후원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뜻하며 권력기구에 의해 합리화되고 합법화된 행동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후원에 비해 업체의 협찬은 사리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축제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인식된다. 즉 강릉단오제 주재집단들이 주장하는 “민간주도”는 사리추구를 일체 배제하는 비영리적 행위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비를 기부한 업체에 관한 정보는 “협찬”으로 표시되고 팜플렛에서 “후원”으로 표시된 단체는 모두 정부 기관이다. 이런 변화는 단오제의 개최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된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가 강릉단오제에 예산과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아키바 다카시의 기술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팔단오는 이속들이 참가하고 신주를 빚는 데 사용하는 쌀과 누룩도 관급(官給)이고 팻대 등 도구도 관청에서 만들었다고 한다(秋葉隆 1993[1954]: 194-199). 또한 강릉시장과 명주군수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단오제의 헌관을 맡았다는 기록(임동권 1971: 223)과 강릉시 문화계와 명주군의 공무원들이 “인적 보조”를 제공했다는 기록(정은주 1993: 15)을 통해 이 축제가 정부의 여러 가지 협조나 지원을 받아 온 역사, 즉 지방정부의 힘이 적극적으로 축제에 개입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1 세기 초에 강릉단오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최측이 정부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우선 강릉시의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의해 정리한

행사운영비의 추이이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년부터 문화관광부는 단오제에 국비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5 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시비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체 축제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 년대보다 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세입 (단위: 원)	국비 (단위: 원)	도비 (단위: 원)	시비 (단위: 원)	국도시비 비율
1994	358,555,867	1,500,000(문체부) 3,500,000(문화재관리국)	1,500,000	23,500,000(강릉시) 1,000,000(명주군)	8.65%
1995	406,274,780	3,500,000(문화재)	3,000,000	25,000,000	6.98%
1996	406,118,207	4,000,000(문화재)	-	25,000,000	7.14%
1997	464,086,470	5,000,000(문화재)	20,000,000	30,000,000	11.85%
1998	342,520,007	5,000,000(문화재)	20,000,000	40,000,000	18.98%
1999	429,463,753	5,000,000(문화재)	12,000,000	100,000,000	27.24%
2000	464,726,810	5,000,000(문광부) 5,000,000(문화재)	7,000,000	95,000,000	24.10%
2001	678,956,180	5,000,000(문광부) 6,000,000(문화재)	20,000,000	234,000,000	39.03%
2002	685,807,669	20,000,000(문광부)	10,000,000	358,000,000	56.58%
2003	703,205,690	20,000,000(문광부)	10,000,000	380,000,000	58.30%
2004	1,155,649,307	25,000,000(문광부)	10,000,000	790,000,000	71.39%
2005	705,224,304	16,359,000	10,000,000	340,000,000	51.95%
2006	878,386,866	13,749,000	132,000,000	306,000,000	51.43%
2007	1,138,854,600	41,249,000	-	683,078,200	63.60%
2016	1,687,619,000	72,600,000	32,670,000	613,730,000	40.67%
2017	2,810,851,000	79,200,000	35,640,000	659,160,000	26.27%
2018	2,558,273,000	79,200,000	285,640,000	669,160,000	29.25%

표 6 강릉단오제 행사운영비 결산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문화유산 등록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예산은 2002 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편으로 축제의 규모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독립한 단오제위원회가 하나의 실체로서 더 많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즉 축제 주최 단체의 성격 변화와도 연관된다.

단오제에 대한 정부, 특히 강릉시의 후원은 재정 외에 행정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여러 자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매년 현지 상인에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문화재관리국 1977: 205; 정은주 1993: 69-70). 강릉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축제에 이익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강릉단오제의 주최집단들도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은 무형문화재 지정이 진행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임동권 (1971: 222-223)과 최철 (1971)에 따르면 강릉시장 등 공무원들이 강릉단오제에 헌관을 하는 것은 늦어도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부터 주최의 권한이 강릉문화원으로 이관된 후에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는데 이는 축제에 대한 정치 권력의 개입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후 강릉시의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축제 주최를 맡기지 않지만 행정수단을 통해 계속 관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등 정치사건 이후 정치적 세력이 시민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진 데서 기인된다. 민주화의 담론 체계에서 정부는 더 이상 적나라하게 시민사회의 영역에 간섭할 수 없게 되고 지역축제 등 민간인 행사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주도에서 협조로 바뀌었다.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강릉시는 단오제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 지원과 조율을 통해 축제 개최를 관리하게 되었다. 전담팀의 이름과 소속이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 현재 강릉시청에서 단오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문화도시팀이다. 단오제 전담팀의 이름과 소속은 아래와 같은 변화 과정을 겪었다.

2008년 이전: 문화예술과

2008~2012: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단오팀, 단오도시팀, 단오문화관팀으로 구성)

2012~2014: 관광과(2년 간)

2014 이후: 문화예술과로 복귀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단오제를 규정하는 강릉시의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2012 년에서 2014 년 사이에 단오제 전담팀이 관광과로 편입된 이유는 단오제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문화 정책에서 기인된 것이다. 단오제를 문화관광축제로 분류하면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하고 문화재 / 전통민속축제로 분류하면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단오제는 그냥 우리 현재의 개념으로 축제로 보기도 하지만 문화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중앙정부**를 놓고 보면은 문화재청은 자기들이 더 지원할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이게 축제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재청에 물어보라고 하죠. ‘이건 문화재 아니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오제가 문화예술과에 오래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벤트 측면에서 해 보자 그래서 한 2 년 정도 관광과에 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4 년도에 다시 문화예술과로 들어왔고.”(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지역축제를 관리하는 전담팀이 따로 있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드문 사례인데 이는 강릉단오제가 지역사회에서 가진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지를 반영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강릉시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강릉단오제를 시민의 소속감을 함양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현재 단오제를 관리하는 문화예술과 문화도시팀의 공무원 중 일부는 단오문화관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시청에서 근무한다. 시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로 매년 단오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단오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매년 단오장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오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장을 지어놓고 일년 내내 비워 둘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강릉 남대천 강가에 있는

단오장의 상당한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면 시민들이 차량 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그것을 허가하고 조율하는 주체는 단오제위원회와 시청이다. 매년 축제가 열리기 전에 단오제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문화예술과는 건설과 하천담당에게 전송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 위원회에게 발송한다. 또한 매년 단오제를 열기 위해 강릉에 있는 읍·면·동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공문을 보낸 후 문화예술과에서 관계자들에게 전송한다. 시청의 행정적인 협조와 조율은 단오제 주최측에게 많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후원에 있어서 강릉시의 재정적 지원 외에 행정적 지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은 단오제 사전 준비 회의 참석이나 단오제 현장 참관 등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가장 잘 시각화한 사례는 매년 강릉단오제 본행사 기간에 종합안내소 옆에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는 “시정홍보관”이다. 시정홍보관은 매년 같은 자리에 있고 시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행사장 시찰을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남성 공무원들이 밤에 거기서 행사장을 지킨다고 했다. 공무원 이창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단오제에서 공무원들이 숙직하는 것은 민과 관이 함께 한다는 단오제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하다.

“지금은 지킨다는 게 딱 행사 운영... 뭐랄까... 행정봉사실이라고 하는, 그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종합안내소 옆에. 거기에 한 두 명 숙직하는 것만 있죠. 예전에는 축제장 안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아마 한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 지금도 거기서 근무할 거예요. 그건 일단 축제를 민관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하고 있죠. 예전에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릉단오제는 지역정체성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강릉시 공무원들이 이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행사장 숙직이 그런 상징적 가치를 가진 행동이며 그

외에도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축제장을 홍보무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4 년 지방선거 때 시·도의원 후보자들이 강릉단오제를 찾아와 선거운동을 벌였다. 2018 년 지방선거는 마침 강릉단오제가 열리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올해의 단오제는 “당선자들이 시민들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¹⁷ 실제로 2018 강릉단오제에 강릉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참관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행위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단체의 주관, 업체의 협찬과 강릉시의 후원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는 단지 일반시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각종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오제 전통의 지속은 단지 주최 측만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만든 결과이다. 민간주도와 관민협력의 구조는 축제의 전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강릉단오제는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에 의해 전통문화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최 집단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도 전통을 지속해 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2 전통의 지속과 준수

위에서 논의했듯이 강릉단오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의 공동참여를 통해 개최되는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 간의 지속적 협력 관계는 축제의 전통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우선 축제의 주최 단체가 바뀌지 않아도 매년 주관 단체가 달라지면 행사의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했듯이 전통의례가 강릉단오제의 핵심 요소인데 이것의 전통성은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전통의례의 일정과 내용은 단오라는 풍속을 지키기 위해 쉽게 바꿀 수 없다. 본절에서는 이미 달라진

¹⁷ 『강원일보』 2018 년 4 월 2 일 기사. 제목: 올 단오제는 지선 당선자 축하무대.

사회 맥락 속에서 단오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시간과 내용의 지속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간의 전통

강릉에서 개최되는 대부분 지역축제처럼 강릉단오제는 매년의 행사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다만 커피축제 등과 달리 단오제가 준수하는 시간은 옛날부터 지켜 온 음력이다. 강릉단오제가 농경세시와 관련된 명절에서 기원한 축제로서 계속 음력을 사용하는데 오늘날에 대부분 한국인이 농경생활을 하지 않지만 농경시대의 음력이 전통명절의 시간을 정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시간도 하나의 전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강릉단오제는 매년 음력 5 월 5 일인 단오(端午)를 전후로 하여 본행사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본행사를 치르기 위해 강릉을 수호하는 신격들을 대관령 정상에서 시내로 모셔오는 전통의례도 음력에 따라 치러진다. 2018 년 강릉단오제의 행사일정은 아래와 같다.

5 월 19 일 (음력 4 월 5 일):	신주빚기
5 월 29 일 (음력 4 월 15 일):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봉안제
6 월 14 일 (음력 5 월 1 일):	단오제 본행사 첫날
6 월 15 일 (음력 5 월 2 일):	본행사 둘째날
6 월 16 일 (음력 5 월 3 일):	본행사 셋째날, 영신제·영신행차·신통대길 길놀이
6 월 17 일 (음력 5 월 4 일):	본행사 넷째날, 조전제, 단오굿
6 월 18 일 (음력 5 월 5 일):	단옷날, 조전제, 단오굿
6 월 19 일 (음력 5 월 6 일):	본행사 여섯째날, 조전제, 단오굿
6 월 20 일 (음력 5 월 7 일):	본행사 일곱째날, 조전제, 단오굿
6 월 21 일 (음력 5 월 8 일):	본행사 마지막날, 조전제, 단오굿, 송신제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매년 단오제 본행사의 일정을 공동으로 정하는데 그들이 따르는 기본 원칙은 단옷날 이틀 전에 영신제를 치르고 그 다음날부터 5 일간의 조전제와 단오굿을 하고 송신제를 하면서 모든 행사를 마치는 것이다. 따라서 2018 년의 강릉단오제가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 것이다. 2017 년의 강릉단오제가 주말 두 번 끼기 위해 하루 늦게 시작했으므로 음력 5 월 8 일에 송신제를 하고 나서 본행사 마지막날에 단오굿이 없

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8 년 강릉단오제에 주말 두 번이 없으나 원래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회 관계자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단오제의 두 주최인 보존회와 위원회는 단오제에서 각자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단오제위원회는 본행사 일정을 정할 때 되도록 관람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일정에 주말이나 휴일을 많이 포함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존회 관계자들은 축제의 경제적인 측면보다 전통 지속을 먼저 고려한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2017 년의 강릉단오제는 주말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원래의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07 년부터 강릉단오제의 본행사는 5 일에서 8 일로 연장되었으나 완전히 원래의 행사 시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3 일을 덧붙인 것이다. 본행사 시간을 정할 때 보통 보존회와 위원회는 음력 5 월 1 일부터 10 일까지의 10 일 중에서 8 일을 골라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그 중 5 월 3 일부터 7 일까지의 시간은 원래의 축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재작년(2014 년) 같은 경우는 음력 5 월 3 일부터 5 월 10 일까지 했어요. 왜냐 하면 열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잘 하면 주말을 두 번 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5 월 3 일부터 5 월 7 일. 5 일 간이었어요. 그 기간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원래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위원회 해설사 김상훈)

위의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축제 일정을 정할 때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축제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주말이나 휴일을 많이 끼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보존회는 축제의 핵심요소인 지정문화재 행사의 전통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현재 단오제 본행사의 일정을 보면 두 주최 단체는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경향이 있다. 주말을 두 번 끼기 위해 앞당기거나 뒤로 미룬 경우도 있고 엄격히 원래의 일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오랜 역사에서 강릉단오제의 본행사를 음력 5 월 5 일을 전후로 하여 정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특히 1970 년대

이전에 임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줄어진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970 년의 강릉단오제는 6 월 6 일부터 11 일까지 모두 6 일이었으나 그 다음해인 1971 년에는 5 월 27 일부터 30 일까지 모두 4 일이었다.¹⁸ 기타 노인들은 그 전에 3 일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없다. 확실한 것은 단오제 본행사 일정의 변화가 운영 주체의 변화와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1973 년부터 강릉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한 후 강릉단오제의 기간이 5 일로 고정된 것이다. 그리고 2007 년 강릉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축제를 주최하자 본행사의 기간은 8 일로 연장되었다. 그 이유는 주최 단체의 독립과 전문화에서 기인된다. 그래도 기존의 5 일 기간을 중심으로 축제 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 7>은 그동안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973 년부터 2018 년까지 강릉단오제 본행사의 개최 일정을 보여준다.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다.

음 력 연 도	五月 一日	五月 二日	五月 三日 迎神 祭	五月 四日	五月 五日 端午	五月 六日	五月 七日	五月 八日	五月 九日	五月 十日
1973	6.1	6.2	6.3	6.4	6.5					
1974			6.22	6.23	6.24	6.25	6.26			
1975			6.12	6.13	6.14	6.15	6.16			
1976			5.31	6.1	6.2	6.3	6.4			
1977			6.19	6.20	6.21	6.22	6.23			
1978			6.8	6.9	6.10	6.11	6.12			
1979			5.28	5.29	5.30	5.31	6.1			
1980	정권교체기의 혼란으로 인하여 강릉단오제 공식 행사 취소(『강릉단오제 백서』 37 페이지 기재)									
1981			6.4	6.5	6.6	6.7	6.8			
1982			6.23	6.24	6.25	6.26	6.27			
1983			6.13	6.14	6.15	6.16	6.17			
1984			6.2	6.3	6.4	6.5	6.6			
1985			6.20	6.21	6.22	6.23	6.24			
1986			6.9	6.10	6.11	6.12	6.13			
1987			5.30	5.31	6.1	6.2	6.3			
1988			6.16	6.17	6.18	6.19	6.20			

¹⁸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과, 1971,

『무형문화재보존에 대한 협조의뢰(제 13 호 강릉단오제)』, 문서번호: 문재 21081-9366.

1989			6.6	6.7	6.8	6.9	6.10			
1990			5.26	5.27	5.28	5.29	5.30			
1991			6.14	6.15	6.16	6.17	6.18			
1992			6.3	6.4	6.5	6.6(현충 일)	6.7			
1993			6.22	6.23	6.24	6.25	6.26			
1994			6.11	6.12	6.13	6.14	6.15			
1995			5.31	6.1	6.2	6.3	6.4			
1996			6.18	6.19	6.20	6.21	6.22			
1997			6.7	6.8	6.9	6.10	6.11			
1998			5.28	5.29	5.30	5.31	6.1			
1999			6.16	6.17	6.18	6.19	6.20			
2000			6.4	6.5	6.6(현충 일)	6.7	6.8			
2001			6.23	6.24	6.25	6.26	6.27			
2002			6.13	6.14	6.15	6.16	6.17			
2003			6.2(M on)	6.3	6.4	6.5	6.6(현충 일)			
2004	강릉 국제 관광 민속 제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2005			6.9	6.10	6.11	6.12	6.13			
2006			5.29	5.30	5.31	6.1	6.2			
2007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2008	6.4	6.5	6.6(현충 일)	6.7	6.8	6.9	6.10	6.11		
2009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2010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2011	6.2	6.3	6.4	6.5	6.6(현충 일)	6.7	6.8	6.9		
2012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2013	6.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2014			5.31	6.1	6.2	6.3	6.4	6.5	6.6	6.7
2015	6.16(plan)	6.17	6.18	6.19	6.20	6.21	6.22	6.23		

2016	6.5	6.6(현충일)	6.7	6.8	6.9	6.10	6.11	6.12		
2017		5.27	5.28	5.29	5.30	5.31	6.1	6.2	6.3	
2018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표 7 강릉단오제 본행사 시간

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이 말한 강릉단오제의 행사 일정을 정하는 원칙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음력 5월 3일부터 7일까지(5일간)에서 음력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8일 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존의 시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매년 본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날이 되었다. 그리고 축제의 핵심인 전통의례의 연행 시기는 본행사의 연장에 따라 바로 변경되지 않았고 2009년까지 기존의 시간을 준수했다. 2008년에 주최 단체가 본행사와 지정문화재 행사의 종료일을 맞추기 위해 조전제와 단오굿을 하루 더 연장하여 송신제의 시점을 음력 5월 8일(6월 11일)로 미루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다시 음력 5월 7일(5월 30일)로 되돌렸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재의 일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비해 영신제는 여전히 음력 5월 3일에 열리고 송신제의 일정만 하루 뒤(음력 5월 8일)로 미루어졌다. 따라서 조전제와 단오굿의 연행 시기는 나흘에서 닷새로 연장된 것이다.

	五月一日	五月二日	五月三日 迎神祭	五月四日	五月五日	五月六日	五月七日	五月八日	五月九日	五月十日
2007			6.17	6.18	6.19	6.20	6.21(送)	6.22	6.23	6.24
2008	6.4	6.5	6.6	6.7	6.8	6.9	6.10	6.11(送)		
2009	5.24	5.25	5.26	5.27	5.28	5.29	5.30(送)	5.31		
2010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送)		

표 8 영신제와 송신제 시간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본행사의 일정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시간의 전통은 지정문화재 행사의 일정이다. 그리고 송신제의 시점이 이렇게 반복된 과정을 겪은 것은 강릉단오제 전통의 관성을 보여준다. 즉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와 함께 그것을 지키는 현실적 요인이 있다. 전통을 바꿀 때 항상 지속과 변화를 지향하는 두 가지 힘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반복 과정을 거친다.

2007년 이후 지정문화재 행사의 일정이 고정되어 현재 신주근양(神酒謹釀)과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봉안제, 영신제, 송신제 등 전통의례는 매년 같은 날(음력)에 치른다. 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의 진술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행사의 일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 2017년 대관령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치르기 전에 대관령 산불 때문에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신문에 보도되었다.¹⁹ 또한 2018년 강릉단오제 신주빚기 행사가 5월 19일에 치러야 하는데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비가 내리고 기온이 쌀쌀했다. 따라서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관계자들은 행사를 계획대로 치르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켰다. 의례를 연행하는 보존회원 중에 노인이 많기 때문에 비를 맞고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가 와도 나이가 많은 보존회원들이 반드시 그날에 의례를 치러야 한다는 전통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런 사건을 통해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의 전통적 일정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어 중대한 사고가 있어도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 본행사는 초여름에 하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더운 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보존회 관계자 장병훈에게 더운 날씨가 행사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더운 날씨는 참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이 비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장병훈은 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가 거의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2004년 영신제 때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다들 비옷을 입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장병훈: 2004년도에 그때 아주 폭우가 내렸어요. 다들 일회용 우비 입고요. 입었는데도 바람 불고 이러면은 다 젖어요. 다 비 맞으면서. 악기도 다 물에 젖었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하여튼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영신행차 할 때요.

¹⁹ 『강원일보』 2017년 5월 9일 기사. 제목: 강릉 산불 3일째, 대관령산신제·성황제 봉행 불투명.

연구자: 하루 앞당기거나 미루든지...

장병훈: 아니요, 그 영신행차는 날짜가 워낙, **변경이 안 되잖아요.**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영신행차 등 지정문화재 행사의 시간은 기후 등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변경할 수 없는 전통이다. 그것은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에서 시간의 중요성, 특히 지정문화재 행사의 일정을 지키는 것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가 살펴본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1976년부터 2018년까지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와 봉안제의 시간은 매년 음력 4월 15일이며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신주근양의 시점은 계속 음력 4월 5일이다. 이렇게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서 테세우스의 배(the ship of Theseus)라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현지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물의 부분적 변화 중에서 그것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 요소의 변화를 막아야 사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념을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강릉단오제는 사실상 허균 등 조선시대의 문인이나 아키바 다카시 등 식민지 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 기록한 행사와 많이 다르다. 주최도 달라졌고 행사 열리는 사회적 맥락도 달라졌지만 전통의례를 포함한 축제 시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런 시간 전통은 학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최 단체의 실천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전통으로 단오제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주최의 전통 실천을 통해 이 축제는 단오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2) 내용 및 구성의 전통

행사 시간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강릉단오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축제는 모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행사 프로그램은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강릉단오제는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단오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년 같은 시기에 열려야 하며 임의로 행사의 절차나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단오제 내용의 전통은 우선

지정문화재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 행사는 강릉단오제보존회가 맡은 분야이다. 보존회원들은 전통을 전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습이나 연수를 한다. 예를 들어 제례부의 전수생과 이수자들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씩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이나 과거의 관아였던 칠사당(七事堂)에서 모여 보수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전체 제례부 회원들은 일년에 두 번씩 왕산면 아트센터에서 연수한다. 그들은 의례를 연습하거나 연행할 때 예능보유자의 지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전수교육 교본의 내용도 숙지해야 한다. 현재 강릉단오제보존회 제례부 회원들이 사용하는 교본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2006 년에 강릉사에서 출판한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이고 다른 하나는 2017 년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 편찬한 『강릉단오제 제례 전수교육 교본』 이다. 두 책에서 제물준비와 복식, 홀기와 축문 등 제례 내용, 그리고 절과 폐백을 드리는 연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에 단오굿과 관노가면극의 연행 방법도 기록하고 있다.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는 전수교육 교본이 따로 없지만 각자의 연습장소를 갖추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무격부 회원은 매월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2 층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관노가면극부 회원은 관노가면극전수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한다. 보존회원들은 그런 연습이나 전수 교육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연구자가 직접 관람한 2017 년과 2018 년의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를 하나의 사례로 보자면 의례의 절차와 축문 내용은 차이가 없다. 음력 4 월 15 일 아침 10 시부터 제례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산신당과 국사성황당에서 시작한다. 대관령산신제와 국사성황제를 차례로 한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서 신이 내렸다고 하는 작은 단풍나무를 한 그루 베어 오면 성황당 앞에서 의례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오방색천을 감아서 신목(神木)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보존회 관계자들은 사전에 준비한 떡과 단오신주를 구경하러 온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와 같은 시간에 무격부 회원들은 성황당 앞에서 30 분 가량 굿을 한다. 오후 12 시 반에서 13 시 사이에 오전의 전통의례가 끝나자 의례에 참석한 관계자와 구경하는 사람들은 산을 내려간다. 대관령성황신의 위패를 모시는 보존회 제례부 회원을 앞세우고 신목잡이를 하는 신장부라는 보존회원과 기타 관계자, 관람객, 기자, 영상기록 요원들과 함께 산길을 따라 반점이라는 곳으로 내려간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대기 차량을 타고 구산서낭당과 학산서낭당을 차례로 들러서 구산서낭제와 학산서낭제를 올린다. 두 곳에 사는 주민들은 제물을 미리 차려 놓고 기다리고 있다. 구산서낭제를 마친 후 14 시쯤에 구산서낭당 옆에 있는 성산초등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점심은 성산면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서 준비한다. 구산서낭제를 마친 뒤 범일국사의 출생지인 학산리에 가서 학산서낭제를 지낸다. 17 시쯤 행렬이 흥제동에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당에 도착한다. 잠시 준비한 후 18 시에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을 혼배시키는 봉안제를 올린다. 봉안제가 끝난 후에 보존회원들이 떡과 신주를 관람객들에게 나누어준 후 이날의 모든 의례가 끝난다. 산신제와 국사성황제, 봉안제가 끝나면 헌관과 위원회, 보존회 그리고 기타 단체의 관계자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飮福)이라고 한다. 무격부 회원들은 보통 음복을 하지 않고 옆에서 곳을 연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산신제·성황제가 끝나면 단오제가 절반 정도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이 행사가 강릉단오제의 전체 행사 중에서 가진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단오제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이 행사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拜)와 흥(興)이고, 일어나라고 할 때 평신(平身)이라고 한다. 산신제와 성황제, 봉안제, 영신제, 조전제 등 유교제례를 하기 위해 보존회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헌관을 사전에 미리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서류는 분방(分榜)이라고 한다. <사진 8> 오른쪽은 2004 년에 사용했고 원래 단오문화원 2 층 전시실에 있던 분방인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의 형식과 내용은 향교 제례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식이며 한문으로 작성된다.

대관령산신제 · 국사성황제 및 봉안제, 영신제, 조전제, 송신제 등 전통의례는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유교제례와 무속제례를 차례로 진행한다. 그 중 유교제례를 진행하기 위해 단오제보존회원들은 집례와 대축을 담당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헌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차례로 참신례(參神禮)와 전폐례(奠幣禮), 삼상향(三上香),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그리고 망료례(望燎禮) 등을 진행한다. 이런 전통적 유교제례의 진행 과정은 모두 전술한 제례 교본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연행하는 방식 이외에도 제례를 연행하는 헌관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섭외하는 방식도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단오제를 치르기 전에 헌관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식적인 안내서류인 “망기(望記)”를 보내는데 보통 행사 일주일 전에 보존회 직원들이 준비하여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서 전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헌관을 하는 사람에게 망기를 전달하면서 단오제의 금기 사항을 지켜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망기를 받으면 한 일주일 정도 부정을 타면 안 되지. 부부 간에 운우를 즐긴다든가, 상가집에 간다든가, 뭐 부정한 걸 본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지. 그러나 지금 금기 사항을 지키는지 따라다니면서 보지 못하지만 원래는 이렇다는 거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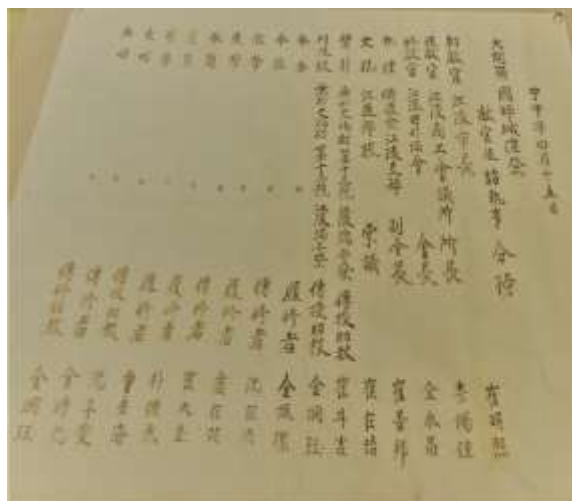


사진 8 강릉단오제 망기와 분방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망기와 금기는 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가 지닌 종교적 속성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과 무관하지만 전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비록 당사자가 지키는지 마는지 확인할 수 없어도 전통을 연행하는 사람은 전통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희철이 말한 금기는 단지 강릉단오제에서 지키는 금기 사항의 일부다. 여러 자료에서 강릉단오제의 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국사성황사 앞의 하마비와 국사성황사 앞에 3 일전부터 금줄을 쳐 놓고 황토를 뿌리는 것, 제관과 임원, 제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키는 금기, 여성의 생리와 죽음에 관한 금기들이 있다(임동권 1971: 236-237; 최철 1971). 그 중 제관 및 임원이 지키는 금기는 정희철이 말한 것만큼 상세하지 않고 단지 금줄과 목욕재계만 언급된다. 그리고 이런 금기들도 정희철이 말한 것처럼 현재 지켜지지 않는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김기설 (2002)은 예전에 헌관들이 철저히 금기를 지켰지만 현재 구산서낭제와 학산서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의 헌관들이 대부분 공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다른 금기속이 없고 단지 언행을 신중히 하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만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자료와 정희철의 말과 함께 볼 때 금기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헌관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망기라는 전통적인 안내 서류를 직접 전해주는 것도 행동의 종교성과 비밀상성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망기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소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삼가게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개 행사에서의 금기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 특히 신주빚기 3일 전에, 그리고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 일주일 전에 보존회의 직원들은 금줄을 쳐 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는다. 그리고 신주빚기와 산신제·성황제 전날에 제물을 준비할 때 제례부 회원들은 사각형의 하얀 한지를 대각선으로 접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입에 물고 있다. 제례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신주빚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술을 담글 때 한지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한다. 위원회와 보존회의 관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한 금기 사항이고 술을 담글 때 말하면 침이 술에 들어가는 것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런 금기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해 주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강릉단오제 유교제례의 연행자들은 의도적으로 전통을 표현하고 있다. 무속의례의 연행도 이와 같다. 강릉시가 편찬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단오굿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쳤는데 현재의 단오굿은 1974 년부터 연행되는 것이라고 하나²¹ 김이숙 (2002)의 조사에 따르면 단오굿의 일부는 광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95 년 양중 송동숙의 진술에 따르면 광복 이전에 연행되었던 단오굿은 부정굿, 성황굿(대관령성황굿), 청좌굿, 화회굿, 세존굿, 조상굿, 성주굿, 지신굿, 심청굿, 천왕굿, 뫇동이굿, 용왕굿, 손님굿, 제면굿, 환희굿(송신제) 등 15 거리로 구성되었다. 이는 문화재관리국 (1994: 68-69)이 기록한 1966년, 1969년, 1974년, 1988년, 그리고 1994년의 단오굿과 대동소이하다. 비록 조사자 김선풍 교수가 단오굿의 거리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순서도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단오제에서 연행되는 중요한 부정굿, 청좌굿 등 무속의례들은 거리수는 거의 고정되고 일정한 순서로 연행된다. 강릉단오제보조회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에 따르면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 축원굿을 제외한 단오굿이 연행되는 순서는 아래 <표 9>와 같다.

²¹ 강릉시, 2006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p.94.

날짜	곳 이름	거리수
5월 3일	문굿, 청좌굿	2
5월 4일	부정굿, 하회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중잡이굿	5
5월 5일	군웅장수굿, 성주굿, 심청굿, 지탈굿	4
5월 6일	지신굿, 산신굿, 손님굿, 천왕굿,	4
5월 7일	제면굿, 칠성굿	2
5월 8일	용왕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환우굿	5
총 거리수	22거리	

표9 강릉단오굿 연행 순서

<표 9>에서 제시된 순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정되어 있고 변동 사항이 있어도 당일 안에서 순서가 서로 바뀌는 것이며 하루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는 없다. 중간에 축원굿을 끼워서 하는 것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하루에 적어도 세 번 정도 한다. 그리고 음력 5월 7일에 축원굿을 여섯 일곱 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원래 송신제의 시간이 하루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음력 5월 7일에 했던 굿을 이제 5월 7일과 5월 8일에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7일에 축원굿으로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 특정한 굿을 연행하는 무당도 고정되어 있으며 특히 심청굿이나 성주굿, 군웅굿, 세존굿 등 “큰 굿”은 모두 세습무 집안의 무녀들이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영신제 저녁의 문굿과 청좌굿, 그리고 단옷날의 심청굿, 송신제의 환우굿을 연행하는 사람은 강릉단오제의 무격부 예능보유자이며 단옷날의 군웅장수굿은 이 무당의 딸이 한다. 그리고 강릉 지역의 신씨 집안의 무당 두 명이 조상굿과 제면굿을 시연하는 것도 관례로 고정되었다. 신씨 집안의 무당은 강릉단오제 보존회원이 아니지만 단오굿에서 시연하는 이유는 이들이 같은 동해안 무당 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강릉단오제 전통의례의 지속에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관노가면극은 한국에서 유일한 무언의 탈춤이고 옛날에 관노들이 연행했던 것이다. 유교체제나 단오굿에 비해 관노가면극은 복원과 전승의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이 탈춤의 시연자가 노비들이었기 때문에 임동권 교수가 1966년에 조사하러 갈 때 아무도 이 탈춤을 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어렵게 김동하(金東夏)와 車亨元(차형원) 두 노인의 인터뷰를 통해 춤사위와 탈을 복원했다(임동권 1977). 현재 강릉단오제보존회의 관노가면극부 회원들은 주요 전승집단으로 관노가면

극의 전승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관노가면극전수회관에서 매월 연습하고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노가면극을 연행하는 팀은 단오제보존회 팀 외에도 대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행정동, 불교단체 등 다양한 시민들이 구성한 공연팀이 있고 매년 단오제에서 지정문화재 행사의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 <표 10>은 2014 년과 2016 년에서 2018 까지 4 년 동안의 관노가면극이 단오제 기간에 공연된 상황이다.

날짜 (음력)	2014 년 공연팀	2016 년 공연팀	2017 년 공연팀	2018 년 공연팀
5월1일		강릉원주대 삼개사		영동초교 옥향 강릉문화센터
5월2일		관동대 임영희	삼개사 한솔초교 노암초교	관동대
5월3일 (영신제)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주문진	영동초교 동명중	노암초교 해솔
5월4일	보존회	보존회	주문진문화교육센터 보존회	삼개사 보존회
5월5일 (단오)	보존회	보존회 여성문화센터	보존회	보존회
5월6일	보존회	(관노가면극 발표회: 노암, 영동초교, 동명중, 강릉고, 주문진문화교육센터, 여성문화센터) 보존회	보존회	동명중 보존회
5월7일	(관노가면극 발표회: 포남, 노암, 연곡, 경포, 영동초교, 동명중, 삼개사) 보존회 임영희	포교사단 보존회	옥계 임영희 보존회	하슬라 보존회

5월8일 (송신제)	여성문화센터 보존회 천태종강릉시지회	보존회	여성문화센터 보존회 관동대	주문진문화교육센터 강릉원주대 보존회
5월9일	강릉원주대 강릉농협		포교사단 강릉원주대	
5월10일	해살이 관동대			

표 10 관노가면극 공연 일정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강릉단오제에서 관노가면극을 시연하는 단체는 단오제보존회 관노가면극부의 회원만이 아니라 학생과 성인들로 구성된 공연팀도 있으며 모두 보존회원으로 부터 전승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전승 교육을 받은 기타 공연팀과 보존회팀의 지위는 다르다. 보존회팀의 관노가면극 공연은 영신제 다음날인 음력 5월 4일부터 송신제를 하는 음력 5월 8일 사이에 한다. 신이 있는 날에 탈춤을 하는 것이 원래 기재되었던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승을 담당하는 보존회 팀이 하고 신이 없는 날에 기타 팀이 공연해도 무방하다.²²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의 관노가면극은 신에게 받치는 춤으로서의 종교적 기능을 의도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연팀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은 보존회팀이고 기타 공연팀은 미숙한 단계에 있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의례와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규모 도시축제로서, 기타 행사도 일정한 기간 내에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오제 주최측은 도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강릉문화원에서 편찬한 자료에 따르면 1976 년에서 1998 년 간의 강릉단오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축제 내용이 여러 번 개편되었다. 1976 년부터 강릉문화원이 축제를 주관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계기가 되고 1977 년도의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을 보면 지정문화재 행사와 씨름, 그네, 농악 마라톤 등 기타 행사가 분리되어

²² 17세기 초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 卷十四 文部十一에 “至五日, 陳雜戲娛之, 神喜, 則終日蓋不俄仆, 歲輒登”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신을 즐겁게 하여 풍년을 비는 탈춤의 기능을 의미한다.

표시된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행사의 수량과 분야가 대폭으로 늘어났다.²³ 특히 스포츠와 예술에 관한 행사가 단오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보다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 백서』와 단오제위원회의 『결산보고서』 등 자료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1998년까지의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의 변화를 아래 <표 11>과 같이 정리한다.

연도		분야	행사명
1977~1989		지정문화재 행사	산신제, 국사성황제, 국사여성황제 (봉안제), 서제 (영신제), 등불행진, 제전 (조전제, 무격굿), 송신제, 관노가면극
		민속행사	그네대회, 농악경연, 씨름대회, 시조경창, 민요경창, 궁도대회
		경축행사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기타 일회성 행사
1990~1992		지정문화재 행사	신주근양, 산신제, 국사성황제, 성산성황제, 봉안제, 영신제, 국사성황행차, 조전제, 무격굿, 송신제, 관노가면극
		민속행사	향토민요경창, 시조경창, 그네대회, 농악경연, 씨름대회, 줄다리기대회, 궁도대회, 한시백일장, 부사영신행렬
		체육행사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태권도대회, 탁구대회, 축구대회
		경축행사	불꽃놀이, 고공낙하시범, 기타 일회성 행사
1993~1998		지정문화재 행사	신주근양, 산신제, 국사성황제, 구산성황제 / 진도배기성황제, 봉안제, 영신제, 국사성황행차, 조전제, 무격굿, 송신제, 관노가면극, 농악경연대회
		민속행사	한시백일장, 향토민요경창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줄다리기대회, 씨름대회, 그네대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궁도대회, 투호대회 등
		예술행사	단오제품물전국사진공모전, 학생사생대회, 교산백일장, 어린이합창경연대회, 단오품물·사진미술전시회
		야간공연	국악공연, 연극공연, 사물놀이

²³ 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 백서』, pp.31-51, pp.239-286.

		체육행사	테니스대회, 농상축구정기전, 탁구대회, 야구대회, 태권도대회, 게이트볼대회, 역전마라톤대회
		경축행사	볼꽃놀이, 단오등 띄우기, 육·공군공연시범, 경축수석전시회, 학술세미나, 단오미인선발대회 등

표 11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 변화1

1990 년까지 지속된 단오제의 변화 추세는 두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이 있다. 하나는 지정문화재 행사의 지위가 확보되고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행사의 이름이 현재의 것으로 확정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예를 들어 현재 봉안제와 영신제라고 불리는 전통의례의 이름은 1983 년 이전에 국사여성황제와 서제(序祭)라고 불렸고 같은 해부터 제전의 이름도 조전제와 무격굿으로 변경되었다. 또 하나의 뚜렷한 추세는 경축행사 분야에 일회성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분야의 행사가 고정되어 의례적으로 치르게 된 것이다.

1999 년 이후의 강릉단오제는 계속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개최되는 강릉단오제는 매년 12 에서 14 분야의 60,70 여 개의 행사로 구성된다. 1999 년 이후의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와 민속행사, 경축행사 등 분야가 계속 존재하고 체육행사는 축구정기전만 남아있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독립과 법인화 이후 기획공연도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강릉단오제 행사 분야의 변화는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와 기타 회의·홍보 자료에 의거하여 아래 <표 12>와 같다.

연도	구성	분야명
1999	9 개 분야 58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민속행사, 무형문화재 초청행사, 국내민속단초청공연, 외국인속단초청공연, 경축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야간공연
2000	8 개분야 62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민속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행사, 국내민속단초청공연, 경축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야간공연
2001	9 개 분야 74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단오민속체험행사, 지역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국내외민속단 초청공연, 민속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경축행사
2002	6 개 분야 45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단오민속체험행사, 지역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국내외민속단

		초청공연, 민속경축행사
2003	6 개 분야 51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단오제민속체험참가행사, 지역(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국내민속단 초청공연, 민속경축행사
2004	5 개 분야 43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단오제민속놀이, 단오제민속체험존, 지역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단오제 경축 문화예술 행사
2005	8 개 분야 54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단오민속체험 행사, 지역(중요)무형문화재 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국외예술단 초청공연, 단오제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행사
2006	8 개 분야 61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민속체험 참가행사, 지역(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 국내민속단 초청공연, 국외민속예술단 초청공연, 강릉단오제 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2007	7 개 분야 59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해외초청공연, 국내초청공연, 민속놀이 행사, 단오제체험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2008	7 개 분야 74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해외초청공연, 국내초청공연, 민속놀이 행사, 단오제체험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2009	7 개 분야 74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민속체험행사, 전통연희한마당, 공연예술행사, 민속놀이, 경축행사, 특별행사(국제학술 세미나 등)
2010	10 개 분야 93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아시아단오한마당(국내외초청공연), 민속놀이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1	10 개 분야 72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민속놀이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2	10 개 분야 75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민속놀이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3	10 개 분야 69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민속놀이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4	12 개 분야 77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기획공연 및 전시, 전통연희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존, 시민참여한마당, 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5	12 개 분야	지정문화재행사, (기획공연 및 전시, 전통연희한마당,

	77 개 프로그램 (계획, MERS 관계로 지정문화재행사만 개최)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촌, 시민참여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6	12 개 분야 75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기획공연 및 전시,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촌, 시민참여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7	12 개 분야 71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기획공연 및 전시,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촌, 시민참여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민속놀이 행사, 경축 문화예술 행사, 부대행사
2018	14 개 분야, 74 개 프로그램	지정문화재행사, 기획공연, 인류무형문화유산 창작공연, 전통연희한마당, 무대공연예술제, 경연대회페스티벌, 청소년어울림한마당, 국외초청공연, 단오체험촌, 시민참여한마당, 신통대길 길놀이, 민속놀이, 경축행사, 부대행사

표 12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 변화2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99 년 이후의 강릉단오제는 분야와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면서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다. 체육행사 등 단오제의 성격과 무관한 것은 사라지고 문화예술 공연 등 행사가 많아졌다. 그리고 2007 년부터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가 독립하고 법인화한 후 본행사 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했던 지역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중요무형문화재 초청공연을 “전통연희한마당”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통합하여 거기에 전통혼례 시연 등 행사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체험행사를 강릉단오제와 관련 있는 종류로 대체하여 일관성 있는 장르로 운영하기 시작하고 2010 년부터 단오체험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해에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총책임자가 바뀌면서 도시 이벤트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시민 참여 행사를 늘리기 위해 “신통대길 길놀이”를 신설하여 강릉시에 있는 행정동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길놀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거화행진”이나 “등불행진”이라고 불리는 시민참여 행사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대관령산신제와 국사성황제는 이틀 걸렸기 때문에 행렬이 시내에 오는 시간은 다음날 저녁이었다. 따라서 시민들이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러 나갔는데 이것이 등불행진의 기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때문에 대관령 정상에 당일로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영신의 의례가 서양의 퍼레이드의 형식을 참조하여 재구성되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인, 예술인 등의 축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문화체험존과 한청실버가요제, 뽕투어 등을 포함한 “부대행사”의 장르를 신설했는데 이런 행사도 현재까지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술한 신설되거나 변형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행사도 적지 않다. 지정문화재 행사의 전통성은 위에서 이미 서술한 바 있다. 그 외에 경연대회와 민속놀이 분야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행사의 상황은 아래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명	시작 연도	주관의 연혁
농악경연	1967	농악부, 1982년부터 KBS 방송국
시조경창	1967	시조경창부, 1969년부터 강릉시우회, 199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강릉지부
민요경창	1967	민요부, 1990년부터 한국국악협회 강릉지부, 2013년부터 전국민요경창대회로 개편, 주관 강원민요연구회
그네대회	1967	그네부, 숙박업협회, 1988년부터 KBS 방송국, 1991년부터 로타리클럽
씨름대회	1967	씨름부, 1969년부터 강릉청년회의소에서 주관
줄다리기대회	1968	1986년부터 라이온스크럽에서 주관
축구전	1967	강릉제일고 및 강릉중앙고 총동창회
강릉사투리대회	1993	강원일보사
투호대회	1993	강릉문화원 부속 임영문화재보호회
웃놀이대회	2006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표 13 일부 행사와 주관의 연혁

지정문화재 행사는 강릉단오제 전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행하는 보존회는 당연히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보존회 관계자에게는 지정문화재 행사의 일정만 아니라 내용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단오제위원회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년 새로운 내용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과거와의 비교에서 그런 변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다. 그리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객 유치 등 목적을 위해 모니터링이나 행사 결산 보고서 등 방식으로 축제 개최의 상황을 기록하고 전년도와 비교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오제의 변화는 갑작스런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정문화재 행사를 주최하는 단오제보존회에게 전통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문의 내용이나 제례의 절차 등을 편한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규모 도시축제를 운영하는 위원회에게 전통을 지키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일을 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랫동안 협력해 온 다양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지속적 참여는 이러한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통 지속에 나타난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위에서 논했듯이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은 일정한 기간 내에 고정되어 하나의 전통이 된다.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전통민속 축제의 성격 때문이다. 주최 및 주관 단체는 도시민들의 문화 소비 경향을 고려하면서도 단오라는 세시풍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일의 효율성을 위해 전통을 따르는 것도 현실적 이유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라는 큰 전통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분석할 때 주최와 주관 단체,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간의 지속적 협력 관계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읍치성황제에서 현재의 도시축제로 발전된 강릉단오제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릉시가 담당하는 역할도 여러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들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몇 년 간, 심지어 처음부터 현재까지 같은 프로그램을 주관해 온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시조경창대회는 1967년부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 정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강릉지부에서 주관해 왔다. 그리고 1993년부터 시작된 강릉사투리경연대회는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해 왔으며 대회 수상자들이 만든 사단법인 강릉사투리보존회도 함께 강릉방언의 보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1954년부터 시작된 강릉단오제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강릉제일고·중앙고 축구정기전은 두 학교의 총동창회가 매년 번갈아 주관한다. 불과 몇 년 전부터 개편된 체험촌 행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취떡 맛보기와 단오신주 맛보기, 창포머리감기,

단오부채 그리기 등을 주관하는 단체들도 10 년 이상 계속 같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체험존 행사명	시작 연도	주관단체	비고
수리취떡 맛보기	2001	배다리회	강릉문화원 임영문화학교 수료생 모임
단오부채 그리기	2001	단오부채연구회	한국화 동호회
관노탈그리기, 목걸이만들기	2001	적십자 강릉지구협의회	봉사단체, 50 대 이상으로 구성
단오신주 맛보기	2004	오죽헌시립박물관문 화교실회원	수료생 모임
창포머리감기	2006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봉사단체
신주교환	2004	경포회	강릉문화원 임영문화학교 17 기 20 기 졸업생 모임
단오제캐릭터 탁본하기	2004	관동대 금석문연구회	관동대학교 사학과 탁본동아리
단오차 체험	2013	강릉문화원 한송정다도회	여성단체
단오빔 체험	2016	강릉적십자 햇살봉사회	봉사단체
단오컬러링 체험	2016	고임돌봉사회	2013 년에 설립된 강릉시문화센터 자원봉사단체
오륜주머니 던지기	2016	강릉여성포럼	여성단체
단오등만들기	2017	강릉문화의집	2006~2015 년 ‘단오 1000 타일 벽화’ 행사 주관

표 14 단오제 체험존 행사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 체험존의 많은 행사들은 2004 년 이전에 생긴 것이고 계속 같은 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단오제위원회와 체험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간의 지속적 협력관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체험존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행사를 편하게 개최하기 위해 평소부터 이런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단오등(端午燈) 만들기를 주관하는 강릉문화의 집은 예전에 단오 타일 벽화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 년으로 끝났지만 2017 년부터 강릉문화의집이 다시 단오등만들기를 주관해 오고 있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은 다 “엮여 있어서” 그런 협력관계가 단오제 행사의 전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주관 단체의 입장에서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오제에 계속 참가

한다. 따라서 행사 주관 단체에게 단오제 참가는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과의 사회관계 유지 등 현실적 이유가 있다. 이런 특징은 기타 축제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강릉문화올림픽에서 강릉의 많은 커피숍이 참가했다. 그날에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의 관계자들은 강릉 구시가지에 위치하는 월화거리 야외에서 “백인백미” 커피 드립 시연을 했다. 연구자가 몇 사람에게 어떤 동기로 참가했느냐고 묻자 그 중의 한 사람은 찬 바람에 벌벌 떨리면서 “전화해서 나왔지”라고 통명스럽게 답했다. 따라서 이들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것으로 표현되지만 특정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온 것임은 분명하다. 즉 강릉시에서 문화올림픽을 담당하는 부서가 관계망을 통해 그들을 섭외한 것이다.

단오제위원회가 체험촌 행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관계를 통해 주관 단체를 섭외하거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주최와 주관 단체의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의 전통은 결코 스스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망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관계망에는 단지 민간단체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엮여 있다. 물론 지방정부가 축제를 만들 때에는 그런 사회관계를 이용해야 하지만 민간단체들이 행사를 치를 때도 정부나 공무원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사회관계는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최 단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가 엮여 있는 상황은 단오제의 핵심 내용인 전통의례, 특히 유교제례에 가장 잘 나타난다. 매년 단오제의 전통의례를 연행하는 제관들은 집례, 대축, 찬인(贊引) 등을 담당하는 보존회원들 외에도 초헌관과 아헌관, 종헌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정된 직책의 사람이 헌관을 맡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되었다.

아키가 다카시가 기록한 조선시대의 강릉단오굿은 강릉의 관청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헌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방관리들이었다. 예를 들어 음력 4월 1일의 초단오에 읍내의 대성황당에서 신주와 흰떡을 올리는 초헌관은 호장(戶長),

아헌관은 부사색(府司色), 삼헌관은 수노(首奴), 종헌관은 성황지기(城隍直)가 했다고 한다(秋葉隆 1993[1954]: 194).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강릉시의 공무원들은 단오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66 년의 대관령국사성황제에서 초헌관은 강릉시장, 아헌관은 명주군수, 종헌관은 강릉경찰서장이 맡았다(임동권 1971: 223).

현재 강릉단오제 제례에 관한 교본에 따르면 대관령산신제의 초헌관은 대관령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기관장이 맡아 지내고 있으며 대관령국사성황제는 “호장이 지냈다”는 전통을 따라 강릉시장이 매년 맡아 지내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기타 단체들도 지역사회나 단오제와의 역사적 연원으로 계속 단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단체장들도 헌관을 맡아 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 상인들이 과거에 단오제를 실질적으로 주관했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의 연합체인 중앙시장 번영회의 회장도 헌관을 맡아서 한다. 또한 동해상사가 과거 강릉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년 헌관으로 제례에 참석한다. 그리고 강릉에서 단오제의 헌관으로 선정된 것이 아주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수락한다.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 편찬한 교본에는 헌관의 직위가 아예 고정된 것으로 기록된다.²⁴ 2014, 2016, 2017, 2018 년 단오제의 헌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표 15 강릉단오제 헌관 명단

행사명	헌관	2014	2016	2017	2018
대관령 산신제	초헌관	동부지방 산림청장	동부지방 산림청장	동부지방 산림청장대 기획운영과장	동부지방 산림청장
	아헌관	강릉단오제 부위원장	강릉단오제 부위원장	강릉단오제 부위원장	강릉단오제 부위원장
	종헌관	화물자동차 협회장	사천하평답교놀이 보존회장	화물자동차 협회장	강릉시 이통장협의회장
대관령 국사성 황제	초헌관	강릉시장	강릉시장	강릉시장	강릉시장
	아헌관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중앙회 강릉시부지부장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²⁴ 강릉시, 2006,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p.66.

심오섭 외, 2017, 『강릉단오제 제례 전수교육 교본』, pp.68-69.

	총현관	강릉시택시협의회 회장	강릉시택시협의회 회장	강릉시택시협의회 회장	강릉시택시협의회 회장
봉안제	초현관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아현관	성균관유도회 강릉시지부 회장	강릉향교 전교	강릉향교 전교	강릉향교 전교
	총현관	강릉시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강릉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강릉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강릉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영신제	초현관	강릉단오제 위원장	강릉단오제 위원장	강릉단오제 위원장	강릉단오제 위원장
	아현관	강릉수산업협동 조합장	강릉수산업협동 조합장	강릉갈골과줄 기능보유자	강릉수산업협동 조합장
	총현관	강릉시산림조합 조합장	강릉시산림조합 조합장	강릉시산림조합 조합장	강릉시산림조합 조합장
조전제 (5 월 4 일)	초현관	강릉경찰서장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릉문화원장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아현관	강릉소방서장	강릉소방서장	강릉소방서장	강릉소방서장
	총현관	강릉축산업협동 조합 조합장	강릉축산업협동 조합 조합장	강릉축산업협동 조합 조합장	강릉축산업협동 조합 조합장
조전제 (5 월 5 일)	초현관	강릉시장 권한대행	강릉시장	강릉시장	강릉시장
	아현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강원도도의원	강원도도의원	학산오독떼기보 존회 부회장
	총현관	강원양돈농협 조합장	학산오독떼기보 존회 부회장	학산오독떼기보 존회 부회장	동해상사고속 대표이사
조전제 (5 월 6 일)	초현관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회 의장
	아현관	강릉농업협동조 합 조합장	강릉농업협동조 합 조합장	강릉농업협동조 합 조합장	강릉농업협동조 합 조합장
	총현관	중앙시장변영회 장	중앙시장변영회 장	중앙시장변영회 장	중앙시장변영회 장
조전제 (5 월 7 일)	초현관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경찰서장	강릉경찰서장
	아현관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장	농협은행 강릉시지부장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장
	총현관	강릉시 이통장협의회장	강릉시 이통장협의회장	강릉시 이통장협의회장	사천하평답교놀이 보존회장
조전제 (5 월 8 일)	초현관	강릉문화원장	강릉문화원장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릉문화원장
	아현관	강릉농악보존회 회장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강원양돈농협 조합장	강원양돈농협 조합장
	총현관	사천하평답교놀이 보존회장	강릉농악보존회 전수교육조교	사천하평답교놀이 보존회장	불교목조각장

송신제	초헌관	강릉출신 국회의원	강릉출신 국회의원	강릉출신 국회의원	강릉출신 국회의원
	아헌관	강릉시변영회 회장	강릉시부시장	강릉시부시장	강릉시부시장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2014~2018 년 간에 강릉단오제 헌관은 사람이 바뀔 수 있어도 직책은 고정되어 있어 하나의 전통으로 형성되었다. 물론 그런 전통의 형성은 그 당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거친 것이다.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로서 지방정부의 관리들의 참가는 행사를 합법화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가부장적 전통을 상징하는 유교의례에 참가하는 것은 지역의 정치인들의 지위와 연관된다.

“산신제는 원래 명주군수가 산신제 초헌관을 했는데. 통합이 됐잖아. 산신제는 산을 담당하는 신이니까 영림서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림서 동부산림청장이 한다고. 산을 관장하는 부서고, 산불 나지 말라고 그래서 산림청장을 시켰지. 그래서 성황제는 역시 풍어풍농이니까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헌관은 상공회의소 회장, 상공인 대표하고. 중헌관은 화물종합 대표 하고. 산신제는 택시운송업체 대표 하고.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분들의 대표. 사람이 다를 수 있지만 직책은 고정된 거지. 전통이 됐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정희철이 말한 명주군수가 국사성황제 아헌관을 했다는 것은 1995 년 이전의 일이었다. 현재 강릉시의 행정구역은 1955 년부터 1995 년까지 강릉시와 명주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강릉단오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읍치성황제로 행해졌기 때문에 명주군수와 강릉시장이 모두 축제에 참가하는 전통을 준수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헌관은 전통의례의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책임자가 하고 있다. <표 15>에서 제시된 최근 단오제에서 헌관을 맡은 사람의 직책을 보면 대략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강릉시장과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동부지방산림청장, 강릉경찰서장, 강릉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공무원들이고 두 번째는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문화원, 농악보존회, 오독떼기보존회,

하평답고놀이보존회 등 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민간단체이며 세 번째는 화물자동차협회, 택시협의회, 강릉시번영회, 상공회의소, 중앙시장번영회, 농협, 축협, 수협 등 강릉시의 상공인 조직들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현관은 보통 현지 정치인과 상공업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한다.

물론 단오제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강릉지역에서 덕있고 명망있는 인사를 현관으로 추대한다”고 표현한다.²⁵ 여기서 말한 덕있고 명망있는 인사는 방금 연구자가 열거한 세 가지 단체의 책임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강릉단오제와 이런 단체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기인한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교통 업체와 단오제 주최 단체 간의 관계이다. 화물자동차협회와 택시협회의 책임자가 산신제나 국사성황제에서 현관을 하고 있으며 이는 두 업체가 강릉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지위, 그리고 강릉단오제와의 연관성에서 기인된다.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대관령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예전에 강릉에서 영서로 가는 길은 험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 영동고속도로가 뚫리고 2000년 이후 대관령 터널이 뚫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전에 강릉에 사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려면 불편했다. 이는 사실상 강릉단오제의 종교적 근원인 대관령산진 숭배 사상이 생겨난 역사적 배경이다(임동권 1971: 211-213).

이런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로 강릉단오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을 결정한다. 화물자동차회사와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이 제례 현관으로 참가하는 사례는 의례 참가에 있는 유물론적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구(舊)대관령여성황사를 관리하는 여성도 예전에 시아버지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여성황신을 모시고 단오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즉 당시 도로가 안 좋아서 차량의 안전을 빌기 위해 버스회사 등 운수업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관령신앙과 연관된 강릉단오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강릉단오제가 개최되는 기간에 강릉으로 몰려오는 관람객이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단오제위원회가 축제 기간에 셔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 강릉단오제 기간에 KTX가 운행되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는 강릉역과 단오장을 연결하는

²⁵ 강릉단오제보존회, 『2018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 p.10.

셔틀버스의 운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택시 기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차장과 단오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만 운영했다. 왜냐하면 강릉단오제의 중요한 프로그램인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를 치르기 위해 강릉시 중심지역에서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 그것은 공무원과 경찰만 동원해서는 부족하고 택시 기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택시 업체와 강릉단오제 주최측은 이런 호혜적 관계로 인하여 서로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관계는 단오제에서 강릉시택시협의회장이 현관을 하는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운수업체들과 단오제 주최측 간의 협력관계는 지역사회의 구조와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유기적 연대를 반영하고 있다.

교통운수 업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이고 나머지 정치인이나 문화예술인, 상공업자들이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들도 강릉단오제의 주최측과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찬 업체와의 호혜적인 관계는 이미 제 1 절에서 살펴보았으며 현관의 사례에서도 그런 호혜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그런 호혜적인 관계는 물질적인 도움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현관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는 1998 년부터 제례부에 가입하여 현재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단오제 현관의 선정은 단오제 주최 단체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미 형성된 사회관계와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강릉단오제에 화물자동차협외나 택시협회의의 책임자가 현관을 하는 것은 과거의 열악한 도로 상황 때문이고 중앙시장 변영회나 상공회의소, 동부지방산림청이 참가하는 것도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생업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제사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전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큰 참여 동기가 되고 전통으로 형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누가 하면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제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저거는 저런 것 때문에. 이래 가지고 고정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사람만 바뀌지, 직위는 똑같아요. 산신각에서 산림청장이 지내는 것도

이제는 고정화돼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봤을 때 ‘산림청장이니까 산신제 지내고 산에 산불 안 나가나 아니면 나무들 잘 자라고 관리 잘 하게 해 달라고 비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탐닉하는 권력적인 부분. 경찰서장이 온다든가, 국회의원이 온다든가 시의회 의장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안배했을 거예요. 그 큰 행사에 나는 빠졌어. 내가 만약에 거기 까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적당히 행사에 참여시켜 줘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걸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행사를 할 때 편의도 볼 수 있고.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

박병호의 진술에 따르면 단오제 현관의 전통은 단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에 참가하는 현관과 제사를 주최하는 단체 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에 부여된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야 단오제 현관의 전통은 지속될 수 있다. 과거의 관행을 구성한 합리적인 이유, 예를 들어 산신제와 산림청 간의 연관성만으로서 이런 전통을 유지할 수는 없다.

강릉단오제에 나타난 다양한 단체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원인은 두 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단오제 참가를 통해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박병호가 말했듯이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관을 하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고자 하며 주관 단체도 단오제에 참여하면서 홍보나 영리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강릉단오제는 일제 시대에 단오굿의 전승주체가 농민에서 상인으로 바뀌었고(황루시 2006) 성격도 읍치성황제에서 단양운동대회로 바뀌었다(남근우 2006). 그러나 강릉의 시민단체들이 계속 참여하는데 이는 단오제 참여가 가진 긍정적 의미와 긴밀히 연관된다. 특히 2005년에 강릉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단오제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원래 국가 내에서의 인정이

이제 국제사회의 인정으로 확대되면서 강릉단오제 헌관의 전통, 그리고 그런 전통을 뒷받침하는 지역의 사회관계는 더욱 정당화되었다.

다음으로 주관이나 참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합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인 것이다. 단오제에 부여된 긍정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 단오제 주최측과 강릉시 등 기구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추구한다. 따라서 단오제와 상관이 없었던 기타 단체의 책임자들도 헌관을 하게 되고 기존에 헌관을 하던 사람은 단오제보존회와 실질적 협력 관계가 없어도 헌관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이 매년 단오제 헌관을 하고 있지만 번영회는 매년 음력 정월에 제사를 따로 지내기 때문에 단오제 제사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까지 단오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중앙시장이 가진 상징적인 지위 때문이다.

“저희는 강릉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헌관하는 데 참여하는 거고. 단오제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것은 없어요. 저희는 일반 시민이죠. 딱히 단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고. 지금 다른 단체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강릉시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 남성, 50 대)

위의 내용에서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가 단오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을 부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헌관을 하는 것은 중앙시장 번영회가 일방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강릉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중앙시장의 참여는 강릉에서 가장 큰 행사에 대한 시민의 열정을 보여주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시장 번영회 등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단합하는 지역민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에서 가장 큰 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완전히 자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축제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와 그런 의미를 만들어 낸 정치적, 문화적 권력이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강제력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축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 관리의 방식과도 연관된다.

4 민간주도와 축제 거버넌스

한국에서 지역축제에 관한 담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민간주도이다. 그것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 담론과 맞물려 있는데 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자부심을 부추기려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된다. 대부분 한국의 지역축제가 관주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김명자 1996: 19; 오순환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도의 담론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공공관리 방식에서 기인된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강릉단오제의 전통은 단지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 등 민간단체만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구의 개입도 여기에 기여했다. 1960 년대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지역의 전통을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개조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민간주도라는 성격을 강조하더라도 축제 개최에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민간주도라는 축제 담론은 반드시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관민협력이나 축제 거버넌스(governance)의 새로운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축제 거버넌스란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단체 및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이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실행·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하는 체제라고 정의된다(김창수, et al. 2013: 196). 1995 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문화에 대한 한국의 정책도 “지역문화분권(de-centralization)”으로 방향이 조정되었다. 특히 2003 년 12 월에 “지방분권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지방문화 정책이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이전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2). 지방분권시대의 문화정책은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전환되고 또한 지역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 관리나 지시보다 지원과 협조가 주된 방식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도 강제적 명령이나 지시에 의지하지 않고 주로 주최와 주관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이라는 신공공관리의 형태를 채택한다. 따라서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핵심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운영 방식이다. 그런 시각에서 민간주도의 축제 담론을 볼 때 정치적 권력, 특히 지방정부의 개입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릉단오제 과거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조선민속지』의 기록에 따르면 강릉단오제는 조선시대부터 하층 지방관리들이 주도하던 행사였다(秋葉隆 1993[1954]: 193-202). 오늘날 단오제의 개최 형식이 “민간주도” 담론처럼 현대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민간주도라는 담론은 축제 주최측과 지식인들이 생산한 것인데 단오제의 주최가 강릉시에서 단오제위원회로 이관된 사건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맞물리도록 표현을 만든 것이다. 이런 표현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핵심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담론에 해당하며 많은 사람의 언행을 합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와 강릉시 공무원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단오제 업무를) 할 때부터 전혀 행정의 개입이 없었어.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도 없지만.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그때 통금이 있을 텐데 단오장만 통금이 없었어. 밤 몇 시부터 사람이 못 다닐 때야. 단오장은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런 정책이 준 혜택은 말 못 하지 뭐.”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물론 단오는 시청의 행정 개입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유네스코, 예산, 지원은 그거는 우리와 관계가 있지.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領導(lingdao 정부요원),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강릉시 공무원 함태호)

함태호의 말에 의하면 시청이 담당하는 역할은 단오제의 주관자가 아니라 브로커이다. 예산 지원 등 행정적인 업무는 시청에서 해 주고 축제의 구체적인 운영은 단오제보존회, 위원회 등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는 물론 주재집단들이 말한 “민간주도”의 성격과 맞물린 표현이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은 민간주도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주최 행동을 합리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간주도의 담론은 시민사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핵심적 가치관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주최 단체는 축제의 민간주도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런 맥락에서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은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주도를 언급한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나타난 민간주도의 담론은 아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축제 행위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시민의 협조나 자발성에 의해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축제 주최 행위를 정당화한다. 아래 두 명의 제보자는 각자 단오제 행사장의 공간 확보를 언급했으며 그들의 말에서 정부의 개입이나 축제 주최측의 운영이 아니라 시민의 협조가 행사장을 준비하는 필요조건으로 서술되고 있다.

“단오장은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행사 5 일전에 차를 옮겨 달라고 하면 다들 알아서 차를 빼 주거든요. 전 감동 받았어요. 그런 **시민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단오제가 살아지거나 그런 걸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남대천 공영주차장은 차가 많아지면서부터니까, 90 년대 말부터 됐을 거예요. 한 94 년까지만 해도 하천변에,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포장마차들이 있었거든요. 쪽. 그 포장마차들을 정리하고 아마 95 년 정도부터 주차장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단오제)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치워 주죠. 어차피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강릉 시민들이 행사 위원회에 잘 협조해 주는 거죠. 평상시에도 주차장에 차들 꽉 차 있는데 그 기간에 치워 주는 거니까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이 들어올 때 요만한 안내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를 옮겨 주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다 붙이죠.”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두 번째는 민간인에 의해 축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을 강조하며 축제 주최 행위의 사리추구 성격을 부정한다. 문화재관리국 (1977: 208)의 조사에 따르면 1970 년대부터 축제 경비는 대부분의 현지의 상공인들이 찬조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조달되었다. 위에서 인용한 제보자 두 명도 이런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다.

“예전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보다 그때 규모가 작았고 키울 수도 없었어. 예산이 없어. 시에서 백만원 줬어.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시민들한테 돈을 걷었어**. 시민들, 버스회사, 화동자동차, 택시회사, 음식점 협회. 걷어 가지고 행사를 했어. 지금도 그렇지마는 옛날에는 더. 예를 들어 그데대회 할 때 우리가 십만원 주면 숙박업협회에서 백만원 보태서 했어. 그런 애착을 많이 갖지. 그러니 시민들이 단오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을 많이 갖지.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단오제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강릉지역의 원로였어요. 원로들이 행사를 맡아요. 예를 들어 나는 미용업 하는 사람들을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의사나 약사들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능별 목표를 맡아 가지고 이 노인네들이 도는 거예요. 가서 선금을 받는 거예요. 그때 화폐 가치가 지금하고 다르지만 심지어 오백원부터 시작해서 천원, 이천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시민 돈을 모아 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세계무형유산 되고 나서 이(정부의 지원이)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전체 행사비가 한 1억, 2억밖에 안 될 때 강원시에서 지원한 규모가 백만원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행사였죠.”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시민의 기부로 행사 경비를 조달하는 것은 현재 강릉단오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시청이나 도청,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이제 축제 주최 단체에게 중요한 일상 업무 내용이다.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도 단오제 참여가 좋은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축제 주최측과 함께 단오제를 만들면서 지역민이 단합하고 강릉사람만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길놀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10 년하고 2011 년에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골이 마을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마을이 만들어진 이후에 같은 면의 마을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준비한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첫회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시민들한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다 모여서 뭔가 연습하고 준비한다는 그런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올 수 있는 거고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

위의 인터뷰 내용은 주최측과 지역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reciprocal)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담론에서 지역민들의 자발성은 단지 문화정체성을 내면화하는 지자체나 단오제 주최측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유익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표현된다. 호혜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최측 담론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이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역 축제 참여의 성향은 주민의 시민의식과 호혜성의 규범과 정비례를 한다(우경진 2017). 이는 일부 시민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 봉사정신과 책임감의 강화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순수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사회자본 축적의 수단이다. 따라서 지역민과 지역축제의 관계가 좀 더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면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동기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단오제위원회를 비롯한 주재집단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한 최진학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주재집단이 만든 민간주도의 담론은 강릉사람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담론에는 당연히 축제 주최측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주의의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다. 시민사회의 합법성이 충분히 인정된 전제 하에만 민간주도를 대외적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담론은 정치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희철이 강릉단오제에 행정적 개입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강릉단오제에 통행금지를 내리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정치 세력의 개입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정치 권력이 단오제라는 특정한 사건을 허용한 것이며 이러한 관여는 정희철의 진술에서 관주도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상 다양한 정부기구가 행정과 재정 등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축제에 관여해 오고 있다. 이점에 대해 이미 제 1 절에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의 범위에서 볼 때 강릉시가 축제의 예산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이고 그런 정책은 강릉단오제의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역할은 강릉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잘 나타난다. 준비 사업은 2003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강릉문화원이나 단오제보존회, 위원회가 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주도한 일이다. 그 당시 등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강릉시, 강릉문화원 등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그 중 강릉단오제 보호와 진흥을 위한 실행계획의 실질적이며 포괄적인 책임은 강릉시에 있다고 평가된다.²⁶ 비록 실무적 지원과 이행책임을 강릉문화원과 강릉단오제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했다고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등재 사건은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었다. 그리고 강릉시도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비롯한 획기적 발전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04 년에 관주도로 개최된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기여한 바가 많다고 평가된다. 2007 년 11 월 16 일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강릉단오제 등재 2 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에서 전임 강릉시장의 의견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당시 유네스코 부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세계무형유산 등재에 **지방정부의 시장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마 한국의 강릉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외국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한국은 지방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다니... 무형유산을 너무나 아끼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중략)... 특히 2004 년 국제관광민속제 때 지방정부의 시장들을 초청하여 국제시장단회의를 강릉에서 열었고, 그것이 2005 년 유네스코 등재에 상당히 좋은 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25 개국

²⁶ 강릉문화원, 2006,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선정 백서』, pp.72-73.

지방에 있는 시장들이 이름밖에 몰랐던 한국의 단오제를 직접 국제관광민속제 때 보고 역시 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만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2008, 『수릿날, 강릉』 제 3 호, pp.8-9.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 등재는 전임 강릉시장 심○○씨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업적에 대한 자아 평가의 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릉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강릉시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단오제를 중요한 상징기호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비록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이 강릉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상 주재집단으로서 내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준비하는 행사로서 2004 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정부의 주도로 열렸다. 강릉문화원은 이 관주도의 행사를 “자연스러움을 상실하고 강릉시민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⁷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도 국제관광민속제의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04 년 기점으로 확 줄어든 거 같아요. 2004 년 때 우리가 국제관광민속제를 했어요. 그게 EXPO 식으로 했던 거예요. 대규모 박람회 식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단오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행사장이 남대천 하구로 옮겼거든요. 하구로 옮겼더니 할머니들이 단오굿 구경하러 왔는데 단오장이 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완전히 판 세상이 됐잖아요. 아주 큰 시설들이. 박람회를 하니까 낯설잖아요. 그래서 안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사실 기존의 전통행사를 가지고 그렇게 규모를 확대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이창수의 말에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단오제 전통성의 파괴에 대한

²⁷ 강릉시, 2006,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p.765.

내부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단오굿의 주요 관람객인 노인 여성들이 줄어든 것은 기타 여러 명의 제보자들도 언급한 적이 있다. 행정기관이 축제의 전통을 바꾸려고 했지만 축제 관람을 일년에 한 번씩 치르는 연례 행사로 간주하는 시민에게 그런 변화는 축제 관람의 의례성을 구성하는 체험을 파괴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담론도 민간주도의 담론과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지역축제 거버넌스에 참여한 각측 사이에는 구체적 사건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 거버넌스는 민간주도와 관 주도 사이에서 왕복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축제 거버넌스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을 포함한 중앙정부도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 만들기에 대한 국민국가의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 간에 입장 차이가 있듯이, 중앙정부의 문화정책도 지방정부와 주최 단체 등의 실제 상황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 년도의 단오문화관 개명 사건이다.

2017 강릉단오제가 끝난 후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7 월 4 일부터 단오문화관의 이름은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변경되었다.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2 조 (관리 · 운영의 위탁)에 따르면 단오제전수교육관은 강릉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 하지만 강릉단오제를 전승·보존하는 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고 수탁자에게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다.²⁸ 따라서 건물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문화재정보다 강릉시청의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수교육관을 관리하는 강릉시 공무원 최재민도 이런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원래 문화재청의 공지사항에 맞추어서 이름을 변경하여 예산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무산되고 현재 강릉시가 계속 자체 경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문화 만들기의 일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가 구체적 행정과 재정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지역문화를

²⁸ 자료출처: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식사이트. https://www.gn.go.kr/dano/sub01_04.do

연행하거나 전시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정의는 국민국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작업은 지역사회의 체계에 대한 지역민의 실천에 달려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주도의 담론은 지역축제 거버넌스의 일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협찬업체와 강릉단오제 주최측 간에 상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혜적 교환관계가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릉단오제를 지원해 주는 정부 기관도 이런 행동을 통해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지역의 문화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통해 자기의 통치에 유리한 상부구조를 만들거나 민중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 만들기”의 전략에서 강릉단오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근대적 정치제도에서도 이른바 후견인과 고객의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s)가 존재한다면 후견인으로서의 정부기관은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자원이나 서비스에서 그들의 집합기억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건(event)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강릉시 문화예술과에 공무원이 20명 근무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에 대한 강릉시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포함한 지역축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행동은 더 큰 체계, 즉 국민국가의 문화정책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오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홉스봄 등(Hobsbawm and Ranger 1983)이 논의한 전통의 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라는 지역의 민속은 국가의 전통문화를 구성한 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현대 국가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소속감을 함양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민족 역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각 지방의 역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성립되고 지방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만든다. 선행연구에서 논했듯이 한국에서 지역축제의 변화 추세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결코 지역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민 등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1980년에 정권교체기의 혼란으로 인하여 단오제 공식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기록은 국가 차원의 정치

권력이 시민사회에 대해 침투하는 것을 보여준다.²⁹ 이 같은 공식적 통제 외에도 종교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핵심적 가치관에 대한 지역민의 실천은 비공식적 영역에서 단오제의 전통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민들의 전통 실천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정부 등 정치 권력이 그런 실천을 허락해 준 것도 중요한 맥락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중앙과 지방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개입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식인 등은 그들이 가진 문화권력으로 축제를 관리하는 정치 권력을 중개하고 있다. 따라서 단오제의 주최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지만 강릉시와 문화재청 등 권력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²⁹ 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 백서』, p.37.

III 강릉단오제 전승 맥락의 변화

2015 년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변화는 있고 변함은 없다”는 슬로건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슬로건은 단오제가 전승되는 맥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추구하는 주최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위원회는 변화를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편이고, 이에 비해 단오제보존회는 전통을 지키되 구체적 사례에서 지정문화재 행사의 변화를 인정한다.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계자는 강릉시 공무원들이며 그들의 진술에서 강릉단오제와 기타 축제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현대인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단오장의 도심 확대와 일부 “부적절한” 내용의 삭제 등을 요구하며 엄연히 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축제 거버넌스에 나타난 지방정부의 개입 상황은 제 II 장에서 일부 다루었으며 본장에서 이런 변화에서 나타난 주최 단체 관계자들의 실천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민국가의 공식적 사회통제를 뒷받침하는 윤리 도덕 체계가 관계자의 행위를 통해 작동하는 상황도 살펴볼 것이다.

1 주최단체의 법인화

1) 법인화의 경위

법인화는 물론 현재 한국의 축제 지원 정책에 따른 변화인데 강릉단오제의 주재집단에게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 과거의 실질적 운영기구인 강릉문화원으로부터 독립된 단오제 위원회와 보존회는 축제 주최로 지정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축제를 주최하는 권한과 명분을 정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강릉시와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를 통해 축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법인화는 축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중요한 사건이다.

한국에서 사단법인의 정의는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에 따라 민간기구나 회사 등 서로 다른 단체를 가리킬 수 있다. 연구자가 강릉에서 조사한 “사단법인”은 주로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하나이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며 강릉단오제를 30 여 년 간 운영했던 강릉문화원도 비영리법인이다. 1965 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강릉문화원은 1994 년에 다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강릉에서 조사한 사단법인들은 설립된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차이는 소속이다. 현재 강릉단오제의 공식 주최인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모두 사단법인이지만 전자는 문화재청에 등록되고 후자는 강원도에 등록되었다. 이런 차이는 두 단체의 서로 다른 업무 분야에서 기인된다.

위원회와 보존회가 법인화를 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는 축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며 200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중요한 계기였다. 단오제의 주관자였던 강릉문화원은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이나 단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2005 년까지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사실상 상설기구가 아니고 사무 인력도 없었다. 따라서 상설기구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릉문화원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축제가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강릉문화원도 기타 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제의 주도권을 놓고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문화원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자료에 의하면 1990 년대 중기부터 2006 년까지 축제 주최의 상설기구화에 대한 토론은 계속 이루어졌다.³⁰ 1990 년대부터 축제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상설기구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때부터 나왔다. 그러나 전담기구의 성격이나 형식에 대해 각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여러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 중에 법인화에 관한 논의는 2000 년 11 월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발간한 『강릉단오제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처음 거론되었고 2001 년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의 『단오제의 행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³⁰ 강릉단오제위원회, 2006,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pp.106-118.

인하여 법인화에 관한 공식 담론이 생산되고 수용되기 시작하여 강릉문화원에서도 단오제 전담기구의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2003년에 강릉문화원과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법인체 설립의 대안이 제시되었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앞두고 강릉문화원은 강릉시에 단오제 상설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비록 2006년 독립 직전에 단오제 전담기구의 성격에 대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강릉문화원 내의 상설기구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사단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단오제위원회는 2006년 3월에 단오문화원의 사무실로 이사가면서 본격적으로 강릉문화원에서 독립되었다. 독립된 강릉단오제위원회는 그 해의 단오제를 치르고 나서 8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그 후 정관 작성 및 등록 기타 준비를 거쳐 2007년 1월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단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위원회와 달리 보존회는 지정문화재의 전승과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비록 단오제위원회보다 늦게 독립하고 늦게 법인화를 했지만 단오제보존회 관계자들은 문체부 소속 법인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 사단법인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시장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문화재청에 소속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장병훈의 말에서 자기 단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우월감을 표시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화를 통해 단오제보존회가 축제 주최의 위상을 확보하고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태도였다. 또한 그의 말에서 보존회의 법인화는 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반영되고 있다. 즉 단오제보존회는 법인화를 통해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의 말에 따르면 1986년의 무형문화재전승

보유단체 인정과 마찬가지로 2007 년의 보존회 법인화도 법에 의거한 것이고 문화재청가 지시한 것이었다.

“따로따로 한 이유는 보존회는 법이 있어. 무형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에 대한 거는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어. ...(중략)... 보존회는 우리 ○○○국장님이 하자고 그랬어. 위원회는 당초에 법인화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 내부에서. 그런데 나중에 보존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만들었어. 우리는 미리 만들었어.”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강릉단오제보존회는 2007 년 3 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됐고 단오제위원회보다 2 달 가량 늦었다. 단체의 성격이 서로 달라서 등록 절차에 따른 시간 차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던 단체나 사람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하다.

단오제위원회의 상설화 이야기는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단법인 등록의 계기는 단오제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 단체인 강릉임영민속연구회의 법인화 사건이었다. 이 연구회는 1988 년에 처음으로 강릉민속동호회의 이름으로 출발했다가 1993 년부터 임영민속연구회로 개명해서 활동해 오고 있다. 이 연구회는 2006 년 1 월 13 일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법인화 이후의 초대 회장은 일찍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관동대 전직 교수 송영희였다. 2006 년에 단오제위원회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제안 연구 주제 학술 세미나”에서 세 가지 의견이 거론되었다. 첫 번째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안이고 두 번째는 강릉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현행 문화원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운영 방안이며, 관동대 교수 송영희가 주장한 사단법인 설립 방안이 있었다. 송영희가 강력하게 주장한 이 방안은 물론 그 당시 임영민속연구회의 등록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당시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한 동기와 어울려서 최종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송영희 외에도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관계자 중에 임영민속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법인화 사례를

단오제위원회에게 전달했고 이것이 단오제위원회의 사단법인 등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회 관계자 이상민은 2006 년도 연구회 모임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 법인화가 거론되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법인화를) 먼저 했어요. 물론 문화원은 그 전에 『문화원법』에 의해서 ...(중략)... 그쪽에서 아예 문화원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도 그때 철저하게 제도화 시켜서 왔고. 저희 같은 경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만들고, 점점 시스템이 체계화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점점 **진보**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법인화를 먼저 했었고. 그때 당시 제가 들어왔을 때도 회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은 화젯거리가 단오제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단오제에 관련되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가 주관해서 워크숍을 펼치고. 그 워크숍 자리에서 ‘단오제위원회도 법인화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고.” (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이상민)

시간 순서로 볼 때 임영민속연구회는 2006 년 1 월에 법인화를 하고 그 해 3 월에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문화원에서 독립하고 8 월에 법인화 등기를 승인했다. 비록 강릉단오제 주최 단체의 법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타 단체의 구체적인 성공 경험을 배운 것도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최단체가 독립하고 법인화한 시기는 기타 단오제보다 늦은 편이다. 경산 자인단오제는 1998 년에, 법성포 단오제는 2000 년에 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강릉단오제가 늦게 법인화한 것은 특수한 맥락을 시사하는데 즉 축제가 유명해서 기존의 구조를 쉽게 바꾸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상황은 결국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축제의 가치가 지방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달라졌다. 강릉시는 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은 강릉단오제를 지역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지역문화 만들기라는 정책에 의해 강릉문화원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합의하여 결국은 법인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늦은 법인화에는 지역에 대한 외부세계의 개입과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2) 법인화에 따른 변화

임영민속연구회와 강릉단오제위원회, 보존회 간에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즉 민속연구회의 회원이 단오제위원회나 보존회 구성원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나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법인화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즉 임영민속연구회나 강릉단오제위원회 등 단체의 법인화는 정부가 정한 조건을 맞추어서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을 하던 방식이 합법화된 것이다. 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는 1998 년부터 임영민속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단법인 등록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산이 아니라 단체를 구성한 사람들이다. 사단법인 등록을 심사할 때 공무원이 가장 먼저 불법 행위를 하는 유령단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단오제위원회나 임영민속연구회 같은 연혁이 있는 단체는 등록 과정이 상대적으로 쉽다. 따라서 법인화를 통해 단체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졌던 정체성을 제도적 권위에 의해 합법화시킨 것이다.

“그냥 무턱대고 서류 여건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조급한 일을 할 것인가 보는 거죠. ...(중략)...저희들은 대부분이 단오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회원 신상 다 들어가 있으니깐 보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단오제 예능보유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기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범죄조직을 만드는 게 아닐 테니까 이런 걸 이걸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 쉽게 된다고 미리 알려 줘서. 그런 식으로.”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

박병호가 말한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은 과거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정체성이 사단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 원인은 그러한 실적을 거둔 구성원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을 허가할 때 정부가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적 자원이나 그들이 가진 사회관계가 등록 전후에 본질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임영민속연구회와 현재의 사단법인 간에 연속성이 확보된다. 물론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법인화나 제도화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인간관계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제도는 사회관계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임영민속연구회의 사례는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법인이 된 후 그들이 만들었던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진보”나 “발전”의 관념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점을 감안하면 사단법인 등록 이후의 구성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도 그들 간의 사회관계를 구성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의 효과는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사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위원회는 법적으로 강릉문화원이나 강릉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똑같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실체가 된 것이다. 이것은 명의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단체를 구성하는 원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원칙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단법인 등록은 단오제 주최 단체의 민간기구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느슨한 관계로 구성된 동호회가 아니라 조직화된 단체로 변신한 것이다. 단오제위원회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외에도 매년 실행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실행위원회는 단오제 본행사의 각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들 약 30~40 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자문위원회는 주로 강릉과 삼척의 대학 교수나 연구자 14 명으로 구성되고 주로 축제 기획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단법인 등록 이후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는 각자의 정관을 만들어 그것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다. 단오제위원회는 단오제위원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 일년에 최소 한 번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보통 연초에 열린다. 단오제를 치르고 나서 사무실 직원들이 마무리와 결산을 다 하고 바쁘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단오제 위원이 많아서 평소에 소집하면 못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보다 이사회가 의사결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단체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보통 이사회에서 먼저 토론한 다음에 총회에 의안으로 제기한다. 따라서 일년에 이사회는 3,4 번 정도 한다. 이런 구조에서 기존에 단오제 위원이 담당했던 의사 결정의 역할은 사실상 이사들이 대신하고 있다.

연구자는 위원회 총회에 참가한 적이 있지만 이사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 2017년 12월에 연구자가 단오제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이 오후 17시에 정기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사무실을 나가야 한다고 암시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위원회 총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이고 후자는 소수의 내부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따라서 단오제위원보다 이사가 실권자가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던 단오제위원들을 중심으로 단오제가 열리는 상황과 다르다.

1990년대까지 단오제위원들이 모두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이었는데(정은주 1993: 56) 오늘날에 위원들은 이미 그런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 강릉단오제위원회는 13명의 고문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 감사 2명, 위원 71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연구자가 조사한 2018년 초까지는 고문의 역할이 이미 이사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고문은 주로 강릉시의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했는데 강릉문화원이 단오제를 운영했을 때 이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정관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고문의 역할을 대체했다. 현재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 위원 79명 이외에 이사 27명이 있다. 의사결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임원)의 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매우 상세하다.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사)은 당연직과 선출직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강릉단오제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단체 책임자와 공무원이 하고 후자는 2년 이상 활동한 단오제위원에서 선출된다.³¹

법인화를 통해 단오제위원회는 조직화와 전문화를 이루고 축제 운영 단체로 발족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체 결성 원칙과 권력 구조도 달라졌다.

³¹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정관 중 “임원 종류 및 정수 규정”에 따르면 당연직 임원은 강릉상공회의소 회장과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 지회장, 강릉교육지원청 학교운영과장,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재경 강릉시민회 추천 1명, 강릉단오제보존회 3개부를 대표하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 강릉시 이통장연합회 회장, 강릉시번영회 회장,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단오제보존회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위원회처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한다. 따라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있고 이사 12 명과 감사 2 명, 그리고 사무국이 있다. 보존회원들은 단오제위원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다. 보존회의 이사는 당연히직으로 선출되는데 즉 3 개부의 예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총무가 한다.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법인화는 인간관계를 현대사회의 규칙에 의해 변화시키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이성민의 인터뷰에서 그는 법인화를 “진보”와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 진화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현대 국민국가의 통치를 구성한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단오제 주최 단체의 법인화는 국민국가가 지역사회를 생산하는 과정과 맞물리고 있다.

또한 국민국가가 지향하는 기타 가치관, 특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지향하는 경향도 법인화의 사례에 나타난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지향하는 법인의 운영방식은기타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에 비해 단오제위원회가 가진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법인화해야지만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고 **투명성**도 있고. 그렇지 뭐.(중략)... 우리 강릉단오제하고 관계가 없지만 저기 ○○, ○○○(기타 민속보존단체) 같은 경우는 아주 투명적이지 못하거든. 인간문화재하고 친한 사람은 먼저 이수자가 되고, 조교가 되고 말이야. 그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래서 투명성이 없어. 그런 원인도 있고. 그리고 ○○같은 거 말이야. ○○○나 ○○하고, 이수자하고 전수생이 받는 공연료가 틀리잖아. 인간문화재하고 조교도 틀리고. 그래서 서로 이수자나 되려고 조교가 되려고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인간문화재 아니야? 공연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법인화된 거 아니야? 내 추측이 그래.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투명성이 없죠. 법인화 되면 투명성이 좋아지죠. 옛날에는 내 제자를 조교 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거 **공론화**를 해야 되잖아.(중략)...

개별적인, 소위 사(私)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 이거지.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중에 누구를 전수조교 시키려면 다 동의해야 되잖아. **실력**이 제일 좋거나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예전 같으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만 추천했잖아. 그런 게 법인화 되면 안 된대야.”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정희철의 말은 위에서 인용된 박병호의 인터뷰 내용과 충돌되는 점이 있다. 박병호는 사단법인 등록에 인적 요인이나 사회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정희철은 반대의 사례를 들어 사적 관계의 극복과 공론화의 등장을 거론한다. 이것은 두 사례의 시기와 두 단체의 성격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사단법인 등록이라는 것이 원래 가진 사회관계가 합법화된 것이고 등록 이후 겉으로는 사적 관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영민속연구회도 동호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탈바꿈을 도모했던 것이다. 연구회 관계자 이성민은 당시 법인화의 목적이 느슨한 인간관계로 구성된 동호회 조직이 아니라 자의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화된 틀이라는 것이다.

“그냥 단순한 동호회처럼 가도 되는데 **후속세대**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좀 더 치밀하게 정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거고. 회원들 한분 한분 ‘뭔가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게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탄력성을 지니는 게 사실 법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임의단체나 동호회로 가면,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몇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쉽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동호회도 잘 운영하면 되지만, 법인은 더 **제도** 속에 묶여 버려요. 다수의 이사가 모여지는 의사결정 과정들이 더 제도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법적인 보장도 받고. 말 그대로 법인이 법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법이 정한 법인 관련 **법에 의해서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것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면 이 모임에서 더 철저하게 조직운영에 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야지 더 맞는 거거든요. 요즘도 보면 그때 바뀌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동호회처럼 몇 사람의

의견이다 그게 아니라 철저한 제도화된 틀 속에서 우리 각자 회원들의 의사결정이 딱딱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인화를 시작했죠.”
(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이성민)

이상 두 사람의 말에서 거론된 공통점은 사단법인과 동호회 조직을 비교하는 이분법이다. 즉 동호회의 구성 원칙은 이른바 “사(私)”, 즉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통제가 안 되거나 자의적인 행동이다. 그런 구성 원리는 구성원 간에서 일치하는 의견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불리하다는 관점이다. 이에 비해 법인은 구성원 전체가 법이나 제도라고 불리는 정당화된 행동방식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행동이 자의적이지 않고 예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책임자가 단체의 운영에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성민은 법인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통을 바꾸는 중요한 이유인데 즉 미래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호회의 전통을 사단법인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과거의 행동패턴을 따르지 않고 늘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럴 때 과거에 있던 것을 모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데 그런 과거의 모델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여 미래의 행동 패턴을 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따라서 전통의 가치는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행동의 차원에서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도 언어나 담론의 차원에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도 언급했다. 즉 단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사적 관계가 아니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전통과 미래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들의 언어 표현에서 법인이라는 현대적인 경영방식과 그들의 단체가 지키는 무형문화재라는 전통 간에 위화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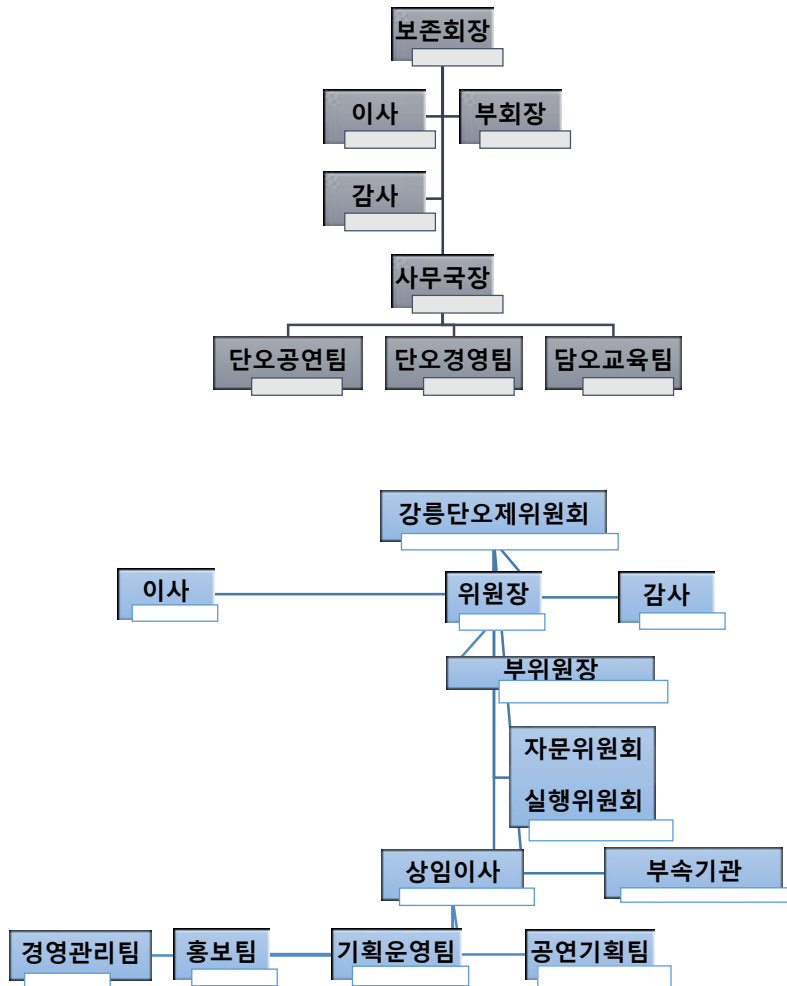


그림3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조직도

연구자의 현지조사에서 발견한 두 번째 현상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오제 운영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지만 상설기구로 존재하기 위해 경영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또한 법인화라는 과정을 거쳐 그들이 업체와 같은 조직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영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존회 관계자 장병훈은 법인화된 단오제보존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무 인력이 있으니까요. 사무인력이 없으면 이걸 못 하죠. 다른 데 실질적으로 사무인력이 있는 데는 저희하고 강릉농악(보존회)밖에 없죠.”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한국의 학자들이 이미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의 일상 업무 분야를 조사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황루시 (2015)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단오제 주최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학술연구와 콘텐츠 발굴에도 인력을 투입했고 단오제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 업무도 하고 있다. 단오제보존회도 마찬가지로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의 연행과 보존, 교육 이외에도 기록사업과 상설공연, 창작공연, 단오인형극단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사업 분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위원회 직원 김영희는 인터뷰에서 자기의 “회사”가 일년 내내 단오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일년 내내 단오제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보이기에는 단오제가 끝나면 단오제위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할까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면은 딱 여기까지니까. 사실 하반기에도 나름의 크고 작은 사업을 참여 좀 하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김영희)

단오제보존회 관계자처럼 김영희의 말에서도 단오제위원회는 축제를 운영하는 회사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상사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추구를 위해 일년 내내 단오제와 기타 사업을 한다. 그가 구술한 단오제위원회의 사업은 대략 공연과 교육, 홍보, 그리고 축제교류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회의자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다. <표 16>은 『2018 정기총회자료』에 기록된 강릉단오제 2017 년도의 사업 내용인데 강릉단오제 주최 외에도 네 가지 사업이 있다.

분야	사업명	내용
축제교류 및 탐방사업	국내외 축제교류 및 탐방	이탈리아 아몬드 꽃축제 몽골 나담축제 제주도탐라문화제 부평풍물대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선아리랑제
축제육성 사업	찾아가는 홍보사업	강릉단오제 in 세종대로
	강릉단오제 소식지 발간 사업	수릿날, 강릉 12 호 발행
	단오제 발전기금 조성	강릉단오제 발전기금 조성
	축제 산업화 개발사업	강릉단오제 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워크숍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상품 모델 개발
위탁사업	강릉단오문화관 활성화 사업	강릉단오제 홍보 동영상 제작
	단오제 바로알기 사업	5 개교 39 학급 학생이 참가한 단오제전수교육관 관람, 단오제 관련 전통공연, 체험, 유적지 답사
	강릉겨울문화페스티벌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문화예술 행사
공모사업	문화유산 방문교육	문화재청 공모사업 19 개교 62 학급 학생 대상
	공연예술분야 기획 경영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단오제위원회 인건비 조달
	국제예술교류<몽골나담축제 초청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관노가면극팀 해외교류
	창작국악 페스티벌 초청 공연 <굿위드어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모사업 단오굿 무대화 작품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무사업 뮤지컬 인형극 다노다노 개발 AR VR 게임 개발 캐릭터 M 샵 개발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조사업 <오구굿 기록화>	국립무형유산원 공모사업 강릉오구굿 기록화

표 16 2017 년도 강릉단오제위원회 사업 내용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문화예술을 경영하는 상사회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 운영경비나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단오제위원회가 자원봉사단체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강릉단오제 보존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일년 내내 강릉단오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공연이나 교육도 한다.

분야	사업명	내용	주최, 후원
교육	2018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노가면극 교육 옥천초, 영동초	강릉시
	2018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사업	관노가면극 교육 노암초, 동명중	국립무형유 산원 한국문화재 재단
	강릉단오제 바로알기 '전통문화예술교육'	사물놀이, 관노가면극, 지탈굿 교육 전 연령층	강릉시
	2018 강릉단오제육성사업 '단오문화예술교육'	관노가면극 교육 관동대	문화재청 강원도 강릉시
공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강릉관노가면극'	오축헌 야외공연장, 관노가면극 전과장 연희	강원도 강릉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관노가면극, 무속악	문화재청 한국문화재 재단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기획공연 '다노네, 다노세'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강릉시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별스런 타락'	단오굿 음악 창작공연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강원도 강원도문화 재단
	이수자 지원사업 '오신'	단오굿 창작공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 산원 한국문화재 재단
	국가무형문화재 기획공연 '다노네, 다노세'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문화재청 국립무형유 산원 한국문화재 재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강릉단오 GOOD~樂'	단오굿	문화재청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창작공연 '당금애기'	단오굿 창작공연	강릉시
체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단오로 보는 천년의 시간여행'	강릉단오굿 공연 강릉단오제 체험	문화재청 강원도 강릉시

표 17 2018 년도 강릉단오제보존회 사업 내용

<표 17>은 단오제보존회가 편찬한 홍보자료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에 기록된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단지 보존회 사업의 일부이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보존회도 법인화를 통해 상설기구가 되고 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 보존회를 바라보는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은 단오제 난장이 커지고 현대 문화예술 공연이 많아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존회가 주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보존회 관계자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원에 있을 때는 사실 정부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단오 행사만 했어요. 그때 사실 단오제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보존회는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장병훈은 2003 년에 문화원 직원으로서 단오제 업무를 담당했다가 2006 년에 보존회와 위원회가 독립하면서 보존회에 들어갔다. 일년 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보존회는 직원 3 명을 채용하여 위원회와 비슷한 규모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처럼 매년 단오제 외의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여 운영 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존회는 법인화 이후 사무인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도무형문화재 연합회”의 사무실 역할도 하고 있다. 단오제위원회의 사업 내용과 비교할 때 단오제보존회가 하는 사업은 주로 교육과 공연이 대부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이것은 물론 두 단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차이점이다. 즉 단오제보존회는 공연팀이 있기 때문에 후원을 신청하는 기회가 단오제위원회보다 더 많고 재정 상황도 단오제위원회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릉단오제의 상가분양이 운영경비를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의 사무실 직원에게 강릉단오제를 하나의 제품으로 잘 경영해야 수입이 보장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오제보존회도 단오굿이나 관노가면극 등을 제품처럼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문화예술의 상품화가 보편화된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다.

축제 산업화의 맥락에서 단오제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화폐의 매개를 통해 단오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단오제의 참여자들은 축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들에게 축제 참여는 그들에게 더 이상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 된다. 단오제위원회의 사무실에 직원이 5명밖에 없고 보존회는 4명밖에 없다. 처음에는 연구자가 이렇게 적은 수의 직원들이 어떻게 단오제를 치를 수 있느냐의 의문을 가졌는데 참여관찰을 통해 그들이 업무대행이나 의뢰 등 방식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사단법인은 운영경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직원이나 “알생”을 고용할 수 있다. 그 중에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매년 3월부터 그해의 축제를 치르기 위해 임시직원 2명을 모집한다. 보존회는 공연이 있을 때 알바생을 고용하는데 매년 산신제·성황제 때 가장 많다. 시간제 근로자의 참여는 축제 전승방식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민속학 관련 자료에서 축제의 전승 주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 공통점은 전승 주체들이 모두 축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의 전승 주체는 향리에서 시장상인, 민간단체로 이전되었지만 주체들은 관념적으로 축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까이 관찰한 결과, 축제와 무관한 사람도 여러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나 임시직원은 물론이고 단오제 해설사도 반드시 단오제에 관심이 있거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웃소싱(outsourcing)의 운영 방식이다.³²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나 업체에게 공연기획이나 무대설치, 공연진행, 축제평가 등 다양한 업무의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중요한 운영 방식이다. 특히 단오제위원회는 도시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중 공연기획 및 진행이라는 분야만 해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매년 단오제 본행사 두 달 전부터 단오제위원회에서 공연을 함께 하는 감독과 TF 팀을 고용한다. 이것이 이미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강릉단오제의 일을 도와주는 TF 감독은 강릉시에서 자기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³² 아웃소싱(outsourcing)은 주로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 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단오제위원회와 계약하여 무대설치나 공연기획, 진행 등 일을 하고 있다. 단오제가 끝나면 이 감독은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다른 축제의 운영에도 참여한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사무실에 공연기획팀이 있지만 축제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공연 감독을 상시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임시적으로만 공연 감독과 협력한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방식은 단오제위원회 같은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에게 임금 절감 등 좋은 점을 줄 수 있다. 공연 감독 이외에도 난장 상가의 부스, 길놀이 때의 음향 및 조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신주빔기 시민체험행사 등은 모두 용역업체에게 의뢰한다.

아웃소싱의 방식은 현재 많은 나라의 업체들이 사용하는 경영방식인데 이것을 강릉단오제의 운영에 도입한 후 민속축제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축제의 개최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구성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섰고 민속 축제의 개최도 이제 민속과 무관한 사람들의 참가로 인하여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도시민들이 관람하는 문화행사로 재구성된다.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법인화의 사례를 통해 민속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현상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즉 이제 민속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민속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따르는 행동규칙이나 가치관은 지역의 전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에서 단오제보존회가 24년 동안 주관해 온 행사 “사물놀이경연대회”라가 있는데 이 대회를 할 때 몇 군데의 대학에서 국악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모셔오고 심사위원은 2년밖에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말이 시끄럽다”고 보존회 관계자가 말해 주었다. 보존회 관계자들은 이처럼 행사를 개최할 때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론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일단 그런 원칙을 제도화시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행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법인화는 이러한 행동 규칙의 전환을 일으킨 사건이다.

물론 법인화에 따른 변화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은 축제 운영 주체가 명확해지고 주최 단체의 자주권이 강화된 것이다. 주최만이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로서 자리잡은 위원회는 우선 난장 상가분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난장 상가분양은 지금까지도 위원회의 중요한 운영경비 조달 방식인데 2005년까지는 위원회와 중앙동, 노암동의 자생단체와 나누어서 진행했다. 2006년에 위원회가 강릉문화원에서 독립한 후 난장 상가분양의 일원화를 이루었으며 2007년에 법인화를 통해 상가분양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따라서 상가분양 비용도 2005년의 0.8억 원에서 2006년의 1.48억 원, 2007년의 2.2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³³ 따라서 법인화는 단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운영 조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목적도 중요한 동기였다. 이 점에 대해 보존회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

2 축제 산업화와 관람객의 분리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나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민속축제 전승의 재맥락화를 보여주고 있다. 주최 단체의 법인화는 축제에 대한 법률제도의 강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정부의 유연한 공공관리 수단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른 축제의 산업화도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한 중요한 측면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의 주관 단체들도 점점 전문단체나 법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와 무대 예술공연, 체험 행사, 시민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규모 도시축제이다. 이와 대조되는 것은 일부 학자나 문화재관리국, 강릉시 등 기구가 편찬한 자료에서 지정문화재 행사만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유교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그리고 전승자만 기록하고 있고 도시축제의 기타 행사에 관한 자료는 없다.³⁴ 그것은 물론 강릉단오제를 민속으로 정의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사실상

³³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2005년, 2006년, 2007년.

³⁴ 문화재관리국이 편찬한 『강릉단오제실측조사보고서』(1994)는 조사개관과 역사와 근원설화, 제의, 무속, 무용, 음악, 연극, 복식 등 여덟 부분으로 구성되고 강릉시가 편찬한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2006)는 의례, 의례장소 실측,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 단오제의 운명 등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런 내용은 강릉단오제를 지정문화재 행사로 구성된 지역의 민속으로 보는 관점에 의해 선정된 것이고 축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부터 강릉단오제는 이미 전통의례와 기타 체육·경축 행사가 양대 구성요소로 자리잡았으며(임동권 1971: 222) 1970년대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관하던 단체들은 단오제위원회 이외에도 현지의 여고생과 대학생 단체,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있었다(문화재관리국 1977: 203-207). 그 당시의 단오제는 이미 영동 지방의 가장 큰 행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각종 연예단체들이 참가했고 난장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형성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 중에 오늘날 축제의 핵심으로 분류된 것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지 일부분이다.

그런 추세는 축제의 규모 확대에 따라 점점 강화되어 왔다. 현재 강릉단오제에 다양한 분야 중에 예술문화 단체나 축제·이벤트를 운영하는 전문업체들이 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우선 지정문화재 행사의 분야에서는 원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이 전승하던 관노가면극이 1985 년도부터 보존회팀이 결성되어 전승주체로 등장했으며 주최측이 “민간주도”의 담론에서 이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전문단체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때부터 단오제의 전통의례는 전문 단체에 의해 전승되는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의 분야도 제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런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단체들이지만 전통연희한마당이나 무대공연예술제 등 분야에 참가하는 단체는 예술문화공연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들이다. 특히 “무대공연예술제”는 수리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적 공연팀들의 공연이 프로그램에 필요요소이다. 매년 무대공연예술제를 준비하기 위해 단오제위원회는 1 월에 공고를 올려 공연될 예술작품을 선정한다. 2018 년에 공연 작품 총 15 개를 선정했는데 공연하는 단체들은 모두 전국 각지에 있는 전문 예술인 단체들이다.³⁵ 이런 과정은 기타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입찰의 형식과 비슷하다. 그런 방법을 통해 단오제위원회는 행사의 규모와 공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무대공연예술제는 선정된 예술작품과 국내 예술단 초청공연, 그리고 시·도립 예술단 초청 공연으로 구성되는데 2018 년의 무대예술공연제는 아래 <표 18>과 같다.

³⁵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사이트에서 선정결과를 알리는 공지가 있다.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29&kind=2&IDX=5143>

행사명	행사기간	장소	참가단체
무대공연 예술작품 선정작	2018.6.14~6.21(8일간)	수리마당, 아리마당,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사물놀이 느닷컴퍼니, 에스비 벨리댄스, 한국블루그래스 음악클럽, 메노뮤직, 사)한국국악협회 동해지부, 플룻아모르, 드림팩토리, 전통예인집단 쉼, 아트필 윈드오케스트라, 거꾸로프로젝트, 재미퍼커션아트, 우리가락예술원, 한소리청소년국악봉사단 다운, 강릉파인무용단, 강릉문화원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제주탐라문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정선아리랑제 부평풍문대축제
시도립 예술단 초청공연			골드페스티벌(어르신 한마당)

표 18 2018 년 무대공연예술제 내용

<표 18>에서 볼 수 있듯이 무대공연예술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들은 전문 예술단체들이다. 관람객이 축제에서 보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처럼 전문 단체들이 준비한 공연들이다. 그것은 상술한 강릉단오제의 산업화와 사회분업의 발달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으로 원래 관노가면극이나 거화행진 등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이 공부 외에 다른 일에 참가하는 것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따라서 축제 주최측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더 이상 무임노동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 알바생이나 업체직원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원봉사자가 점점 중요한 사회단체로 부상하기 때문에 학생이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가령 지금의 축제에 학생이 오더라도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현대적 제도에 의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자원봉사자 외에 행사장을 준비하는 것은 이 분야의 전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수리·아리마당의 커다란 공연장과 단오제단, 난장 부스,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이런 전문 업체가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모두 사무실이 있지만 직원이 몇 명밖에 안 되어 공연이나 축제를 운영할 때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맺은 업체 중 강릉 현지에 사무실을 둔 N 미디어가 있다. 2018 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단오제위원회가 주관한 “길위의 신명 IN 월화거리” 행사도 무대설치와 음향, 조명 등 용역은 N 미디어에 의뢰했으며 1 월부터 이 업체 관계자들이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사업 추진에 관하여 회의했다. 그러나 N 미디어도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여 무대설치를 했다. 이처럼 단오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업체들은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를 맺은 경우가 많다.

강릉단오제뿐만 아니라 조사 기간에 연구자가 관찰한 강릉문화재야행 등 지역축제도 다양한 용역업체에게 의뢰하고 있다. <사진 9>는 강릉단오제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왼쪽)와 강릉문화재야행에서 무대음향을 담당하는 업체(오른쪽)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서 축제를 만드는 일이 이미 산업화 되었으므로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임의단체가 감소되고 업체나 법인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단오제위원회나 보존회 등 주최 단체는 기획과 일부 행사를 운영하며 행사장 설치나 관리 등 일은 더 이상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사진9 축제 조명 및 음향 용역업체의 차량

그것은 단오제위원회가 추구하는 축제의 현대적 모습일 뿐만 아니라 축제 소비자인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018 강릉단오제 본행사의 셋째 날에 여성 두 명이 연구자가 있는 제 1 안내소에 와서 공연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그 때 아리마당에서 관노가면극을 시연하는 노암초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이었는데 보존회팀 등 성인들이 공연하는 것에 비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 사건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축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임시로 동원된 자원봉사자나 기타 시민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처럼 전문적 단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정성껏 보여주는 공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오제위원회가 축제를 기획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여 그들은 관광객의 취향에 맞추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런 의도는 매년 하는 모니터링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모니터링보고서(p.1)에서 방문객의 단오제 참여 형태와 인지도, 만족도,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조사하는 업체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축제 산업화의 현실을 직면한 단오제 주최 단체들은 현대인의 문화소비 경향에 맞추어 축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런 추세는 축제 관람객과 축제 개최의 분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들은 축제를 공동으로 만드는 재미보다 외부인으로 축제를 구경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지역의 전통이 국민국가의 문화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즉 지역민의 자발성보다 국가 제도나 사회규칙, 경제원리 등에 의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 년부터 정식으로 단오제위원회에 가입한 관계자 이동준은 단오제가 “강릉사람들이 노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민참여가 축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들은 시민의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민 화합의 모습도 도모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화합의 모습에서 축제 주최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는 전문성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외부인들이 볼 때 강릉단오제에 할머니들이 없다면 단오제도 없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강릉단오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노는 거예요. 강릉시민들이 있으니까 강릉단오제가 있는 거예요.”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그러나 이제의 단오제 관람객은 참여자가 아니라 단순한 구경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오제 주최측이 구상한 시민 화합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비록 한국의 학자들이 축제가 스펙트컬이 되면서 축제를 같이 만드는 지역민이 구경꾼으로 전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류정아 2003),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참여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김성표 2016)고 주장하지만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축제 주최측이든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 방문객이든 축제는 “더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규칙에 의해 부단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발전되면서 직업이 세분되기 때문에 축제나 기타 문화예술의 분야는 점점 제 3 차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 등 도시축제는 다양한 도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단순히 시민의 자발성만으로 개최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단오제가 강릉사람이 노는” 것이라고 하지만 강릉단오제 같은 대규모의 도시축제는 가정축제나 작은 규모의 마을축제에 비해 운영 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최는 축제의 기획이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단체나 업체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일만 하고 행사장에서 노는 사람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떠나는 구경꾼들이다.

강릉단오제의 관람객은 일년에 백만 명 정도 된다.³⁶ 한국인 관람객만 해도 성별이나 연령, 지역, 직업 등에 따라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 2018 강릉단오제에서 연구자와 같이 봉사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느낀 것은 젊은 층의 관람객 중에 강릉단오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안내소에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중앙시장 닭강정거리의 위치나 행사장에서 안목커피거리로 가는 교통편이었다. 이 두 군데는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인기가 많은 강릉의 필수 관광코스이기 때문이다. 2017 년 12 월에 강릉에서 KTX 가 개통됐기 때문에 서울 등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기차를 타고 와서 구경하다가 당일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이 관람객의 새로운 추세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당일치기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단오장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짧다. 또한 지역 출신도 사람들의 관람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타 도시에서 온 단체관광객들도 강릉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³⁶ 『강원일보』 2018 년 6 월 22 일의 보도에 따르면 2018 년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람객이 109 만 명이 되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8062100047>)

단오장에서 구경하는 시간이 1 시간 가량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단오제를 방문하는 것이 관광인류학에서 말하는 성지순례(pilgrimage)의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³⁷ 왜냐하면 다양한 관광객에게 단오제 방문의 동기도 각자 다를 수 있다. 젊은 층의 관람객에게 안목커피거리나 중앙시장 닭강정거리가 성지로 간주되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주최 단체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행사장의 질서와 시설물을 개선하고 더 좋은 축제의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그런 맥락에서 주최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민의 자발성만이 아니라 화폐경제에 의한 노동 교환도 전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예산 지원의 신청은 보존회나 위원회의 일상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그것은 시장경제나 화폐경제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축제 주최가 사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유형이 기계적인 연대에서 유기적인 연대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릉단오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지역축제의 양적 팽창이다. 강릉시만 해도 일년 중 강릉문화재야행과 강릉커피축제 등 유명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현지인이나 외지 관광객에게 유일한 선택이 아닌 것이다. 현재까지 규모의 측면에서 강릉단오제를 뒤따를 수 없지만 이미 강릉단오제가 지녔던 가치를 희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강릉단오제가 현재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제적인 분위기나 비일상적인 체험은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을 통해 얻은 정당성은 전통의 지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축제 주최 단체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전통보존에 대한 그들의 열망만이 아니라 축제 개최나 문화재 전승은 그들의 생업이기 때문이다. 축제 산업화에 따라 축제의 성격이 달라질

³⁷ 관광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성지순례(pilgrimage)의 개념은 주로 Victor Turner & Edith Turner(1978)가 논의한 것이며 성지순례가 지닌 liminoid 한 특성으로 노동과 놀이, 노동과 레저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사회구성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노동이나 종교의례에 비해 놀이나 레저는 행위주체가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Nelson Graburn(1983), Alexander Moore(1980)등 학자는 의례적인 표현의 측면에서 성지순례와 관광의 공통점을 지적한다. 여기서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릉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단오제 구경이 가장 큰 방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를 같이 만들던 각 주체 간의 관계도 같이 변했다. 이제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는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측이며 지역민은 축제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측이 되었다. 특히 국민국가의 체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민속축제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맥락에서 단오제를 개최하는 단체들은 이런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주최와 관람객의 분리는 지역민의 무관심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전통의 변화를 가능케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통의례가 가진 종교적 기능이 축제의 핵심을 구성했을 때 그런 종교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지역민들은 축제의 변화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축제가 가진 종교적 기능이 약해질 때 그것은 현대적 경영의 대상이 되고 현대 산업의 일부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유교제례의 변화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신격 중 대관령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이 있는데 이 둘을 음력 4월 15일에 결혼시키는 것이 단오제의 중요한 의례이다.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우선 보존회원들이 대관령 정상에 올라가서 신사제와 국사성황제를 치른 다음에 신이 내려온 단풍나무를 배어서 시내에 있는 국사여성황사에 가져온다. 따라서 음력 4월 15일의 전통의례는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은 “4월 15일 제사만 치르면 단오제를 절반 치렀다”고 말했으며 이 말은 봉안제를 포함한 이날의 전통의례가 여전히 중요한 행사임을 시사하고 있다.

2018년 5월의 단오제 전통의례인 봉안제(奉安祭)에서 종헌관은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며 여성이었다. 유교제례에서 여성이 헌관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강릉시 전직 공무원 이영표에게 물어보았다. 이영표는 여성황사가 2009년에 여기로 옮겨진 이후부터 봉안제 종헌관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성이 제사를 남성과 같이 준비하지만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평가했고 한국에서 여성이 참가하는 제사는 경주의 선덕여왕축제와 강릉단오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는 원래 여성을 기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제사에 여성이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강릉에서 여성이 봉안제에 참가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했다.

이영표는 강릉 출신이고 강릉시 공보관에서 근무했으며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현지의 문화예술 행사를 보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강릉단오제의 전통의례는 그가

보도하는 대상일 뿐이고 그의 현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그의 가족 제사라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영표의 태도는 단오제 핵심인 전통의례의 변화에 대한 방관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통의례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가진 실용성을 상실하여 민속의 이름으로 지정되면서 구경거리(spectacle)가 되고 지역민은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가 된다. 그들에게 전통의례는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민속예술이고 특별히 준수해야 할 의례가 아니다. 따라서 시연자들이 연행의 방식이나 내용을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바꾸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은 개의하지 않는다.

“우리 구경하는 사람 어떻게 알겠소? 참 딱하게 묻네. 단오제위원회 이런 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졌다 이걸 알지. 구경가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강릉시 하평리 노인회관에서, 남성, 70 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안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애기도 할 줄 몰라.” (옥천노인회관에서, 여성, 70 대)

이영표와 상술한 노인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단오제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은 전통 변화의 중요한 맥락이다. 다양한 지역민들은 각자의 관심사나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단오제가 더 이상 모든 시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오제가 지역민의 삶에서 중요한 의례나 풍속으로서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지키던 사회규칙이 풀렸기 때문에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워진 것이다. 그런 현상은 도시화의 특징과도 연관된다. 즉 마을 주민에 비해 도시민은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방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행동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등 전통민속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무관심한 사람은 변화에 크게 개의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는 단체에서 의견이 통과되면 변화가 쉽게 발생한다.

전통의 변화는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반영한다. 민간주도의 담론은 지역민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7 년 보존회와 위원회의 법인화에

따라 축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임의단체보다 제도화된 전문단체의 행사 주관에 의지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민이 축제 개최에서 분리된 것은 그들의 무관심과 맞물리는 현상이며 축제 산업화라는 현대적 전승의 맥락을 만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단오제는 민간주도에서 “법인주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

3 무형문화재의 현대적 전승

1) 전승자의 재량과 국가 체계의 개입

강릉단오제는 무형문화재로서 고대유적이거나 고궁 등 유형문화재와 달리 인간문화재나 예능보유자를 비롯한 전승자들의 연기나 연행에 의해 보존된다. 따라서 전승자의 개인적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는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상의 세 부문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우선 매년 단오제에서 단오굿이 일정한 내용과 순서로 공연되는 것은 위의 제 2 절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무당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굿을 안 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7 년에 지신굿과 칠성굿을 하지 않았다.³⁸ 이 두 가지 굿은 1970 년부터 강릉단오제에서 기본적인 의례로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것은 그 해의 행사 일정 변경과 관련된다. 그 해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07 년 단오굿을 시연한 무당들이 많이 와서 축원굿을 8 석이나 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 찾아온 무당들을 모두 축원굿을 시연하게 하고 지신굿이나 칠성굿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 2007 년의 강릉단오제는 본행사가 처음으로 8 일로 연장했고 그해의 중대한 사건에 맞추어서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어서 제차 진행에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 심청굿은 대개 단옷날에 하는데 그해 군웅장수굿을 하고 나서 바로 2 시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제사와 단오굿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네 시간 가까이 되는 심청굿을 하는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다음날의 성주굿과 순서를 바뀌어 음력 5 월 6 일에 심청굿을 했다.

³⁸ 임영민속연구회, 2007, 『2007 강릉단오제의 원형보호 및 전승성 연구-모니터링을 중심으로』, p.59.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굿의 일정 변경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2014 년에도 일어났다. 그 해의 강릉단오굿에 “세월호희생자위령굿”을 단옷날에 하기로 했으므로 두 시간짜리 성주굿을 하루 앞당겨서 했고 세 시간짜리 심청굿은 다음날인 음력 5 월 6 일로 미루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굿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일정이나 내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연구자가 현지조사에서도 발견했다.

2017 년 10 월 말에 관동대 전직 교수 소영희가 단오장에서 용굿을 진행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관객이 20 명도 안 됐고 연행하는 무당도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18 시에 끝나기도 예정됐던 용굿을 15 시경에 마무리했다. 굿을 보면서 소영희는 옆에서 무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은 “굿처럼 신축성이 있는 것이 더 있어요?” 라는 표현이다. 소영희는 무속 연구자로서 굿을 많이 보았고 많은 무당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따라서 굿의 변화를 당연시하고 그것을 합리화한다.

“어느날 서울에 있는 무당이 저를 초청했어요. 마침 그 다음 날 일이 있어서 굿을 다 못 볼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은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요즘 굿도 옛날 같지 않아요. 24 시간 하면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굿을 8 시간만 하고 끝났어요. 요즘 단오굿도 밤새 하지 않거든요.” (관동대 전직 교수 송영희)

일찍 한국 학자들은 변화가 굿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전승과정에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무당들이 굿의 내용이나 연행 방법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의례의 영역을 확장시키기도 한다(윤동환 2000, 2011). 따라서 위의 송영희의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생생한 언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단오굿만 아니라 관노가면극의 연행에도 그런 신축성이 있다. 연구자는 2018 년 3 월부터 오죽헌 한옥마을과 오죽헌시립박물관 마당에서 관노가면극부 회원들이

상설공연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시연자들이 관중들의 반응 등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보존회원들이 연행하는 내용이나 방식을 약간 바꾸는 것을 관찰했다.

2018 년 3 월 17 일, 오죽헌 한옥마을 마당에서 단오제보존회원들이 관노가면극을 연행했다. 그날의 공연은 강릉문화올림픽의 한 행사였고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시기였다. 따라서 그날의 공연을 보는 관객 중에 외국인이 많았다. 양반광대 역을 하는 시연자가 등장한 후 외국인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시시덕거리는 척하면서 연기를 시작했다. 외국인 여성들도 시연자와 적당히 상호작용을 했다.

2018 년 6 월 2 일, 오죽헌시립박물관 마당에서 관노가면극이 연행되었다. 시시딱딱이 역을 하는 시연자 두 명이 몸싸움을 하는 척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찬 척하자 상대방이 손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땅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척했다. 옆에 있는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웃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시연자는 같은 팀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관객의 신분이나 반응 등 현장의 상황을 보고 약간의 변화를 시도했다. 3월 17일의 공연은 시연자가 양반광대의 특징을 파악한 후 연기를 한 것이다. 관노가면극에서 양반광대가 등장하는 과장은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같이 춤을 추면서 연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관객과 정당히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현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탈춤의 줄거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서도 시연자가 인물의 신분 특징을 잘 파악하여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시시딱딱이는 관노가면극에서 양반광대와 소매각시의 사랑을 훼방하는 악역이기 때문에 동작이 상대적으로 거칠다. 따라서 사타구니를 발로 차는 것은 인물의 신분과 어울리는 것으로서 현장 분위기를 가볍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시연자가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이외에도 시연자 자신의 신분 조건에 따른 연기의 차이도 있다. 2017 년 12 월 2 일, “전수교육관 교육프로그램 결과발표회”에서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일반인이 구성된 팀이 공연을 했다. 각자 집단의 성격에 따라 연행되는 내용이나 방식이 약간 다르다. 유학생들은 서투르기 때문에 몸짓이 딱딱한 편이었고 일반인팀은 평소에 보존회팀이 하는 것처럼 무난하게 연행했다. 대학생들은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공연을 했다. 예를 들어 양반광대가 등장할 때 소매각시를 보고

몸매가 좋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두 손으로 콜라병을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에 자살했다가 다시 살아난 소매각시는 계속 죽은 척하면서 양반광대를 조롱했다. 이런 내용은 기타 사례에서 관찰하지 못했고 대학생들이 자기의 신분 특징을 살려서 덧붙인 것이다.

지정문화재 행사의 연행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전통이라고 여겨진 것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핵심요소가 고정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히 보존회원이나 시연자들의 개인적·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들이 따르는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사진10 관노가면극에서 연행되던 모의 성행위 장면

<사진 10>은 예전의 관노가면극의 한 장면을 담은 사진인데 장자마리가 모의 성행위를 하고 있다.³⁹ 한국의 민속에는 성(sexuality)에 대한 묘사가 많았는데 문학에도 성과 표현된 표현은 삼국 시대부터 있었고 『변강쇠가』와 『춘향전』 등 구비문학 작품에도 나타난다(김종대 2004: 26-32).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적 묘사는 주로 풍요기원과 해학의 의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주로 동해안의 어촌에서 성기봉납 제의의 형태로 성에 대한 민간신앙이 전승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강릉이나 고성, 삼척 등 지역에 처녀의 죽음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신에게 목제 남성 생식기를 받치는 제의가 있다(김종대 1999: 193-231).

³⁹ 사진 출처: 강릉시, 2005, 『강릉의 기자신앙과 문화』, p.17. 모의 성행위라는 정의는 문화재관리국, 1994, 『강릉단오제실측조사보고서』, p272, 370; 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백서』, p.92 등 자료에 기재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신앙이나 성풍속은 현대사회의 질서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민속신앙이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성의 표현은 하층민의 풍속으로 취급되었으며 현재의 한국에서 그런 풍속을 지방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로 승화시킬 때 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공연에서 성행위를 전시하는 것은 현대 한국사회의 심한 금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의 성행위의 장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이명준은 “그거야 전승자의 재량에 따라서 한다”고 모호하게 돌려 답했는데 이런 대답에서 그 자신도 이제 성에 관련된 풍속의 전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윤동환 (2014: 242)은 단옷날을 ‘보리밭이 남아나지 않는 날’, ‘홀아비나 과부가 구제받는 날’이라는 민담을 제시하면서 단오제의 놀이성을 논의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민담에만 존재하는 민족지적 현재에 불과하다. 관노가면극을 포함한 단오제의 전통의례는 그것이 연행되는 맥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보존회원은 그들이 지키는 현대사회의 규칙에 맞추어 공연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 규칙은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것도 있지만 성관념 같은 전체 국민이 지켜야 할 사회규칙도 있다. 따라서 지역 전통이 국가의 문화로 재구성되면서 윤리 도덕을 포함한 국가의 체계는 갈수록 강력하게 전통 보존의 행위에 개입하게 된다.

같은 전통의례로서 단오굿에서 “세월호희생자 위령굿”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행위자가 국민국가의 사회문화적 체계를 실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전통의례 그 자체가 아니라 전통이 전승되는 맥락을 형성하는 세력 관계의 변화이며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단오제의 전통은 이렇듯 국민국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단히 변화해 가고 있다. 물론 그런 개입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전승자나 관계자가 현지의 상황에 맞게끔 수용하고 조정한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한국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런 영향은 구체적 행위자가 세월호를 추모하는 언행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해의 강릉단오제가 지역의 경사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지만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단체가 단오장에 와서 시민 서명운동을 하다가 야단맞았다. 그러자 단체의 책임자가 단오제라는 경축행사가 전국적 추모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고 하며 단오제 관계자와 말다툼했다.

“그래서 책임자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풍악을 올리고 그렇다고 나한테 신경질을 내는 거야. 나는 속으로 ‘네가 못 하게 해 봐. 너를 욕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다 세월호의 아픔을 전체 국민이 다 공감해도 그렇게 말하면 **강릉사람들이** 안 받아주거든. 사람이 돌아가신 거는 안타깝지만 돌아갔다고 해서 그냥 경건히 앉아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누가 길놀이 했어? 우리 **서민들**끼리 같이 한 거잖아.”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위의 내용에서 이동준은 “민간주도”의 담론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법화하고 있다. 즉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단오제를 말리려는 행동은 국가라는 큰 체계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단오제를 그대로 하자는 의견은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전통과 국가 체계의 충돌에서 지역축제는 부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월호 희생자 위령굿을 했다는 사실은 지역축제의 전통과 국가 체계 간의 타협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사건이며 관계자 이동준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강릉시청에서 정부가 설치한 분향소 외에도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설치한 분향소가 있었다. 원래 단오장 한 가운데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축제 관계자가 강력해 반대해서 입구 쪽으로 옮겼다.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릉단오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건데. 서민들이 일년에 한번씩 기다려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가는 축제데 안 할 수 없다. 자기들은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데 몇 가지만 요청해도 되냐 물었어. 입구에 있는 분향소를 단오장 가운데 옮겨 달라고 했어. 나는 ‘단오장은 종교도 관계없고, 남녀노소도 관계없고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관계없이 와서 노는 게 단오제 아니냐? 여기는 이념도 없다. 근데 단오장 가운데 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단오제의 정신을 어기는 게 아니냐?’ 대신에

내가 시에 얘기를 해서. 지금 단오장 나가는 데 있잖아. 아치 설치하는 데에 분향소를 설치했어.”(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2009년의 분향소 사건과 2014년의 세월호 위령굿 사건은 지역사회에 개입되는 더 큰 체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지역축제는 축제 거버넌스에 의해 정치 권력의 직접적 관여를 상당한 정도로 배제할 수 있지만 지역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1980년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공식 행사가 취소된 것은 국민국가의 정치적 체계가 적나라하게 지역에 개입하는 극단적 사례에 해당한다. 그 외에는 국가의 체계가 지역 전통에 개입되는 방식은 이처럼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문화적 체계에 대한 행위자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그들은 기존에 준수했던 지역사회의 전통에 따라 국민국가의 체계를 실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즉 살린스(Sahlins 1985)가 논하는 사회구조의 결합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유연한 실천이 강릉단오제가 국가의 문화로 편입되면서도 자기만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2) 다양한 산업의 참여와 경제성의 강화

위에서 논했듯이 강릉단오제가 축제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만드는 사람은 기존의 보존회 단체에서 다양한 업체나 단체로 확대되었다. 과거의 강릉단오제를 전승하는 주체들은 단오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강릉단오제의 규모가 커지고 의미 분야도 다양해졌다. 이 새로운 사회 맥락에서 단오제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은 더 이상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시설물의 개선으로 인하여 축제 관계자들은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관령산신제·국사성황제의 시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든 것은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수반한 현상은 사회분업의 발달인데 이는 강릉단오제의 전승에 참여하는 단체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제례의 준비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거하고 맞물려 갈 거예요. 뭐냐면 전국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커 가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예요. ...(중략)...그게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선이다, 그러면 생선 집에다 배달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생선 가게가 엄청나게 큰 가게면 직원이 여러 명 있어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지고 와, 다른 걸 가지고 와’ 이렇게 될 텐데. 주인,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다 주문을 시키면 그렇게 배달을 왔다가 잘못 됐으니까 물리고 다른 걸 가지고 와, 이러면 사실상 어렵죠.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코너를 맡은 사람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진 거죠. 전에도 배달을 시킨 것들은 있었어요. 조금씩 배달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떡이라든가. 떡은 우리가 직접 만들지만 쌀을 방앗간이라는 데 가 가지고 쌀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쌀을 방앗간에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떡을) 갖다주고, 그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트가 점점 커지면서 대형마트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식재료가 거의 다 있으니까.”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

박병호의 말에 따르면 배달이라는 방식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부터 떡 등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모든 제수를 주문할 때 배달을 이용하게 된 원인은 새로운 경제 부문이나 직업의 등장이었다. 사회분업의 발달은 강릉단오제 참여자의 신분 구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정문화재 행사는 여전히 축제 주최측 관계자들이 직접 소품을 만들거나 준비하지만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아니다. 그 외에 행사는 단오제위원회에서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대사회의 질서에 따른 축제 운영 방식의 변화는 축제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었다. 전통의례 때 현장을 마련하거나 제사 음식을 배달할 때 이제 보존회나 위원회와 고용관계나 거래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령 의례를 연행하는 보존회원들에게 단오제의 의미가 여전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에게 단오제는

생계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람들이 축제 산업에 참여하면서 강릉단오제에 새로운 의미체계를 만들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연고나 연줄에 의해 축제를 만드는 형식을 바꾸었으며 이제 금전거래에 기초한 고용노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수반한 문제는 물론 금전적·경제적 요소이다. 전통의례의 경우 제물 비용과 인건비가 의례의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로 부상된 것은 송신제 시간의 변화에서 엿보인다.

단오제 본행사는 2007 년부터 5 일에서 8 일로 연장했지만 송신제의 시간은 2010 년부터 본격적으로 음력 5 월 8 일로 변경되었다. 단오제보존회 관계자들은 2008 년에 한 번 변경했지만 조전제와 단오굿을 하루 더 해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고 2009 년에 다시 원상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2010 년부터 지정문화재 지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송신제의 시간을 음력 8 일로 변경했다. 단오제보존회의 관계자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인건비 문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민속 전승의 새로운 맥락에서 경제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강릉단오제는 교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되어 그 전통을 전승하거나 전시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람도 인적 자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강릉단오제의 무대공연 등 행사는 물론이고 전통의례도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연행하는 것으로 된다. 기존의 민속학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굿은 그것을 시연하는 무당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다.⁴⁰ 또한 강릉에서 단오굿을 시연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무당만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는 업체와 조명업체, 보조인력 등도 있다. 학자에게 민속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생계수단인 것이다. 특히 강릉단오제 같은 대규모 축제에서 연행되는 굿은 공연 효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연자 외에 무대설치나 조명, 음향 등 전문업체에 투자되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속 전승의 맥락을 구성한 요소 중에 경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⁴⁰ 일부 학자는 무당이 시연하는 굿을 “무업”이라고 표현하며 특히 김태곤(1981: 40-149)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 여러 지역의 무당에게 무업이 중요한 경제수입이다. 한국에서 무형문화재를 시연하는 무당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생업을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 측면은 강릉단오제의 변화 과정을 수반한 현상이다. 2007년 이전에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강릉문화원 안에 있을 때 단오제 전담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행사 규모도 제한되었다. 축제 규모의 확대는 결국 전담인력의 확보와 단체의 고정된 수입의 확보에 의해 가능해졌다. 따라서 단오제가 오늘날의 규모를 형성할 수 있는 원인 중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요소이다. 2006년부터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상설기구로 독립했기 때문에 행사 내용의 변화나 규모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 강릉단오제의 본행사 시간을 5일에서 8일로 연장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오제에 오는 상인들이 본행사 시간을 늘리자고 했고 주최측도 현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연장하려고 했으며 마침 예전에 팔단오에 관한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8일로 늘린 것이다.

“8일 하는 거는 거의 토요일을 많이 끼니까. 토요일을 많이 끼어서 하기 위해서 늘렸지. 관광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팔단오라는 말도 있었고. 날짜가 맞지 않지만 팔단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토요일에 많이 오니까 8일 하면 중간에 다 끼잖아. 5일 하면 주중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8일 하면 주말 끼니까.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도 제공하고. 와서 장사하는 노점상들도 5일이 너무 짧고.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늘렸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난장 상인들이 단오제에서 장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단오제 본행사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단오제 해설사 김상훈과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의 진술도 이런 사실을 입증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까지 단오제 난장의 상인들이 공식 행사가 끝나고도 철시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장사했다.

“원래 5일 했을 때는 상인들이 끝나고도 안 갔어요. 여기저기서 계속 장사를 해서 관리하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예 8일로 연장해 주고 대신 관리할 때 잘 협조해야 하는 거죠. 시작할 때 딱 시작하고 끝날 때 다 철거해야 하는

식으로 조선을 내걸었거든요. 그분들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비용을 벌기 위해 되도록이면 오래 장사하고 싶죠. 그리고 그 비용이 점점 많아지니까 5 일에서 8 일로 연장한 거예요. 비용을 벌기 위해서.”(강릉단오제 해설사 김상훈)

“단오제는 지금 공식 행사가 끝나면 상인들이 철시하잖아요. 근데 2006 년 이전에는 철시가 안 됐어요. 철시가 안 되고 이 단오장 장터가 한달씩 갔어요. 한 달씩. 시내에서 기존에 자영업 하는 상인들이 맨날 시청에 와서 항의했죠. 빨리 철시해 달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상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그랬어요. 정말 상인들이 스스로 기간이 끝났다고 접기 시작한 게 2007 년, 2008 년부터예요. 2008 년 정도 돼서 이게 정착됐어요. 예전에 제가 단오장에 한 두 달씩 나가 있어야 했어요. 이 철시가 돼야지 끝나는 거지.”(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강릉단오제는 역사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난장상인에게 중요한 장터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5 일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⁴¹ 따라서 상인들이 단오제 공식 행사의 기간을 늘리자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 II 장에서 제시한 강릉단오제 본행사의 시간표를 보면 2007 년 이후 본행사 시간이 8 일로 연장되면서 주말을 두 번 이용한 경우가 있고(2007, 2009, 2010, 2013, 2014, 2017) 주말과 현충일을 합쳐서 3 일(2008, 2011) 내지 4 일(2016)의 휴일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주말이면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도 단오제에 구경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본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관찰한 2018 강릉단오제는 주말에 사람들이 서울 등 지역에서 더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중보다 단오장이 더 붐비었다. 따라서 축제 기간이 길어지면 상인들의 수익성이 더 좋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축제 산업이 가진 경제적 측면이 축제 본행사 시간의 연장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는 행사장을 관리하는 주최측과 상인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⁴¹ 『강원도민일보』 2001 년 6 월 29 일의 보도에 “실제로 매년 단오제를 찾는 상인들은 대부분 전국의 각종 축제를 순회, 지역마다 특징있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난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는 시각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사 제목 “열광·환호 단오장 밤 ‘짹다’”.

이창수가 말했듯이 2006 년 전의 단오제는 서류 상에 본행사가 5 일이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난장 상인들이 한국에서 최대의 단오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장에 손님이 끊길 때까지 버티고 철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으로 등록된 단오제위원회가 난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인들과 타협한 결과로 본행사 시간을 8 일로 연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대한 관찰도 이런 의견을 입증하고 있다. 2018 년 강릉단오제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였으나 실제로 6월 12일부터 난장의 부스가 모두 설치되고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일찍 와서 상가를 운영했으며 품바 공연단도 6월 13일부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축제 산업으로 발전된 강릉단오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노가면극이나 단오굿도 관객의 취향에 맞추어서 연행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같은 지정문화재 행사인 유교제례의 변화도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맞물리고 있으며 특히 의례의 소비자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교제례 축문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1967 년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유교제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되었다. 강릉단오제의 유교제례는 강릉의 수호신들에게 올리는 대관령산신제와 대관령국사성황제, 대관령국사여성황사 봉안제, 영신제, 조전제, 송신제로 구성된다. 아래의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년 이후의 자료에서 조전제와 송신제의 일부 내용이 달라졌다.⁴²

	1977 년	1997 년	2018 년
조전제 (한문)	維歲次 某年干支 五月某干支朔 某日某干支 某官 某 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維歲次 某年干支 五月某干支朔 某日某干支 某官 某 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維歲次 某年干支 陰五月某干支朔 某日某干支 某官 某 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⁴² <표 19>는 2018 강릉단오제 제례 현장 관찰과 아래의 자료에 의해 작성했다.

강릉문화원, 1977, 『임영문화』 제 1 호, pp.173-174.

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 백서』, pp.161-171.

심오섭 외, 2017, 『강릉단오제 제례 전수교육 교본』, pp.179-185.

	伏惟尊靈	位我重鎮	伏惟尊靈	位我重鎮	伏惟尊靈	位我重鎮
	位在國師	永世來傳	位在國師	永世來傳	位在國師	永世來傳
	時維端陽	修舉蕉典	時維端陽	修舉蕉典	時維端陽	修舉醺典
	保我人民	禦災防患	保我人民	禦災防患	保我人民	禦災防患
	轉禍爲福	莫非神功	轉禍爲福	莫非神功	轉禍爲福	莫非神功
	人依於神	神感於人	人依於神	神感於人	人依於神	神感於人
	市郡民生	欲賴所願	市郡民生	欲賴所願	市政民生	欲賴所願
	水火旱災	傳染疾病	水火旱災	傳染疾病	水火旱災	傳染疾病
	拒之驅之	除去防止	拒之驅之	除去防止	拒之驅之	永逝遠方
	雨順風調	時和歲豐	雨順風調	時和歲豐	雨順風調	三農豐登
	六畜蕃盛	五穀豐登	六畜蕃盛	五穀豐登	外客雲集	市沽圓活
	擇茲吉日	牲醴齊誠	擇茲吉日	牲醴齊誠	擇茲吉日	牲醴齊誠
	物雖菲薄	誠則愈篤	物雖菲薄	誠則愈篤	物雖菲薄	誠則愈篤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尙 饗		尙 饗			
송신제 (한문)	維歲次	某年干支	維歲次	某年干支	維歲次	某年干支
	五月某干支朔		五月某干支朔		五月某干支朔	
	七日某干支	某官某	七日某干支	某官某	七日某干支	某官某
	敢昭告于		敢昭告于		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	
	伏惟尊靈	位我重鎮	伏惟尊靈	位我重鎮	伏惟尊靈	位我重鎮
	位在國師	永世來傳	位在國師	永世來傳	位在國師	永世來傳
	時維端陽	修舉蕉典	時維端陽	修舉蕉典	時維端陽	修舉醺典
	保我人民	禦災防患	保我人民	禦災防患	保我人民	禦災防患
	轉禍爲福	莫非神功	轉禍爲福	莫非神功	轉禍爲福	莫非神功
	人依於神	神感於人	人依於神	神感於人	人依於神	神感於人
	市郡民生	欲賴所願	市郡民生	欲賴所願	市政民生	欲賴所願
	水火旱災	傳染疾病	水火旱災	傳染疾病	水火旱災	傳染疾病
	拒之驅之	除去防止	拒之驅之	除去防止	拒之驅之	永逝遠方
	雨順風調	時和歲豐	雨順風調	時和歲豐	雨順風調	三農豐登
	六畜蕃盛	五穀豐登	六畜蕃盛	五穀豐登	外客雲集	市沽圓活
	端陽已畢	還安舊堂	端陽已畢	還安舊堂	端陽已畢	還安舊堂
牲醴菲薄	誠則愈篤	牲醴菲薄	誠則愈篤	牲醴菲薄	誠則愈篤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伏願尊靈 庶鑑微誠	
	尙 饗	尙 饗		尙 饗		

표 19 조전제와 송신제 축문 내용 변경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2018 년 강릉단오제 조전제와 송신제의 축문이 과거에 비해 세 군데가 달라졌다. 첫 번째는 제를 뜻하는 蕉典(조전)을 醺典으로 바꾼 것이고 이는 원래 한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市郡民生(시군민생)을 市政民生(시정민생)으로 바꾼 것이며 이는 1995년부터 강릉시와 명주군의 통합에 따른 수정 내용이다. 그 전의 강릉단오제에 강릉시와 명주군의 행정요원이 헌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축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야 했고 시군 통합 이후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이 수정되었다. 세 번째는 가축과 농사를 비는 時和歲豐(시화세풍) 六畜蕃盛(육축번성) 五穀豐登(오곡풍등)을 관광업과 상업을 비는 三農豐登(삼농풍등) 外客雲集(외객운집) 市沽圓活(시고원활)로 바꾼 것이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2000년 이후 당시의 사회 변화에 맞물려서 축문을 바꿨다고 했다. 왜냐하면 강릉에 그때 이미 목축업이나 농업보다 관광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따라서 목축업과 농업을 포함한 삼농과 관광업, 상업의 번성을 비는 내용을 넣었다고 했다.

“축문은 고거 하는 거 아니야? 신에게 말씀드려도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옛날의 거, 따로 없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고치자. 강릉 관광도시 아니야? 그래서 많은 관광객도 운집하고 저잣거리도 해 주고. 삼농 같이 농사도 해 주고. 지금 개, 돼지 키우는 사람이 강릉에 많지도 않은데. 삼농이라면 다 포함되니까. 그런 것도 좀 넣자, 그래서 넣은 거지. ...(중략)... 의견이 없지 뭐. 지금 하지 않는 옛날 걸 갖다가 할 수 없잖소. 신에게 바람을 갖다가 대신 얘기하는 건데 하지 않는 바람은 있을 수 없잖아. 지금 하지도 않는 건 바람이 없잖아. 지금 하는 게 바람이지. 강릉이 관광도시잖아. 관광객을 운집해서 저잣거리를 살게 해 달라는 건.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나는 축문이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바라는 것을 대신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왜 바꾸면 안 되냐?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시대에 없는 걸 어떡해?”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관계자 정희철이 보기에 단오제의 전통의례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신이 변하지 않지만 인간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기원하는 내용도 현재의 사회 상황과 일치해야 한다. 제 2 절에서 논의한 맥락에서 분석하자면 그런 변화는 한편으로 축제의 주체가 지역민으로부터 분리되어

산업화된 현상과 맞물리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강릉단오제를 그들의 정체성과 무관한 존재로 간주할 때 축제 주최 단체가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서 전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정희철이 말하는 “시대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은 단오제가 새로운 시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축문 변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의 핵심을 구성한 전통의례는 결코 사람을 만나지 않는 종교가 아니라 전승자나 축제 관람객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축제가 성스러운 시간이고(Eliade 1959: 68) 의례가 구조와 반구조(anti-structure)로 구성된다고(Turner 1995) 하지만 단오제의 사례에서는 성과 속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반구조적 행위로 보이는 것도 구조화된 행동이다. 여러 학자들은 축제를 해당 사회나 공동체의 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이거나 종교적, 민족적, 국가적, 언어적, 역사적인 유대를 확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Bakhtin 1984; Falassi 1987; Turner 1982). 즉 축제는 항상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신화 전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교류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에서 축제와 축제를 만드는 사람의 사회생활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에도 축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1980년대부터 나타난 새로운 추세는 카니발이나 페어 등을 포함한 축제(festival)들은 문화를 소비하거나 체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각자의 전통이나 현대문화를 포장하고 전시하면서 관광자원을 창출하고(Picard and Robinson 2006; Roche 2000) 지역정체성의 함양을 통해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Gibson and Connell 2012). 이처럼 축제는 현대사회의 규칙에 의해 재구성되어도 여전히 사교 행위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으로서 구체적인 관계자들의 사회생활과 긴밀히 연관되는 행위이다.

현재 도시민의 보편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들은 축제를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보존회원과 위원들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의 노동에 의해 운영되는 업체이다. 그들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를 “회사”라고 표현하며 회사 직원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유산 전시보다 직업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더 크다. 연구자가 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에게 단오제 주최라는 일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연구자: 단오제 기간이 강릉에서 특별한 시간이라고 봐야죠. 평소에 못했던 일도 그때 다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성취감 되게 강하시겠네요?

최진학: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계획한 것보다 좀 벅찼죠.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최진학은 단오제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여 연구자는 그가 단오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을 물어봤으나 기대와 달리 그의 답이 길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성취감 대신에 직장생활의 긴장감을 표현한다. 그런 짧은 답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위원회의 직원에게 단오제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장생활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들이 단오제에 관련된 일을 선택한 중요한 동기는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다. 단오제와 관련된 일에서 비롯된 자부심이나 성취감은 그 다음의 것이고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오제위원회의 이동준도 자기가 여기 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 그는 원래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후에 단오제위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동기는 인생에 대한 투자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퇴직하고 뭘 할까 고민을 하는 차인데,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고민은 많았죠. ...(중략)... 그래서, 아,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기차도 했으니깐. 내가 그냥, 여기 이거 하면서 한평생을 투자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한 50프로는 되겠다, 내 인생에. 이 사는 인생을 성공했냐 말았냐, 니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면은 한 절반은 성공 아니겠냐?”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위원회의 일은 그에게 문화재 전승이나 보호 외의 의미가 있고 성공을 추구하는 심리와 자아실현이라는 주류적 담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즉 단오제를 운영하는 일을 통해 그 전의 직장생활에서 실현하지 못한 성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단오제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주로 축제를 경영하는 “회사”와 유사하다. 따라서 축제 주최측 관계자들이 단오제에 관련된 일을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직장생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험이나 감정은 강릉단오제가 만들어지는 맥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단오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단오제 체험도 연령층이나 성별, 지위 등에 따라 각자 다르다. 직장생활이나 운영이라는 의미 분야를 간과하면 강릉단오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전통 보존의 의식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공(career success)을 추구하는 관계자들의 구체적 행위가 축제의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의 전승자인 보존회원도 축제에 참여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전승자들은 보존회에서 배운 예능을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활용한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었지만 보존회 사무실 직원이나 젊은 보존회원에게 단오제가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특히 관노가면극부와 무격부의 젊은 회원들 중에 예능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런 사람에게 강릉단오제가 중요한 자격증이다. 비록 축제 소비자에게 전통의례 관람이 축제적 분위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연행하는 많은 전승자, 특히 단오굿이나 관노가면극을 하는 젊은 전승자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생계방식이고 일상적 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릉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축제에 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들 중에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명백하게 돈을 벌러 온 “알바생”도 있다. 복잡한 축제장 공간과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단오제위원회는 일년에 많은 알바생을 고용한다. 그리고 강릉단오제뿐만 아니라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치르는 각종 행사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사실

“알바생”이다. 즉 주최와 참여의 관계는 협력관계에서 고용관계로 변한 것이다. 조사 기간에 만난 제보자들은 이러한 고용관계를 대부분 당연시한다.

“(강릉단오제에) 다른 데 사람 데리고 오면 수고비 좀 줘야지. 그 사람들 며칠 간 고생해야 되는데 봉사자들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오나? 부를 수 없잖아. 말이 무료지.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무료면 누가 해 주겠나?” (강릉시 전직 공무원 이영표)

이영표의 말에서 과거의 연줄이나 시민과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해 축제를 치르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를 매개로 하는 고용 등 경제적 요소는 단오제의 전승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전승에 부정적 영향도 끼칠 수 있다. 특히 계급상승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전통 보존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이 단오굿 전승의 어려움에서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결론은 중국에 가서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고 일본이고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내가 생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중산층 아니더라도 하위층에서 중산층 중간 돼야지 가업을 이어받는 거지. 편견과 멸시가 있고 돈도 안 되면 누가 가업을 이어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녀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른 쪽에 가지. 누가 이쪽에 와서 하겠어요? 예전처럼 먹고 살기 어렵고 학벌도 짧고 그럴 때 자식이 다섯 여섯 명 중의 한 사람이 돌아댁기면서 했는데. 지금 애가 하나 아니면 둘인데 누가 할라고 그래요?”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강릉단오제의 산업화는 축제 주최단체의 법인화를 수반한 결과이며 축제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을 고용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의례의 전승도 이러한 경제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회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인화되고 사무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장병훈의 진술에 나타난 편견과 멸시의 표현은 전승자의 계급신분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으며 현대인으로 전승자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학력”이다. 바꿔 말하자면 단오제의 전승자들은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현대적 주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과 교육 제도가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법률과 교육 제도의 영향

축제 산업화의 맥락에서 강릉단오제의 관계자들은 과거의 연줄이나 인맥이라고 부르는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떨어지고 규범화된 질서, 즉 제도로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과거의 단오제 운영에 시민들에게 거두었던 “찬조금”이 중요한 운영 경비였는데 그 외에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고 업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KBS 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었다(정은주 1993: 72-74). 즉 제 II 장에서 언급한 강릉단오제의 경비를 충당하는 정부의 후원과 기업의 협찬은 1990 년대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면 현재 강릉단오제의 운영경비 중에 “찬조금”이 없어졌다.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의 진술에 따르면 그것이 1970 년대 단오제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고 나중에 세계문화유산 선정 후 정부의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주최 단체에서 찬조금을 받는 것을 중단했다.

“왜냐면 대관령은 상당히 험로고 또 운수업체들도 자기들끼리 치제도 지내요. 그러니 같은 향렬이니 참여 좀 해라. 그것도 ○○○ 씨가 있을 적에 업체들 돈 걷어서 같이 한 거지. ...(중략)... 내가 있을 때까지 했는데 ○○○ 위원장이 와서 안 받았어. 안 받은 이유 자세히 몰라도 보존회하고 위원회가 둘이 있잖아. 보존회는 제례 지내고 굿 하고 관노가면극 하는데 위원회는 이 전체를 다 하잖아. 그러니 받아 가지고 이쪽을 줘야 하니까 그게 불편해 가지고 안 했어. 그전까지 했지. 그러다 세계유산이 선정되고 하면서 국가

보조금이 있고 제례부도 보존회 안에서 그 돈 쓸 수 있고. **지금 돈 달라는 것도 귀찮고.**”(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찬조금 제도의 역사를 대략 알 수 있다. 즉 이것이 기업들이 스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1970 년대에 어떤 인물의 카리스마적 권위로 인하여 생긴 “전통”이었다가 나중에 국가제도가 단오제 전승에 개입되자 사회관계망에 의한 찬조금의 중요성이 줄어졌다. 그 당시 찬조금을 받는 형식은 제 II 장에서 인용한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단오제위원들은 지역의 원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업체나 상인에게 가서 기부해 달라고 하는데 관계자들이 이것을 아무 이득이 없는 “봉사”라고 말했다. 문화재관리국(1977: 208)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비 보조는 190 만원이었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단오제 개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위원회가 기대하는 만큼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경월소주에서는 40~50 만원을 내야 하는데 10 만원밖에 안 냈다고 나쁘다고 김진백씨는 말했다. 그리고 중앙고속버스나 동부고속버스도 좀더 내야 할 터인데 각각 5 만원씩 밖에 안 냈으니 이것도 나쁘다고 했다.”
(문화재관리국, 1977: 208)

위의 기록을 통해 당시 찬조금을 받는 실제상황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찬조 업체와 주최 단체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그런 호혜성의 유형은 대칭적이거나 균형적 것이 아니라 서로가 최소의 대가를 치르고 최대의 수익을 도모하는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이다(Sahlins 1972: 195). 찬조금은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는 강렬한 부채(debt) 의식을 가지면서 도덕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 부채를 논하는 데 있어 도덕과 물질의 분리를 거절하는 것이 인류학 연구의 핵심 관점을 이루고 있는데 즉 개인이나 집단 간의 교환 행위는 다양한 사회관계 등의 형성을 수반하고 있다(Peebles 2010). 그러나 문화마다 부채에 대한 정서는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루스 베네딕트(Benedict 1969)가 일본인이 부채를 기피하는 심리를 지적했으며 이는 강릉단오제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했던 두레와 품앗이라는 것이 중요한 농경 생산방식인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의식이 서로에게 빚이나 신세를 지는 것이다. 공동노동이나 노동교환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정신적인 면의 결속”과 구성원 간의 “증답의례적 사고체계”가 형성된다(김택규 1985: 380-408). 그러나 한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런 노동교환의 형식이 점점 없어졌다. 김택규에 따르면 두레는 일제시대에 마을 공유재산의 소실로 인하여, 품앗은 평등 관념과 등가교환 의식의 보급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이다.

연구자는 이런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화폐경제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가치보다도 “가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교환”이라는 의식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등가교환의 관념은 더욱 채무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따라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개인 간의 부채를 부정적 호혜성으로 생각하여 부당하게 보는 경향이 생겼다.⁴³ 이제 채무관계는 권위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와 개인 간의 일이어야 합법화되고 개인 간의 부채 행위는 대개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개인끼리 돈을 빌리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것은 부채의 제도화를 시사하고 있다. 즉 채무관계는 개인 간의 구두 서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의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채무관계의 대상은 개인보다 제도적 권위가 있는 업체나 기관 단체를 선호한다. 물론 이런 경험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활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인정이나 부채 등 사회생활의 영역은

⁴³ 이창호(2008)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화교의 후이(會) 조직이 한국인의 계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 간의 채무관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자가 들은 사례로는 후이 등 민간인끼리의 채무 행위는 항상 혈연이나 지연 등에 바탕을 두고 있고 쩌장, 푸젠, 광둥 등 동남지역에서 유행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민간차대(民間借貸)를 “불법용자”로 규정했다. 민간차대를 억누르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7 년에 체포된 우잉(吳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형선고에 대해 중국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민간차대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은 이때부터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고 행동의 준거로 적용된다.

이제 사(private)가 아니라 공(public), 제도화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화된 부채 행위는 부정적 호혜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관계를 맺은 각측이 모두 일정한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감소될 수 있다. 반면에 개인 간의 부채는 당사자가 법으로 보장된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서 주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테마가 된다.⁴⁴

그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 주최측 관계자들이 제도화된 부채 행위를 선택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기피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더 이상 찬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보조금이다. 축제 관계자에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합법화된 사회관계에 의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균형적인 호혜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그들은 축제를 잘 치르고 정부에게 기록물을 전달하면 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 받는 돈을 찬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을 수반하는 의미가 없음을 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찬조금을 받으면 상대방과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 기부금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협조나 물품으로 이것을 보답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부금이라는 말에 사심이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단오제위원회와 기부하는 업체 간에 사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행사 준비의 이러한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강릉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소집단에서 통용되는 질서보다 국가 범위에서 제도화되거나 규범화된 사회질서에 더 의지하고 있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제도화의 힘은 단오제 등 민속의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⁴⁴ 예를 들어 2006년 MBC 드라마 『궁』은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잘못 선 빚보증으로 가정에 경제위기에 빠지자 어쩔 수 없이 여주인공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로 줄거리가 전개된다. 또한 2001 전윤수 감독의 영화 『배사메무쵸』에도 남자주인공이 친구의 빚보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아내가 몸을 팔게 되는 장면이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그런 이야기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우선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사람에게 합법화된 신분을 표시하는 명칭이 부여된다. 강릉단오제를 전승하는 사람은 이제 무당이나 관노 등 과거의 신분제도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아니라 예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신분이 평등한 시민들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무형문화재 관련된 법에 의해 강릉단오제의 전승자 제도가 형성되었다.

1962 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고 1970 년 개정안에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할 때 해당 종목의 보유자를 동시에 인정하도록 하는 ‘보유자 인정 의무화’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1982 년에 ‘전수교육 의무화’제도가 도입됐고 예능보유자의 전수교육 의무를 보조하는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법률 체제를 통해 강릉단오제 전통의례의 전승 방식만 아니라 전승자 선정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보존회는 법에 의해 단오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오제보존회가 만든 책자에 보존회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법적근거”라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13 호 강릉단오제 보유단체(무형문화재법 제 17 조)

강원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문화예술진흥법 제 7 조)

-- 『2018 강릉단오제 10 배 즐기기』, p.34

그들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제 그들의 전승 행위가 전승자와 지역민 간의 상호작용이나 대가 아니라 전승자와 국가제도의 상호작용에서 합법화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실용성의 부재로 인하여 전승자와 지역민의 대화의 장에서 지역의 민속이 가진 가치는 큰 도전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내지는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문화로 합법화되어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승의 제도화가 그들에게 뜻하는 바가 크다.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보존회원은 전수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 예능보유자의 순서로 진급될 수 있다. 전수생은 준회원과 유사한 개념이고 보통 2 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존회 활동하면 이수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 단오제보존회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이수자

자격증을 줄 수 있었는데 2007년 3월부터 법적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요원이 와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구두시험과 필기시험 두 영역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탈락될 수도 있다. 2018년 6월 초에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이수자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며칠 후 보존회 관계자는 4명의 후보 중 3명이 통과되고 1명이 탈락했다고 말해 주었다. 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그들이 이수자 심사의 규칙을 따르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심사도 왔어. 그것도 배수, 삼배수 추천이야. 둘이. 두 명이 심사를 해서 하나를 낙제시킨다 말이야. ...(중략)... 연수가 몇 년 이상. 보존회에 가면 다 있어. 그 사람을 해서 심사위원을 뒤서 보존회장 명의로 이수자를 줬는데 그것도 심사를 해야 돼. 자체심사는 안 되고. 그리고 대학교수가 와야 되고. **심사 룰이 있다고**. 외부인사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어.”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정희철은 이수자 심사의 제도화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비록 보존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연출 등 사회관계가 개입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제도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가 법인화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수자 심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와 마찬가지로 전통 보존을 포함한 운영의 방식이 모두 현재의 법률 제도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도 강조되고 있다.

전통 보존의 방법을 현대사회의 제도와 결합해야 하는 것은 현재 단오제 주최 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제도 교육은 아니지만 이수자가 되기 위해 심사를 통과하여 자격증을 따는 것은 법적 권위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보존회원들 중에 보존회 활동을 통해 일부 생계를 해결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수자 심사나 기타 자격증 시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전문 실력을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에서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다른 분야가 제도 교육에 양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보존회원들은

제도교육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체성을 구축하는 현상과 대조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제도교육을 받기 위해 단오제 참여를 줄이는 경향이 대두되는 것이다.

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 컸을 때 단오제의 주최 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관노가면극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자주권이 강화되면서 관노가면극 팀을 폐지하는 사례가 많았고 전통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학교와 정부 간의 관계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과외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것은 주요 원인이다. 또한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는 같은 맥락에서 정기 축구전의 응원전을 준비하는 학생도 전처럼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지원청이 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제는 힘이 교육청에서 학교장으로 많이 갔대요. 학교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그런 것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아쉬운데.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전통문화 하는 관노가면극이나 농악에 대해서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업 위주**의 성향이 있으시면 그런 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전통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없다가도 다시 생겨나고. 이러니까 약간 지속성이 없죠.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15년 전만 해도 정말 대단했어요. ...(중략)... 지금이야 그런 거 많이 열어졌고. **학부모**들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런 데 동원하는 걸 싫어하니까. 많이 약해진 거죠, 응원도. 사실 일장일단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런 추억을 갖는 것도 괜찮은데 한 두 달 공부 안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매년 강릉단오제 때 열리는 중앙고·제일고 축구정기전은 지역사회에서 학연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전통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맥락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위기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진 것이다. 이창수가 말한 “응원 열기”는 두 학교 학생응원단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응원할 때 연출하는 카드섹션이다. 이것이 축구 경기 못지않게 재미있어서 “응원전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말한 현지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응원단 구성원들이 한 달 전부터 미리 시간을 내서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상술한 두 관계자는 제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학생들의 축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 현상에서 교육과 사회분화의 연관성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수반하는 “직업”은 제도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일을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관념은 이제 저점 보급된다. 따라서 학생의 강릉단오제 참여도 그들의 신분과 연결해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강릉단오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단오제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한 단오제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도 교육과 연결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은 “강릉단오제 역사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 매월 두 번씩 학생이나 기타 시민들을 모집하여 전수교육관과 대관령국사성황사 등 강릉단오제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전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관계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다. 연구자는 2018년 4월 7일의 행사 참여를 신청했지만 계속 신청자가 부족하여 출발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5월 12일에 드디어 신청자수가 차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의 참가자는 모두 31명이 있는데 5명의 노인이외에는 모두 중학생과 그들의 부모였다. 인솔하는 사람이 대관령국사성황사, 학산성황당 등 유적지에서 설명했는데 성인들은 열심히 듣지만 중학생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중학생들은 계속 휴대폰만 하고 인솔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의 행사가 끝나고 연구자는 중학생의 어머니에게 왜 이 행사에 참가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중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원봉사활동 20 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오늘의 행사에 참가하면 6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 번의 행사도 상황이 같았다. 5 월 26 일에 참가한 사람은 주로 고등학생 28 명이었는데 학교에서 답사 프로그램과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전수교육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따르면 이 행사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일정에 따라 참가자 인원수가 변동된다. 특히 매년 단오 전후 학교에서 단오문화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때의 참가자들이 가장 많다고 한다.

단오제 역사문화탐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교육이 단오제 전통 보존에 끼친 영향은 복합적이며 축제 주최 단체나 축제 관람객은 모두 제도 교육의 요구에 맞추어서 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강릉단오제 참가는 단순한 전통보존이나 축제 참여가 아니라 제도교육이라는 사회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과거의 자료에 1970,80 년대에 강릉단오제에 학생들이 중요한 참가자로 기록되고 있으나⁴⁵ 교육 제도가 지역민의 사회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퇴색된다. 이제의 단오제는 교육 제도가 현대인의 계급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된 맥락에서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등 아마추어보다 축제를 만드는 전문단체가 점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는 과거의 혈연이나 지연 단체에 의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전문분야로 된다. 물론 이것은 축제 규모 확대와 변증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즉 규모의 확대는 더욱 많은 전문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단오제를 생계수단을 해결하는 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간다.

교육 제도의 영향은 물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사회집단을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학자들이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임동권 등 학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는 정치 권력이 지식인의 중개적 역할을 통해 문화 권력으로 변형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과 마찬가지로 예능보유자의 추천이나 선정 과정에도

⁴⁵ 임동권(1971: 225)이 1966 년에 강릉단오제에 강릉고 학생을 동원하여 영신행차를 재현했다고 기록한 바가 있으며 그후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1990 년대 초까지 매년 영신행차에 중학생 200 명을 동원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80 년대 중반까지 관노가면극의 전승은 주로 강릉여고 등 현지 고등학교에서 주관했다.

지식인들이 중요한 중개적 역할을 했다. 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1999년까지 지난 세대의 예능보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후 모 교수의 추천으로 현재의 예능보유자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때 문화재위원 하시던 ○○○ 교수라고 있는데 강릉에 계시다 왔어요. 그분이 ‘강릉단오제가 보유자 한 분도 없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강릉)시하고 같이 신청하는 거야. 원래 시에서 하게 돼 있어. 시에서도 신청하고 심사를 받고 그래서 지정됐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진승자 간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사람은 학자일 경우가 많다.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관노가면극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도 임동권 교수의 고증이 있기 때문이고 현재의 단오제 예능보유자 지정에도 상술한 교수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⁴⁶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창출하는 데 학자가 담당하는 중개적 역할은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여러 제보자들은 그 당시 현지 대학의 교수님들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강릉문화원이 편찬한 『선정 백서』에 따르면 그 당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만든 “추진위원회”에 강릉시, 강릉문화원 등 실무추진단 이외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있었다.⁴⁷ 따라서 국가의 무형문화재에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변하는 과정은 학자나 지식인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위로 지역축제의 합법화를 지탱하는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최 집단도 학자들의 중개 역할을 통해 정부와 대화할 필요를 느낀다. 따라서 학자와의 협력은 강릉단오제에 있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단오제에 대한 학자의 참여도 자문위원회나 학술회의, 무대작품 창작

⁴⁶ 관노탈의 복원 과정은 많은 자료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중 임동권(2002)과 장정룡(2003)의 서술에 따르면 현재 관노가면극에서 쓰이는 탈은 임동권이 김동하와 차형원 노인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복원한 것이고 그 전까지 강릉여고 등 공연팀이 사용했던 탈과 다르다. 이 사건을 통해 학자가 전통의 창출 과정에 담당하는 중개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⁴⁷ 강릉문화원, 2006,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세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백서』, p.73.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강릉이나 삼척의 학자 10 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단오제가 개최되기 전에 회의가 열린다. 회의의 내용은 주로 올해 단오제의 개최에 관해 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한다. 작품 창작은 앞에서 언급한 굿위드어스나 당금애기 등 공연이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가 주도한 프로그램이지만 현지 학자가 연출을 했다.

학자가 강릉단오제의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각종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2010 년 강릉시에서 주도한 “아시아 단오 한마당” 행사도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및 단오문화”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나라의 학자나 연구자가 단오문화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은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학술계의 관심을 모은 데서 기인된 일이다. 그 후 “강릉단오제 전국학술 세미나”는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순번	시간	장소	발표 주제
제 1 회	2014.6.4	단오문화관 2 층 세미나실	강릉단오제 전승인력 양성의 길 강릉단오제 전승공간 조성방안 연구
제 2 회	2016.6.9	단오문화관 2 층 세미나실	강릉단오제의 정통성과 변모 강릉단오굿의 공동체 문화적 전망
제 3 회	2017.11.25	강릉문화원 3 층 누리방	강릉탈춤을 위한 보전 전승 선양의 미래지향적 대안 강릉 관노가면극의 연희적 정체성과 쟁점 변증 강릉단오제 가면희의 발전 및 활용방안
제 4 회	2018.10.19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2 층 교육실	대성황사에 모신 신격의 위상과 신들의 이동 읍체성황제때의 국사성황 행차와 대성황사 강릉 대성황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표 20 강릉단오제 전국 학술세미나 개최 상황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매번의 학술세미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제 1 회는 전승 방안, 제 2 회는 전통과 변화, 제 3 회는 관노가면극, 제 4 회는 대성황사의 복원에 관한 것이다. 이런 학술 세미나의 개최는 강릉단오제를 “문화”로 구성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고 이런 과정에서 학자가 강릉단오제 관련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축제 운영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학자가 직접 나서서 축제의 운영에 참여한 사례는 주로 무형문화재 지정이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등 소수의 경우이다.

학자가 가진 권위는 축제 관계자에게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는 학자가 생산한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권위에 의거하여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복잡한 기제를 통해 작동되는데 그 중 상당한 부분은 제도의 형식을 통해 축제 운영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조절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쉽다. 예를 들어 무격부와 현지 대학의 모 교수 간에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무대공연 창작이나 전통의례 재현 등 사업에 그 교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관노가면극부의 관계자는 다른 교수와의 친한 관계를 표시하면서 기타 관노가면극 전승자와의 결속을 강화한다.⁴⁸

전술한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가 지역의 전통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과정은 축제 전승의 재맥락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정부, 국제사회는 축제 주최 단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다른 형식과 정도로 축제의 현대적 전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민들의 생활방식이라고 볼 때 지역민의 삶이 “국민”의 차원으로 편입하면서 그런 전통을 구성한 요소와 국민을 만든 요소 간의 경합이 일어난다.

본장에서 강릉단오제가 전승되는 맥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강릉단오제는 사람이 연행하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연자의 개인적 판단과 전체적인 사회 맥락의 변화가 강릉단오제의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 강릉단오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건은 전통을 현대사회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오제라는 지역의 민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지역사회 외의 체계이기 때문에 강릉단오제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보존되는 민속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더 큰 체제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는 에릭 홉스봄 등(Hobsbawm and Ranger 1983)이 논한 만들어진 전통에 해당한다.

만들어진 전통은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전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는데 그것에 부여된 의미는 현대 국민국가의 체계에서 유행하는 핵심 가치관에 의해

⁴⁸ 제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결정된다. 강릉단오제는 기존 농경사회의 이앙의례에서 기원된 것이나(김택규 1985: 260-264) 중국의 양귀속(禳鬼俗)과 한반도 재래의 종교의례와 결합된 세시풍속(임동권 1985: 81-85)이었다. 그러나 산업화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농경세시로서의 성격은 약화되고 있다. 또한 고을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설정되면(한양명 2009a) 조선왕조의 종말과 함께 이 축제를 전승하는 향리 계층도 사라지고 현재 강릉단오제를 전승하는 집단은 “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이다. 따라서 기능이나 전승주체의 성격으로 볼 때 오늘날의 강릉단오제는 과거에 전승되던 맥락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포클로리즘의 논의(Bausinger 1990: 127)에 따르면 전승자들은 과거 농경의례나 고을축제라는 맥락에서 강릉단오제를 연행하거나 재현할 수 없고 지역민들도 기존의 맥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없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이해나 경험, 실천은 모두 산업화나 도시화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것은 한편으로 새로운 전통으로 형성된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강릉단오제가 재구성된 것으로서 전통의 모습과 다르다고 평가하지만 1960년대부터 지속된 축제의 모습을 전통으로 보지 못한 이유는 없다. 강릉단오제 주최 단체의 관계자들이 과거의 전승자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을 분명히 전통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시대의 대성황사를 재건하고 조선시대의 팔단오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강릉단오제 현재의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거는 단오제 행사하고 다 연동이 돼 가지고. 짓기 전에 이 걸 세움으로써 단오제 행사가 어떻게 나갈 건지 다 논의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 놓아야죠.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할라면 이게 다 뒤죽발죽이 돼 가지구요. **지금 전통은 한 백년 됐어요.** 예전 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자면은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보존회 관계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을 재현하는 것은 전승자와 제도, 그리고 제도를 행사하는 권력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장이다. 이런 의미의 경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맥락을

역동적인 것으로 설정한다면 민속이나 전통은 재맥락화될 수는 있어도 탈맥락화될 수는 없다. 이것은 중국의 단오절이 재맥락화되는 상황과 비슷하다. 즉 단오는 현재의 중국에서 종교적 기능이 약해지는 반면에 중국인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의 단오 풍속은 부단히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⁹

강릉단오제 전통의 지속은 주최측의 일방적인 노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예를 들어 축제를 이용하여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지방과 중앙정부, 그리고 축제를 관람하거나 소비하는 지역민들과의 적당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민속지』에서 기록한 강릉단오제는 강릉의 향리들이 주도하는 읍치성황제였으며 강릉 지역에서 행해졌던 대관령성황제가 읍치성황제로 개편된 것이 강릉 향리집단들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이규대 1998).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조선시대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개입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현재의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민간주도의 축제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정치 권력은 법률이나 교육 제도, 그리고 지식인의 문화 권력, 시장경제의 원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다.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지역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에서 축제의 공간과 내용 등 전통은 국가에서 주류를 이룬 담론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은 사실상 조선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⁴⁹ 현재 중국에서 단오절을 고대 시인 굴원을 기리는 날이라고 여기지만 여러 중국의 학자들이 굴원이 단오 풍속에 들어간 것이 굴원이 죽은 뒤 수백 년 이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蔣方 1997 ; 張心勤 1982).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단오 풍속은 역신을 퇴치하는 종교의례에서 비롯된 중국 남쪽의 여름 축제였다가 동진시대(기원 317~420 년)부터 북방 유목민족의 남침으로 인하여 한족이 활동하는 지역이 축소되어 남쪽에서 유행하던 굴원을 기리는 것이 단오 풍속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당나라 때부터 굴원을 기리는 단오 풍속이 궁중의례로 채택되어 점점 전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근대에 국민국가의 구성 과정에서 문일다(聞一多) 등 중국 학자들이 단오의 풍속이 굴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중화민족을 상징하는 용(龍) 문화에서 기원된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蕭放 2009).

IV 현대문화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

1 지역의 상징으로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모습

산업화된 단오제는 더 이상 지역민들이 노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관여에 의해 경영되는 대상이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나 주민의 화합 등 기능을 도모하는 강릉시에게 강릉단오제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진 전통으로서 강릉시를 대표하는 기호가치를 가지게 된다.

강릉시청의 공식사이트에서 문화/체육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 강릉의 역사인물, 문화재, 강릉단오제, 문화시설, 박물관/미술관, 체육시설, 강릉시청 축구단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 여기서 강릉단오제와 전통문화가 따로 소개된 것은 이 축제가 강릉시의 문화정체성에서 많은 비중과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에 해당하는 강릉사투리와 신화/전설, 농악/민요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강릉의 문화를 상징하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와 강릉시 간에 연관성에 관한 담론이 생산된다. 예를 들어 전임 강릉시장인 “지역의 전통과 문화정서를 모두 함축하고 있어서 ‘강릉단오제’는 ‘강릉’이라는 등식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거나 “강릉단오제는 유무형적 강릉정신이 모두 스며있는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강릉단오제의 주재집단의 전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⁵⁰

이처럼 지자체와 주최측 등 주재집단의 담론에서 단오제는 강릉시와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가치”가 부여된다. 특히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애향심 함양 등 두 측면에서 지자체는 강릉단오제에 대해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릉시는 지역축제를 강릉의 “문화”로 승화시켜 외부와의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사용할 만한 정체성으로 구축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를 맞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의 축구 라이벌전 역시 단오 기간의 필수 볼거리 중 하나. 특히 올해는 2018 러시아월드컵이 열리는 해인 만큼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 응원 행사도

⁵⁰ 강릉단오제위원회, 2006, 『수릿날, 강릉』 창간호, p.9.

진행돼 라이벌인 양 고교 응원단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중략)...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층 성숙해진 시민의식도 단오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원봉사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두 하나 되는 단오제를 만들었다. 한편, 올해 단오제를 보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은 109 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 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 만여 명이 늘어났다. 역대 최다 외국인 관람객 수를 기록한 것은 올해 치러진 동계올림픽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KTX 강릉선의 영향으로 강릉단오제 기차여행상품 등을 통해 단오 기간 중 외부 관광객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 강릉시청 공보관실, 2018 년 7 월호 『제일강릉』, pp.18-19



사진11 세계화를 지향하는 강릉단오제의 이미지

위의 인용문과 <사진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는 세계화의 전략 하에서 지역사회↔강릉단오제↔세계 라는 등식에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주재집단에 의해 소통의 수단이나 통로로 간주되고 로컬과 글로벌 두 차원이 상호작용을 하는 장으로서 구성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흔히 동원되는 화제나 담론은 문화이다. 강릉단오제가 이 지역 주민들의 역사와 삶의 향기라는 표현(김선풍, 김경남 1998: 9)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축제는 지식인들에 의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로컬-내셔널, 로컬-글로벌 두 개의 대화 장에서 강릉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200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강릉단오제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강릉시는 본격적으로 강릉시와 단오제의 이런 연관성을 활용하려고 나서고 있다. 2007 년 1 월부터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단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 “단오문화계”로 만들었고 이듬해부터 아예 “단오문화 창조도시 추진단”이라는 과 단위의 부서를 신설하여 단오제 업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진단이 국비 지원이 줄자 해산되었지만 단오제와 관련된 공연장이나 다리, 공원 등을 지원하여 조성한 것은 현재 강릉의 도시경관에서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다(황루시 2015).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는 자신이 추진단에서 근무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여 단오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오제 관련 사업을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단오를 내가 했다니까. 지금 단오문이 있지. 내가 만든 거야. ... (중략)... 그때 아시아단오 돈이 5 억이나 3 억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다른 명목으로 하나 건설합시다’ 하니 ‘다른 사업도 모자란데 쓸데없이 이걸 왜 만듭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설득했어. 그래서 딱 만드니까 거기 구심점이 됐잖아. 포토존이 됐다니까.”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

위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를 도시의 문화로 구성하는 사업에서 도시경관의 조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추진단의 관계자들은 문화의 공간화(spacialization) 전략을 통해⁵¹ 무형의 단오제 전통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도시경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추진단이 주도한 사업 외에도 그 전후에 강릉시는 계속 강릉단오제 등 전통문화의 요소를 활용하여 전통문화도시의 공간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 구시가지에 있는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는 2001 년부터 도심 유적지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생산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전시하기만 하면 이용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릉문화원을 통해 그곳에서

⁵¹ Setha Low(1999)는 공공공간과 문화의 관계를 유물론과 현상학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사회와 경제, 이데올로기, 기술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물리적인 환경을 실질적으로 만다는 것이고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교화, 충돌, 통제 등 사회적인 과정이 중개되는 현상학적이고 상징적인 공간 체험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로우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코스타리카 공공공간에 나타난 문화의 공간화(specialization)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강릉문화재야행을 개최하여 개방된 도심공원과 강릉의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시는 문화재 야행을 통해 대도호부 관아를 강릉의 경제적 중심지만 아니라 문화나 레저의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문화재 야행과 마찬가지로 강릉단오제도 강릉시의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강릉의 도시공간에서 단오제의 요소를 활용한 곳이 많다. 단오문화와 관련된 도시공간이나 경관은 주로 노암동에 있는 단오제 행사장 주변에 모여 있으며 그 중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구 단오문화관)과 근처에 있는 단오공원, 단오장이 그런 공간화 전략의 산물이다. 강릉단오제 본행사를 치르는 공간은 남대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측은 중앙동에 있고 평소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쪽은 노암동에 있고 남산교 동쪽의 구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서쪽의 구간은 강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강릉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단오장”은 이 구간을 가리킨다. 1993 년부터 강릉시청에서 단오장 정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주성했다. 이곳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평소에 시민들이 이곳에서 산책 등 각종 여가활동을 하기도 하고 시청 건설과의 승인을 받으면 단오장에서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관이 있어서 강릉사람은 이 공간을 “단오장”이라고 부른다. <사진 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에서 단오제를 치르기 위해 설치한 그네와 씨름 경기장 등 시설물이 있고 근처에 단오제에 관한 안내판이 있다. 근처에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단오공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산공원 입구와 신화아파트 입구에 단오제 캐릭터로 조성된 경관(사진 13)이 있다. 따라서 노암동에 위치한 단오장 일원은 단오문화의 공간으로 생산되었다.



사진 12 노암동에 위치한 단오장



사진 13 노암동에 있는 단오제 캐릭터

강릉시가 단오제의 요소로 도시공간을 만든 사례는 단오장 일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월화거리와 전통시장, 구시가지 일원에서 단오제 캐릭터로 도시경관을 만든 것들이 많다. <사진 14> 중 위의 두 군데는 2017 년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도시경관이고 아래의 두 군데는 2018 년 초부터 강릉 구시가지에서 조성된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강릉시는 각종 요소로 도시경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그 중 단오장에서 가까운 중앙시장에서 “강릉단오제 캐릭터 골목”을 조성했다. 그것은 “강릉 중앙·성남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이고 재래시장의 골목 4 군데를 정해 각각의 이름을 정한 후 양반이나 소매각시, 시시딱딱이, 장자마리 등 캐릭터를 설치했다. 그 중의 하나는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2017 년 하반기에 조성된 월화거리에 있는 관노가면극의 내용을 표현한 벽화의 일부이다. 이 벽화는 2018 년 초에 거리화가를 의뢰하여 개시와 사랑, 자살소동, 화해 등 다섯 과장을 표현한 벽화 19 개를 그렸다.





사진 14 강릉단오제 캐릭터로 조성된 강릉의 도시경관

물론 강릉시는 이런 경관을 아무 데에 조성한 것이 아니라 단오제와 관련된 공간에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진 14>중 하단의 사진에 있는 두 경관은 단오제의 공간에서 가까운 구시가지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오제 캐릭터의 사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공간이라는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진 14> 중 상단 왼쪽은 강릉의료원 건너편에 있으며 그곳은 매년 강릉단오제 영신행차가 시작되는 위치이다. 매년 음력 5 월 3 일에 단오제보존회원들이 여성황사에서 신목과 신의 위패를 모시고 경방택에 가서 치제를 치른 후에 이곳에 와서 신통대길 길놀이의 행렬과 함께 출발한다. <사진 14> 중 오른쪽 상단의 경관은 강릉시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변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강릉에 오는 관광객에게 강릉의 단오제를 전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경관의 위치는 강릉단오제와 무관하지만 기타 경관과 마찬가지로 강릉의 전통문화를 전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지자체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만든 단오문화의 핵심 공간은 단오제 행사장 일원이다. 행사장 남쪽에 있는 공간은 원래 강릉시 공설운동장이었다가 2001 년부터 강릉시청이 이곳에서 강릉단오제를 전시하는 공간인 “단오타운”을 지으려고 했고 당시 건물의 이름을 “단오주제관”으로 잠정했다. 또한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찬한 자료에 따르면 2002 년에 강릉단오제 주제관(역사관)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다.⁵² 주제관 공사는 2002 년 4 월에 시작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청이 시민공모 사업을 통해 단오타운의 이름을 “강릉단오문화관”으로 정했다. 공사는 2003 년 7 월에 준공했으나 그해 9 월에 태풍

⁵² 강릉단오제위원회, 『2001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p.58.

‘매미’로 인하여 침수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관이 연기되고 그후 모든 복구공사를 거쳐 2004 년 2 월에 정식으로 개관되었다.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2006 년에 이곳으로 옮겼다. 단오문화관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강릉시가 단오제를 강릉의 “문화”로 정의하고 이 공간을 박물관처럼 강릉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생산했다. 따라서 개관된 후 이곳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은 전통문화교실과 강릉단오제역사문화탐방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곳의 공간 배치는 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 등 축제 주최 단체의 사무실과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또한 개관된 이래 1 층과 2 층에 전시실 두 군데를 운영했다. 1 층 홍보전시실에는 강릉단오제의 전과정을 제례, 굿, 관노가면극 3 부분으로 나누어 모형과 영상으로 전시하고 있다. <사진 15>에서 볼 수 있듯이 2 층 전시실은 원래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홍보책자, 사진 등이 있는 ‘자료전시실’이었는데 2007 년 11 월부터 개조하여 현재 넓은 전수교육실 2 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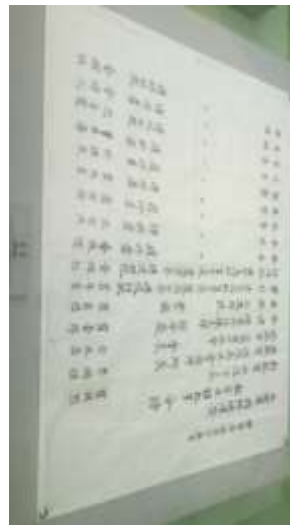


사진15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2 층 전시실 전시품

2 층 전시실 개조 공사는 강릉단오문화관의 개명에 따른 결과이다. 그것도 강릉단오제의 관리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었다. 강릉단오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왔지만 전수교육관을 마련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규정을 바꾼 것과 함께 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주관 단체에게 전수교육관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⁵³ 그러나 이런 지시는 곧바로 강릉단오제위원회에 전달되지 않고 강원도와 강릉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강릉단오문화원 관리사무실의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2017 10월에 연구자에게 강릉시청의 공문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개명의견이 2017년 단오제 전에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단오제를 다 치르고 나서 7월 4일부터 정식으로 전수교육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의 말에 따르면 건물 개명은 강릉시 문화예술과가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상의한 결과이고 그 목적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실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게, 전시공간에 비해 교육실이 부족했어요. 원래 1 층하고 2 층에 전시공간이 있었는데 교육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육장의 확보 요구 때문에 보존회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걸 예산을 어떻게 얻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마침 문화재청에서 공고사항으로 (문화재 관련 공간의) 이름을 좀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어떤 데는 전수회관, 어떤 데는 전수교육관, 어떤 데는 전수관, 여기는 단오문화관.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각자 다르니까 이걸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각 시군에다가 하달한 거예요. 공고를 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전수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문화재청에다 우리가 이름을 바꿀 테니 리모델링에 대한, 공간의 리모델링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는 핑계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쪽 공고사항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일단은 그걸 진행했고. 근데 예산은 못 받았어요. 시 자체 예산으로 그냥 공간을 바꾼 거예요.”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

⁵³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한 하면서 기존의 무형문화재 관련 장소의 이름을 ‘전수교육과’이나 ‘전수회관’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다.

위의 인터뷰 내용은 공간 생산의 정치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강릉시는 원래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시간의 지나면서 공간의 용도가 변경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지만 사실 건물의 용도나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도 개명에 대해 같은 의견을 말했으며 즉 건물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민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단오제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전통의례를 전승하는 단오제보존회는 연습 공간이 많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나 사회적 구성은 의미가 경합하는 장이고 그 안에서는 항상 다양한 주체 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다.

공간의 사회적 생산을 설명하는 사례로서 단오공원의 조성과 단오문화관 주변 상가의 간판 정비 사건도 있다. 단오문화관이 있는 자리가 원래 공설운동장이었는데 2002 년부터 이곳에서 공사가 시작하고 단오문화관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단오문화관은 단지 공설운동장의 절반 정도를 이용했고 나머지 부지는 2007 년 초까지 공터로 남아 있었다. 2007 년부터 강릉시가 이곳을 “강릉단오산림공원”으로 조성했다. 2007 년 강릉단오제의 행사장 배치도에는 단오공원 자리에 단오제체험관과 놀이기구, 만남의 광장 1 이 있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단오제를 치렀던 전통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2018 강릉단오제 기간에도 단오공원에서 청소년 단오제 행사가 개최되었으므로 그런 전통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릉시가 단오제의 주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이런 공간 사용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단오공원과 단오제전수교육관이 조성되면서 강릉시는 주변 상가의 간판 정비에도 착수했다. 그것은 2007~2008 년 사이에 강릉시가 추진하던 “강릉 꾸미기 운동”의 일환을 실시된 것인데 신화아파트 상가에서 내곡교 입구까지의 단오장길 구간에 있는 상가 67 개소 120 개의 장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그 당시 강릉시에서 추진하던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된 “단오문화 창조도시 강릉의 5 대 전략과제 및 핵심사업” 중에 “단오맛 넘치는 도시공간 가꾸기”라는 내용이 있다. 그 중 단오장과 단오문화관

일원을 “단오문화 벨트”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으며 그 중에 “즐기면서 걷는 단오거리 조성”에서 단오장 주변 환경 미화에 관한 내용이 있다.⁵⁴ 불과 10년 전의 일이지만 상가의 교체 등 이유로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이 거의 없고 다만 “단오길 설렁탕”과 “단오마을”이라는 식당 이름에서 단오와 관련된 공간임을 느낄 수 있다. 이 두 식당은 그 후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 강릉시가 주도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강릉시의 단오문화벨트 조성 사업이 단오문화관 주변 도시공간에게 부여한 의미가 어느 정도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강릉단오제의 공간은 이처럼 정치 권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단오타운이나 단오장이라는 공간은 평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지만 축제가 개최될 때 주차금지나 교통통제 등으로 인하여 공간문법이 달라지며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정치적 권력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평소에 공공공간으로 개방된 것도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 권력이 공간을 생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사람에게 단오문화관은 오로지 강릉의 단오문화를 전시하는 공간만은 아니다. 강릉시는 단오문화관 일원을 “일년 내내 강릉단오제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강릉단오제의 보존, 육성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⁵⁵ 그런 의미는 일년 내내 그곳에서 근무하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에게만 느껴진다. 강릉단오제는 한시적 행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시민들은 이 공간을 전용(appropriate)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오문화관을 이용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 1층 관리사무실에 볼 일을 보러 온 관계자들이거나 공중화장실을 쓰러 들어온 동네 주민들이었다. 단오공원과 단오문화관 앞의 마당, 그리고 단오장은 평소에 단오제 관련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보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시민들이 더 많으며 주말에는 이곳이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단오문화관 개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시민에게 단오타운이라는 공간은 단지 시민공원일 뿐이고 축제

⁵⁴ 강원도, 2007, 『강릉 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계획』, pp.186-210.

⁵⁵ 강릉단오제위원회, 2009, 『수릿날, 강릉』 제 4호, p.43.

기간에만 단오문화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것은 “일년 내내” 단오문화를 전시하려는 강릉시의 의도와 다르다.

단오타운이나 단오장의 의미 경합은 강릉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를 공간화하는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다양한 강릉시민들이 인정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다. 기성세대나 강릉에 오래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강릉단오제 등 전통문화는 그들에게 익숙한 강릉의 상징기호이기 때문에 단오제와 관련된 도시경관은 전통문화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나 외지 관광객들이 인정하는 “문화”는 주로 대중매체가 안내하는 오죽헌이나 안목커피거리, 정동진, 경포, 주문진 등 관광지들이며 2017 년부터 리모델링된 중앙시장 “닭강정거리”도 관광객에게 지명도가 높은 곳이다. 그리고 강릉에 있는 커피박물관과 참소리박물관, 에디슨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도 일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관광객들에게 이런 관광지는 강릉의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들이다.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강릉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즐겨찾는 공간은 2000 년 이후 개발된 “교동택지”이다. 이곳에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릉의 도시공간에 대한 의미부여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문화소비 패턴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출신과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다. 젊은 사람이나 관광객은 강릉을 전통문화의 공간보다 소비나 관광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강릉의 문화는 현대문화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가 전시하고자 하는 문화도 다양한데 강릉단오제를 포함한 전통문화는 단지 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릉시가 동원한 요소 중에 커피축제나 국제문학영화제 같은 강릉의 현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도 있다.⁵⁶ 이는 축제를 이용한 지역문화 만들기 전략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릉단오제를 문화로 재구성하는 원칙 중 현대적

⁵⁶ 강릉커피축제는 2009 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10 월경에 개최된다. 구체적 내용은 공식사이트 (www.coffeefestival.net)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2018 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강릉시장은 “강릉국제문학영화제”를 추진하는 중이며 2019 년 11 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강원도민일보』 2019 년 1 월 18 일 보도, 제목: 강릉 국제문학영화제 11 월 개최.

요소를 지향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강릉단오제를 “문화”로 설정하는 행위는 축제 소비자의 취향이나 현대사회에서 주류를 이룬 담론에 맞추어서 축제의 모습을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축제의 현대적 모습

1) 정돈된 축제장

연구자가 관찰한 단오제의 모습은 기존의 보고서 등 자료에서 기록된 것과 다른 점이 많다. 첫째, 행사장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시설이 개선되었고 둘째, 축제 공간이 기능에 따라 나누어지고 셋째, 행사장의 질서도 정돈되었다.

『강릉단오제 백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단오제 본행사를 치르는 단오장은 늦어도 1920 년대에 강릉 시내에서 형성되었다. 그 당시의 장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까운 남대천 강변의 넓은 평지가 좋은 축제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오장의 도로와 시설 등이 좋지 않아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물줄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는 조금씩 이동하여 열렸다. 1970 년대 이후 한국에서 고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강릉시의 재정 상황도 좋아져서 강릉시 등 관련 기관이 남대천 남산교 설치와 남대천 정비공사를 진행했다. 이 때부터 단오장이 현재의 위치, 즉 남대천 둔치로 고정되었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199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물이 개선되기 시작했다.⁵⁷

1993 남대천 둔치에 관람석 설치

1995 수도와 전선 부설

1996 단오장 일부 도로 포장, 전용변악기, 하수차집관 설치

1997 단오장 일부 도로 포장

1999 단오제당 방향 변경, 음식점 부스 교체

⁵⁷ 이 부분의 내용은 아래 제보자의 인터뷰와 자료에 의해 작성했다.

2018.7.5,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의 인터뷰, 2018.9.16,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의 인터뷰.

강릉단오제위원회 편찬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강릉시, 2016, 『술향강릉』 여름호, p.25.

- 2000 소형 그네 및 투호 전용마당 마련
- 2001 전기·통신·방송 케이블 지중화, 화장실 및 식당 썬크대 설치, 하수도
부설, 체험 코너 설치
- 2002 대관령산신각 및 국사성황사 단장, 행사장과 난장 분리, 공연장 규모
확대, 출입통제소 설치, 경비용역 의뢰, 잡상인 상행위 금지,
- 2003 제방 계단식 개조
-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전용 행사장 이용
- 2005 단오문화관 마당 및 단오공원 공간 활용
- 2006 난장 공간 재배치, 무질서한 난장 단속, 서커스장 위치 변경
- 2007 잔디 및 단지불록 조성, 소나무 재배
- 2008 단오문 설치, 수리·아리 공연장 설치
- 2013 창포다리 설치

위의 남대천 정비 사업은 모두 강릉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오장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단오제의 주최 단체도 공간 배치 등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강릉단오제의 공간은 대관령정상과 성산 서낭당, 학산 서낭당, 홍제동 국사여성황사, 경방댁, 그리고 노암동 남대천 강변에 있는 단오장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단오장은 본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일반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단오제의 공간이다. 전통민속을 핵심으로 하는 축제지만 본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규모 난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오제의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난장과 공연장이다. 단오제의 공간은 권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단오제위원회가 행사장 공간을 이용하는 양상에도 “문화”를 정의하는 권력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16>에서 볼 수 있듯이 2018 강릉단오제는 강릉시 구시가지에서 멀지 않은 남대천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중에 지정문화재 행사가 진행되는 곳은 단오제단과 아리마당뿐이다. 수리마당에서는 주로 다양한 예술화공연이 연행되고 기타 공간은 주로 대규모 난장으로 구성된다. 단오제위원회에서 제작한 행사장 안내도에 따르면 본행사장은 <표 21>에서 제시된 여섯 개의 기능존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역	위치	구성	성격
A	남대천 남쪽, 남산교 서쪽	공연장, 단오제단, 체험존, 향토음식점, 안내소	문화공간
B	전수교육관 및 단오공원	공연장, 청소년 단오 행사	
F	남대천 단오섬	시민참여행사장, 불꽃놀이	
C	남대천 남쪽, 남산교 동쪽	난장, 먹거리존, 품바, 놀이기구	상업공간
D	남대천 북쪽, 남산교 동쪽	난장, 품바, 놀이기구	
E	남대천 북쪽, 남산교 서쪽	홍보부스, 이불전, 세계품물전	

표 21 강릉단오제 행사장 구역



사진 16 2018 강릉단오제 행사장 안내도

공간적으로 볼 때 메인행사장인 A 구역과 단오제전수교육관이 있는 B 구역이 붙어 있어 단오장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는 단오제단과 수리·아리마당, 전수교육관 공연장 등 공연을 하는 장소가 있고 체험존, 그네장, 씨름장 등 단오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들이 있다. 또한 현지인에게만 맡기는 “향토음식점”도 A 구역에 있는데 이 구역의 핵심적 지위를 보여준다. A 구역과 붙어 있는 F 구역에서는 불꽃놀이만 아니라 사진촬영전, 옷놀이대회, 줄다리기 대회 등 시민 참여행사가 열린다. 따라서 A 와 B, F 구역은 공연·체험의 공간, 즉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 대부분 축제의 공간은 외부인들이 흔히 “난장”이라고 부르는 C, D, E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전국에서 온 상인이나 단체, 업체들이 운영하는

부스들로 구성된다. 그 중 C, D 구역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단지 하천 양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상가분양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단오제위원회의 공고에서 난장상가 분양을 일괄적으로 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D 구역에 있는 중앙동 상가는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제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이유는 독립된 단오제위원회와 중앙동주민단체가 합의한 결과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단오장 정비공사 때 상수도과 하수도를 남대천 남쪽에만 설치했기 때문에 물을 써야 하는 모든 음식점은 모두 C 구역에 있다. 그 외에 중요한 아이콘인 동춘서커스의 커다란 부스도 있고 매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계속 오는 품바가 있다. 따라서 C, D 구역은 상업이나 소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E 구역은 D 구역과 연결되어 있고 부스 모양도 같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 사실 이곳은 이불전과 공익홍보부스, 세계품물전 등 세 구역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공익홍보부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부스는 모두 장사하기 때문에 성격 상 E 구역도 상업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도 난장 공간과 하나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불전과 세계품물전은 상가분양을 하지 않고 매년 단오제위원회가 전국의 이불 상인 협회나 세계품물전을 운영하는 단체를 섭외한다. 홍보부스도 사실상 강릉 현지의 기관 단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축제 주최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단체들이다.⁵⁸ 따라서 E 구역은 특수한 소비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축제 주최측에서 먹거리촌과 기타 노점상을 구분해 놓은 것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먹거리촌 이외의 난장 공간에도 아이스크림이나 닭꼬치 등을 파는 부스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비의 공간에서 상품 구매와 음식물 소비의 공간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된다. 먹거리촌이 가진 특수성은 종류와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먹거리촌에 있는 음식점은 기타 음식점에 비해 규모가 크고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과 하수도가 있는 데서 해야 한다는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모여서

⁵⁸ 2018 강릉단오제 공익홍보부스 참가단체는 보훈지청, 동부지방산림청, 관동대 링크사업단,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생명의숲, 월정사복지재단, 그린꿈그린나무, 우드힐, 소금강막국수, 도자기공방즐거움, 강원양돈축협, 강릉시니어클럽 등이다.

해야 한다. 그런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 방문객들의 소비 패턴이며 방문객들이 먹거리촌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음식물 소비가 아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음식 외에 주류도 판매하기 때문에 난장의 기타 음식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닭꼬치 등을 소비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사교 행위를 한다. 음주가 축제 방문객들이 추구하는 “축제성(festivity)”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촌이 사실상 단오장의 상업공간에서도 사교의 공간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A 구역에 있는 “향토음식점”도 먹거리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능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단오장의 공간은 크게 문화공간과 상업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업의 공간에서 음식물 소비와 사교의 공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릉에서 개최되는 기타 지역축제도 공간배치의 측면에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진 17>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경포벚꽃잔치 (2018.4.6~12)와 강릉문화재야행 (2018.8.3~9.15)의 경우도 행사장/문화공간과 난장/상업공간이 분리된다. 벚꽃잔치는 메인무대와 체험촌으로 구성된 행사장이 경포대가 위치한 언덕에 있고, 난장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덕 아래의 주차장에 있다. 즉 음식물 소비와 사교의 공간은 난장 한 군데에 모여 있고 문화체험의 공간은 따로 구분된다. 강릉문화재야행은 문화재인 강릉대도호부 관아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그곳에 메인공연장을 두 개 설치했다. 관아 앞의 길에 교통통제를 하여 여러 가지 수공예품과 스낵을 파는 야시장이 있고 먹거리촌과 주점은 북쪽에 있는 서부시장에 있다. 강릉문화재야행의 축제장도 문화 공간과 사교의 공간, 음식물 소비의 공간, 상업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벚꽃잔치나 문화재야행도 단오제와 마찬가지로 축제 주제(theme)와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은 지역축제에 대한 현재 한국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제 1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정부를 비롯한 주재집단들은 지역축제를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기호로 운영한다. 따라서 지역축제에서의 상행위는 축제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하지만 축제의 기호가치를 형성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유로 축제의 특수한 가치를 구성하는 문화 공간을 따로

분리해 둔 것이다.



사진 17 2018 강릉 경포벚꽃잔지 및 문화제야행 행사장
공간 배치

기능에 따른 공간배치는 2002 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2 년도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그해부터 공연장을 포함한 지정 행사장과 난장을 구분해서 공연장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우선 축제에서 공연의 비중이 커지는 것과 연관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2002 년에 한·일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던 시절이었다. 그해 강릉단오제는 문화관광부에 의해 지역대표 민속축제로 선정되고 다음 해의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개최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이미 계획 중이라 미리 행사장의 질서를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추세는 1990 년대 지역축제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 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은 그 당시 축제 평가에서 난장과 행사장 분리의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그걸 이제 1990 년 후대 때 대한민국에서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길 때 축제 전문가라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대전의 ○○○ 교수라고. 단오제에 1999 년도나 97 년도에 축제평가하셨던 분이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행사장과 난장을 구분해야 된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장이 난장과 메인 행사장이 다 구분돼요. 단오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뒤섞여 있었어요. 난장과 공연장 이런 게 구분없이 다 섞여 있었던 걸. 그때 이후로 남대천

아래쪽은 다 야시장으로 만들고 위쪽은 공연장으로 정리된 거죠. 그전까지는 뒤섞여 있었어요. 공연장 앞에서 장사하고 있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

이세훈의 말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단오제의 전통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 등 지식인들은 문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질서를 정의하거나 평가하는 데 제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런 권위는 전통이 가진 권위를 초월할 때도 있다. 이것은 민속 전승의 재맥락화를 구성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 권력의 개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과거의 사회질서가 감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질서가 대신 그것을 규정하거나 훈육하고 있다. 그런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은 문화 권력의 생산에 있어 제도적 권위를 가진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지만 그들이 따르는 것은 한국에서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관념들이다. 강릉단오제의 재맥락화 현상을 다룰 때 그러한 현대사회의 질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민국가의 법률제도에 대한 믿음, 평등을 지향하는 도덕 기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문화 개념 등을 간과해서는 단오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상술한 행사장 공간 배치는 이러한 사회질서의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축제 담론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세훈이 말한 전문가의 의견은 단지 그런 맥락에서 생산된 축제 담론의 대표적 사례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릉단오제의 행사장을 평가하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었다.

“내가 문화원에서 근무할 때 뭐 방송국 기자가 전화가 왔어. ‘저는 오늘 단오장에 가보니 무당이 굿할 때 유행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도해라. 단 그건 알아라. 무당이 유행가를 아는 것은 관중이 필요하고 집중이 안 될 때 관중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잠 올 때 있잖아. 그러면 집중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유행가 한 곡을 부릅니다. 술을 먹는 거야 굿판이 술을 파는 텐데 그게 문제가 되냐? 보도 해라.’” 그래서 보도 했어.

그랬더니 시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내가 뭐 하는 놈이야? 내가 단오를 뭐 안다고? 이 새끼야.’ 그래서 다음날에 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아, 나 다음에 단오를 보도하지 않을래요.’ 왜냐 그랬더니 ‘내가 어제 잠도 못 잤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정희철이 굿당 옆의 음주와 주류 판매 행위를 변명하고자 하며 그것은 축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단오제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는 언론인이 자신의 보도 대상인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술한 내용을 말했다. 즉 언론인이 생각하는 축제의 이상적 형태는 장엄하고 정숙한 의례 장면과 전승자의 경건한 종교행위이며 이런 상상은 종교에 대한 현대인의 보편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희철은 언론인의 보도가 시민이 추구하는 단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으나 개인적 감정의 요소를 고려하면 서술된 내용이 과장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인이 민중의 향의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것은 분명히 자신의 의견이 일부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의례나 축제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상상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고 현대적 주체를 생산하는 윤리 도덕 체계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다. 축제장의 질서나 공간문법은 이렇듯 현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규범화된 힘에 의해 달라지며 그 중에서도 “언론”의 힘을 뒷받침하는 현대인의 믿음체계는 오늘날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공간문법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난장 상가분양이다. 2006 년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난장 상가분양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고 했다. 난장 상가분양의 수입이 위원회의 중요한 경비 조달 방식이고 위원회가 권한을 거두기 이전에도 상가분양을 실질적으로 했던 주체에게 중요한 수입이었다. 수익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난장 상가분양의 현실은 축제가 지향하는 지역민 화합의 이상과 다소 격차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 제보자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난장 상가분양의 모습을 추측할 수는 있다.

“예전에 상가분양할 때는 전매처럼, 그걸 받아서 딴 사람한테 얼마 받고 파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상인하고 외지상인하고 프로테이지를 이뤘어요. 만약 열 개를 분양한다, 그러면 세 개만 외지상인한테 주고 나머지는 강릉사람한테 준 거예요. 분양을 걸으려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강릉사람 일곱 명 중에 몇 명은 다시 외지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장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무식하게 폭력 쓰는 조폭들이 얹혀 가지고, 돈이 되니까.”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는 엄청 많았어요. 대 놓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식당을 일단 접수해 보는 거예요. 접수를 해서 당첨되면 자기가 웃돈 주고 팔면 되니까.”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

“상가를 분양하는 것도 지금 아주 기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깡패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중략)... 자기들이 단오제 와서 요만큼 땅을 끈을 그어 놓고 ‘이건 내땅’ 라고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니까. 상인들한테 자기들이 분양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양성화해서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그, 오야봉(親分)이 이걸 정리를 딱 해서 여기서 난 이익금을 자기가 딱 챙기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딱 하고 은퇴하고. 그런 식으로. 그 속에는 정말 문서화 되지 않은,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양성화시킨 게 뭐냐면은, 땅을 인제 못 팔아먹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술 유통권을 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단오장에서 주류 판매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제 일년에 수익금이 한 억대는 되나 봐요. 롯데주류에서 판매를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통망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요만한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명한다

그러면은 술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져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정말 행정적으로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졌죠.”(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위의 세 제보자의 말을 통해 2006 년 이전의 난장 상가분양의 상황을 다소 추측할 수 있다. 첫째, 행사장은 축제 주최측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둘째, 난장 상가분양은 금전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조직이 개입했다. 셋째, 그 당시 현지 상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주었다.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원 이창수는 이런 변화를 “양성화”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한 것은 2006 년 이후 단오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상가분양의 방식이며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단오제위원회를 통해 행사장의 질서를 관리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즉 남대천 단오장 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깨끗한 축제의 모습을 추구하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난장의 질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따라 정리되었다. 따라서 상술한 제보자의 진술은 사회진화나 진보의 관념에 따라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현재의 강릉단오제 난장 상가분양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상가분양을 주관하는 단체 내부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즉 남대천 북쪽 지역의 난장 상가분양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남대천 남쪽 지역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런 방식은 2006 년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강릉문화원에서 독립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2006 년 이전의 상가분양은 중앙동과 강남동, 내곡의 주민 단체들이 각자의 지역을 맡았으며 축제를 주최하는 단오제위원회와 주관자인 강릉문화원 간에 금전적인 이익으로 인하여 충돌이 일어난 적도 있다. 예를 들어 2005 년 강릉단오제가 시작되기 전에 인천에서 온 장애인단체가 강릉문화원을 찾아가서 상가분양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한 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또한 그해 강남동 새마을협의회가 예전에 운영한 상가부지의 일부가 강릉단오제 행사장으로 편입된 관계로 분양할 상가부지가 작아졌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에 항의했다고

한다.⁵⁹ 이런 사건들은 난장 상가분양의 다원적인 구조가 단오제 전승 주체 내부의 갈등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래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상당한 정도로 강릉문화원과 단오제위원회 간의 행동 불일치 때문이다. 즉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원은 상가분양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다가 이런 혼란스런 국면을 만들었다. 이 문제는 2006년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하면서 점점 해결되었다. 그해 단오제의 난장 상가분양은 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상가분양을 통해 거둔 현장찬조 금액도 80,416,700 원(2005년)에서 147,050,660 원(2006년)으로 대폭 늘었다.⁶⁰ 2005년과 2006년의 행사 기간이 모두 5일이이기 때문에 상가분양 수익금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위원회가 상가분양의 일원화를 통해 중앙동과 강남동, 내곡동 주민단체가 각자 상가분양을 주관했을 때 발생한 불투명한 거래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단오제위원회가 상가분양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중앙동 지역의 상가가 많기 때문에 원래 주관했던 중앙동 주민단체에게 “업무대행”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상가분양은 단오제위원회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2018년 5월 1~2일에 현장에서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상가를 분양할 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ㄱ 3월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 웹사이트나 전화 연락을 통해 상가분양에 관한 소식을 알린다.⁶¹

ㄴ 작년에 상가분양에서 당첨되고 상가를 성실히 운영한 상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준다. 그들이 첫날에 와서 추첨하여 자리를 결정한 다음에 둘째날에 남은 자리를 일반분양을 통해 신규 등록한 상인에게 준다. 일반분양의 인원수가 상가 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당첨되지 못할 수도 있다.

ㄷ 우선분양이나 일반분양은 등록한 순서에 따라 추첨하고 당첨된 자리가 좋지 않을 때 환불할 수 있다.

⁵⁹ 『강원일보』 2005년 5월 31일, 제목: 단오제 상가 분양 추첨 앞두고 골치.

⁶⁰ 강릉단오제위원회, 『2006 강릉단오제 결산보고서』.

⁶¹ 2018 강릉단오제 상가분양 공지는 2018년 3월 20일에 단오제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29&kind=2&IDX=5148>

ㄴ 상가의 위치가 상품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상가의 분양 가격이 다르다.

ㄹ 당첨된 상인은 『단오장 상가임대 이행계약서』와 『전매금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단오제위원회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이 단오제 기간에 난장을 순시한다.

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은 우선분양 제도가 200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난장 상인의 전매 행위를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해 주었다. 단오제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처럼 단오제위원회는 그들의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상인들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먹거리촌이나 동춘서커스, 놀이기구 등을 포함한 난장 구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협력해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제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협력 관계는 단오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이제 특정한 제도에 의해 합법화해야 하며 난장 상가분양의 규칙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현대사회의 질서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가분양은 상인들과 축제 주최측의 임의적인 행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행동이다. 단오제위원회에게 상가분양은 그들의 수익을 충당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난장에 참가하는 상인도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다. 전국에 있는 축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방식이고 한국에서 가장 큰 축제로 인정된 단오제는 일년 중의 가장 큰 장사의 기회를 의미한다. 난장 상가에 가장 좋은 자리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하는데 당첨자는 비용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환호를 질렀다.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단오장 질서 변화에 규범화된 힘이 개입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변화 사이에 단절보다 오히려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을 부이느할 수 없다. 이창수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있던 비공식적 사회질서는 현재의 단오장에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 제도가 모든 분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그런 국가 제도가

비공식적 사회질서를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보자들은 외부인인 연구자에게 말해주기 어려워했다.

과거와의 연속성은 난장 상가 관리에 대한 요구에도 나타나는데 다만 과거에 단오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통제할 수 없었다. 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이성민과 박병호의 진술에 따르면 2006 년 이전에도 부당한 방식으로 난장에 들어온 상인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나 주체 단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박병호: 제가 한번 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일단 반발을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추첨을 해서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내고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상행위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손해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주최측에 항의를 해요. 그러면 주최측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경찰을 부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경찰을 불러서 나가라고 한들. 그게 제도화가 돼야지, 법적으로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최측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 건달을 불렀다가, 조폭, 건달 불렀다가 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내가 그걸 하러 몇 번을 갔었는데 드러낼 수 없잖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냥 () 들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어, 장사 방해 해.”

이성민: 앞에 가서 막아. 그러니까 분양 받지 않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번테기를 파는데 분양을 안 받았어.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나를 신고했고. 이걸 법적으로 밀어낼 수 없어요. 와서 앞에 막아 서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하면 되지.

박병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떡빵)이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알바생한테) “그 뒤에 밀치든 어쨌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때리면 맞아.” 이렇게.

(임영민속연구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에도 부당한 상행위에 대한 항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단오제도 비공식적인 질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나 도덕적 우위를 동원할 수 없었다. 대신에 “비폭력 비협력(non-cooperation with non-violence)”의 방식으로 이를 대처했다. 공권력에 의지하여 난장의 질서를 위원회가 희망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2006년 이후의 일이다. 강릉단오제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사건이 중요한 계기였지만 그 때까지 이미 달라진 사회적 맥락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단오제가 지역과 국제기구 간의 상호작용에서 합법성을 확보한 것은 단오제 제도화를 가속시켰다. 난장을 포함한 축제의 모든 분야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보급되었다. 또한 축제 주최측도 국제기구가 부여한 제도적 권위로 단오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제 I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의례의 축문 변경 등이 가능한 맥락은 전통 지속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난장 상가분양의 규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맥락은 이와 다르다. 제보자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난장에서의 주류 유통권을 양보하지 않고 아직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 만약 그런 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다면 단오제위원회가 난장 상가분양의 권한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단오제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이 말한 한국에서 축제 담론의 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행사 하든 뭐 하든 돈과 연관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은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보다 내가 좀 더 즐겼으면 더 이쁘게 보였으면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니까,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중략)... 제 생각에 아마 그때 단오가 예전에 그냥 한 거였고.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문화적인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네스코 도시에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

즉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문화 만들기가 단오제에 관한 주류적 담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축제 주최측과 참여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훈육하게 된다. 이제 단오장에서 사리추구의 행위는 계속 있지만 이상적 축제의 성격인 “문화”와 충돌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다. 그런 맥락에서 단오제위원회가 현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따르는 투명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따라 난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오제위원회는 난장 상가분양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연구자가 2018 년 6 월에 단오제위원회 사무실 직원이 난장을 조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난장 상가분양 때 등록된 부스의 주인과 영업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 단오제위원회 기타 관계자는 상가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들이 보기에 상가 전매는 불투명한 것이고 기타 성실하게 장사하는 상인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따라서 상가분양에 당첨된 상인은 상가분양 계약과 함께 『전매금지 서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적발시 분양받은 상가의 모든 권리를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위원회에게 사태 처리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이 훨씬 강할 것이다. 그런 현상은 마치 공중장소 흡연 행위와 같다. 그런 행위가 많지 않은 이유는 흡연자가 도덕적 죄책감을 느껴 자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오장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관계자들의 구체적 행동이다. 현재 축제장은 “문화”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공간을 구분한다. 상업 공간인 난장에 대한 위원회의 관리도 문화 만들기라는 주류적인 담론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사건으로 인하여 유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난장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축제성을 감소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여러 제보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단오제를 20 여 년 관리했던 공무원 이창수도 “양성화된” 난장 공간을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게 정리되면서 단오장도 이제 요즘같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의 그 단오장 모습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볼 것 더 많았죠. 지금 이 행사장 모습이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잖아요.” (강릉시 공무원 이창수)

그런 진술에서 단오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전국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획일화되면서 난장의 독자성이 없어진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단오제의 변화에 대한 일부 시민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해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2) 정제된 행사 내용

강릉단오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제 II 장에서 논의했듯이 각양각색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들이다. 2018 년과 1970 년대의 축제 행사를 비교해 볼 때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의 상황은 더욱 지금의 모습과 달랐다. 남근우 (2006)와 윤동환 (2014)에 따르면 일제시대 단오제는 단양운동회 등 스포츠 경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 상황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90 년대까지 강릉단오제에 테니스와 축구, 탁구, 태권도 등 체육행사가 많은 이유도 그런 전통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 년 이후 축제 내용이 개편된 후 단오장에서 인기를 누렸던 체육행사 중 현재까지 이어진 것은 축구 정기전만 남았으며 이는 학연 집단의 지속적 주관으로 가능한 것이다. 2000 년 이후 스포츠 행사의 감소와 맞물린 현상은 문화예술공연의 지속적 증가이며 이는 한국에서 지역축제의 예능일변도의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생긴 일이다.

강릉단오제 행사 내용의 변화는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제보자의 진술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단오제의 실제 모습은 『결산보고서』에서 기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1990 년대까지 단오장에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단오장에서 치러지는 공식 행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최측이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난장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는 2017 년 단오제를

관람할 때부터 계속 들었다.

“고등학교까지 여기(단오장)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어요. 여기 와서 **안 좋은 걸** 배울까 봐.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 단오장에 와서 당직을 켜어요. 학생들이 오면 잡아 갖고.”(현지인 박민수)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꺼려하는 것, **도박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19 금**, 미성년자들이 보면 안 되는 행위들. 그런 부분이 적라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단오장에 청소년이 출입금지였어요. 그래서 저녁 되면 학생들이 몰래, 보고 싶으니까 오면 선생님이 팀을 짜서 저녁마다 순찰 돌아요. 학생들을 잡으려고.”(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이성민)

“저희 중고등학교 때 단오장에 가면 걸렸어요. 따라서 다음날 학교에, 지도부에 끌려가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는 단오장에 가면 큰일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오가 뭔지 잘 모르죠. 그냥 **야바위꾼**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강릉단오제 해설사 양성교육 강사 정희진)

이상 세 명의 제보자 중에 정희민과 박민수는 강릉시 출신이고 이성민은 타지역 출신이지만 1980 년대에 강릉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 강릉시에서 정착했다. 그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하나는 당시 청소년들의 단오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이 행사장을 순찰했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이유는 청소년에게 보여줄 수 없는 도박과 에로틱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야바위라는 것은 도박이나 사행성 놀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러 형식이 있지만 돈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언급한 목적도 현재의 단오제가 과거에 비해 “양성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똑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그네나 씨름 등 놀이는 민속놀이로 인정되고 단오제의 공식행사 내용으로 지정되었지만 야바위는 결산보도서 등 공식 자료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오제의 전통이 선택적 창출 과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은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야바위 등 버림받은 “전통”은 과거에도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다. 여러 현지인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야바위 등 사라진 전통이 그들의 즐거운 어린 시절 추억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최창민: 여기서는 물방개라고 그래. 물방개. 이것을 여기에 딱 집어 넣으면은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 붙여져 있어. 예를 들면은 선물이 있고, 현금도 있고, 뭐 꺾도 있고.

신지철: 별거 다 써져 있어. 비싼 것도 있고.

최창민: 돈, 그러니까 천원이면 천원도 있고. 쭈욱 다 있어. 뭐 선물, 인형이면 인형도 있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꺾도 많지. 물방개 치고는 50 프로는 꺾이지.

신지철: 그거 하면은 장사하는 놈들이 다 집어 놓은 거야.

최창민: 지가 집어놓든 내가 집어 넣든 물방개를 땅에 떨어뜨리면은 물방개가 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가운데에. 왜 꺾으로만 잘 들어가? 요 놈들이 약을 발라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냄새 나는 데는 안 들어가고 냄새 안 나는 데로 들어간다 말이야. 그래서 낮에는 작살 잘 안 돼. 밤에 술 한잔 먹은 사람들이 이걸 하잖아. 그러면 “야, 비켜 봐. 내가 하든 뭐 어찌든 이 새끼 맨날 꺾만 들어가! 어디 물방개 한 번 쥐 봐.” 딱 (땅바닥에) 쳐 놓고 그러면 물방개가 아무데나 들어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와! 잘했다, 잘했다!” 다 그러는 거야.

그날에 연구자는 최창민 (남성, 53 세, 부동산업자), 신지철 (남성, 57 세, 퇴직) 등이 모이는 사진 촬영 동호회 활동에 참가했다. 연구자가 자기 소개를 하자 그들은 예전에 단오제에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말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에서 물방개 등 사행성 놀이는 좋다고 표현되지 않았지만 재미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야바위 등을 축제장에서의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는 변화는 강릉단오제 자체의 변화보다 달라진 사회 맥락에서 축제가

재정의되거나 재구성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지역의 사회규칙에 의해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오제가 국가 무형문화재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의하는 주체가 지역민에서 강릉시, 내지는 국가로 변했으며 이러한 재맥락화 과정에서 축제를 구성했던 난장 등 요소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평가의 기준은 지역민의 전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큰 체계에서 주류를 이룬 도덕이나 가치관 등이다. 단오제는 더 이상 지역민들만 노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로 재구성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보편적 인식과 어울려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단오제를 재구성하는 원칙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럴 때 도박이나 에로틱한 내용은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로 더 이상 “재미있다”고 표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사회현실은 담론에서 반영되고 담론이 다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면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난장에서 야바위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제보자들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시대의 발달에 따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그런 도덕적 평가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단오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현재 강릉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의식이 따라가면 이게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엇, 맞아. 단오제 난장 그렇게 가야지라고 이쪽(시민)이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으니까. 예전에는 그게 맞는지도 몰랐어. ‘당연히 단오제에 가면 야바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이걸. 사행성 있고 또 사기고.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안 돼. 사회는 공정해야 되니까. 의식이 그렇게 되니까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단오제위원회가 그런 의지 가져왔을 때 당연히 그쪽에 지지를 하게 되는 거고. 여전히 시민이 가서 야바위를 찾아대 보세요. 어딘가 양아치가 와서 한다니까,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걸 찾으면. 근데 아무도 안 찾거든.”(임영민속연구회 관계자 이성민)

이성민은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데 이 말에 과거의 야바위 등 난장의 구성 요소가 “낮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와 과거의 생활방식이나 문화를 수직관계에서 평가할 때 흔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런 위계를 만든 사람이 전통을 이긴 근대성에 의해 구성된 근대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의 진술에서 중요한 사고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즉 “애들”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 개량을 요구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것은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즉 어른들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할 때 정당한 정당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물려받을 후손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상도 단오제 변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가치는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비교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제보자의 말에서 사회가 점점 좋아진다는 관념이 반영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진화나 진보의 관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도 진보의 관념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그런 관념의 영향으로 인하여 축제 주최측이나 참여자들은 축제의 프로그램을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상술한 야바위 등이 없어진 것 이외에 공식행사의 내용도 현재 한국인의 핵심적 가치관과 어울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나의 예시는 행사 내용이 점점 무대 공연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2 년도부터 체육행사라는 분야가 없어지고 2010 년부터 무대공예예술제라는 분야가 신설된 것은 그런 변화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결산보고서에 반영된 변화 외에도 난장 등 상업공간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내용은 현재 한국인이 선호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품바이다. 품바는 강릉단오제 주최측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강릉 현지인들은 각설이라고도 한다. 한국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품바는 유랑하면서 걸식하는 사회집단이고 주로 하층민과 조선시대 이후 전락된 귀족이나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강은해 1981; 박전열 1979). 품바 연기자의 이러한 계급 신분은 그들의 공연 예술의 내용과 계층적 위치를 결정한다. 강릉단오제에

여전히 품바가 매년 공연하고 있지만 논란이 많아지고 있다.

강릉단오제 난장의 동쪽에 매년 품바 공연팀이 두 개 와서 공연한다. 품바 공연장은 높은 무대가 없어 연출자와 관객들과 상호작용하기가 쉽다. 공연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명의 연출자들이 노래와 춤, 사설로 관중들을 웃기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 남성과 여성 연기자는 공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상한 옷을 입고 얼굴에 과장적으로 분장하기도 한다. 품바 공연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오장에서의 공연은 무료로 진행될 수 없다. 품바는 관람료를 받는 대신에 공연 진행 도중에 살충제 등 일용품을 판매한다. 품바 관람객들은 대부분 중년층 이상이고 60 대 이상의 노인이 많다. 품바 연기자가 공연하면서 관객과 상호작용도 종종 하는데 그럴 때 관객이 그들에게 현금을 주는 사람도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품바의 공연은 굿과 비슷하게 다양한 공연 형식을 사용하는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각설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품바는 하층민으로 구성된 공연팀이기 때문에 단오제의 공식 문화예술 행사에 비해 일반인이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성적 농담과 비속어 등 내용이 많다. 이런 특징에 아래의 두 가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 IV-1: 품바 공연

2018 년 6 월 19 일 저녁, 연구자는 현지인과 같이 남대천 북쪽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 갔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다. 무대에서 남자 한 명이 공연을 진행하는데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이 나이에 여자들은 남편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겠죠? 뭐? 남편을 건드려? 건드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밤에 강간 당하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조금 있다가 여성 연기자가 등장하여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 자기소개를 하는데 방금 그 남자가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 “(이 여자가) 얼굴이 이쁘죠? 네, 얼굴은 이쁜데 밑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관객들도 한 바탕 웃었다.

2018 년 6 월 17 일 오후, 연구자는 남대천 남쪽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 갔다. 현지인은 남쪽의 품바가 항상 북쪽보다 잘 된다고 말했다. 그 당시 공연하는

여성은 이 업계에서 유명한 연기자였기 때문에 낮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연구자가 구경할 때 그 여성은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 자기의 어머니가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오만원짜리 지폐를 건네 주었다. 공연하는 여성은 부끄러운 척하고 다가가서 지폐를 받고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혹시 오만원짜리인데 제 몸을 여기 한번 터치...” 라고 하면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자기의 가슴에 대는 척했다. 그 남자는 황급히 도망갔고 연기자는 공연을 계속했다.

품바와 비슷하게 공연을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옛장사나 옛장수가 있다. 문자 그대로 그들은 옛을 파는 사람인데 그들은 고정된 공연장이 없고 수레를 끌고 도심에서 유랑하면서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옛을 판다. 따라서 매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단오장은 그들에게 좋은 장사의 기회이고 대부분 관객들도 그들의 축제 참가에 반감을 느끼지 않는다. 강릉시의 여러 노인들은 옛장사가 재미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인은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에 가서 그, 옛장사. 옛장사가 그, 뚜드리고. 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강릉시 동남 1 차아파트 노인회장, 남성, 70 대)

“그, 옛장사, 욕지꼴이 하면서 장사하는 데도, 옛 파는 데가 옛도 팔아주고. 이랬어요. 웃기느라고. 사람 웃기느라고. 욕을 하고 그래.” (강릉시 옥천노인회관 노인 여성, 70 대)

2018 강릉단오제 현장에서 관찰된 것도 이와 비슷하다. 옛장수들은 옛을 팔기 위해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식당을 들락날락하고 일부 관객들도 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옛을 살 때 옛장수가 틀어준 음악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추다가 갔다. 한 사람은 옛을 맛보고 바로 갔는데 파는 사람이 달려가서 끝까지 사게 한 장면도 목격했다. 옛장수는 식당에도 가서 옛을 파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들을 나가라고 하지

않았으며 한 식당의 주인은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아서 굳이 그들을 내쫓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식당과 옛장수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오제에서 용인된 행위이다.

그러나 품바 공연의 계층적 위치가 낮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규정된 강릉단오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갈수록 어울리지 않게 된다. 2018년 단오제 본행사 첫날에 옛장수 한 팀이 종합안내소 근처에 와서 장사를 했다가 옆의 시정홍보관에 있는 공무원이 그들에게 다른 데 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도 옛장수가 계속 이 근처에서 장사했지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안내방송할 때만 그들에게 소리를 줄이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첫날 오전에 보통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 공무원들이 단오제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옛장수가 장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사람들은 옛장수나 품바의 행위나 공연의 내용이 저속하다고 생각하여 축제 주최측에 항의한 사건도 있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단오제 기간에 옛장수의 농담이 지나친다고 항의한 젊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 청년의 말로는 당시 자기와 여자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옛장수가 다가와서 엿을 사 달라고 했다. 청년이 끝까지 안 산다고 하자 옛장수는 여자친구 앞에서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하며 성적인 농담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년은 나중에 단오제위원회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매년 품바를 항의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2016년과 2017년에 글을 세 번 남긴 적이 있으며 주로 품바의 공연 내용이 성차별이나 성희롱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⁶²

작성일: 2016-6-16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인 학생들도 공연을 볼 수 잇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말들을 거침없이 수년동안 공연을

⁶² 강릉단오제위원회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일부 글을 인용한 것이고 오타 등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래 주소 참조: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37&kind=2&IDX=4473>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37&kind=2&IDX=4474>

<http://www.danojefestival.or.kr/contents.asp?page=37&kind=2&IDX=4932>

통해 자행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에 대해 강릉시와 강릉단오제위원회의 추후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의 저질성희롱발언들이 품바공연에서 지속되어야겠습니까?

성인들만 이용하는 밤무대 업소공연을 보는듯한 이런 추태가 공공장소인 단오제에서 아무런 제지없이 그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6-6-18

매년 반복되어왔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허리수&장금이 각설이 공연팀의 행사공연에서 발생한 이러한 **추태와 비속어남발과 과도한 여성성희롱발언**들등의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비상식적인 품바공연이 그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단오제위원회 관련책임자분들이 몰랐다면 그것은 정말 직무유기이며 방관자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제보를 해야만 그때서야 이런 부적절한 품바공연내용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릉단오제에 대해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의 세심한 **관리부재**가 크게 아쉽다는 사건을 끝으로 남깁니다.

작성일: 2017-06-03

말초적인 성적농담과 19 금 멘트와 저속한 농담들은 이제 품바공연에서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더 진솔한 농담으로 웃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품바분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 행해지는 강릉 단오장에서 품바공연팀들의 관객을 웃기는 방식과 자세는 이제는 변화가 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의자의 입장은 첫째, 품바 공연이 관객들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내용은 담은 농담이 저속하다는 거이고 둘째,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은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에 있다는 것이다. 그가 사용한 저속하다는 표현에서 볼 때 품바의 공연을 기타 문화예술 공연과 수직적으로 배열되는 위계에서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생들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은 위계의 높은 단계에 있는 “고급”의 문화 양식이고 품바가 하는 성적 농담 등은 성인들만 지향하는 저속한 공연이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각 계층마다 자기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이나 의식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계층별로 문화예술의 취향이 다르다(임창규 2012; 한교남, 한범수 2011). 현대인의 관념에서 같은 공연이라도 계층 속성이 각자 다르며 상류층의 취향을 상징하는 공연예술이 있고 그런 예술 형식은 문대공연에서 적절하다. 이에 비해 하층민의 취향을 반영하는 예술은 저속하다고 취급되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무대나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기 부적절하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현대문화의 기준으로 과거의 공연 형식을 평가하면 품바는 기타 공연예술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품바에 대한 비난은 일부 시민의 의견이고 그런 비난이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시민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강릉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체보자 이옥미에게 품바에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자 그는 일부러 성적인 농담을 보러 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것이 그의 의견과 맞물린다. 그래도 강릉단오제의 계층적인 지위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속한 내용에 대한 반발의 언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들은 점점 행사 내용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품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현재의 핵심적 가치관과 어울리기 때문에 축제 주최측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다. 2017년까지 오던 품바 팀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자 단오제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작년부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 왜 음담패설을 하냐고. 음담패설이 뭔지 알죠? 여자를 비유해 가지고 하고. 미투에 걸리면 아주 짝 죽지. 이걸로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듣기가 부끄럽다는 거야. ...(중략)... 내가 시민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더니 그냥 무시하라는 거야. 당연히 그게

사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고, 어쨌든. 근데 요즘 **미투**가 터졌잖아. 그러면은 저기가 공개된 공간이야.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결정을 받기 전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저런 것 하나 튀면은 어렵잖아요. 우리도 올해 품바 같은 경우 얘기 좀 해야 돼. ‘이런 여론이 있다. 당신들이 가려서 해라.’ 이런 것 때문에 난장이 점점 점점 변화하는 거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품바 공연이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구성한 대표적 요소이며 이것을 하나의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전통은 평등주의라는 사조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재평가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품바 공연에 대한 민원은 지역의 전통에 대한 국가의 제도, 특히 핵심적 가치관이 간섭하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강릉단오제의 행사 내용은 이처럼 주최측만 만들고 있는 축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동시에 제약도 받고 있다. 특히 담론의 힘이 단오제를 관람하는 사람을 통해 단오제 주최 행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의 행사 내용은 현대인의 생활수준에 맞춰어서 지역만의 전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개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단오제 주최측 관계자와 관람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난장의 공간 정돈과 품바에 대한 단속 등이 좋은 사례이고 심지어 난장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도 현대인의 생활수준에 맞춰 가고 있다.

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의 말에 따르면 2003 년부터 강릉단오제 주최측이 현대호텔을 섭외하여 먹거리촌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정동진에 있는 선클루즈호텔과 메이플비치호텔에서도 각자 몇 년 간 단오제에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다. 2017년에 연구자가 단오장을 방문했을 때 메이플비치호텔이 운영하는 식당을 봤다. 호텔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은 돈까스 등 간단한 것들이지만 깨끗하다는 이유로 많은 관람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 외에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스낵코너가 매년 오는데 이것이 2007 년이나 2008 년경에 단오제위원회와 협력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롯데리아가 하는 “찾아가는 롯데리아”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축제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때까지 단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주로 장터국밥이나 바베큐 등 축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이다. 또한 이런 식당들은 보통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다. 특히 위생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어머니들은 롯데리아나 호텔 음식을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함께 구경할 때 이런 식당을 선호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강릉 현지인 중에 단오제나 기타 축제에서 음식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절대로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2018 년 5 월 초에 단오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식당 운영자 간담회”에서 단오제위원회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은 식품안전과 위생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것은 축제 주최측이 난장 음식의 위생 문제를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원회 직원 이세훈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이 호텔이나 롯데리아와 협력하게 된 것은 단오장의 음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롯데리아에서도 ‘찾아가는 롯데리아’란 걸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거죠. 축제장에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때도 저희가 필요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먹을 게 필요했을 때** 딱 롯데리아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해 보자고 한 거죠. 아이들 먹거리 땀에 저희가 입점시켰던 거죠. ...(중략)... **상향 평준화** 시켰던 거죠. 호텔이 들어오면서. 호텔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다른 부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옆에 있는 식당들이 보면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상향 조절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효과를 저희도 바랬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관광객들한테 조금 깨끗한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거랑 옆의 식당들도 보고 상향 평준화도 되게끔 하자는 두 가지 목표인 거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이세훈)

위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 내용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난장 음식의 변화도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어린이에 대한 배려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한 권위의 개입이다. 야바위나 품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도 난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 그것이 모두 성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 상황에서 축제 주최측은 젊은 층의 축제 참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단속하면서 난장의 음식도 개선하고자 한다. 그것은 위원회 관계자들이 “상향 평준화”라고 말한 것이다.

박상미(Bak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맥도날드는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특히 여성과 아동의 선호를 받았다. 서양의 패스트푸드에 해당하는 롯데리아도 한국인에게 표준화된 서양의 문화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인에게 패스트푸드는 이미 외국 문화로 간주되는 경향이 약해졌지만 표준화의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즉 요리사의 솜씨 등 개인적인 요소가 맛의 차이를 만드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주문할 때 이미 먹을 음식의 맛과 품질을 예상할 수 있는 안심함을 제공하는 것은 패스트푸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그것은 특히 아이의 음식을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강릉단오제의 관람객 중 여성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 년도에 여성 응답자 비율은 40.9%이고, 2017 년에는 64%, 2018 년 64.4%로 늘어났다.⁶³ 샘플링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축제 관람객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추론은 연구자가 관찰한 현장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강릉단오제의 주관 단체 중에 많은 여성 단체들이 있다는 것도 여성의 축제 참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004 년경부터 강릉단오제의 체험촌 행사가 현재의 규모를 형성했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단체 중에서 여성봉사단체가 많다. 그것은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강릉단오제의 운영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단오제 참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체험촌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동호회 단체들이다.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교실 임원 모임: 2004 년부터 신주맛보기를 주관했다.

배다리회: 강릉문화원 임영문화학교 수료생 30 여명이 만든 단체, 2001 년부터 수리취떡 맛보기를 주관했다.

⁶³ 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보고서』, 2013, p.133; 2017, p.46; 2018, p.33.

경포회: 강릉문화원 임영문화학교 17 기와 20 기 졸업생 모임, 2004 년부터 신주교환을 주관했다.

강릉문화원 임영문화재보호회: 강릉문화원 임영향토문화학교 수료생 모임, 1993 년부터 투호대회를 주관했다.

주관단체 중에 여성단체들이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린 현상이다. 강릉문화원이 단오제를 주관했을 때부터 여성들의 단오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1993 년부터 여성들만 참가하는 행사인 투호대회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후 2004 년에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개최되면서 강릉단오제의 행사 내용이 크게 달라졌고 체험촌의 규모 확대도 그때의 일이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강릉단오제의 행사를 주관한 결과, 여성이 강릉단오제 주최에서 가진 중요성이 높아지고 발언권도 많아졌다. 현재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은 여성이 담당하고 위원회의 정관 내용에 위원회의 당연직 이사 11 명 중에 한 명이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전통의례인 봉안제에서 이 여성이 종헌관을 담당한다. 여성이 유교제례에서 헌관 역할을 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많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여성들이 강릉단오제에서 발휘하는 역할과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축제 운영이나 참여에 대한 여성의 비중이 많아지자 축제의 형식이나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과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 형식이나 여성이 아예 참가할 수 없었던 야바위 등은 없어지고 자신의 가족, 특히 아이를 생각하여 난장 음식 등의 변화를 희망하는 여성은 늘어났다.

난장 음식의 사례에서 축제 소비에서 발생하는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난장 등 요소는 각자 다른 종류의 관람객들을 겨냥한다. 난장에서 소비하는 사람이 주로 성인들이라면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라는 분야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축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젊은 세대 중에서 단오제 관람객을 양성하는 노력을 전부터 해 왔다. 2018 년에 새로운 시도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한 것과 키자니아(Kidzania)를 섭외한 것이다.

주최측 원래의 계획은 단오제단 서쪽에 있는 구역을 키즈존(kids zone)을 만들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계획을 변경하자 취소했고 대신에 위원회가 어린이 직업 체험 업체 키자니아를 섭외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던 단오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든 것은 축제 주최측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방하는 단오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단오제에 키자니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 편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었다. 키자니아의 설치는 롯데리아의 축제 참여와 마찬가지로 단오제 관람객의 다양성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축제장 질서의 정리와 함께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양성화”시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추세는 지역에 대한 국민국가의 개입이 가져온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과거의 단오제는 성인들만의 공간으로 취급되었고 축제의 내용도 성인들만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축제의 성격이 전체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축제를 만드는 주재집단과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강릉단오제를 지배하는 담론의 힘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제 강릉단오제를 규정하는 주체가 단순히 지역의 전통만이 아니라 한국인이 준수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이다. 계층의 문화나 지역과 국가, 국제 기준 간에서 형성된 위계서열에 대한 그들의 취사(取舍)는 단오제의 변화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세계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사건은 계층이나 위계 관계의 변화를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제사회라는 더 큰 체제의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축제 내용의 이런 변화는 난장 질서의 양성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품바의 공연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이 좋은 사례이고 이와 비슷한 것은 서커스에 관한 시민의 의견이다. 1990년대까지 단오제 때 서커스를 보러 가는 것이 많은 강릉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현재 강릉단오제에 동춘서커스만 오는데 이 서커스단은 한국에서 남아 있는 유일한 서커스단이다. 동춘서커스가 강릉단오제에 처음 온 것이 1970년의

일이고 지금까지 18년째 오고 있다. 연구자가 인터뷰한 다양한 시민들은 서커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서커스가 안 오면 단오를 안 보는 거야.”(현지인 최창민, 남성, 53 세)

“난 서커스 너무 싫다. 너무 잔인해.”(제보자 이옥미, 여성, 56 세)

“월화거리도 조성됐으니 단오장을 도심으로 이전해야 돼. 이제 서커스 이런 건 안 해도 돼.”(강릉시 공무원 함태호, 남성, 61 세)

위의 진술에서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축제 경험에 따른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지인 최창민의 아버지가 서커스를 좋아하는 것은 70 대 이상 노인들의 축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옥미는 서커스만 아니라 투견이나 투계 등 싸우는 것을 일체 안 본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의 개인 취향이지만 현대적 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고 해야 한다. 인권보호와 동물보호 등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사체를 만들어 가치관을 실천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분야에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서커스나 투견, 투계의 운영과 관람 등 행위에 부정적 관점이 점점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서커스 단체도 점점 비난을 받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견 등 프로그램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취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의 흐름”은 이옥미의 “잔인하다”나 “징그럽다”는 표현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인이 과거의 오락 방식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그런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추종하거나 보급시키는 단체는 정부 기관이다. 함태호의 말에서 과거에 인기를 누리던 서커스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축제를 지역문화 만들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의 충돌은 축제 변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통의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약해지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그 원인은 전통의례가 전체적인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의례는 보존회원 이외의 다른 관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이에 비해 기타 행사는 다양한 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통의례를 보존하기 위해 축제 주최 단체들은 축제 홍보와 아울러 상품화 등 수단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개발하고 있다.

3 상품화된 민속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릉단오제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달라지고 있으며 주최측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대외적으로 “변화는 있고 변함은 없다”고 표현한다. 이런 담론은 민속 축제가 전승되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과거의 실용성을 잃었지만 구체적 행위자가 지역민을 포함한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민속 축제의 주최측 관계자나 전승자에게 그런 가치를 창출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된다. 강릉단오제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런 민속문화의 개발과 이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가치가 인정된 강릉단오제는 현재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지원이나 재정 예산 등 여러 실질적인 도움도 받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관심과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 강릉단오제에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기도 하다. 지역 축제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된 무형문화유산이 된 과정에서 강릉단오제는 다양한 참여 주체에 의해 여러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 2004 년의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그런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며 전통 보존이나 민속문화 전승의 또 다른 방식이나 성격, 즉 민속의 상품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은 현대성을 표시하거나 입증하는 수단으로 소비될 수 있으며(Kendall 2011), 민속도 문화생활에 대한 현대인의 수요에 따라 소비상품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민속의 상품화, 혹은 포클로리즘의 관점에 따라 본질의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민속의 상품화는 민속이 현대사회에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독일 학자 한스 모저(Hans Moser)가 창안한 포클로리즘의 개념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로서 민속이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보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Bausinger 1990: 126-127). 이들의 관점에 따르면 민속은 옛날의

생활문화로서 원래 지니고 있던 실용성을 상실하고 전시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연구에서 지적되듯이 민속과 포클로리즘은 특정 맥락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의 강화나 경제개발 등 정체적 목적에 의해 무단히 서로 협상하고 재구성되고 있다(Roginsky 2007; Thornbury 1995). 그런 관점에 따르면 탈맥락한 민속이 실용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속의 전통적 요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상품화되고 소비되고 있다.

소비되는 상품으로서의 민속이라고 할 때 소비는 민속의 기호가치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용성이 있는 사용가치를 보이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예를 들어 전통문화의 캐릭터로 개발한 상품이나 관련 공연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매년 수많은 학자들이 단오제 등 전통 민속을 두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논문 편찬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전통문화가 가진 기호가치를 소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소비나 상품화에 대한 분석은 전통이나 민속문화의 가치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즉 하나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기호가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은 강릉단오제의 사례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1) 관련 상품의 개발

무형문화재의 보존 단체는 보통 전통문화의 실용성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위원회가 단오제를 도시축제로 운영하는 것은 현대화나 도시화의 맥락에서 전통을 보존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받기 마련이다.

강릉시는 단오제를 강릉의 도시 마크로 구축하는 사업을 일찍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단오제의 지속적 개발을 결부시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2015년 10월 23일에 열린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10주년 좌담회”에서 당시의 강릉시장은 강릉단오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오늘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단오 홍보를 위해서는

단오캐릭터를 상품화해 판매하고 홍보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오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데, 더 다양하게 개발해 강릉단오제를 전 세계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단오를 홍보하면서 단오가 강릉만의 지역축제가 아닌 세계인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 2015, 『수릿날, 강릉』, p.18.

실제로 강릉단오제의 산업화나 상품화는 그 전부터 강릉시 등 지방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언급되었다. 예를 들어 2008 년에 강릉시청에는 단오문화, 창조도시, 단오문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서로 구성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을 만들어 단오제를 도시 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당시 추진단은 강릉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경포해변, 그리고 강릉단오제라는 “3 대 테마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강릉단오제의 관광자원화와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선례가 있다. 1999 년에 강릉시가 강릉과 연관된 문학작품 인물 홍길동을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개발하여 상품화했다. 당시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는 강릉공항과 관광안내소, 오죽헌을 비롯한 관광지 판매점과 강릉단오제, 해변축제 등 각종 이벤트 때도 별도의 매점을 만들어 판매했다.⁶⁴ 이런 행동은 1995 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와도 연관된다. 즉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기의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5 년 이후의 일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98 년 2 월 19 일부터 왕범이라는 캐릭터를 공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인천시는 두루미를, 경기도 31 개 산하 시군은 블루링-지구돌이를, 강원도는 반비(반달곰)를 각자 사용하기 시작했다(조해진 2014).

같은 독립 주체로서의 강릉단오제위원회도 자신의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기에 나섰다. 제 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각자의 캐릭터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최초의

⁶⁴ 『연합뉴스』 1999 년 3 월 13 일, 제목: 강릉시, 홍길동 캐릭터 상품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19633>

강릉단오제 캐릭터는 2004 년의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때 사용된 “수리랑”과 “아리양”이었으며⁶⁵ 이것이 나중에 강릉단오제위원회가 만든 캐릭터의 원형이 되었다. 강릉단오제 캐릭터가 개발된 후 도시 경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오제 체험촌 등 행사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강릉단오제 주최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술한 『수릿날, 강릉』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단오제위원회가 캐릭터를 산업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외부에서도 제시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산업화를 비롯한 단오제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⁶⁶

2018 강릉단오제에서 강릉단오제 캐릭터로 개발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게임이 등장하여 많은 어린이의 관심을 모았다. 그 당시 단오제위원회는 게임의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상품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리마당 옆에 상품을 교환하는 부스를 설치했는데 연구자는 거기서 상품 교환하러 온 어린이들을 봤다. 단오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게임의 개발은 단오제위원회가 외부 공모 사업을 신청한 결과이다. 2017 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공모하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는 현지 대학의 교수와 같이 응모하기로 했다. 그리고 강릉 현지에서 뮤지컬 제작과 AR, VR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아서 같이 공모사업신청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사업에 선정되어 그해 7 월부터 “소매각시구출대작전”이라는 VR 게임과 “단오퍼즐”이라는 AR 게임(사진 18 왼쪽)을 개발했다. 2018 년 9 월에 개발한 게임을 가지고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에 참여했다. 같은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으로 가족 뮤지컬 “다노다노”(사진 18 오른쪽)도 있는데 관노가면극의 스토리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좋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무대화한 것이다.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이것을 개발한 계기는 물론 단오제 캐릭터를 활용하여

⁶⁵ 『강원일보』 2004 년 6 월 19 일, 제목: 수리·아리 화합과 상행 뜻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001713>

⁶⁶ 조해진(2014) 이외에도 현지 대학의 학자들이 단오제 콘텐츠 활용 방안 등 산업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강원일보』 2007 년 6 월 21 일의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관동대 교수가 단오제 캐릭터 등 단오제 기념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 주소: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07062000107>

청소년들의 단오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제 2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오제는 전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한때는 청소년의 축제 관람을 금지했다. 그러나 축제의 경제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이 축제의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성인만의 축제는 현재 한국의 사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는 단오제의 관람객이나 소비자를 성인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2018 년 강릉단오제에 키자이나를 유치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코너를 신설했다. 단오제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 개발은 그런 맥락에서 가능해진 일이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뮤지컬뿐만 아니라 단오제 스토리와 캐릭터로 개발한 웹툰 “단오에 오神”도 있다. 이 웹툰은 문화재청의 웹페이지에서 연재되고 있으며⁶⁷ 다섯 명의 신이 악귀의 공격으로부터 축제를 지켜낸다는 스토리를 통해 강릉단오제 개요, 신주 빚기와 영신제, 손님굿, 축원굿, 칠사당과 대관령 산신당, 송제신와 소제 등 단오제의 다양한 요소를 재구성하여 단오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일으키거나 이해를 증진시키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강릉단오제보존회에서 이 웹툰의 출판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보존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주도한 무형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부로 이것을 개발했고 단오제보존회도 개발에 참여했다고 말해 주었다.



사진 18 AR 게임 ‘단오퍼즐’과 가족뮤지컬 ‘다노다노’ 포스터

⁶⁷ 문화재청 웹사이트에 웹툰 코너에 있다.

주소: <http://m.cha.go.kr/mobileApp/webtoon/list.do?pageNo=95030000&num=03>

강릉단오제의 콘텐츠 개발은 기타 업체에 의해서도 진행되지만 강릉단오제와 연관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롯데리아는 단오제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매장에서 “단오팩”과 “단오명품팩”을 판매하는데 이는 사실상 신제품이 아니라 단오제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기존 상품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단오팩은 계절성이 특징이며 기타 시간에 시중에서 찾을 수 없는 상품이다.

단오팩과 성격이 유사한 상품으로서 단오신주가 있다. 단오신주의 상품화는 일찍부터 강릉시나 학계에 의해 제기되었으나⁶⁸ 연구자가 조사할 때까지 이것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다. 단오신주는 단오제의 신주미 봉정 행사에 참가하여 신주 교환권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 병 준다. 사실상 이 단오신주는 단오제 보존회원들이 빚은 것이 아니라 강릉에 있는 양조공장에 맡긴 것이다. 시민들이 내 준 쌀로만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연구자는 지정문화재 행사 때 단오제보존회 직원들이 관람객에게 신주를 나누어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즉 단오신주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축제 참여를 장려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여러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답을 주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이유는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 주류판매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과 세 번째 단오신주의 상품화가 축제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릉단오제보존회와 위원회는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경영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은 없다. 따라서 실질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단오신주 상품화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단오신주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타 막걸리처럼 상품화하면 그것의 희소성을 없애기 때문에 더욱 신주미 봉정이나

⁶⁸ 단오신주 상품화는 아래의 보도 참조.

『연합뉴스』 1999년 11월 9일, 제목: 강릉 단오주 상품화 추진.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60545>

『강원일보』 2013년 3월 8일, 제목: 천년의 역사 담은 ‘단오주’ 개발 나선다. 주소: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030700058>

『강원일보』 2013년 9월 17일, 제목: “단오 약주 10병 사면 강릉단오주 한 상자가 덤”. 주소: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091600130>

『강원도민일보』 2015년 9월 2일, 제목: 신명의 강릉 술을 만나다. 주소: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46236>

기타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2018 단오제 현장에서 신주 판매처를 문의하는 관람객들을 보았다. 옆에 있는 기타 해설사는 그런 질문에 바로 “판매하지 않고 교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병 준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관람객들이 왜 판매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오신주의 성격에 대해 양쪽이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주는 단오제라는 특정 영역에서만 가질 수 있는 비일상적인 물품으로서 단오제의 계절성이나 신성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비록 현재의 관람객 중에 단오제의 종교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일상적 경험과 구분되는 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축제성을 확보하는 요소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질 수 없는 경험을 추구하거나 만든다. 이제 대중매체가 발달하기 때문에 굳이 단오장에 와서 곳을 구경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것처럼 축제의 성격을 구성하던 요소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요소들이 점점 그 기능을 대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단오신주가 그런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것의 상품화는 적어도 단오제를 주최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강릉단오주”의 개발과 판매가 실패한 배경이다. 2013 년 강릉단오제 전임 관계자가 주도한 “단오문화사업단”이 단오신주의 상품화를 시도했는데 단오제위원회의 반대가 컸다. 그래서 “단오신주(sacred liquid)”라고 하지 않고 “강릉단오주”와 “강릉단오주 약주” 두 종류를 개발해 2015 년까지 판매했다고 한다. 현재 강릉단오주라는 것은 강릉의 시장이나 매점에서 찾을 수 없고 단오제 본행사 기간에 단오장에서 판매되는 단오주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단오신주를 만들 때 같이 양조공장에 맡겨서 대리 생산한 상품이라고 한다. 단오문화사업단이 주도한 강릉단오주 사업이 실패한 것은 우선 단오주 상품화를 주도한 관계자와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간에 수익성을 놓고 다툰 결과이고, 단오신주 상품화에 대한 단오제 주최측의 보수적 입장을 보여준다. 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은 강릉단오주 상품화의 실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단오주라는 게 일년 내내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단오 때 가 가지고 단오 때 먹고 그래야지. 좀 그런 것 때문에. 상품화하라고 하는 건 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팔기 쉽지 않은 게, 그냥 일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즘 동네마다 다 캐릭터가 있고 상품화 시켜 가지고 기념품 같은 걸 홍보 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술이라는 건 그것보다 약간 좀, **특수한 거** 있잖아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신의 음료니까. 술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계절, 아니면 공간성, 시간성 문제 때문에 대중 상대해서 판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던 거 같아요. ...(중략)... 가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땀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거 워낙에 일거리가 있는 사업이니까, 조금 **이익권 문제**도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너그러운 도시가 아니거든요. ○○○도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일단.**”(강릉단오제 해설사 김상훈)

김상훈의 말처럼 술은 축제성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로서 단오주나 단오신주는 단오제라는 시간이나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품화나 보편화는 축제적 경험을 희석할 수 있다. 또한 계절성 상품의 일상화는 행사 기간의 주류 판매, 특히 막걸리의 판매량을 줄일 수도 있다. 그런 문제는 단오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오제 주최측에서 단오주의 상품화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햄버거는 축제성을 구성하는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품과 단오제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관람객이나 주최측 관계자들이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 축제 관람객은 이것이 단오팩이 되든지 한우팩이 되든지 간에 단오제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깨끗한” 음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비와 의미의 두 측면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상품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즉 단오주 소비는 주로 성인들의 축제성을 구성하는 행위이며 패스트푸드 소비는 주로 행사를 보러 온 청소년이나 가벼운 일상음식을 먹고자 하는 관람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단오신주라는 막걸리는 단오제의 축제적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축제와 마찬가지로 계절성을 가져야 한다. 단오제 주최측은 축제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계절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릉단오주 상품화의 실패는 단오신주의 이런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초래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사건 때문에 강릉단오주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는 단오제위원회를 그만 두었고 단오제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하는 동안 이 관계자에 관한 정보를 구할 때 단오제 주최측 관계자들이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단오주 상품화가 그 당시 단오제위원회 내부에서 심한 갈등을 빚었고 지역사회에서 연고나 연줄이 부족한 관계자는 사업이 실패하자 위원회 일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막걸리는 판매되는 “단오주”와 교환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단오신주” 두 가지 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화된 것은 “신주”라고 부르지 않으며 이것은 앞서 논의한 축제성을 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요소를 보존하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이다.

단오제 캐릭터 등 다양한 단오제 테마를 이용한 상품개발은 민속의 재맥락화를 구성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그런 사례들은 만들어진 전통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릭 홉스봄(Hobsbawm and Ranger 1983: 3-4)등이 주장하는 전통은 실용성을 상실하되 상징적이거나 의례적인 용도만 인위적으로 보존된 사물을 가리키는데 강릉단오제 관련 상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실용성은 단지 전통의 가치 중의 하나이며 기호가치도 전통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는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전통의 성격을 판단할 때 범위와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체에 따른 가치 판단도 다른데 무관심한 시민에게 전통의례 등은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지만 전승 주체나 전통문화의 전승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지식인에게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민속의 상품화도 다양한 주체의 선택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속이 전승되는 맥락과 긴밀히 연관된다.

2) 단오제 관련 공연과 교육

강릉단오제의 전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은 단오제 주최 단체와 지역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화나 공연 개발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맥락이 달라진 만큼 구체적 형식과 내용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

강릉단오제는 한국 최대의 지역축제로 중국에서 전래된 단오 풍속과 강릉이나 영동 지역의 재래종교나 전통의례가 핵심을 구성한 양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택규 1985: 261-264).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런 요소 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주로 단오제위원회가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단오제보존회는 공연팀이 있고 전수교육관에서 공연 장소를 확보하기 쉽게 때문에 사실상 단오 요소의 상품화를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보존회는 위원회보다 공연이나 교육의 분야에서 훨씬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10 여개의 창작공연 작품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다노네 다노세”라는 것이 매년 여덟 회 정도 전수교육관에서 공연하고 있다. 강릉단오제 관련 요소 중에 관노가면극을 재창작한 것이 가장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조해진 2014) 현지조사에서도 “다노네 다노세” 공연 중에서 관노가면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관노가면극이 원래 무대공연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유교제례는 원래 제의성이 강한 반면에 무대화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고 제례부 보존회원 중에서도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단오굿은 전통의례인데도 불구하고 노래와 춤 등 예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창작할 여지가 많다. 실제로 강릉단오굿의 전승자들은 이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의 지정문화재 행사만 해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평소에 그들은 푸너리라는 공연단을 만들어 여러 가지 공연 및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푸너리라는 이름은 원래 단오굿의 시작을 알리는 장단의 이름인데 이것은 무속악 공연단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공연단은 1986 년도에 창단됐고 현재의 단원 9 명은 모두 단오제보존회 무격부의 회원들이고 그 중 30 대 전승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보통 학습무라고 불리는데 세습무나 강신무와 다른 종류의 무당들이다. 그들이 무속악을 시작한 것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2000 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전통 음악과 공연이 유행하자 사물놀이 동아리의 붐이 일어났다. 강릉에 있는 제일고등학교에 2000 년 초부터 사물놀이 특화반이 생겨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현재 강릉단오제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의 젊은 회원 중 그 당시 강릉제일고 사물놀이 특화반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푸너리의 단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단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일년에 국내 공연 80~100 번 정도 하고 해외 공연도 1 번 정도는 한다. 예를 들어 2017 년 3 월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아돈드꽃축제에 참가했고 2018 년 7 월에 라트비아에서 열리는 노래와 춤 축제에 참가했다.

푸너리의 단원들은 동시에 단오제 무격부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보존회원의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를 할 때 그들은 단오제 보존회원이고 기타 공모사업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 그들은 푸너리의 단원들이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그들이 만든 공연을 보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공연명	일시	장소	내용
에시자, 오시자	2017.9.22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축원비나리, 세존, 푸너리, 드렁갱이, 초롱, 삼도무속사물놀이
굿 위드 어스	2017.11.1, 2018.6.14	서울남산국악당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1 신을 부르는 가장 간절한 몸짓: 절 2 신을 맞이하다: 문굿 3 오로지 춤으로 신과 인간이 만나다: 부정굿, 공사짓기, 대내림 4 집을 단단하게, 나라를 탄탄하게: 성주굿 5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속세의 지킴이가 된 신: 세존굿 6 신의 위엄을 보여주다: 군웅장수굿 7 신이 돌아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다: 등노래굿
단오향	2017.12.20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강신, 성황제, 단오장, 오신굿, (조상굿, 세존굿, 군웅장수굿), 관노가면극 마당놀이, 송신
다노네 다노세	2017.11.29 2018. 7.14, 11.24.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제례, 부정굿, 관노가면극, 송신(단오굿), 삼도무속사물놀이
오신(娛神)	2018.11.16	강릉단오제	성주, 세존, 초롱(등노래굿), 新 도드리

		전수교 육관	
당금애기: 가족의 탄생, 신의 탄생	2018.12.22	강릉단 오제 전수교 육관	세존굿 무대화 작품 17 마당

표 22 2017-2018 년도 강릉단오제보존회 공연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향’과 ‘다노네 다노세’는 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의 내용을 무대화한 것이고 나머지는 단오굿의 내용을 활용하여 만든 무대 작품이다. 단오제단에서 하는 단오굿에 비해 무대화된 공연에서는 춤사위가 많고 조명을 더 화려하게 하고 빔프로젝트로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무대공연의 조건을 활용한 것이다. 무대화의 장점은 시청각적 표현력이 전통적인 공연 방식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대 공연과 재래의 무당굿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보다도 연기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에 있다. 단오제단이나 기타 성황당에서 굿을 연행할 때 무당들은 현장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중가요를 부르거나 농담을 한다. 또한 관객들도 무당에게 다가가서 돈을 주거나 말을 걸 수 있다. 그런 상호작용은 단오제 때도 있고 기타 동해안 별신굿 때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에 강릉시 강문마을에서 치르는 풍어제인 “진또배기 성황제”에서는 성황당 자리가 매우 좁아 무당들과 마을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당에 있고 별도의 무대가 없었다. 따라서 마을사람들이 여성황당에 들어가서 소지를 올리고 기원을 하려면 반드시 무당들 사이를 지나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기원하고 나서 보통 무당들에게 돈을 끼워 주었다. 무당들도 그것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계속 굿을 했다. 무대가 아예 없거나 무대와 객석이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 공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 공연에서 그런 상호작용을 보기 어렵다. 우선 관람석과 구분된 무대라는 공간적 배치는 무대 위의 사람과 아래의 사람을 분리해 놓고 그들의 상호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사람이 관람석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공연을 감상하고 박수만 쳐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무당과 지역민의 신분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단오제단에서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종교의례에 참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무당은 연기자가 아니라 그들과 신의 대화를 중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과의 상호작용이 의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에 비해 무대공연을 구경하는 사람은 종교의례를 완성하기 위해 무당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그런 상호작용의 의욕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마을곳의 관람객은 대부분 무당들의 단골 손님이고 단골 관계에 기초한 신분 설정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호작용의 맥락을 결정한다. 진또배기 성황제가 단오제보다 더욱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다. 일단 마을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무당들도 2년마다 그곳에서 풍어제를 하기 때문에 마을사람과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이런 상호작용은 종교의례를 완성하는 측면보다도 곳의 참여자 간에 존재하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에 비해 처음으로 풍어제를 구경하는 연구자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구경만 했다.

무대공연과 곳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다. 우선 관객들끼리 낯선 사람들이고 공연하는 사람과 잘 알아도 낯선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또한 무대화된 단오곳은 문화나 예술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람할 때 사람들은 무대공연을 감상할 때 준수해야 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용은 전통의레이지만 그것을 구경하는 행동은 전통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실제로 연구자가 관찰한 무대공연에서 연기자와 관객이 상호작용을 한 적이 단 한번이었다.

2018년 12월에 단오제보존회의 무격부 전승자들은 세존곳을 무대화한 작품을 연행했다. 세존곳은 원래 집안의 안녕과 후손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레이기 때문에 무대화된 작품에도 그런 장면이 있다. 단오제 때 연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무당이 관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사탕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객석 사이에 내려왔다. 관람객들도 무당이 건네 준 사탕을 받았다. 그 때 연구자의 자리가 복도에서 멀기 때문에 무당이 사탕을 옆의 사람에게 줘서 골고루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런 행위는 당연히 전통의례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고 관객들도 이런 의도를 잘 알아내고 협력해 주었다. 그 외에 다른 공연에서는 관객과 시연자 간의 상호작용은 박수를 보내는 것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대화 작품은 단오곳이나 풍어제와 다른 무속의 현대적 전승방식이다.

쁘딸랑안 부족의 불리안 의례(강윤희 2004)와 비교할 때 강릉단오굿의 이중적 전승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무대화된 전통의례는 강릉의 대외적 정체성을 표시하는 공공적 연행으로서, 민속예술의 형태로 표현되고 무대 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다. 기존의 종교의례는 여전히 마을굿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의례의 내용이나 형식은 마을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무대화의 추세는 본행사 기간의 단오굿에도 나타난다. <사진 19>은 『강릉단오제백서』에 게재된 강릉단오굿의 장면(왼쪽)과 연구자가 촬영한 2018 년 강릉단오제의 굿당(오른쪽)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90 년대까지만 해도 무당들의 굿판은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았다. 요즘 단오제 때 굿당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대 주위에 나무 난간을 설치하여 객석과 구분해 놓는다. 이것은 시설이 좋아진 이유도 있지만 질서정연한 장면을 녹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바꿔 말하자면 단오굿 연행 장면을 촬영하는 사람이 자료에서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굿의 “대동성”이 아니라 깨끗하거나 질서정연한 화면이다. 그것은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현재 한국인의 정의가 단오굿의 연행에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 19 1994 년과 2018 년의 강릉단오굿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는 공연을 강릉단오제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외에 단오제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교육도 새로운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과거의 단오굿 전승은 세습과 강신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느 종류도 학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신무도 다른 무당에게서 내림굿을 받아야 하고 그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굿을 배워야 한다(김태곤 1981:

259-260). 그런 상황은 현재에도 계속되는데 강릉단오굿을 전승하는 사람 중 세습무가 아니더라도 모두 세습무에게 배워야 한다. 또한 무대화된 공연처럼 현대적으로 진행되는 강릉단오제의 전통의례 교육은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승자 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관노가면극과 단오굿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민교육에 나가고 있다. 특히 젊은 이수자들이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성인에게 하는 교육이 많다. 그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는 주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전수교육실과 관노가면극 전수회관이고 다른 하나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무형유산원 등 교육기관에서 하고 세 번째는 강릉문화센터 등 시민 문화회관에서 한다. 그런 교육활동은 물론 강릉시나 강원도, 문화재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은 이런 교육 활동이 젊은 전승자의 생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연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주 적은 편이고 이에 비해 교육은 기간이 길고 개인에게 주는 보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전승자들에게 중요한 수입이다. 그러나 교육을 하기 위해 그들은 이수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 한국에서 교육은 계급상승의 중요한 수단이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고학력이 필요하다. 강릉단오제의 젊은 보존회원들도 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한 사람이 많다.

“○○이는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 추계예술대 예술경영학과 졸업이고요. ○○이는 예종 전문사 졸업이고. 그 다음에는 ○○○ 씨는 박사 수료했어요, 전북대에서? 그 다음에 ○○가 강릉대학교 대학원 수료했고 가도 논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도 중앙대학교, 석사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도 예종인가 중앙대인가 거기 석사 과정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 앞으로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레슨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들 현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거죠.”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연이나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전통의례의 전승자들은 현대사회의 규칙, 즉 다양한 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중에 뚜렷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는 교육과 경영의 제도이다. 푸너리 공연단을 관리하기 위해 현대적 경영이념을 따라야 하고 무격부와 관노가연극부의 성원들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신분(이수자/대학원생)을 취득해야 한다. 이때의 전통문화의 전승자는 전통사회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주체가 아니라 현대적 주체로 생산된다. 과거의 것을 현재의 방식에 따라 전승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의례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통에 부여한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현재의 사물만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색적인 것을 체험하고자 할 때가 있다. 역사소설을 비롯한 문학 장르나 사극이라는 드라마 장르 등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달래는 좋은 도구이다. 또한 음악 장르에서도 국악과 재즈, 락, 힙합, 대중가요 등 현대적인 음악 양식과 결합하여 만든 퓨전국악이라는 것이 정통 국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용자를 가지고 있다(Howard 2011). 그런 현상은 단오 향이나 기타 무대화된 단오제의 전통의례의 사례와 유사하다. 전통의례에 종교적 가치 대신에 예술적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전통의례로서의 성격이 박탈되고 무대 위에서 전시되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과 공연은 대중예술에 비교할 수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행위는 사용가치(use-value)보다도 기호가치(sign-value)에 치중되며 구별짓기의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특정의 문화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표출한다. 강릉단오제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전통문화의 소비를 거부하는 취향을 결정하는 것은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소 외에도 반전통주의라는 사회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강릉단오제의 전통의례로 개작한 무대공연들을 소비하는 것도 그러한 사회관계나 관람객이 소비행위에 부여한 의미에서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공연을 관람하는 동기가 없을 수도 있다. 연구자가 강릉에서 조사하는 동안 전수교육관에서 강릉단오제 관련 공연을 구경했지만 모두 관람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배우나 보존회,

위원회의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와 연줄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강릉단오제 평가 자료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공연인 것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한다.⁶⁹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전통을 활용하여 만든 공연들은 한류 등 대중문화예술처럼 유행하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의 문화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제 III 장에서 언급했듯이 굿위드어스 등 공연은 강릉시나 강원도,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에서 주도한 문화사업에 응모하여 지원금을 받아서 한 것이다. 따라서 내용은 판이해도 그런 민속문화로 만든 공연은 한류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생계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술했듯이 강릉단오제가 전승되는 새로운 맥락을 구성한 중요한 요소 중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있다. 따라서 그런 공연은 설령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연행하는 사람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김태곤 (1981: 40-141)에 따르면 과거 무당들의 생활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굿을 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그래도 세습무의 인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무당이라는 직업이 그들의 생활수준 제고나 사회지위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학습무나 기타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무속이라는 민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욕보다도 국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전통의례의 무대화는 이런 시장의 논리를 이용한 정부의 행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오제의 전통의례들을 민속으로 규정한 주체는 전승자가 아니라 국가 정부이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민속의 보존은 전승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조건이다.

물론 한류콘서트보다 유행하지 못하지만 특정의 소비자가 있고 시장이 있다는 것은 양자의 공통점이다. 연구자가 여러 공연을 관찰한 결과, 많은 관람객이 시연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무대화는 국가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참가인데 그 중에서도 공연 관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진 인맥이나 사회관계가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⁶⁹ 강릉단오제위원회, 2018,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p.88.

3) 무형에서 유형으로

우리가 일상언어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가이딩 패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전통문화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중에 도시경관 조성이나 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간화 전략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기록물로 만드는 것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전통문화의 공간화와 마찬가지로 시각화의 과정을 거쳐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무형문화재 보존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것 중 특징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흔히 전통이나 전통문화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한민족의 문화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에서 현재 행위의 합법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과거의 생활양식에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여 문화재(cultural assets / properties)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의 법률에서 규정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네 갈래가 있는데 모두 특정 분야에서 인정된 “가치”가 있는 것이다.⁷⁰ 그것은 “문화”로 인정된 가치를 과거의 것에 부여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거나 전승하는 행동을 합리화한다고 볼 수 있다.

무형문화재에 부여된 가치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데서 비롯되고 그런 가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것을 전승해 나갈 것을 의무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과거의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거나 전승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유적지나 고대 건물 등의 보존이 쉽지 않은 것처럼 무형문화재의 보존이나 전승도 예산이나 인력 등 많은 것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무형문화재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형체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유산”이라는 막연한 개념이다. 그런 특징으로 인하여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⁷⁰ 『문화재보호법』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비해 변화나 변질의 가능성이 더 높다. 보존회 관계자 이명준은 사람이 그런 특징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무형이라는 게 뭐요? 사람이 모이면 이게 무형이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무야. 사람이 무란 말이야. 사람이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죽으면 없어지는데. 이게 무야. 그래서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 이 건물 하나 짓고 관리 잘하면 천년 만년 가잖아. 사람은 관리하다가 싫으면 나가지, 병들어 죽지. 이게 무형이다.”(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이명준)

이 말은 물론 무형문화재 전승자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당초에 한국 정부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목적을 잘 반영하는 현지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형의 문화재는 사물인데 비해 무형문화재는 사물이나 물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의해 전승되는 예능이나 기능을 가리킨다. 기예는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현대적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재의 개념에서 은근히 그런 변화나 변질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의 소멸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 보호 제도는 어떤 “원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를 암묵적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호 제도를 집행하는 상황은 늘 구체적 맥락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하는 동안에 보존회원의 탈퇴나 불참 등 상황이 종종 있었다. 직장 때문에 행사에 참가할 수 없거나 다른 회원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탈퇴한 것으로 파악되며 극단적 사례로는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보존회 활동을 중단한 경우도 있다.⁷¹ 따라서 단오제보존회의 구성원에게 전통의례 전승은 그들의 생활경험의 일부분이고 전통문화 전승 외의 분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나 이익을 요구하고자 하는 잠재적 심리 요소를 제외하면 보존회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양한 자체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의견 격차로 볼 수 있으나

⁷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논문에 기입하지 않기로 한다.

각자가 제시한 성과물이 가진 “가치”의 차이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한다고 가정할 때 전승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예능의 과정이고 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학술자료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시한 성과물은 지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전승자보다 학자들의 활동이나 연구결과물에 쏟아지는 관심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것은 무형문화재를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 II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들은 공식적 사회통제를 뒷받침하는 문화 권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축제 담론은 축제 관계자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권위적이다. 따라서 축제 주최측은 자문위원회나 학술세미나 등 형식으로 지식인들과 협력해 오고 있다.

물론 지식인이 생산한 권위적 담론은 구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술 논저나 학술 자료 등 구체적 형식으로 전파되고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물이 축제 관계자의 행동을 합법화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간주되고 있다. 축제 담론을 구성하는 각종 학술 연구 결과가 무형문화재를 기록하고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술적 연구결과물뿐만 아니라 강릉단오제를 전승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관련 성과물을 제작하고 전시한다. 각종 홍보책자나 회의결산서가 강릉단오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전시된 사진이나 모형들이 강릉단오제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시작할 때 위원회나 보존회, 강릉문화원 등 기관의 관계자들이 CD 나 결산보도서, 연구총서 등 자료를 제공했는데 전승자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 그런 행동은 기록물이 인간관계를 중개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형체가 없는 무형문화제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면서 공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의 기록화는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로 볼 수 있다.

이 의례를 연행하는 중요한 수단은 시각화이다. 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민속예능을 기록물에 담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각 정보가 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행사 때마다 위원회와 보존회는 여러 업체의 “영상기록요원”을 고용하여 행사 전과정을 촬영한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취재도 있었다. 2017년 5월의 대관령산신제·성황제 때 MBC 방송국의 제작팀도 현장에서 취재·촬영하고 있었다.⁷²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작가나 기자들은 전통의례를 촬영하러 온다. <사진 20>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미리 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연구자 등은 제사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해도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최대의 축제로서 강릉단오제는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특수한 가치가 있는 문화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람이나 기록의 가치가 생긴 것이다.



사진 20 신주군양과 산신제 행사 장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행사는 보통 구경하는 사람보다 촬영하는 사람이 더 많거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에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전수교육관 교육프로그램 결과발표회”가 열렸다. 이 날에 공연은 유학생과 청소년, 대학생, 성인 네 팀에서 준비한 일곱 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삼백 석의 공연장은 이날에 수십 명의 관객만 앉았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가 공연을 보러 온 관객에게 말을 걸어 봤는데 대부분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공연을 보러 왔다고 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에 관객들이 자기의 지인이 공연을 마치고 나면 따라 나갔다. 따라서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 공연장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스무 명도 안 되었다. 빨리 나가는 관객과 공연장을 지키는 공무원이나 공연 전 과정을 촬영하는 L사(가명)의 사람들의 행동이 대조가 되었다. 이날의 공연은 시민들에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전시하고

⁷² 그 당시 촬영한 내용은 2017년 5월 23일 MBC 『전국시대』 참조. 주소: <https://youtu.be/QgnZO9izG88>

기록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2018 년 5 월 말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풍어제가 치러졌는데 연행하는 무당은 단오제보존회 무격부 회원들이었다. 마지막날 아침에 바닷가에서 하는 의례는 구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강문마을은 어촌이고 풍어와 어로의 안전을 빌기 위해 2 년마다 풍어제를 치르는데 최근에 강문마을에서 어부가 줄어들고 마을주민들의 생계방식도 어업에서 토지임대나 건물임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풍어제에 참가하는 마을주민도 많이 줄었다.⁷³ 따라서 31 일에 곳을 구경한 사람은 10 명 정도였다. 그 중 연구자와 현지 대학의 교수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관람객은 모두 촬영하는 사람이었는데 3 명은 핸드폰으로 2 명은 카메라 두 대로 촬영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그 대학 교수와 무언가를 상의하러 온 것이었다. 따라서 곳이 시작됐는데도 의논을 마치고 바로 떠났다. 의례 장소 옆에 바로 강릉에서 유명한 씨마크호텔이 있는데 의례 도중 소리를 듣고 구경하러 온 한국인과 외국인 호텔 투숙객 4 명이 와서 잠깐 보고 갔다. 관광객은 대부분 강릉의 독특한 자연경치를 즐기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곳에 대한 관심이 없다. 풍어제를 촬영하는 사람은 관광객과 달리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전통문화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촬영하는 사람은 곳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 기록물을 “문화” 전시의 도구로 활용할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에게 의례를 연행하는 사람보다 기록물이 더 중요하다.

상술한 상황은 강릉단오제 전승 맥락의 새로운 특징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기록물의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물의 의미는 결코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 연루된 많은 주체들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는 국가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받은 정부는 다른 부서에 보고하거나 지역이나 국가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⁷³ 강릉시 강문마을은 경포해변과 안목해변에서 가까운 강문해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즐겨찾는 강릉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에 현지인이 하는 핫집과 기타 지역 사람들이 하는 카페나 식당이 많다. 강문 어촌계장은 이곳에 노인들만 살고 대부분 토지임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물로 사용한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를 기록한 영상물 등은 그런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전통의례나 축제를 기록하는 것이 기록 대상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 의례를 연행하거나 축제를 만드는 사람보다 더 중요시된다.

물품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역사나 “문화”를 전시하는 가치를 가지듯이 전통의례나 축제 장면을 담은 기록물도 인정받은 사회계층의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감상 행위가 반듯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록물을 살펴보는 것도 감상이나 연구 등 고차원적 행동과 연관된다. 그것은 문화보다 문화전시가 진정한 목적이 되는 도구합리성을 시사하고 있다. 연행되는 의례보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보존에서 나타난 아이러니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행동 패턴의 형성은 두 번째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즉 현재의 사람들이 제도적인 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척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기록물을 만드는 것은 면대면 상호작용이 없어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제도”를 구성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즉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위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제공하는 안전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 주최 단체의 법인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런 현상을 언급했다. 민속의 기록화도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즉 민속은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고대유물처럼 기록을 통해서 보존해야 가치를 가진다는 의식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전승자보다 변하지 않는 과학기술이나 제도에 대한 실뢰감에서 비롯된 관념이다. 또한 기록의 매체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민속과 관객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지만 그런 거리감으로 인하여 민속의 “진정성”이 생긴다. 바꿔 말하자면 기록을 통해 시간이라는 변화 요인을 극복했기 때문에 불변의 전통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승자가 무형문화재에서 가진 핵심적 지위는 기록물에 의해 박탈되고 민속이 기록물이나 전시품으로 박제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것은

형체가 없는(intangible) 문화를 형체가 있는(tangible) 것으로 만드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 형체는 인간의 시각이나 촉각 등 감각으로 느끼고 측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은 시각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 외의 다른 감각은 조역으로 취급되고 마치 판단이나 상상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의 감각과 무관하듯이 오감 외에 인간에게 다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런 사고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것만 느낄 수 있게 만들고 미래의 것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는 관념을 강화한다. 사실상 우리는 미래를 “볼(see)” 수 없지만 “예견할(foresee)”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미래를 예견하는 감각이 없다면 과거의 사물이나 예능을 보존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현재는 수시로 과거가 되고 오로지 미래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만 중요시하는 행위는 점점 인간의 판단이나 상상, 예측을 둔하게 만들고 있다.⁷⁴

그런 변화는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의 결과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전통문화를 기록하는 사람과 민속 기예의 전승자 간의 세력관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원래 주역이 되어야 하던 전승자는 무형문화재 보존의 분야에서 오히려 주변화되고 권위적 담론을 생산하거나 기록물을 만드는 사람이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 예능을 연행하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놓고 긴장관계를 표출하기도 한다.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 황찬희는 전승자와의 협력에서 발생한 불쾌를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단오제 할 때 항상 텐트 치고 하니까 사진이 달라.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작년(2018년)에 농악하고 관노가면극 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⁷⁴ Donna Haraway(1988)는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남성중심의 지식체계에 질의와 비판을 한다. 도나 해러웨이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시력에 특히 의존하기 때문에 합리성에 기반을 둔 근대의 과학적 지식체계도 사실상 다른 감각보다 시각, 특히 백인 남성의 시각에 치중된다. 연구자는 이런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시각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구성된 세계를 해석하는 도구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전지전능의 존재로 신봉되고 있는 현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보편적 신뢰감은 많은 민속이 재맥락화되는 배경이기 때문이다.

단오섬에서 공연을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어. 하늘이 파랗고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런 거지만 저 사람들은 **성의**가 없는 거야. 돈은 이백만 원 줬는데 한 시간 공연을 그렇게 할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단오제 할 때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홍보자료에 쓸) 사진을 싹 바꾸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들 편하게 대충 해 가지고. 지들이 프로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사진 작가 황찬희)

황찬희의 말은 기록자의 입장과 연행자의 입장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갈등을 형성한 더 심층적 원인은 기록자와 기록대상자의 관계를 금전거래에 의지하는 고용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상술한 축제 산업화의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이제 전통 예능을 전승하는 행위를 고용노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성립된 순간부터 고용주의 각종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난다. 상술한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자나 지식인들은 자기의 행위가 전승자의 생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전승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승자들은 이런 관점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단오제 때문에 박사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할 때는 와서 살살 빈다 말이야. 그러다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를 부러먹어요. 오라 가라 하고 말이야. 결례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누가 박산데? **인간문화재가 박사죠.** 그 사람들이 맞다 틀렸다고 할 게 뭐가 있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인간문화재한테 신세를 졌다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학자가 (전승을) 하는 사람을 지켜야지 지가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걸 섭섭하다고 얘기한 거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황찬희와 정희철의 말은 기록자와 전승자 간의 긴장관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정의하는 문화 권력을 생산하는 사람과의 구조적 갈등도 반영하고 있다. 기록물과 축제 담론 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축제가 무엇인지 표현하는

분야에 있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전승자가 아니라 문화 권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식인이나 사진작가, 정치인들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성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런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전승자는 자신들의 전승 행위가 소외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정희철 등 관계자에게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시각화에만 치중하는 민속 보존은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형체이기 때문에 예능을 전시하고 나서 시각 이미지를 보존하지 않는 한 형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의 진정한 가치는 “형체”에 있으며 그 형체는 전승자나 전통의례 연행 자체가 아니라 기록물이다. 무형문화재로서의 강릉단오제 전통의례는 원래 종교적 기능을 위주로 연행되는 의례이지만 그런 의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특히 시각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는 부정된다. 대신 과거에 대한 현대사회의 절대적 지배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여기까지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변용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내용인 강릉단오제는 도시축제와 전통의례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전승 양상이 조금 다르다. 도시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는 많은 강릉시민과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단오제의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축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릉단오제위원회는 행사 내용을 부단히 바꿔 왔는데 그 중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은 현대인이 선호하는 문화예술공연이 많아진 것이고 축제장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도 평등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단오장도 관리의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질서가 정연한 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강릉에서 관찰한 기타 도시축제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런 축제의 모습은 한국의 모든 지역축제로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인이 추구하는 지역축제의 이상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V 지역민의 축제 참여와 민속의 실천 양상

2018 강릉단오제의 슬로건은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인데, 이 말에서 강조되는 단오제의 지속성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주체 단체의 노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관람하는 다양한 지역민의 행위도 단오제라는 민속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에드워드 쉴즈(Shils 1981: 21)가 말하는 실질적 전통성(substantive traditional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의 참여는 단오제 지속의 관건이다. 그들의 참여는 모두 자발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제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단오제에 가게 된다. 물론 주체 단체도 무관심한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행정력이나 사적 관계를 포함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종교 문제 때문에 단오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입장이 서로 다른 제보자들은 대부분 단오제에 대한 반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시민이 단합하는 모습을 통해 강릉사람들이 가진 자부심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들은 지역문화를 만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종교 자유를 언급하면서 단오제를 반대하는 종교 단체를 비판한다. 그러나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타협하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 분쟁이 심층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제보자들의 단오제 참여 양상을 살펴보면서 축제 참여의 기제를 논의해 보겠다.

1 축제 참여와 배제의 기제

비록 강릉단오제는 성공한 도시 이벤트의 사례로 인정되고 있지만 모든 강릉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담론은 현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도시 인구는 문화소비의 경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민속축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축제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문 단체나 행정 조직이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축제 참여의 정도는 개인의 문화소비 경향과 연관되지만 그 중에서도 연령과 종교, 직업 등 요소가 참여

양상에 영향을 끼친다. 본절에서는 이상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제보자들의 단오제 참여를 살펴보고 축제 배제와 참여의 기제를 논의해 보겠다.

1) 관심 정도의 차이와 노인, 청소년의 참여

강릉시가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강릉시에서 개최된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7 년도 77.7%, 2018 년도 83.4%로 나타나지만 참여의 방식 중에서 “관람”이라고 답한 사람은 2017 년에 94.1%, 2018 년에 95.2%로 가장 많았다.⁷⁵ 이 결과는 주최와 분리되는 강릉 시민의 축제 참여 실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축제의 성격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앞서 논했듯이 축제 산업화를 수반한 현상은 축제 주최에서 지역주민이 분리된 것이다. 비록 축제 주재집단은 민간주도의 성격을 강조하지만 여러 현지인은 축제를 주도하는 주체를 강릉시라고 표현한다.

연구자: 그러면 이 축제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선거 후보자: (강릉)시에서 합니다.

연구자: 그러면 개개인의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선거 후보자: 개인 집에서는 안 하죠.

연구자: 저 앞에 뭐 단오문화관이 있다면서요?

선거 후보자: 네, 맞습니다.

연구자: 그럼 이 문화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선거 후보자: 이것도 (강릉)시에서 관리를 하죠.

위의 대화는 2018 년 3 월 말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 강릉시에서도 지방선거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40 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시의원 선거를 위해 단오장 동쪽에 있는 잠수교 입구에서 명담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는 강릉단오제의 주최와 단오문화관의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연구자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첫째, 강릉단오제가 현지에서 유명한

⁷⁵ 강릉시, 『강릉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p.35; 2018, p.72.

축제로서 일반 시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현지의 상황, 특히 강릉단오제 같은 도시축제의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연구자가 물어본 기타 시민과 마찬가지로 강릉단오제의 주최를 시에서 한다고 말했다.

우선 대화가 발생한 맥락을 분석하자면 이 남자와 연구자 간의 대화는 외부인이나 낯선 자에게 의례적으로 답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평소에 강릉단오제의 주최에 관심이 없는데다가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의례적으로 “강릉시”에서 한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시에서 한다”는 표현은 단오제 주최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에게 강릉단오제는 구경거리에 불과하고 축제 개최에 관심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무관심한 시민에게 강릉단오제는 스스로 개최되는 행사이고 주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행사장에 가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릉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이슬기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축제 주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오제도 주최가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단오제를 왜 하는지도 몰라요.”(미술학원 원장 이슬기)

이슬기는 연구자가 강릉시에서 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최한별이 소개한 제보자이다. 두 사람은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최한별은 강릉사람이지만 전통문화에 관심이 없어서 강릉단오제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이슬기에게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들은 답이다. 이 말에서 최한별과 같은 정도의 무관심이 반영된다.

또한 “시에서 한다”는 담론은 일반인의 축제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의 신통대길 길놀이는 각 읍면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전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강릉 시내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강릉시 용지경로당의 노인회장(남성, 70 대)은 길놀이 행사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다”고 답했다.

연구자: (길놀이 행사에) 포남동도 나가는 팀이 있어요?

용지 노인회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지.

노인이 길놀이 행사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회장이 자세한 상황을 모를 수도 있다. 또한 상술한 맥락에서 외부인에게 의례적으로 답할 때 막연히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경향성도 중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 노인의 대답은 위에서 인용한 선거 후보자의 대답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단오제의 주최에 관심이 없는 시민이 외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의 답이다. 그런 사람에게 외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단오제 이야기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자면 단오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의 축제 참여 형식의 변화와도 연관된다. 즉 길놀이나 기타 단오제의 행사는 이제 전체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 단체나 조직들이 주관하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나 관변단체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강릉시에서 한다는 담론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

2018년 3월에 연구자는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모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인터뷰했다. 그때 강릉단오제에 중요한 구성 요소인 “신주미 봉정”이 시작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그 행사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자 한 노인(여성, 70 대)가 이렇게 대답했다.

“시에서 나와 가지고 동사무실을 거쳐 가지고 통장님이 갖다 줘요. 그러면 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인제, 불교, 불교 믿는 사람들. 어차피 시주를 하니까 그걸 하나씩 주면 쌀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그러 가지고는 통장이 모았다가 동사무실로 가져 가면 동사무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모른다”고 답한 기타 노인과 달리 이 할머니는 정확한 답변을 주었다. 신주미 봉정은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서 강릉단오제의 제사에 사용되는 신주와 떡을 빚는 데 필요한 쌀을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직원이 다섯 명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단오제위원회는 매년 필요한 행정 지원을 요청한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시에서 신주미 봉정을 한다고 답한 것이다.

신주미 봉정의 사례는 단지 강릉시 역할의 일부분이며 그 외에도 남대천 행사장을 확보하는 것과 읍면동 주민대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단오제위원회가 강릉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강릉시민들은 더 이상 직접 단오제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정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관변단체를 통해 단오제에 참가하기 때문에 단오제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개최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대부분 제보자들은 축제의 주최에서 소외되는 것을 개의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오늘날의 강릉단오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참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술한 제보자 이슬기는 비록 단오제에 관심이 없다고 표현했지만 매년 아이를 구경시키러 단오장에 간다고 말했다. 강릉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진우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매년 단오제에 간다.

“너무 어릴 때 데리고 가면 걱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알고 나서부터는 좋아하더라구요. 폭죽놀이 이런 거 좋아하고.” (미술학원 원장 이슬기)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고. 작년은 안고 갔어요, 어려서. 올해는 유모차를 가지고 가고.” (식당 주인 정진우)

상술한 제보자는 모두 30 대의 젊은 사람이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구경시키는 것은 그들의 축제 참여에 중요한 이유이다. 제 IV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들은 예전에 강릉단오제의 관람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은 200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달라졌고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8 년 강릉단오제에는 “청소년 단오축제”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사가 있고 체험존 행사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연구자가 2017 과 2018 년 단오제에서 보았던 청소년은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 그들의 동반자는 대부분 친구나 가족, 선생님이고 강릉 외에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단오제에 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 IV 장에서 “단오제 역사문화탐방” 행사에 일부 중학생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 참여한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강릉단오제 본행사에도 학교 답사나 견습 등 명목으로 교사를 따라온 학생들이 있다. 연구자는 2017 년 단오제를 구경할 때 견학하러 온 학생과 대화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단오제가 남녀노소가 즐기는 축제”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같이 단오장을 구경하는 남학생 세 명에게 영어로 물어보았다.

연구자: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고등학생 1: Yes.

연구자: Good.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Are you middle school students, or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 1: High school students.

연구자: Which high school? Gangneung High School?

고등학생: No. We are from Donghae.

연구자: Don't you have class today? It's Monday. You are supposed to have class.

고등학생 1: Our teacher took us here. We canceled all classes today.

연구자: How many of you came here?

고등학생: We are one class. 36 people.

연구자: How do you think about this festival? Is it unique, interesting, or boring?

고등학생: Boring.

연구자: Why?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school?

고등학생: We often go to game rooms.

연구자: Do you mean you go to play computer games?

고등학생 1 : That's right.

연구자는 낯선 젊은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 일부러 영어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해소하고 대화의 맥락을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학생들이 제공한 정보는 연구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들의 진실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외국인에게 한국이나 자기 고장의 문화를 소개할 때 자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학생들의 말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이는 청소년들의 단오제 참여 동기나 자발성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매년 강릉단오제를 찾는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오제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다. 위의 대화에서 남학생들은 동해시에서 선생님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비자발적 축제 참여에 해당한다. 이는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청소년의 문화소비 경향과 연관된다.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들은 전부터 청소년의 낮은 참여도를 파악했다. 2007년에 강원도민일보사는 강릉시에 있는 고등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단오제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 고교생들에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축제 담론에서 강조되는 전통의례가 아니라 체험행사(45.3%)와 난장(26.5%)이다. 관노가면극과 굿이 인상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8.4%와 1.9%밖에 안 되었다. 이와 관련된 질문, “굿과 제례, 관노가면극과 같은 연희를 본 소감”에 대해 “관심없다(25.1%)”거나 “어렵고 재미없다(18.8%)”고 대답한 고교생은 43.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흥미롭다”고 답한 사람은 36.4%를 차지했고 “재미있다”고 답한 고교생은 불과 19.0%이다.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가치와 재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치있으면서 재미있다”고 답한 사람은 40.5%이고 “가치 있지만 재미없다(47.0%)”고 답한

사람에 비해 적었다.⁷⁶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의 문화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파악한 단오제위원회는 젊은 사람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제 IV 장에서 살펴본 게임과 가족 뮤지컬의 개발, 그리고 역사문화탐방을 제도 교육과 결합시킨 것은 모두 단오제 주최 단체들이 청소년의 참여도를 높이는 수단이다.

주최 단체의 이러한 노력은 강릉시나 기타 단체의 협력을 받고 있다. 2016 년부터 정식으로 개설된 청소년 단오축제 (Dano Youth Festival)는 현재 강원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강릉분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센터는 천주교춘천교구 유지재단이 설립한 기구이지만 강릉분소의 사무실은 강릉시의 산하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단오축제를 준비하는 일부 경비도 수련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단오축제는 사실상 2004 년의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서 진행된 청소년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체험, 공연, 청소년 모니터링 등 행사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강릉분소는 강릉시에 있는 여러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동아리를 통해 매년 참여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분소 관계자는 이 방법을 통해 모집한 학생 중에 절반 정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라고 말해 주었다. 따라서 제도 교육과의 결합은 청소년들의 단오제 행사 참여를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의 단오제 소비자를 양성하는 노력과 대조가 되는 것은 축제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이 배제되는 경향이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 특히 60 대 이상의 노인들이 과거의 축제 경험에 의거해서 현재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단오제에 가는데 덜해요. 예전에 서커스 두 세 군데가 왔는데 동물도 있고. 지금은 한 군데가 오기는 오는데 별로 못 하더라고.” (강릉시 택시 기사 이준희, 남성, 60 대)

⁷⁶ 강릉단오제위원회, 2008, 『수릿날, 강릉』 제 3 호, pp.46-47.

“변화가 뭐, 저기… 점점 먹을거리라든가, 뭐 굿거리라든가, 구경거리라든가 별로던데. 점점 못하는데 옛날보다.” (강릉시 삼우골든아파트 경로당에서, 여성, 70 대)

물론 단오제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한데 위의 노인과 상반된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10 여 년 전에 호주로 이민간 강릉사람 김복희(여성, 68 세)는 단오제에 변화가 없어서 가기 싫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에 비해 노인들은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데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노인들이 점점 노쇠하여 단오제에 못 가게 되는 것은 사실 더 큰 문제이다. 연구자가 남대천 행사장 근처에 있는 포남동, 옥천동, 입암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많은 노인들이 다리가 아파서 몇 년 전부터 단오제에 안 갔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년층의 축제 경험은 젊었을 때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년층이 사회에서 퇴출하는 전반적 추세와 맞물려 있다. 이런 변화는 단오제의 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단오굿은 노인 여성들이 주된 관람객이기 때문에 노쇠나 사망으로 인한 관람객의 감소는 사실상 단오제의 전통적 요소를 위협하고 있다.

단오제 주최 단체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과거 단오장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되면서 법률 제도도 과거의 야바위나 약장수 등을 용인할 수 없게 되고 물방개나 기타 야바위 게임을 하는 시설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어릴 때 추억이 무조건 재미있는 거야. 70 이 된 사람도 아무리 지금 재미있는 거 있어도 자기 어렸을 때 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없어. 처음이잖아. 자기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본 게 처음이잖아. ...(중략)... 지금도 물방개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물방개 하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물방개가 와도 사람들이 안 해. 옛날에 저걸 했었지. 추억으로 남았지. 지금 저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수없이 많잖아. 그걸 진정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지. 근데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어릴 때 추억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런 걸 구하기도 어렵지.”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 주최 단체는 경영의 입장에서 축제의 주요 소비자를 선택하여 기획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소비자 중에 노인의 비중은 점점 감소되고 있다. 단오제 주최 단체만 아니라 강릉시도 이런 상황에 착안하여 축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려 한다.

“기준에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세대교체가 된 상황이에요. 기타 지원해 주는 문화단체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청년 위주로 많이 생각하기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하죠. 단오제도 나이 드신 분들이 뒤로 빠지고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무원 최재민)

최재민의 말은 강릉시를 포함한 축제 주재집단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는 단오제가 도심 속으로 나가야 하고 서커스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말에서 노인들의 집합기억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포함된다.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주재집단이 자연히 노인보다 청소년의 취향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노인들의 소외감도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다.

강릉단오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최 단체들은 축제의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이나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단오제를 “지역 사람들이 노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홍보에 있어서 젊은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 2018 년 말에 강릉단오제의 주요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젊은 세대를 주 타겟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9 년의 단오제 홍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현지의 예술가와 협력하여 “비보잉하는

시시딱딱이”를 온라인 홍보대사로 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⁷⁷ 시시딱딱이는 원래 관노가면극의 등장인물인데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인물이어서 <사진 21>과 같이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었다. 단오제위원회는 이러한 “젊어지고 변화하는” 단오제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사진 21 2019 년 강릉단오제 온라인 홍보대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원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그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생업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강릉시 등 기관 단체의 협력과 지지를 받고 있다. 강릉시를 상징하는 문화로서, 강릉단오제의 저변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만들기의 전략에 의해 기존에 출입 금지되었던 청소년은 중요한 대상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2) 상인의 의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 중에도 단오제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다. 강릉단오제는 전체 시민의 단합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의례의 내용에도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관노가면극에 양반과 하층민의 화합이 반영되고, 유교제례나 단오굿에도 지역민들의 안녕과 생업번영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최철 1971: 252-258). 또한 제 II 장에서

⁷⁷ 『뉴스 1』 2019 년 4 월 3 일, 기사 제목: 올해 강릉단오제 온라인홍보대사, 비보잉하는 시시딱딱이 임명. 주소: <http://news1.kr/articles/?3588191> . 그 외에 강릉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를 소재로 제작된 동영상도 여러 편 있다.

살펴보았듯이 지역민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강릉에 있는 기관 단체, 상공인 조직의 관계자들이 현관을 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반드시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 II 장에서 인용된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현관을 하는 것은 반드시 중앙시장과 단오제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축제의 주최 권한을 장악하면서 기존에 강릉현지 상인들이 단오제에서 가졌던 수익 구조를 파괴했다고 보아야 한다. 제 IV 장에서 인용된 최재민과 이세훈의 인터뷰는 당시 강릉의 상인들이 외지 상인에게 상가를 전매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강릉단오제의 난장 상가분양은 사실상 타지역의 상인에게 강릉의 시장을 열어준다. 이익 분쟁의 관점에서 볼 때 강릉 현지 상인과 난장 상인은 단오제 기간에 수익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강릉시의 상인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우선 위치에 따른 격차가 있다. 단오장 주변에 있는 중앙·성남시장이나 내곡동 식당의 상인들은 단오제 기간에 몰려오는 관람객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일부 관람객들은 축제장만 구경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음식물을 사 먹기도 한다.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기도 하고. 먹을 거리가 사실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가게들마다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 항상 (감자)전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나와서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미술학원 강사 이단비)

“시내는 장사가 안 되지만 여기는 바로 앞이 단오장 아닙니까? 가까워서 많이 옵니다. 단오장에 먹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 식사하는 종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많이 와요. 그쪽에 워낙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 평소보다 특별히 타격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강릉시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관람객들이 축제 음식이 비싸고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오장 주변 중앙·성남 시장 등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단비가 언급한 감자전은 강릉단오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 중 하나이다. 2018 년에 중앙시장 식당의 가격으로는 만 원에 세 장인데 같은 해 단오제에서 만 원에 두 장이었다. 비싼 가격 때문에 단오장에서 조금 소비하고 나와서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위의 변영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회의 관계자는 변영희 관계자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단오제 할 때 지방 사람들이 와서 단오제만 보지. 여기는 단오제보다 전통시장은 주변에 있는 홈플러스스 이런 대형 마트 때문에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영향은 좀 있지만 크게 없습니다.” (강릉시 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 남성, 60 대)

강릉시 중앙·성남시장은 식당 외에도 청과물, 채소, 수산물,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경영하는 가게들이 많다. 다양한 상인들은 많은 상인 조직을 만들었는데 중앙시장 변영희와 상인회는 단지 그 중의 두 군데이다. 상인회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중앙시장 일층이 1980 년대에 지어졌을 때 지분을 가진 상인들이 만든 조직이 변영희이고 나중에 이층과 지하 수산시장이 생기고 임대 상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조직이 상인회이다. 따라서 변영희와 상인회는 같은 건물에 있지만 서로 이익분쟁이 있는 상인조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즘 계속 재래시장의 불경기가 지속되지만 상대적으로 일층의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이층의 가게는 문을 닫은 데도 많다. 따라서 변영희보다 상인회의 상인들이 느낀 불경기는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상인회 관계자는 단오제보다 대형 쇼핑몰의 도전이 더 큰 위협이라고 서술했다.

중앙시장의 두 관계자는 단오제를 소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상인들이 자기의 수익 상황을 남에게 신중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단오제 본행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성남시장은 계속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8,9 일 간의 고객 감소는 그들에게 특별히 타격을 줄 일이 아닐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강릉단오제를 지역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연관된다. 이런 맥락에서 상인들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강릉시 택시 기사 김준호 (남성, 50 대)가 제시한 의견도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김준호: 그럼요. 그런데 시내 장사는 안 되지. 거기 먹거리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전부 먹거리가 있고 술집도 다 있으니까 시내 장사는 죽는 거지 뭐.

연구자: 아, 그래요? 시내 상인들이 불만이 있겠네요.

김준호: 그렇죠. 불만이 많죠. 근데 그게 일년에 한 번인데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그게 몇 백년을 내려온 행사인데.

(강릉시 포남동에서)

강릉시 택시협회의 회장도 매년 단오제 전통의례에서 현관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택시 기사가 사실상 단오제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이다. 따라서 위의 인터뷰 내용은 단오제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단오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현재 강릉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개 소극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시민 외에 단오제 주최 단체의 관계자도 “단오제 기간에 시내 장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단오제에 대한 시민의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2018 년 강릉단오제 기간에 연구자가 거주하던 포남동 일대의 동네 식당들이 며칠 간 휴무했다. 포남동은 단오장과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오장을 구경하는 사람이 다시 포남동으로 와서 소비하는 확률은 낮다. 기타 동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강릉시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현지인 정진우는 단오제 기간에 자기의 식당에 고객이 감소된다고 말했으며, 옆의 식당은 아예 단오제 첫날에 휴무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단오장을 구경하러 간다고 말했다. 정진우의 식당은 아파트와 상가가 많은 교동 택지에 있는데 단오장에서 약 4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다. 일부 시민들은 단오장을 구경하고 나서 단오장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교동 택지나

포남동에 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교동 등 지역의 상인, 특히 식당 상인들은 단오장 주변 지역의 상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불만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중요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고, 사실. 손해 보더라도 계속 해야 하고. 시내 말고 그 외의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오제 축소를 원해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단오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기간 좀 줄이고,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강릉시 교동 식당 주인 정진우)

상술한 정진우의 말은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업종이지만 중앙·성남시장의 식당은 단오제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기타 동네의 식당은 일정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오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래도 단오제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빌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시의 상인들은 모두 단오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단오제를 반대하는 행위는 점점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손해를 입은 상인들도 자기의 진실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정진우가 말한 것처럼 강릉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단오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즉 그들은 단오제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택시 기사들은 단오제 때문에 고객이 많아질 수 있고, 정진우의 식당은 짧은 기간에 손해를 입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러한 큰 손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단오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정진우가 손해를 감수하고 단오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는 지역감정과 연관된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하나면은, 시장 밖에서 다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거기서 다 장사되는 게, 외지 사람들이 다 장사꾼 () 아니냐?’ 단오장 안에 보면 외지에서 장사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고. 한 그룹은 마을에서나, 강릉시 번영회나, 강릉시 관련된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릉시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거는 돈을 가지고 단체에 관련된 일이나 봉사활동에다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 벌어서 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강릉사람들은 이런 데 팔아주지 말고 요런 데 가서 먹고 사고 팔아줘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더라고.” (강릉시 교동 식당 주인 정진우)

제 IV 장에서 논의했듯이 단오제의 난장은 상가분영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로 구성되는데 그 외에도 협력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부스가 있다. 정진우는 지역출신에 따라 그러한 상인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강릉사람이 가진 지역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시는 춘천이나 원주보다 더 강한 지역감정이 있다(이태원 2013).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지의 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은 강릉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일부 시민에게 작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지역감정은 모든 시민의 단오제 참여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3) 종교갈등과 해결책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지의 상인은 지역문화를 만든다는 이유로 강릉단오제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단오제로 인하여 손해를 많이 입는 상인은 극소수이다. 그들보다 단오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종교 집단이다.

강릉단오제는 문자 그대로 단옷날에 지내는 제사나 제의이며 종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축제이다. 단오는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것인데 한반도에 전래된 후 한국 고유의 수릿날 풍속과 결합하여 단오제나 단오굿이라는 단오 풍속이 형성되었다(김택규 1985: 261-262; 임동권 1985: 255). 중국의 단오 개념과 달리 한국에서 단

오는 명절이나 제사, 굿, 축제 등 다양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단오제를 제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역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오제의 제사와 집안에서의 제사가 같은 것이 아니며 특히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다르다. 가정 제사는 각자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조상숭배의 의미가 강하다. 단오제의 제사는 강릉의 수호신인 대관령산신과 국사성황신, 국사여성황신을 기리는 종교의례이고 조상숭배보다는 지역의 수호신이나 성인(saint)을 기리는 의례에 해당하는데 한국어로는 모두 제사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김홍술(2011)은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제사를 가정 제사(domestic rituals)와 다른 종류의 사회적 제사(social rituals)로 분류한다. 즉 가정 제사는 조상신에게, 사회적 제사는 공동체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의례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농촌의 세시풍속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단오 제사를 안 지내고 있다.⁷⁸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전통의례는 여전히 지역의 수호신에게 지내는 의례로 남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단오굿을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

할머니 21: 단오제? 우리는 단오제 뭐, 참가하는 거 없어요.

연구자: 그래요? 예전에 가셨어요?

할머니 21: **점보는 사람들**은 단오제가 있지, 여기서는 없어요.

(강릉시 성덕동 입암주공 1 차아파트 경로당에서)

연구자는 도시축제로서의 강릉단오제를 물어보았지만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굿”으로 생각하고 대답했다.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참여에 대한 오해인데 연구자가 말한 “단오제 참여”는 구경이나 관람을 포함한 개념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축제 참여가 행사를 맡거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론 단오제의 정의에 관한 관점 차이다. 연구자가 말한 강릉단오제는 도시축제인데 반해 할머니가 말한 “점보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강릉단오제는 지정문화재 행사, 특히 무당 굿을 말한 것이다. 그들에게 단오제의 다양한 성격 중에

⁷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강정원(2009) 참조.

서 무속과 관련된 성격이 가장 뚜렷하고 이 축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릉단오제의 담론이 형성된 역사와 연관되고 무속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현실과도 연관된다.

강릉단오제라는 축제 이름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근우 (2010)에 따르면 일본인 학자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처음으로 江陵端午祭라는 한자어를 사용했고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정한 사람은 임동권 교수이다. 임동권 교수는 단오제를 단오굿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무속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기피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1966년에 그가 강릉단오제를 지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들은 처음에 “또 무당이냐”고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임동권 2002: 129).

1960년대 문화재지정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의 무속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은산별신제와 강릉단오제 두 군데밖에 없었다. 또한 그 당시에 강릉에서 단오굿을 제대로 하는 무당을 섭외하기도 어려웠다(윤동환 2014; 정은주 1993: 32). 현재 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라 단오굿의 합법성과 인지도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직업으로서의 무속은 여전히 전승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대인이 무속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게 이제, 전통예술로서 대우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는데요. 일반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구경은 하지만 일단은, ‘무녀나 무당 할래?’ 그러면 다 싫다고 그렇죠. ...(중략)... 왜냐하면 제 세대만 하더라도 무당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 뭐 배우고 뭐 하고 뭐 하고. 좀 예를 들어 강신무 해 가지고 (신기가) 들렸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휴! (이상하다)” 이러니까요. 아직까지.”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장병훈의 말은 무당에 대한 편견과 무속 전승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단오제와 무속의 관계로 인하여 일부 지역민들은 여전히 단오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종교적 이데올로기 간의 분쟁은 한국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남

아있다. 특히 한국에서 외래의 기독교와 재래의 무속 간의 갈등은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도 했다.⁷⁹ 연구자는 2018년 강릉단오제 현장에서 기독교 단체의 항의를 목격한 적은 없고 단오제 보존회원에게서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안에 몇 번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례를 지내는 사람이 제례를 지낼 때 와 가지고. 조전제가 끝나면 제가 현관들의 옷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한 12시 정도. 그러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전제 지낼 때까지는 별 없다가 굿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끼 같은 걸 입고 와서 무슨 무슨 교회 적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지옥’ 이런 걸 써서 와 가지고. 많을 때는 한 열 명씩 단오문화관에서 굿당 쪽으로 오는 길에서 하는데.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관객들하고 싸워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터치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그걸 하면 행사가 멈춘다 말이에요. 그러면 관객들이 못 하게 하죠. 당신의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가 격해지면. 근데 관객들이 사실 우리처럼 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성향이 있죠. 우리나라의 산신이나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때문에 그분들하고 다툼 적이 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

박병호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기독교 신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사실상 단오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오제를 종교로 보지 않고 지역의 문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단체의 항의는 단오제 관계자를 겨냥하

⁷⁹ 강릉단오제와 강릉시의 기독교 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보도가 매우 많으며 아래의 신문기사가 일부분이다.

1995년 8월 25일 『강원도민일보』: “단오제 제례행사 관련 기독교단체 성명”

2004년 6월 25일 『국민일보』: “무속잔치 된 강릉 단오제... 무당굿·산신제에 기독교연합회市에 강력 항의”

2005년 6월 17일 『국민일보』: “강릉 목회자 ‘미신타파’ 금식투쟁”

또한 김남일(2005: 183-184)도 강릉단오제 기간에 기독교 단체의 공개 항의를 목격했다고 한다.

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단체의 항의는 상술한 지역문화 만들기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당한 것으로 취급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기독교 단체의 항의에 관한 보도가 사라진 것은 2005년 이후의 일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중요한 계기로 추측될 수 있다. 여러 제보자들은 이제 단오제가 단순히 축제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말했다. 강릉시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분쟁은 더 이상 단오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은 축제의 종교적 정체성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기호로 여겨진다. 이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아니라 시민들도 널리 수용하는 담론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 신앙을 가진 시민이 화합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 개념의 강화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갈등의 새로운 형태로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와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 중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권과 협력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윤용복 2015). 특히 한국에서 거의 주류를 이룬 종교로 개신교는 기타 종교와의 사이가 결코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는 타 종교나 종교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극단적이거나 도발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2019년 5월의 대관령국사성황제에서 초헌관을 맡아야 했던 강릉시장이 나타나지 않고 부시장이 대신했다. 그 당시 보존회 관계자 장병훈과 해설사 김상훈은 시장이 미국으로 출장갔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단오제가 끝난 후, 강릉시장이 기독교인 신분으로 인하여 성황제에 불참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원로"들이 당선 후 처음 치르는 성황제에 불참한 것을 예민하게 생각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강릉시장은 종교적인 문제로 성황제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 수행이 원인이라고 변명하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신교 신자인 강릉시장은 교회에서 열

런 기도회에 참석해 단오제 행사 참여에 대해 교인들의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⁸⁰

이 사건에 대해 천주교인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릉시 A 성당에 다니는 한 현지인 남성 (60 대)은 강릉시장이 개신교 신자라서 단오제에서 절도 안 했다고 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성 교인(60 대)과 개신교도들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여성: 단오? 그거는 미신이. 아, 맞아. **개신교에서는 그래.** 그건 미신이 아니죠. 미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남성: 그게 신을 모셔서 그래.

여성: 그거는 에이구. 맞아.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목사 딸이 있었어요. 애네 학교에서 성황신 산신 모시러 갈 때 따라갔는데 그 집 엄마는 안 보내더라고. 그거 미신이라고.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다 이러는 거라고. 그거는 미신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 집에서는 안 보내더라고. **개신교에서는 그래.**

남성: ○○○ (시장)이 절도 안 하는 거 봐.

여성: ○○○ 이 절도 안 해요?

남성: 그럼. 초헌관이잖아. 저기.

그러나 연구자는 2019 년 강릉단오제 동영상에서 강릉시장이 단오제 조전제에 참석하고 절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⁸¹ 따라서 위의 천주교 신자의 말은 과장된 말이며 개신교 신자를 공격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종교단체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천주교와 불교 단체는 30 여년 전부터 강릉단오제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불교단체 식당은 강릉시 B 사찰의 신도회가 매년 준비하며, 천주교 단체의 식당은 강릉시에

⁸⁰ 『뉴시스』 2019 년 6 월 12 일 보도, 기사 제목: 강릉단오제 ‘종교 문제 비화’ 오점...김한근 시장 논란 제공

주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09_0000675417&cID=10899&pID=10800

⁸¹ 2019 년 6 월 7 일 강릉단오제 동영상, 강릉단오제위원회 제공.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rDDgr63wp4&t=6683s>

있는 성당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한다. 상대적으로 불교도들의 참여도가 높다. 강릉시에 있는 사찰의 관계자들이 단오제의 홍보 부스나 난장 부스를 임대하여 선교활동을 한다. 그 외에 여러 노인들은 불교도들이 단오제 시민참여 행사에 많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연구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길놀이 나가시는 분 좀 아세요?

용지노인회장: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고정적으로 **불교신자들이** 많이 나가잖아.

(강릉시 용지경로당에서)

연구자: 요즘 그 신통대길 길놀이도 하잖아요.

할머니 20: 그런 데는 난 안 구경했어요. 더워. 그리고 그건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지.

(강릉시 노암동에서)

이에 비해 개신교 단체들은 단오제에 대해 비협력적이다. 과거에 단오제에 와서 향의한 적도 있고 오늘날도 단오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2005 년 이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강릉단오제에 대한 인식이 종교에서 문화로 바뀐 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하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신교에 대한 기타 종교의 반대와 극단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일반 시민의 반감이 대두된 것은 심층적인 원인이다.

“근데 굿 하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교회 단체들이 와 가지고 테모하고 이래요. 그거는 지들 할 일이 아니고 이게 문화유산인데. 세계에서 심사 거쳐 문화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지랄해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행사할 때 가서 하지 말라고 난리치면 지들도 안 좋잖아요. 종교라는 거 자체는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지. 근데 굿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절축)도 아니잖아요. (적축) 아니고. 절에서도 뭐라 해서는 안 되고.” (택시 기사 김준호)

“뭘 반대해? 그건 민속인데. 그게 교회고 불교고 가톨릭이고 상관없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보자 김복희)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행사여서. 지금은 의례적인 일이 됐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느끼는 거 같아요.” (미술학원 원장 이슬기)

택시 기사 김준호는 불교도이기 때문에 종교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불교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김복희와 이슬기는 종교 신앙이 없으며 강릉단오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개신교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개신교 단체의 선교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편이고 강릉에서도 그런 선교 활동은 기타 종교와 적지 않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무속신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강릉단오제는 늦어도 1990년대부터 개신교 단체의 반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기타 시민의 반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강릉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하여 개신교의 극단적 선교 활동에 대한 불만은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강릉단오제를 반대하는 개신교의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 행사라고 표현하면서 개신교의 항의를 반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의 도발에 대해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다.

“선종 불교도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 무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 그래서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무속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되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 가톨릭 안 그렇습니까? ...(중략)... 제정일치 사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마녀 사냥을 한 거야. 마녀 사냥..... 마녀가 우리 말로는 무당이라. 마녀 사냥을 해 가지고 죽여 버렸어.”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이제는 단오 가다보면 마이크 한 사람이 들고 ‘불신지옥’ 하면서 떠들고 뺑기는 게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 미친놈이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이제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믿든 간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남이란 게 자기 자식도 포함하는 거죠. 다른 생명한테 피해만 안 주면 무속이고 유교이고 상관없어요.”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장병훈)

이동준과 장병훈은 모두 종교 신앙이 없다. 또한 단오제 관계자이기 때문에 상술한 내용은 자기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동준은 과거에 기독교가 행했던 나쁜 일을 언급하면서 무속의 정당성을 변명하고자 한다. 장병훈은 상술한 박병호처럼 강릉단오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강조하면서 개신교 단체의 도발을 비판한다.

물론 개신교도들도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단오제에 대해 도발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제보자 중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단오제에 참가하기도 한다. 개신교 신자인 강릉시장이 단오제에서 절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 신앙과 사회적 지위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이다. 시장은 자기의 종교 신앙을 핑계로 삼아서 단오제 헌관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거부하지 못한다. 그것은 종교 신앙보다 직책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제보자들은 대부분 단오제를 반대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강릉에서 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현지인 박영자는 단오제가 강릉의 전통문화이고 종교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단오제에 가서 이불을 많이 사 온다. 박영자의 남편은 개신교 가정이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때도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한다. 박영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후부터 교회에 다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가 경건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기타 개신교 신자도 박영자처럼 단오제 난장을 이용하는데 곳만 안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슬기의 남편이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매년 단오제에 간다고 했다. 이슬기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는 이단비도 개신교 신자이지만 매년 친구들과 단오제에 가서 술을 마신다고 했다. 이단비는 주변에 아예 단오제에 가지도 않는 개신교도가 많다고 말했는데 개신교 신자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단오제 참여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단오제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종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곳을 보지 않는다.

“근데 가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거기 가면 곳 보는 것도 그렇고, 특별한 거 보러 가는 건 아니지 뭐. 뭘로 곳을 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고 (가라게요.) 곳이 안 된대요. 악한 신이기 때문에. 잡신들. 그래 갖고 안 좋아해요. 뭘로 거기 가서 그런 걸 구경해요?” (강릉시 노암동에서, 개신교도, 여성, 75 세)

상술한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종교 단체가 참가하고 개신교 단체의 항의가 무력화된 것은 지역의 종교단체들이 타협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로 견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합리주의가 종교의 신비주의를 압도하는 맥락에서 특정 종교의 극단적 선교 활동은 더 이상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 행위를 비난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핑계는 지역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개신교는 한국 근대사회에서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형성해 나갔지만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이혜정 2015). 연구자가 필드워크 기간에 들른 개신교 교회는 소위 “이단”의 도발적 선교 활동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을 입구에 게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개신교도 다양한 반발이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신교의 도발을 억제하는 힘은 단오제를 합법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외에도 개신교를 위협하는 기타 종교 집단이 대두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2 단오제 참여의 사회적 범위

상술한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의 참여는 특정 인구를 배제하는 기제가 있다. 그래도 매년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관람하는 것은 많은 현지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의례로 인식되고 있다. 배제의 기제가 있듯이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기제가 있다. 지역사회는 엮여 있다는 축제 관계자의 표현에서 비제도적인 요소가 축제 운영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강릉단오제 보존회원들의 지연과 혈연 관계이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강릉단오굿의 전승자들은 대부분 강릉과 동해안에서 활동하는 세습무 집단이고 주로 사(史)씨, 박씨, 김씨 집안과 혈연이나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단오굿을 하고 있다.⁸² 또한 유교제례부와 관노가면극부는 초기 회원들은 지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유교제례부의 회원들은 대부분 노암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난 세대의 유교 예능보유자의 이웃들이다. 관노가면극부의 노년 전승자들은 유천동 농악대의 구성원들인데 지난 세대의 가면극 예능보유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쇠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보존회원들이 많아지고 사망하거나 탈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연고집단의 성격이 점점 달라지고 연줄 등 사적인 관계로 결성된 단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젊은 구성원에게는 혈연이나 지연이 더 이상 그들이 활동하는 동기가 아니라 직업이나 취미활동 등이 더 중요한 참여 동기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결성의 원리가 아무리 변해도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다양한 사회관계는 여전히 보존회 가입 내지는 단오제 참여의 중요한 조건이다. 본절에서는 사적 관계에 의지하는 단오제 참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⁸² 동해안 세습무나 강릉단오제 전승자에 관한 자료는 매우 많으며 연구자 참고한 것은 아래와 같다.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 pp.211-215.

문화재관리국, 1994,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p.80, pp.297-302.

강릉문화원, 2006,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pp.92-94.

강릉문화원, 2007, 『제일강산』 제 38 호, pp.25-28.

강릉단오제보존회, 2015, 『강릉단오굿 양중연구』, 서울: 채륜, pp.28-31.

신화라, 2015, “강릉단오굿 전승자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논문.

강릉단오제위원회, 2016, 『수릿날, 강릉』 제 11 호, pp.32-35.

1) 사회관계에 대한 의존도

제도화를 통해 형성된 규범화된 질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보살필 수 없으며 다양한 사적인 관계가 여전히 지역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적 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역사회는 완전히 국민국가의 체계에 의해 획일화가 되지 않고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영민속연구회의 법인화에 관한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는 사회관계의 합법화일 수도 있다. 강릉단오제 주최 단체의 법인화도 사실상 원래 운영하던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법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관계자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속성 등 세 가지 좋은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변화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의 핵심 구성원은 각각 단오제위원과 보존회원인데 그들의 사회관계가 법인화를 통해 완전히 규범화된 질서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기존의 단체 운영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강릉단오제는 다른 지역축제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기존에 있던 지역의 다양한 사회관계는 여전히 축제 개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구조의 지속은 단오제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난장 상가분양은 단오제 주최 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주류 유통권은 여전히 과거에 상가분양에 개입했던 세력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난장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그런 사람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단오제 주최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일부 상가는 분양하지 않고 치안을 유지하거나 기타 협력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에게 분양없이 주고 있다. 2018 강릉단오제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자와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은 같이 행사장 준비를 보러 갔다. 상가분영사무실에 도착한 후 거기에 있는 관계자가 상인의 민원을 이야기해주었다.

“자율방범대 ○대장이 난장 자리를 오락하는 사람한테 쫓어요. 그건 단오제 기간 동안에 수고한다고 드린 건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옆의 상인이 바로 찾아왔어요. 시끄러워서 장사할 수가 있어야지. ○대장 본인도 단오제 위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연락해서 해결해야지. 저것 항의하면

어떻게 하나? 다 먹고 살자는 짓인데.”(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남성, 60 대)

이 관계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난장상가는 모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협력하는 사람에게 보수로 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상인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다. 둘째, 상인들의 돈을 받은 축제 주최 단체는 난장 질서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음이나 기타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이 사례는 단오제 난장 상가분양이 대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운영되지만 투명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축제 운영의 방식에 사적 관계에 의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들은 “지역사회는 쪼여 있다”고 하거나 “지역사회는 인정사회”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런 표현에서 반영된 현실은 제도라는 규범화된 질서 외에도 사적인 관계가 여전히 단오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벤 호락(Horak 2014; Horak 2018)은 한국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인맥과 연고, 연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광의적인 사회관계망을 인맥이라고 표현하고 연고는 보통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가리키며 연줄은 사리추구를 위해 만든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고와 겹치는 경우가 있다. 그는 한국의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를 중국어의 “관시(关系 *guān xi*)”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며 그것에 대한 이해는 해당 국가의 비공식적 제도나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장에서 볼 때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구성한 다양한 분야에 교육이나 취직 등 매우 규범화된 질서가 지배하는 분야에서도 연고나 연줄, 인맥이 작동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보통 연고주의나 연줄주의라고 부르는데 조직 내의 인간 관계 개선 등 순기능과 대외적 정책이나 조직관리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종수 2009: 325; 이훈구 2003: 20; 홀콤, 카스티요 2014: 11). 학계에서 만들어진 이런 용어와 달리, 인맥이나 연고, 연줄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특히 연줄은 조사한 여러 사건에 대한 현지인의 설명에도 상용된 표현이다.

강릉단오제의 행사장 배치는 거의 매년 같은 자리에 같은 가게가 들어오는 구역이 있다. 예를 들어 2017 년 제일안내소 바로 맞은편에 현대호텔이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2018 단오제 때 강릉의 운산마을 사람들이 와서 식당을 운영했다. 연구자와 같이 안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해설사들이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식당들은 다 연줄이 있어서 손님이 많은데 여기는 연줄이 없나 보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연줄이 무엇이나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성당에서 하는 식당은 신자들이 오고 절에서 하는 식당은 불교도들이 오고. 그런 거지 뭐. 여기는 마을 식당이다 보니까 마을 외의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장사가 되겠나?” (강릉단오제 해설사, 남성, 56 세)

이 말은 지역사회에서 생존 자원을 획득하는 데 사회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에 “동네”라는 표현은 연줄과 맞물려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동네”는 단지 물리공간이라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에 의거하여 결성된 지연적 유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지연이 강릉단오제의 유교제례부와 관노가면극부의 형성에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앞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초기 구성원의 탈퇴나 사망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지연이 퇴색되고 있지만 관찰의 범위를 확대하면 “동네”의 주민들 사이에 여전히 지연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묵었던 곳은 나지막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주민이 많이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많았으며 점심이나 저녁 때 늘 손님이 많아 바빠 보이는 식당들이 있었다.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 어떻게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게스트하우스 주인 박영자는 그런 가게들이 다 동네에 아는 단골 손님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고 했다.

“여기 사람들이 동창회나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모임 할 때 항상 아는 사람 집(식당)에 가요. 저런 모임 때문에 식당 장사가 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박영자)

위의 말은 강릉 사람들이 비공식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소비 패턴은 같은 지역에서도 사회분화 현상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강릉의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홍보되는 유명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또는 “맛집” 등을 찾는 확률이 높고 관광객은 중앙시장에 있는 닭강정거리와 안목해변에 있는 커피거리, 그리고 동부시장에 있는 “○○네 포장마차” 등을 주로 이용한다. 이에 비해 동네에 있는 식당은 단골 손님을 대상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골 손님 중에 중년층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 간의 관계는 혈연이나 학연일 수도 있고 과거의 공동 직장이나 군대 등 공유된 경험일 수도 있고 물론 지연일 수도 있다. “동네”는 이렇게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네를 만드는 지연도 기타 비공식적 사회관계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동네와 동네 식당의 현상은 강릉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도 있다. 그리고 현지인에게 동네를 만드는 연줄은 긍정에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인정사회라는 표현은 지역사회에 공간적, 사회적 내지는 문화적 차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줄 등 사회관계에 대한 학자의 관점도 매우 다양하며 예를 들어 김용학(2003: 101)은 한국에서 네트워크(networks)에 해당하는 개념이 연줄과 연결이 있다고 하며 전자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자가 직위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연줄을 “특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이와 반대되는 연결은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구성원 간의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협업 관계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의 개념과 유사하다(Durkheim 2004: 19-38). 그 논의에서 동질성에 기반한 기계적 결속이나 연줄을 전통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유형으로 규정하여 그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김용학(ibid)도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주의적” 연줄주의가 “보편주의적” 연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연줄주의가 한국에서 구조적 부패와 사회갈등을 빚어낸 원인으로 연줄망 사이의 사회적 조정 비용이 크면 한국 사회에 심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논의의 바탕을 이룬 것은 사실

전통적 사회관계의 합법성에 대한 부정이고 규범화된 사회관계로 이것을 극복하자는 의견이다.

강릉시 현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현지인이 연줄을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현지인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자본이 될 때 사람들이 연고나 연줄을 포함한 사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이명준은 6.25 때 강릉으로 피난하러 왔는데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중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종친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자주 조상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는 종친회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사회관계 중에 동업자 간의 연대도 매우 중요한 사회관계 유형이다. 강릉단오제의 난장은 단오제 주최측과 난장 상인들 간의 연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의 연줄은 단오제 주최측과 상인 간의 협력관계만 아니라 상인들 간의 결속도 포함한다. 그런 유대는 보통 상인 조직을 만드는 중요한 원칙이다.

2018년 4월 초에 강릉시에서 벚꽃축제가 열렸는데 연구자는 거기에 있는 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중의 한 사람은 “다들 팀들이 있어요. 연락 연락해 가지고...”라고 답했다. 현지인 박영자는 상인들이 말한 팀이 상인조직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즉 한국의 축제에서 보통 난장이 펼쳐지는데 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보통 그 지역의 상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제장을 찾아다니는 상인들이다. 정보 공유나 상부상조 등 이유로 그런 상인들이 동업자 집단을 결성하는 확률이 높다.

2018년 강릉단오제는 난장에 노점 300개와 식당 23개가 있었다. 2018년 5월 초의 난장 상가 분양 현장을 관찰한 결과로는 많은 상인들이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상가 분양 할 때 같이 오고 당첨되면 아는 사람과 부스를 붙이기 위해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했다. 당첨에 떨어져도 서로에게 다음에 갈 축제의 정보를 교환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 난장의 상인들은 전국 축제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있다. 그런 상인조직이 있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에서 매년 대규모 난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축제와 단체 운영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에 매년 이불을 파는 상인이 약 10 군데의 노점을 차려서

이불을 판매하는데 상가분양을 하지 않는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불전 상인을 유치할 때 일반 상가분양과 달리 계속 협력해 온 업체의 조직을 섭외한다고 했다. 즉 이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동업자 조직이 있는데 매년 강릉단오제의 이불전은 이 조직을 통해 온 이불 상인들로 구성된다. 난장 상인과 이불전 상인의 조직이 그들과 단오제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협력관계는 단오장의 공간 분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안내도를 보면 매년 고정된 자리에 계속 같은 가게들이 온다. 특히 행사장의 핵심 구역, 즉 수리마랑, 아리마당 건너편의 “향토음식점”과 동쪽의 “먹거리촌”은 전국에서 유치한 가게가 아니라 강릉 현지의 업체나 단체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구성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향토음식점은 물론이고 먹거리촌은 현지 단체나 업체,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많이 들어왔다. 강릉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은 2018 강릉단오제가 열리기 전에 이미 그런 식당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말해 주었다. 매년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다고 했다.

1	2	3	4	5	6	7	8	9	남 산 교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수 리 마 당									동 춘 서 커 스																			

1	2	3	4	5	6	7	8	9
종합 안내소	시정 홍보 관	강릉시 종합 자원봉 사센터	하이원리조 트 홍보관	롯데주류 홍보관	강원 한우	해살 이마 을	운산 마을	롯데 리아
11	12	13	14	15	16	17	18	19
강릉보훈 단체협의 회	추첨	추첨	추첨	자유총연맹 강릉지회	임당 성당	관동 대학 교	포교 당	주형 농산
20	21	22	23	24	25	26	27	
지역식당	지역 식당	추첨	추첨	추첨	추첨	추첨	추첨	

그림 4 2018 강릉단오제 음식점 배치도

<그림 4>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강릉사람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의 식당은 남산교 양쪽에 분포되고 있으며 이 길은

단오제의 메인 공연장인 수리마당에 가깝기 때문에 행사장의 중심부이다. 이런 위치에 지역의 식당들에게 추첨없이 주는 것은 이들과 단오제 주최 단체 간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연줄의 지속은 단오제의 전통을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요소이다.

연고나 연줄은 강릉이나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중국의 관시와도 유사하다. 중국의 관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다양한 사회관계의 집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릉사람들이 말하는 연줄이나 연고도 기타 유형의 사회관계와 얹혀 있을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스벤 호락도 지적하고 있다(Horak 2018: 209-210). 그리고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공무원들이 이익집단을 만들 때 항상 이용하는 사회관계는 혈연이나 지연, 직장 동료 관계들이다(王雪华 2012). 따라서 연고나 연줄은 한국 특유의 현상도 아니고 기계적 연대나 유기적 연대이라는 것도 결국 이념형(ideal type)에 불과하고 현실생활에서 항상 얹혀 있다. 왜냐하면 연고나 연줄, 인맥은 모두 당사자 간에서 공유되는 공통점이나 공동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그들의 현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럴 때 공사(公私)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한국에서 이것은 흔히 전통사회의 잔존이나 폐단으로 지적하지만 사실상 공사가 분명하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상적 형태에 불과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얹혀 있으므로 공사 간의 경계는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제도와 사적인 관계가 얹혀 있는 현상은 강릉단오제라는 지역축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의 개최 과정에서 법이나 제도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주최측의 관계자들은 각자의 사회관계에 의지하여 필요한 도움이나 자원을 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통대길 길놀이”라는 시민 참여 행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행사는 매년 음력 5월 3일 저녁에 열리는데 대관령성황신과 여성황신을 제단으로 모시고 가는 영신행차의 뒤를 따라 가는 시민 행렬이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2010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강릉시 각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2018 년 강릉단오제의 길놀이에 21 개 읍면동의 공연팀이 도구를 만들어 행사에 참여했다. 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의 진술에 따르면 19 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옥계면과 강동면에는

이장협의회가 있으며 단오제 길놀이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들 주민 단체들이 “단오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길놀이에 참가할 사람을 구하고 물품 등을 준비한다.

물론 이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매년 신주빚기 행사 한 달 전에 강릉시 문화예술과 단오문화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강릉시가 승인한 후 각 읍면동의 사무소에 있는 행정계장이나 서무담당 공무원이 주민주치단체의 관계자에게 전달해 준다. 준비 단계 중에서 여기까지는 행정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민단체의 관계자들은 참가 인원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사회관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시민참여행사인 신주미봉정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강릉시→동사무소→통장→반장→주민의 경로를 거쳐서 준비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적 개입은 동사무소까지만 올 수 있고 그 나중의 일은 길놀이 행사처럼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지해야 한다.

단오제 한국어 해설사 박복자(여, 55 세)은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주한 후 통장을 해 오고 있는데 단오제 신주미 봉정이나 길놀이 등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강릉시의 행정 지시를 받아서 시민 참여를 동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통대길 길놀이는 행사 개최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매년 콘셉이 다르며 2018 년은 김유신 장군이였다.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데 잘하면 상금도 준다고 했다. 또한 신주미 봉정이 시작하면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통장에게 쌀을 담은 주머니를 나누어 주고 통장이 다시 반장에게 나누어 주며 반장이 주민에게 나누어 준다. 이처럼 통장과 반장의 직무는 지방정부의 제도와 지역사회의 사적 관계를 연결하는 지점이며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 통장과 반장은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박복자는 자기가 매년 단오등표를 사서 반장들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단오등표를 가지고 있으면 경품추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은 사실상 통장과 반장 간의 호혜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의 주민단체나 관변단체는 국가 제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오제위원회는 축제의 개최를 위해 이런 단체의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단오제위원회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사회관계를 합법화한다. 예를 들어 법인 정관에 강릉시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이 단오제위원회 이사로 가입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2018 년 1 월 30 일의 위원회 총회에 강릉시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가 단오제 위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자들 간의 신뢰나 친분을 쌓기 위해 사적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최진학은 평소에 이런 단체들의 책임자와 사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종종 만나거나 도와준다고 했으며 그날 연구자와 인터뷰하기 전에도 자생단체 관계자와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길놀이 등 행사에 단오제위원회가 직접 관여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자생단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비가 부족하더라도 각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경비를 보태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각 읍면동의 주민단체들이 경비를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은 연줄이나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단 길놀이 할 때 천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드리는 거는 한, 사오백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이 채 안 되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에서 상가나 기업체가 있으면 가서 스폰을 받아 와요. ...(중략)...일단은 강릉사람들이 강릉단오제를 생각하는 게 다른 지역의 축제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오제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아주 커요. 그래서 되게 크기 때문에. 또 강릉시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이니까. 또 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이게(인맥) 잘 되니까. **아는 사람이 가서 달라면 안 줄 수는 없고.** 약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여율이 높은 축제죠.”
(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

최진학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 길놀이를 만드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지연이나 지연적 유대만 아니라 단오제위원회와 각 읍면동 자생단체들 간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저절로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진학 같은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 내부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때도 연고나 연줄이 동원된다. 이러한 사적인 관계가 작동되기 때문에 단오제는 민간주도로 개최될 수 있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오제 주최측과 각종 주민단체 간, 그리고 주민단체와 현지 주민이나 업체간의 협력관계가 행사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관계는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개인 간의 호혜적 관계 등에 의해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연줄이나 인맥의 존재로 인하여 강릉단오제는 매년 다양한 현지인 단체로부터 협조나 지원을 받아 대규모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전통 지속은 관계자들이 각종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강릉단오제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 지원, 인적 자원은 제도에 의해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규범화된 질서는 축제의 모든 분야를 보살필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진학의 말을 통해 읍면동 자생단체가 과거 단오제위원회가 찬조금을 받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Ⅱ장에서 언급했듯이 단오제위원회는 과거에 지역의 상공인에게서 찬조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런 부채의 행위는 이제 국가 제도의 개입으로 인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규범화된 질서를 실천하는 행위가 점점 더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단오제 주최 단체는 사적 관계를 동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 않고 제도에 의해 형성된 관계를 다시 이용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읍면동 공연팀을 동원하는 과정은 아래의 <그림 5>처럼 제도나 규범화된 질서가 지역사회에서 작동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국가의 법률 제도나 도덕 체계, 가치관 등은 각 지역의 정부, 교육 기관 등을 통해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중개하는 주체는 결코 기관 단체가 아니라 그들의 구성원, 즉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행위자들이다. 그런 행위자는 국가의 국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예를 들어 강릉사람이기 때문에 복합적 정체성을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강릉단오제가 가진 국가의 문화재와 지역축제라는 두 가지 성격은 그런 실천을 통해 부여된다. 또한 제도가 행위자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작동된다는 의미에서 제도와 사회관계는 결코 뚜렷한 경계를 가진 두 가지 범주가 아니고 특히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는 이 둘은 연속체(spectru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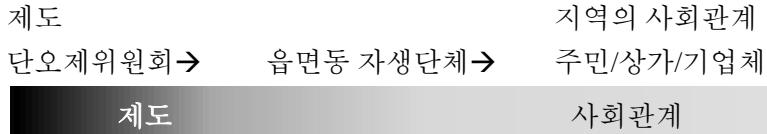


그림5 제도와 사회관계의 연속체

민간주도의 축제 담론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릉사람들의 자발성은 축제 개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자발성은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관계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릉단오제보존회나 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소에 지역에 있는 정부 기관 공무원이나 업체, 시민단체의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이 강릉시 등 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적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 관계자는 단오제전수교육관 사무실의 공무원 중 같은 연령대의 젊은 사람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최진학의 진술에 따르면 강릉단오제를 치르기 위해 현지의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의 관계자들이 정기적 모임을 만들었다. 매년 2월에 최진학과 강릉문화원과 강릉예총, 농악보존회 등 단체의 관계자들이 같이 등산하면서 일년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저희가 매년 2 월달에 강릉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산행을 해요. 등산요. 어쨌든 지역에서 같은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같이 얼굴이라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자 해서 산행 한 번 하고 뒤풀이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알아가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략)... 2 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6 년 됐어요. 처음에는 등산에 취미가 생기면서 등산을 했었어요. 문화원의 직원 한 명, 농악보존회의 직원 한 명, 강릉예총의 직원 한 명, 저랑 해서 한 네 명, 다섯 명 같이 산을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재미 삼아 이사님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정동진에 있는 ()등산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이 우리 매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강릉단오제위원회 직원 최진학)

최진학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취미활동은 단지 개인의 여가시간이 아니라 직업의 연장일 수도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직장 문화 중의 유사한 점은 근무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연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주말에 모임이나 스포츠대회 등을 통해 사내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진학이 말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들이 경험하는 축제는 완전히 공공 영역의 일이 아니라 사적 영역의 경험과 얽혀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위원회가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법률 제도와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계망(networks)도 같이 이용하는 과정이며 즉 국민국가의 체계와 지역사회의 전통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2005 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이후 국민국가의 체계가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단오제에 관여했던 지역의 사회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단오제위원회는 국가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법화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민간단체와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단오제위원회가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협조를 국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양한 지역의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단오제 개최에 필요조건이다. 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은 단오제위원회의 운영이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인제 우리 고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맡아서 해야 하고. 일을 뭐, 잘 들 해요. 다만, 단오제(위원회)라는 조직이 그냥 업무만 해서 되는 조직이 아니잖아. 그냥 뭐랄까? **네트워크**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 나이가 40대 초반, 마흔 이러니까 일을 다 끌고 가기가 좀 힘들고. 짐이 무겁지. 쓸데없는 짐이 무겁지. 업무적인 짐이 무거운 거 아니라 그거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그 짐들. 또 **지역사회**라는 게 실지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 사람에 대한 () 압력 비슷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아요.”(강릉단오제보존회 관계자 이동준)

이동준은 단오제위원회의 일상활동에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한 업무는 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정부 예산 지원이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과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단오제 개최에 필요한 네트워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관계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가 말한 쓸데없는 짐인데 제도나 규범화된 사회질서 외에 것이기 때문에 없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쓸데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실제 상황에서 예측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거나 자원을 구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관계나 연줄에 의지해야 한다. 경품추첨에서 일등 상품인 현대자동차는 강릉지사의 관계자와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간의 사적 관계로 인하여 얻은 것이며 물론 그것은 제도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강릉단오제의 변화는 물론 국민국가에서 유행하는 가치관이나 도덕 체계의 변화와 맞물리고 있지만 새로운 이념을 구체화하는 일은 지역민 간의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은 이제 단오제를 장애인 등 사람에게도 개방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이념에 따라 휠체어 등 장애인시설을 도입했고 수리마당에 수화자도 배치했다. 그 당시 단오제 운영 비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 수화자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동준은 예전에 방송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수화자는 내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썼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해서 불러 가지고. 돈이 없잖아. 우리는 항상 이 문제는 돈을 가지고 했었으면은 다 했지. 생각나는 대로 다 하잖아. 근데 이 친구들한테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준다. 그찮아요. 그 사람들이 8일 내내 하루에 몇 시간씩 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는 돈은 없는데 우리의 예산 상황이 이렇다, 그렇지만은 너희들도 그 농아자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여주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잖나? 옛날에 내가 방송 할 때 처음 도입할 때도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내 뜻을 잘 아니까.”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에서 형성된 연줄도 중요한 사회관계의 유형이며 특히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의 직장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런 연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릉시 공무원 함태호는 전직 공무원 이영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없지만 단오제 관리와 보도에 관련된 부서에서 각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난 일이 많았다. 그날에 같이 만난 세 사람은 같은 성씨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출신 학교도 각자 다르다. 그들 간의 사적 관계는 과거의 직장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영표를 따라 참가한 다른 모임도 유사한 상황이며 그날에 만난 여섯 명의 공무원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에 따라 만든 모임이 아니라 강릉시의 각 부서에서 근무할 때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연줄에 직장경험에 바탕을 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이 동업자 집단을 결성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다.

동업자 집단은 강릉단오제 난장의 사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의 질서는 그들이 모두 관리할 수 없고 시민이나 상인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2018 년 강릉단오제가 개최되기 이틀 전엔 난장에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일찍 장사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상가분양을 받은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네 사람이 같이 단오제에서 가게를 하기로 했는데 추첨을 통해 받은 상가가 같이 있지 않아서 옆의 사람과 바꾸어 부스 네 군데를 붙여서 큰 상가로 만든 경우가 있다. 또한 서로의 가게를 번 갈아서 봐 주기 위해 자리를 바꾸어 아는 사람과 같이 붙여 있는 경우도 있다. 난장 상인 간의 이런 사회관계는 그들이 전국 각지의 난장에서 장사하면서 습득한 경험에 의거하여 상부상조를 위해 만든 것이다. 단오제위원회는 상가분양을 통해 상인들에게 자리를 정해 주는 것은 분양받은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상인들의 연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은 “우리가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없어. 근데 상인들이 오래 해 왔으니까 알아서 질서를 만든 거 같애.” 라고 말했다.

이것은 강릉단오제 전통의 지속을 해석하는 내부자 관점(emic)이라고 할 수 있다. 단오제를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난장을 만든 상인들이 따르는 행동규칙은 상당한 정도로 그들 간에서 구성된 사회관계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난장상인들의

축제 참여는 사리추구라는 합리적인 동기가 있지만 일단 난장에 오면 상인들끼리나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은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정의에 따라야 한다. 상인들이 자리를 바꿔 잘 아는 사람과 부스를 붙이면 규모를 확대할 수 있거나 서로의 가게를 보살펴 줄 수 있다. 또한 옆의 상인이나 관람객과 문제가 발생할 때 서로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상호작용의 원칙은 강릉단오제의 주최측이 제도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끼리 만든 것이고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는 규범화된 사회질서 외의 다양한 사회관계에도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장이기도 하다.

2) 단오제 참여와 사회관계의 생산/재생산

강릉단오제는 지역의 사회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역민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관계를 만들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오제는 배제의 기제가 있는데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과연 단오제가 모든 사람이 사회관계를 만드는 장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릉단오제는 개방된 도시축제이지만 참여하는 정도는 사회관계에 따라 다르다. 일반 관람객들은 전통의례나 문화예술공연을 구경하고 난장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시민참여행사에 참가하려면 상술한 연줄이나 사회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67,8 경에 시작한 단오제의 그네대회와 씨름대회, 줄다리기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줄다리기대회는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각 읍면동의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단오제 행사이다. 이 행사는 1986년부터 라이온스클럽, 구체적으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E 지구 제 8 지역 연합회’가 주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라이온스 클럽이 주로 스케줄 편성이나 연락, 섭외 등을 하는데 참가자 모집이나 훈련, 경기, 음식물 준비는 각 읍면동의 단오제추진위원회가 책임진다. 성덕동 대회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한 달쯤 전에 남녀 참가자 각 10명과 후보 5명, 그리고 응원단을 모집하는데 주민이 약 50명 정도 대회에 참가한다. 경기가 있는 날에 보통 단오섬 경기장에서 음식물을 배풀어 같은 동 주민들끼리 잔치를 벌인다.

시민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을 통해 줄다리기대회 등 행사에 참가한다. 경기장이 개방되어서 구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경기가 끝난 뒤의 잔치는 주민들의 자연적 유대를 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줄이 없는 사람은 참가하기 어렵다. 2018년 강릉단오제 때 단오제해설사 중 한 사람의 아버지는 강릉시 전직 공무원 이영표와 같이 줄다리기 경기를 구경하고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두 사람이 모두 홍제동 주민이지만 이영표는 단오제추진위원회의 관계자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갔다. 그는 “무료라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참여는 사회관계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같은 동네의 주민이라도 자연적 유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은 연구자와 처음 만날 때 단오제 연구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일반인이 중심부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단오제의 운영 상황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내용은 단오제의 구체적 행사의 참여에도 적용된다. 단오제의 운영은 물론이고, 사단법인의 핵심적 업무가 아무리 제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에게는 비밀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단오제위원회 총회에 간 적은 있지만 단오제 이사회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처럼 단오제의 다양한 행사에도 접근의 권한이 있고 그것은 보통 지역사회의 연줄을 의미한다. 그런 접근 권한은 지역의 전통적 관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사행성 놀이는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2018년 5월에 단오제역사문화탐방 때 한 노인이 과거의 단오제 경험을 이렇게 말해 주었다.

“우리 현지인들은 마지막날에 단오장에 가. 그때 상인들이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깎아 줘. 외지 사람들이 모르지. 다른 날에 오면 값이 비싸. 그리고 쇼핑은 여자들의 일이야. 여자들은 난장 가서 쇼핑하고 남자들은 단오제 가서 한 잔 하고 야바위도 하고. 그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별미지. 여자들은 절대로 못 하게 해.”(현지인 남성, 60대)

야바위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제보자는 1980년대까지 보았다고 했다. 즉 그때까지 단오장의 공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졌으며 사행성 놀이는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았다. 그 이후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에 따라 사회 제반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단오제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축제로 만들고 있지만 그런 현상은 축제 관람의 분야만 적용된다. 축제 운영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있다. 예를 들어 단오제위원회의 가입 조건은 기타 위원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단오제위원회의 정관에 기재된다. 2018년 1월 말에 단오제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세 사람이 위원으로 신규 가입했다. 한 사람은 “강릉시자치센터”의 책임자이며 나머지 두 사람은 현지의 소상공인이고 그 중의 한 사람은 위원회 관계자 이동준의 추천을 받아서 가입했다. 또한 단오제위원회의 감사나 이사는 이년 이상 가입한 위원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단오제의 핵심 운영 기구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연줄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 상황은 지역의 유지로 구성되던 과거 단오제위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에 단오제위원회에 가입하거나 단오제에 관련된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 축제 관계자와 일정한 사회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으며 현재에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즉 단오제 참여에 필요한 사회관계는 한편으로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관계는 단오제 참여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음에 단오제의 해설사와 보존회원 가입의 상황을 통해 단오제 참여에 동원되는 사회관계를 분석해 보겠다.

(1) 강릉단오제 해설사

강릉단오제의 해설사들은 축제 방문객에게 단오제의 역사나 프로그램, 공연장 위치 등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단오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우선 그들에게는 단오제에 대한 관심이나 기타 사연이 중요한 참여 요인이며 이 때의 관심은 반드시 단오제의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 해설사 장하나(여성, 20대)가 해설사를 하게 된 동기는 아버지를 따라 온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강릉시 SNS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단오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취미이다. 따라서 2018년 단오제에 아버지가 한국어 해설사를 신청하고 장하나는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어 해설사를 신청했다. 그들에게 단오제에 대한 관심은 단오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포터즈

활동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해설사 중에 단오제의 역사나 전통의례의 절차 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단오제위원회가 행사 개최 전에 두어 달 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단오제의 해설사들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교육의 전반부는 같이 듣고 후반부는 두 번의 언어별 교육이 있다. 연구자가 만난 해설사 중에 장하나처럼 친인척 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가입한 경우도 있고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년 단오제 때만 만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일본어 해설사 김상훈은 중국어 해설사 김해찬 (남성, 40 대), 일본어 해설사 손지영 (여성, 40 대)과 같이 2017, 2018 년 단오제에 모두 참가했지만 일년만에 만났다고 했다. 따라서 단오제 마지막날에 회식하고 헤어질 때 다들 “내년 보자”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각자 단오제위원회와 연줄이 있기 때문에 가입했다. 그런 연줄은 본 연구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연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김상훈은 강릉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원래 강릉에 아는 사람이 위원회와 연결해 주었다고 했다. 현재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의 김상훈의 동문이 많으며 행사 때 종종 만나면 인사도 했다.

대학에서 맺은 학연 외에도 고등학교의 교육배경이 많은 해설사들의 가입 조건이었다. 강릉단오제의 해설사는 2009 년부터 시작했으며 주로 퇴직한 강릉시 문화해설사들이 단오제위원회에 와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국어 해설사만 있었는데 한국어 해설사는 최근 2 년 내의 일이었다. 그 당시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문화해설사 중에 단오제위원회 관계자의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릉시 문화해설사를 그만둔 후 단오제위원회에 왔다. 단오제 해설사 정철수 (남성, 60 세, 전직 공무원)은 자기가 강릉에 있는 L 고 졸업생이고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 이동준, 정희철 등과 선후배라고 말했다.

또한 강릉단오제 해설사 한상렬 (남성, 76 세, 전직 교사)도 선배의 소개로 해설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교사를 퇴직한 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쳤다가 일년 전에 그만두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와 원주대학교의 학술조사팀이 강릉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조사하러 강릉에 왔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중 고등학교 선배가 한상렬을 해설사로 추천했다. 따라서 단오제를 처음으로 해설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계속 단오제 해설사를 하기로 했다. 한상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연 등 사회관계는 반드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그 관계망에 있는 기타 행위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회관계가 지역민의 정체성 구성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반드시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택한 결과나 타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물리공간에 들어오면 자연히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물론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지나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행위자 본인이 파악할 일이다. 즉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은 다양한 세력관계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관계망으로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다.

해설사 이명자(여, 67세)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다. 몇 년 전에 강릉단오제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해설사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명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면접도 보지 않았고 바로 오라고 했다. 그래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같은 동네(노암동)에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명자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단오제의 전통의례를 매우 싫어했으나 이제 익숙해졌다. 그리고 현재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 이명자는 자기의 축제 참여의 원인을 지연으로 말했다. 단오제위원회의 관계자에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오제 해설사 모집공고는 단오제위원회 웹사이트에만 게시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단오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그들이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단오제를 접해 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의 요소가 그런 정보 전달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

정보 전달의 과정을 고려하면 단오제 해설사는 대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단오제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맺은 다양한 사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요제보자 김상훈은 8년 전에 서울에서 강릉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관계망을 만드는 것은 그의

현지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일정한 사회관계망을 만든 후 김상훈 본인이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찾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전달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해설사들의 제한된 참여를 결정한 원인은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만든 사회관계망이나 사회자본으로써 이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사 중에 적극적으로 단오제의 핵심 업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사회자본이나 사회관계 등 조건은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해설사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2017 년 여름에 연구자는 대구시 약령시박물관을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는 중국인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자기가 대구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인맥은 대부분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쌓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자원봉사자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고했다.

“선생님 한국에서 잘 살려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경찰청장하고 검찰청장도 만났어요.”
(대구약령시박물관 자원봉사자, 여성, 30 대)

이 여성은 10 여년 전에 한국에 유학하러 왔으며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와서 결혼하고 정착하면서 중국인 교민단체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정치인 등과 인맥을 맺어서 현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교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는 인맥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대구시보다 작은 강릉시는 자원봉사자 활동이 많지 않지만 사회관계망 형성의 측면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의 목적으로 해설사를 하는 계기를 배제할 수 없다. 김상훈은 대학을 강릉에서 다녔지만 몇 년 뒤에 다시 강릉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관계망이 해체되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상부상조를 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단오제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만들고자 한다. 다만 그런 욕구는 늘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안내와 얽혀 있는데 즉 본인도 연줄을 만들 의향이 있고 주위

사람도 소개하고자 할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한된 참여를 하는 단오제 해설사들에게 단오제 활동은 단지 하나의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중요한 참여 동기 중의 하나이다.

(2)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위에서 단오제 해설사들의 제한된 참여를 살펴보았는데 이와 대조되는 것은 보존회원들의 가입 경위이다. 과거의 보존회가 혈연이나 지연 등에 의해 결성된 단체였다는 것은 제 II 장에서 이미 논의했다. 그러나 기존 회원들의 탈퇴나 노쇠,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존회는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강릉단오제 제례부와 관노가면극부 회원들은 모두 단오제보존회와 다양한 사회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입했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아래의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연과 동호회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순번	보존회원	연령 성별	종류	가입 경위	사회관계 유형
1	이준규	50 대 남성	관노가면극	2005 년 단오문화관 문화교실 수업에서 다른 보존회원의 소개로 가입	동호회
2	장재호	50 대 남성	관노가면극	보존회원 이준규와 같은 동네(내곡동) 주민. 취미활동(족구, 악기)을 통해 만난 이준규의 소개로 가입	지연, 동호회
3	이재명	50 대 남성	관노가면극	단오문화관 사물놀이 수업을 통해 만난 보존회원 이준규의 소개로 가입	동호회
4	박호건	50 대 남성	제례	강릉문화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배 정희철의 소개로 가입	직장
5	이현우	50 대 남성	관노가면극	아내가 관노가면극부 회원과 안면이 있어 보존회원 이명준의 소개로 가입	동호회
6	노영미	50 대 여성	관노가면극	강릉시(여성)문화센터 시민강좌에서 관노가면극부 관계자를 만나 소개를 받아 가입	동호회
7	조우석	50 대 남성	제례	보존회원 박호건의 소개로 가입	미상

표 23 일부 보존회원의 가입경위

<표 23>에서 제시한 사례 중 장재호와 이재명은 조사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고 이현우와 노영미, 조우석은 2018년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이다. 그들이 구술한 가입 경위를 살펴보면 보존회 모집을 통해 가입한 사례가 없고 모두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가입했다. 따라서 기존의 보존회원들의 활동이나 사회관계망이 사실상 신규 회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관계를 통해 구한 회원은 모두 기존의 보존회원과 공통점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보존회 가입의 방식은 회원들의 사회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의 과정이다.

그런 특징은 우선 회원들의 성별과 연령에 나타난다. 노영미 외의 기타 회원들은 모두 50대 남성들이며 퇴직하고 취미활동을 하면서 단오제의 보존회원과 접촉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과 이현우는 모두 그런 경험을 구술했다. 이재명은 다른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한 후 8년 전부터 아내와 같이 단오문화관에 있는 전통문화교실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2,3년 뒤에 당시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이준규의 소개를 받아 관노가면극부에 가입했고 아내는 다른 강사의 소개로 농악보존회에 가입했다. 이현우는 2018년 단오제 전에 가입했으며 원래 강릉사람이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예전에 활동했던 동아리 단체가 해체된 후 관노가면극의 회원을 알고 있는 아내의 소개를 통해 보존회 관계자 이명준을 만나 가입했다.

이재명과 이현우의 가입 경위에 공통점은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를 통해 보존회원과 인맥을 맺은 것이다. 장재호의 가입 경위도 이들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는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다. 보존회원 이준규와 같은 동네에 있는 족구와 악기 등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친해졌고 2017년에 이준규의 소개로 정식으로 관노가면극부에 가입했다. 현재도 두 사람이 활동하는 동호회는 매주 한 두 번의 모임을 가지는데 2018년 5월에 내곡동에서 두 사람과 인터뷰할 때 마침 동호회 활동을 끝낸 후였다. 이 사례에서 동호회의 공동 경험을 생산한 관계는 자연이다. 즉 그들이 가입한 동호회의 경계는 물리공간의 경계와 중첩되는데 이런 현상은 도시의 동호회 활동에서 드물지 않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동호회의 경계가 탈지역적이며 이재명의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 이재명과 아내는 강릉시 성산면에 거주하는데 그들이 가입하기 전에

활동하던 동호회는 노암동에 있는 단오문화관(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에 있다. 탈지역적 동호회는 도시에서 사회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다. 제보자 이옥미도 강릉시(여성)문화센터에서 시민강좌를 들으면서 최창민, 신지철 등 친구를 만났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보존회원 노영미의 가입 경위이다. 노영미는 경상도 사람인데 80 년대에 강릉시에 시집왔다. 몇 년 전부터 강릉시(여성)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 강좌를 들었는데 강사가 관노가면극부 회원이었다. 2018 년 초에 그 강사의 소개로 가입했으며 동시에 가입한 다른 두 명의 여성도 유사한 경로를 통해 가입했다고 했다.

노영미와 이현우의 사례를 함께 보면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현우는 아내의 소개를 통해 관노가면극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의 아내는 노영미처럼 문화학교 등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보존회 관계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여성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주변의 남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관노가면극부가 원래 여성 회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다. 노영미는 관노가면극 정기 모임이나 연습, 공연도 참가하지만 여전히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공연 때 악기 연주만 하고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은 동호회 활동이지만 가입 조건에 성별의 요소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관노가면극부뿐만 아니라 제례부에도 가입하지 못하는데 이는 두 분야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회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존회 회장은 현재까지 제례부와 관노가면극부의 예능보유자만 했고 무격부의 예능보유자(여성)가 한 적은 없다.⁸³ 이런 상황은 단오제의 핵심인 보존회 활동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례부의 신입 회원 조우석은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보존회원이자 강릉문화원의 관계자인 박호건의 소개로 가입했다. 박호건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 문화원과 업무 왕래가 있는 문화예술계의 사람이나 정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조우석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호건과는 동호회나 기타

⁸³ 1986년부터 강릉단오제보존회가 『무형문화재법』 제 17 조에 의해 강릉단오제 보유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보존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아래와 같다.

1986~1999: 제 2 대 제례부 예능보유자, 1999~2006: 제 3 대 제례부 예능보유자, 2007~2010: 제 3 대 관노가면극부 예능보유자, 2011~2014: 제 3 대 제례부 예능보유자, 2015~현재: 제 3 대 관노가면극부 예능보유자.

지연·학연 단체의 활동을 통해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친인척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조우석과 강릉문화원 관계자 박호건이 연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지연과 동호회 경험이 보존회원 가입의 조건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 연령이라는 요소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례부 회원은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많은데 이유 중의 하나는 한문과 유교제례의 절차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한문과 유교제례에 익숙한 사람은 전술한 해설사 한상렬 같은 학교 선생이나 정희철처럼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그런 조건 때문에 젊은 사람이 제례부에 가입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에 많으며 그들이 가입한 계기는 교육 경험이나 동호회 활동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젊은 회원 중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단계에 사물놀이를 연습하는 것을 계기로 무속악이나 관노가면극을 시작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무속악의 경우에는 예전의 무격부 회원 중 한 사람이 만든 “푸너리공연단”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단오제 보존회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⁸⁴ 관노가면극부의 젊은 회원도 기존 회원의 소개나 권유를 통해 가입한 경우가 있다.⁸⁵ 이는 한편으로 보존회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한 결과이다. 즉 무속악이나 가면극 등은 전문 예술공연의 분야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존 회원의 인정을 받은 예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사회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특히 일부 회원과의 연줄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게 된다.

보존회 가입의 폐쇄성은 가입 전의 조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가입 후의 활동 경험과도 연관된다. 왜냐하면 보존회의 각 분야에 있던 사람이 모두 연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개방되는 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격부는 물론이고 제례부와 관노가면극부도 보존회 관계자와의 사회관계를 가진 사람을 받으면서 기존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보존회원 박병호가 구술한 가입 경위이며 단오제 참여가 매우 구조화된

⁸⁴ 주석 85 번의 문헌 참조.

⁸⁵ 강릉단오제위원회, 2014, 『수릿날, 강릉』 제 9 호, p.42; 제 11 호, p.30.

행동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즉 가입의 원인과 가입 후의 활동 경험에서 볼 때 박병호가 제례부에 가입하게 만드는 요소가 매우 많다.

“제가 단오를 하게 된 게 한 98 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변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어요. 생수병을 파는 사업이었는데 짐을 실어야 하니까 트럭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그때 강릉 인문중고등학교라는 야간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제 전공이 원래 화학인데 과학을 가르치러 갔어요.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누구냐면 ○○○라고. ○○○ 선생님하고 그때 만났는데 문화원에서 근무했죠. 알고 있었는데 제가 트럭이 있는 걸 알아 가지고 단오 할 때 좀 도와 달라고 했었어요. 짐을 날라 주고 알바생들을 좀 관리해 주고. 그런 걸 하다가 문화원 ○○○ 국장님이 저보고 제례부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사천 하평답교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은 해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강릉의 사천 하평답교놀이가 전국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소품이 제가 담당했어요. 그때 단오제위원회가 강릉문화원에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교류를 하다가 제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제례부에 계신 분들이 제가 10 몇 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는 저희하고 같은 동네에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선후배들, 지금도 아버지 선후배님들 계시거든요. 저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 분들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다 알아요. 같은 동네라고 하면 바로 옆집인 게 아니라 조금, 몇 백 미터 떨어진 그 정도에서 계시던 분들이라서 얘기를 하면 저를 잘 몰라도 저희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면 ‘어, 알아.’ 그래서 같이 활동하기도 편했고. 아는 분들이니까.” (강릉단오제 보존회원 박병호)

박병호가 단오제 제례부에 가입할 수 있었던 요소는 지연적 연대와 인적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제례부 회원들이 대부분 노암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박병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 또한 그가 사업하기 위해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계기이고

그것을 활용한 사람은 단오제와 문화원의 관계자였다. 물론 이들 관계자는 생계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맺은 사회관계망에 있는 행위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 해설사나 보존회의 참여는 사회구조적 요소가 행위자 본인의 의욕과 얽혀 있는 결과이다. 즉 박병호처럼 가입하기 전에 이미 그 사회관계망에 들어갔고 가입한 행위가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사례는 단오제 의 전통을 유지하는 사회적 요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참여의 정도는 축제 관계자와의 사적 관계에 달려 있다. 축제 관계자와 연줄이 없는 일반인은 강릉단오제에 참여하는 형식이 축제 관람이나 소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가 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박영자는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박영자는 평소에 단오제 등 전통문화에 관심이 없으며 단오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회관계도 없다. 지역민은 주로 동네의 주민단체나 관변단체의 관계자를 통해서 단오제의 신주빚기 등 행사에 참여한다. 박영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동네의 통장이 4년 동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은 모든 근린주구에 다 자생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는 가설을 반복했다. 단오제의 행사를 도와주는 자생단체의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단오제 행사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주도의 형식을 만드는 또다른 힘은 이들 관계자들의 주도적 역할이다.

그런 맥락에서 단오제 참여/참가(participation)의 의미에 대해 일반 시민이 연구자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식 자료에서 사용되는 지역축제 참여는 보통 관람, 자원봉사, 작품제출 및 공연, 행사주관을 포함한 개념이다.⁸⁶ 제 1 절에서 인용된 노인의 인터뷰에서 한 노인이 단오제에 “참가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는 두 차원에서 분석할 여지가 있는데 하나는 축제의 종교성에 대한 거부감이고 이에 대해 제 1 절에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축제 참여는 구체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축제 관람이나 소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해의 격차에서 오히려 현지인들의 단오제 참여

⁸⁶ 강릉시, 2018, 『강릉시사회조사 보고서』, p. 72.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연줄이나 사회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해설사보다 더 제한된다.

강릉사람에게 단오제는 구경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고 사교를 하는 장인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관계가 필요하다. 제보자 이옥미는 자기가 처음으로 강릉단오굿을 관람한 경험을 말해 주었으며 그 사건을 만든 계기 중의 사회관계의 요소를 시사하고 있다.

“나는 굿 보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 못 맞추니까 못 보는 거죠. 내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때, 단오제가 8일이잖아요. 내가 8일 동안 알바를 한 적이 있어. 하루에 십만 원이야. 근데 굿 하는 데 그 옆에 그네 앞에서 했어요. **누가 부탁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일 없으니까 하루에 십만 원씩 준다니까 가서 했는데. 8일이면 팔십만 원인데 짬짬이 가서 굿을 본 거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보자 이옥미).

이옥미의 말에 따르면 단오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에서 맺은 인맥이었다. 그런 행사 참여의 패턴은 상술한 해설사나 보존회원과 같으며 다만 이런 행동에서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다. 이옥미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나중에도 계속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를 추천한 사람이 가진 사회관계가 단오제에 대한 제한된 참여만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통해 단오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옥미는 강릉에서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동호회나 직업활동을 통해 만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옥미는 지역사회가 폐쇄적이고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강릉에 이주한 후 다양한 문화학교 등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시도했으며 연구자에게도 현지인 친구들을 소개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도시민들의 생활패턴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며 즉 도시는 다양한 이질적 사회집단들이 모여사는 주거형태이다(Park, et al. 1984[1925]; Wirth 1938). 도시민의 사교도 다양한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평소에 만나지 않고 요긴한 일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만 중요한 일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강릉단오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강릉사람들이 사교를 하는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관계의 차이 때문에 모든 지역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는 없다.

단오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사례는 현지인 최한별이다. 최한별은 2018년 6월에 서울에서 수공예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강릉단오제에 한 번도 안 갔다. 고등학교 시절에 주변 친구 중에 단오제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최한별은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최한별은 그 원인을 전통문화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사회관계로 단오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단오제와 관련된 활동 중에 최한별이 유일하게 참가한 것은 친구 이슬기와 같이 관노가면극의 캐릭터를 제작한 일이었다. 이슬기는 강릉에서 예술품을 만드는 공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2017년 초에 강릉시의 사업에 응모하여 최한별과 같이 했다.

최한별은 정선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 강릉에 왔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현재 강릉시에서 수공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필드워크 기간 동안 최한별이 소개한 현지인 친구는 주로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만난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고 대부분 현대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홍아름은 최한별과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이이고, 이슬기는 최한별과 고등학교는 다르지만 당시에 같은 미술학원을 다녔다. 이슬기는 강릉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학원 연합회에 가입했다. 현대미술을 선호하는 이슬기는 매년 아이(3세)에게 난장을 구경시키기 위해 단오제에 가지만 본인은 단오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술강사 홍아름은 초등학교 이후 단오제에 가 본 적이 없었다가 2018년에 오랜만에 구경하러 갔다. 이처럼 최한별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현대미술을 선호하고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평소에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오제 주최 단체와 접촉할 일이 많지 않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지인의 단오제 참여 양상은 단지 개인의 문화소비 경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오제 주재집단과의 연줄도 매우 중요하다. 단오제 위원회와 보존회는 평소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 단체,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 조직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단오제의 구체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쉽다. 비록 단오제 위원회와 보존회는 웹사이트에서 회원이나 직원, 해설사를 구하는 공고를 게시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사적인 관계이다.

3 축제 참여와 단오풍속의 사회적 구성

1) 실천되는 단오풍속

강릉단오제는 원래 전통의례에서 기원한 축제이고 현재도 많은 강릉사람들이 일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 개최와 마찬가지로 축제 참여도 지역 민속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이 사회관계를 주기적으로 표출하거나 확인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제보자에게 강릉단오제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진 중요성은 축제 기간에만 나타나며 그 외의 시간에 그들은 축제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연구자와의 친분이 깊지 않은 이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오라는 세시풍속의 주기성과 연관된다. 단오제는 전통의례 외에도 세시풍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단오는 4 대명절의 하나였으며 차례를 지내고 수리취떡을 빚어 먹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 외에도 그네뛰기와 씨름 등 민속 놀이를 했다(김의숙 1995: 53-54). 지금 많은 강릉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단오풍속을 단오제에서만 체험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 자체가 단오풍속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오풍속도 이제 현대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바꿔 말하자면 단오제 행사를 통해 체험하는 단오풍속은 주최 단체가 과거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것만을 단오풍속으로 규정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단오제를 관람하는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단오풍속을 체험하는 것은 단오제 참여나 관람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오제 관람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축제 참여 동기도 매우 복잡하다.

많은 제보자에게 단오제 참여는 일년 중에 한 번씩 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진다. 가장 전형적인 행위는 평소에 단오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사람도 단오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거주하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 박영자는 평소에 단오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2018 년에 단오제에 가서 이불을 샀다. 그리고 여러 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오제 마지막날에 이불을 사러 가는 것이 강릉의 풍습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이옥미도 평소에 축제 음식이 깨끗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축제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2017 년에 단오제에서 이불을 사서 아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남편과 매년 꼭 한 번은 간다고 했다.

“단오장에 맨날 가는 게 아니지만 매년 꼬박 꼬박 가요. **강릉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요. 가는데 매일 거기 안 간다는 것뿐이지. 어쨌든 올해는 뭐 있나 쪽 보고 와요. 그리고 가면 난장에서 파는 걸 사와. 작년에는 마늘 까는 거. 나는 제발 사오지 말랬어. 뭐지? 양말 30 개 한 묶음 사와 가지고. 단오장에 한 묶음 사면 일년 쓰고 그 다음해 또 가서 사고. 그런 게 재미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단오장 물건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싸구려를 사오면은 그게 단오장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싸구려냐, 단오장 거냐?’ 단오장 것 그렇지 뭐. 근데 어쨌거나 볼거리가 많잖아. 구경할 만한 게. 원래 난전이 **재미있잖아요.**”
(제보자 이옥미)

이옥미는 원래 강릉사람이 아니고 8년 전에 인천에서 남편을 따라 이주해 왔다. 그의 남편 박민수는 강릉사람이고 단오제에 어릴 때부터 갔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생겨서 지금도 매년 축제에 간다. 이옥미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단오제 난장이 재미있다고 표현되는데 단오풍속 체험이나 전통의례 구경이 재미있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박영자와 이옥미 등 축제나 전통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단오제에 갈 일이 있다. 그들이 단오제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구경하는 것은 해설사보다 더 제한된 축제 참여의 형식이지만 재미있는 것을 구경하거나 체험하는 것이라도 그들에게 축제 참여의 충분한 동기가 된다.

상술한 해설사나 보존회원 외의 대부분 시민들은 단오제를 주최하는 단체와 사적 관계가 없으면 축제를 구경하고 소비하는 것이 전부의 참여 형식이다. 축제 주최에서 유리된 일반인들은 단오제에 안 갈 수도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조사한 제보자들은 다 단오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사회관계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보자들은 그런 사교 활동을 통해 충분한 재미나 기타 의미를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축제 주최측의 여러 관계자들의 담론을 차용하자면 단오제 참여는 현지인 생활의 일부이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꼭 가야 하는 의례 같은 것이다.

“저는 강릉 출신이 아니지만 강릉 사람들한테는 (강릉단오제가) 그냥, 그냥 **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1년에 한번씩 돌아오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아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냥 예정없이 가다가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은 그런 좀 해방구? 삶의 어떤 **작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탈출공간이기 때문에.” (강릉단오제 해설사 김상훈)

“강릉단오제 오면 감자전하고 동동주를 반드시 먹어야 돼. 필수 코스야. 강릉사람들한테. 박사논문을 쓸 때 그걸 쓰라고.” (일본어 해설사 김병택)

“다들 ‘단오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고 못하면서도 단오장에 안 갔다오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따라서 다들 단오장에 최소 한 세 번은 오지 않아요? 저는 한 세 번정도는 옵니다. 도울 일도 있고 취재도 하니까. 왜냐하면 웬지 여기 한 번 밟아야, 단오를 지나가야 뭔가 정리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 난데없는, 그거 뭐죠? 그걸 지나가야만 되는 거 같은, **무슨 통과 의례도 아닌데**. 단오가 약간 그렇습니다. 게르기라고 하나요? 넘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걸려 있는 느낌 같은 거. 그래서 단오가 **즐겁지는 않은데 꼭 오게 되는**. 그게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단오를 즐거운 것이라고 정리하고 가려고요.” (강릉단오제 해설사 양성교육 강사 정희진)

위의 제보자들은 대부분 강릉단오제위원회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고 축제의 운영자 입장에서 관람 행위를 보고 표현한 것이다. 그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단오제의 주기적 개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가나 관람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주기적 축제 관람은 정희진이 말하듯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안 가면 안 되는 의무적인 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김상훈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시민들이 단오제에 찾아가는 것은 개인의 감정과 무관하고 단오라는 특정한 시기가 되면 나타나는 특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행위이다. 단오제 관계자가 아닌 제보자 중에도 그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안 가도 한 번은 가요.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감자전 먹고 단오장 구경하고 그렇죠 뭐.”(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

“그냥, 시간 비우면 ‘한 번쯤은 갔다 와야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 같아요. 누가 먼저 하는 거 없이.”(미술학원 원장 이슬기)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자기의 조직이 단오제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단오제에 대한 열정을 부인했다. 이슬기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단오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단오제를 지극히 좋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이다.

공교롭게도 축제 관람객에 대한 설문조사에 위의 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2003 년에 강릉시는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강원도민 159 명과 타 시도 주민 58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 “반드시 오겠다”고 답한 사람은 46.7%이고 34.2%에 달한 사람은 “가급적 오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가 재미있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불과 15.6%이며 “보통(40%)”과 “그렇다(38.7%)”고 답한 사람은 가장 많았다. 그 이후에 축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 2017 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74.7%의 한국인 응답자는 향후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재방문 동기 중에 “단오제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한 사람은 37%만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강릉에 살아서”와 “지역축제를 즐기기 위해”라고 막연하게 답한 사람은 각각 19%와 15%를 차지하고 있다.⁸⁷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강릉단오제가 재미있다고 명확히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수가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축제 방문 이유는 다양하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위에서 인용된 인터뷰와 일치하며 단오제라는 연례행사 참여의 복잡한 동기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는 단지 재미를 위한 축제 관람이나 해방감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없고 특히 지역민의 삶에서 반복으로 나타난 행동 패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오제 참여를 새로운 단오통속(custom)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릉단오제는 비록 종교적인 의미가 약화되었고 과거의 단오통속도 지켜지지 않지만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연례행사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통속에 대한 시야를 넓혀 보자면 제사나 창포물 머리감기 등만을 통속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단오제를 주기적으로 관람하고 모임을 가지는 행위도 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통속은 많은 현지인에게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집단적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재미있다 그것보다가** 강릉단오제 이러면은 이제 뭐 고수부지 이런 데를 획 돌아댕기면 (남을 가지가 없을 이유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참 둘러보고. 뭐 구경거리가 그렇죠 뭐.” (동남 1 차아파트 노인회관 노년 남성, 70 대)

이 노인의 말은 위의 김상훈과 정희진 등 축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과 맞물리고 있으며 즉 단오제 관람은 재미나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관습이나 통속 같은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을 느끼지 않지만 반복으로 나타난 행동의 패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특히 관습이나 통속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의

⁸⁷ 강릉시 문화체육과 학예연구사 금창현, 『2003 강릉단오제 설문조사 집계표』. 강릉단오제위원회, 『2017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및 발전 방안 용역 보고서』, p.59.

단오제 참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다. 박영자와 이옥미 등 제보자는 언어로 “재미없다”고 표현하지만 단오제가 열리면 간다. 이러한 언행 간의 불일치 현상은 단오풍속의 사회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옥미의 남편인 박민수는 “단오제가 매년 같으니까 이제는 재미없고 친구 중에 5 년 안 간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매년 아내나 지인들과 단오제에 간다고 했다. 연구자와도 단오장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2017년 5월에 사전조사 차 강릉에 간 연구자는 단오장에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여자 두 명을 봤는데 다가가서 중국어로 인사를 했다. 따라서 이옥미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후 헤어졌다. 그 다음날에 이옥미는 남편 박민수와 같이 만나자고 전화했다. 따라서 세 사람은 단오장에서 저녁에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이옥미는 자기와 남편이 축제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난장 음식이 깨끗하지 않고 판매되는 물건도 별로 품질이 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박민수는 아내만 축제장을 안 좋아하고 자기는 모임이나 축제 관람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히 부부 간의 의견 격차로 귀결하기보다 지역 출신에 따른 차이라고 해야 한다. 즉 강릉 출신인 박민수는 인천 출신인 이옥미보다 강릉단오제에 대해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어와 행동의 차이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박민수는 강릉단오제가 재미없다고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친구가 5 년 간 단오제를 구경하러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박민수의 지인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단오제를 평가할 때 늘 재미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도 그런 말을 반복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단오제에 대한 그들의 진실한 생각이나 느낌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오제를 포함한 모임이나 행사에 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행위자가 가진 사회관계망에서 설정된 행동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박민수의 말에 따르면 강릉에 학원 운영자들의 모임 “학원연합회”가 있다는데 이들이 정보도 교환하고 친분도 쌓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2018 년 단오제 때도 협회의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박민수와 같이 단오제가 재미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교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단오제를 관람하는 사람은 있다. 일년에 한 번씩 지인과 단오장에 가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단오제에 가는 것은 해방감 외에도 단오제에서의 소비 행위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확인하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중요한 참여의 동기이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고향에 내려가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민속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공동체 성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많은 제보자들이 단오제 기간에 지역사회에서 맺은 각종 관계를 실천하는데 그들에게 단오제는 사교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때의 단오제 참여나 관람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이다. 강릉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단오장에 가서 감자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는 담론은 풍속의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2018 년 단오제가 6 월초에 개최했는데도 시작할 때 며칠은 날씨가 아주 쌀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집을 나와 단오장 음식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는 생리적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즉 단오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유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진 사회관계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 무관하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 비록 일부 젊은 타지역의 대학생들이 단오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현지인 친구가 단오제에 가자고 할 때 그들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단오제 참여와 지역민의 정체성

강릉단오제 참여는 이처럼 사회관계망을 확인하거나 구축한다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피지 사람들의 kava 의 참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밝히듯이 일정한 사회지위가 있는 남성들이 이 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사회지위를 획득하고 사회적 동행을 구축하는 중요한 생존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Shaver and Sosis 2014). 이 사례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현지인들의 단오제 참여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것을 중요한 사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당사자는 늘 명확한 목적을 의식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단오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축제를 즐긴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모든 사람이 축제 관람에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강릉단오제는 성직자가 운영하는 행사가 아니고 재래의 종교의례만으로 구성된 축제도 아니다. 한국 최대의 축제로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단오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단오제를 생계수단으로 간주하는 관계자들에게 이 축제는 종교적으로 정의된 성스러운 시간(Eliade 1959: 68)이 아니다. 다양한 산업과 현대사회의 제도가 강릉단오제와 긴밀히 결합되면서 이 축제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는 이미 현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강릉에서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은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사회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역민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행동은 단오제라는 세시풍속을 만든 중요한 원인이고 이 사회적 의례를 통해 강릉사람들은 사회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여러 제보자들이 말한 축제 경험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모른 채 암묵적으로 반복하는 사교 행위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에 대한 제한된 참여나 관람, 소비는 행위자를 “강릉사람”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강릉단오제 해설사 김상훈은 단오제가 강릉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라고 표현한 것에도 단오제 참여나 관람에 나타난 사회관계가 강릉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관계는 단오제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단오장에 혼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주최측 관계자들이 강릉단오제에 대한 현지인의 사랑을 과시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 관찰된 상황과 일치하고 설문조사의 내용과도 맞물리고 있다. 2018 년의 모니터링 보고서 중에 불과 4.2%의 응답자만 “혼자 왔다”고 답했고 이에 비해 가족과 같이 온 사람(63%)과 친구, 회사 동료와 같이 온 사람(28.2%)이 가장 많다.⁸⁸ 따라서 단오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행위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교의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⁸⁸ 강릉단오제위원회, 2018, 『강릉단오제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p.37.

“강릉사람들은 축제에 가면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당연히 가면 입장료도 사야 되고 음료수 마셔야 되고 음식물 먹어야 되니까 돈을 쓰게 돼. 그렇다고 단오장에 돈을 쓰러 간다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이동준)

이동준이 강조하는 것은 강릉단오제를 구성한 여러 요소 중에 상업성이 가장 뚜렷한 난장에서의 소비 행위이다. 난장에서의 소비 패턴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와 있고 간단하게 먹고 가는 닭꼬치 등 스낵이 있으며 먹거리촌과 향토음식점은 주로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있는 장소이다. 연구자는 2017 년에 이영표, 박민수 등 현지인과 같이 이런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두 제보자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친분을 쌓는 시간이었다. 이와 유사한 소비는 단오제의 식당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식당에서 사교의 기능을 복돋우는 주류도 판매하며 이와 달리 사교 기능이 없는 스낵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동준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교를 위한 소비는 보통 많은 금액의 소비를 만들 수 있는데 당사자가 완전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단오제에 와서 소비하거나 구경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많은 제보자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를 실천하면서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저는 사실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단오제에. 제 고등학교 때 관심 많아 가지고 대관령 산신 모시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제가 학교 빠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다 따라서 내려오고, 시내까지.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단오제에 관심이 많다가보다는 강릉의 문화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강릉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누가 오면 강릉에 뭐냐, 강릉에 먹을 게 뭐 있냐, 강릉에 볼 게 뭐 있냐, 그런 말 못 해주면 나는 강릉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강릉시 교동 식당 주인 정진우)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정진우의 단오제 참여는 지역 정체성을 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가정,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표시하기 위해 단오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축제 관람은 굿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은 굿을 구경하는 할머니의 행위도 이러한 사회관계를 수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단오에 신이 있지만 그 신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단오의 굿당에 가면 말이야, 어머니들이 돈을 천원씩 오천 원씩 내요. 굿하는 데. 자기 수명 연장해 달라고 돈 내겠나요? **자식 손자야**. 그리고 단오 때 지금도 그렇지만 할머니들을 맨날 실어주고 갔다가 저녁 때 모시고 온 사람이 있어요. **효의 현장**을 본 기분이야. 지금 많이 없지만 옛날에 굿당에서 잠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머니들이 자. 옆에서 () 끓여 먹고. 또 아들이 아침밥을 싸 주고. 그 자리 뺏길까 봐 자는 거야.”(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정희철은 강릉단오제의 종교성이 쇠퇴하고 사교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의 말은 축제의 종교성도 사회적 기능과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원의 내용은 자신의 행복이나 안녕이 아니라 가족들이다. 따라서 단오제의 종교성에도 사회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단오제 참여나 관람의 행동에 나타난 복잡한 사회문화적 측면과도 같다. 즉 단오제에 대한 제한된 참여라도 그것을 만든 사회관계가 밑에 깔려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사회관계의 실천을 통해 행위자가 강릉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물론 강릉사람을 생산하는 사회관계는 평소에도 다양한 맥락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다만 단오제라는 사회적 의례에 더 집중적으로 구현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오제는 강릉사람들이 가진 사회관계가 수면 위로 부상되는 시기이고 강릉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이 시간에 확인된다.

“단오에서 수천년 내려온 **단오의 DNA**가 다 우리 주민에 스며 있다 이거야.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딱 데는 사람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학생도 없고.

우리가 동원할 인원이 없잖아. 거리 축제도 싫으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귀찮으면 안 나오잖아. 누가 지금 강제성이 있나요? 근데 다 나와서 재미있게 놀다 가는 거야.” (강릉단오제위원회 관계자 정희철)

위에서 인용한 위원회 관계자와 시민의 담론을 통해 단오제 참여나 관람의 동기를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행위자에게 단오제는 재미있거나 종교신앙으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사회관계에 의해 설정된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단오제 참여나 관람의 관습에서 집합적, 구조화된 행동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된 행동으로 인하여 강릉단오제의 전통성과 지역성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 강릉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이 정체성은 연구자 같은 외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내부적 정체성이다.

강릉단오제 등 지역의 민속문화는 지역민 내부에서 공유되는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상황은 일본의 엔가(演歌 enka)가 담당하는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엔가는 일본인이 외부인에게 전시하는 “공식적 국가 문화”가 아니라 일본인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일본성(Japaneseness)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이다(Yano 2002: 8-9). 강릉단오제도와 유사한데 위원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 축제는 “지역민”이 노는 것이고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치르는 것이 아니다. 비록 외부인의 시선도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이 축제를 이용하는 현지인에게 단오제는 여전히 강릉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의 “변화는 있고 변함은 없다”는 슬로건을 다시 보면 그 속에서 지역민이 국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반영한 구체적 사건은 매년 어김없이 단오제를 개최하는 것이며 단오제 참여는 현지인들이 그 지역의 민속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은 현재에 사는 사람이 준수하는 가치관에 의해 재구성되는데 민속도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III 장과 IV 장에서 현대 국민국가의 제도나 윤리 도덕의 체계가 개입하여 강릉단오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다루었다. 이에 비해 본장에서는 정치나 문화 권력이 정의한 단오제와 단오풍속 외에 현지인들의 실천을 통해 단오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은 주최측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축제 참여를 통해 새로운 단오풍속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차원도 가지고 있다.

야바위나 19 금에 관한 일부 현지인들의 추억은 점점 집단적으로 망각되고 있으며 현재의 강릉사람은 한국인으로 되기 위해 강릉단오제와 그것에 대한 추억을 국가의 축제 담론에 맞추어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표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진 각종 사적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강릉단오제가 그런 기능을 해 오고 있다. 지역민에게 이 축제는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그들을 단오제로 끌어오는 중요한 원인이다.

VI 결론

전통문화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보편적 인식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 주최 단체와 지방정부, 강릉시민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오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다.

우선 지역 민속으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변용은 국가의 전통 발명의 미시적인 차원을 보여준다. 국가의 전통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민속이 국가 역사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국민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재구성된 경우가 많다(Hobsbawm and Ranger 1983). 그러나 전통의 발명론에서 전통으로 재구성된 민속이 지역주민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그들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1960 년대의 강릉단오제 무형문화재 지정은 한국에서 전통 발명의 국지적이고 미시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재구성된 강릉단오제는 지역의 단오민속과 한국의 “문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릉단오제는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사회의 규정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전승자와 주최 단체 관계자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의 독립과 법인화는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산물이다. 필드워크를 통해 조사된 법인화의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릉단오제 위원회와 보존회는 강릉문화원에 의존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축제 운영 주체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둘째, 법인화된 두 단체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다양한 축제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법인화 이후 난장 상가분양의 일원화를 통해 경비 조달과 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셋째, 법인화의 법적 근거가 다른 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는 축제 주최에서 각자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협력해 오고 있다. 그 중에 보존회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유교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을 전승·보존하는 일에 종사하고 위원회는 그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따라서 법인화를 통해 강릉단오제의 주최 단체는 느슨한 관계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아니라 조직화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현대 기업으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주최 단체에만 아니라 다양한 주관 단체에도 나타난다. 현재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관/운영하는 지역의 민간단체들 중에는 단오제 위원회와 보존회처럼 법인화된 단체가 많으며 그들과 주최 단체 간의 협력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영리법인 외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여러 분야의 인력들도 강릉단오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전통의례를 전승하는 사람 외에도 다양한 관계자들이 주최 과정에 개입하게 되어 단오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의미도 그런 과정에서 현대 도시축제로 변하고 주최와 관리인, 참여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에게 가진 의미도 현대사회의 질서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오제의 전신인 과거의 읍치성황제는 지방의 정치적 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의 단오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에서 정치 권력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축제 거버넌스라는 유연한 공공관리를 채택하고 있다. 민간주도는 그런 관리의 기제에 맞물리는 담론인데 중앙과 지방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축제를 주최/운영하는 민간단체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국민국가의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만드는 전략이 지역/지방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강릉단오제는 지역사회의 질서와 국가 체계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며 강릉단오제는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자원으로서 주최 단체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변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승자와 주최측 관계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강릉단오제의 핵심인 전통의례는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법률 제도에 따라 전승하고 있는데, 전승자 제도의 도입은 법인화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현대화시키는 것이다. 전승자 제도의 또 다른 효과는 전승자들, 특히 젊은 전승자를 교육을 통해 현대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무격부와 관노가면극부의 젊은 전승자들은 전승자/교육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제도교육을 통해 문화자본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전승자들은 기존의 전승자에 비해 고학력자가 많다. 현대 국민국가의 체계는 이렇게 법률과 교육 제도를 통해 전통의례의 현대적 변용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국가 체계의 개입은 단지 축제 현대적 전승의 일부 요소이며 민속문화는 늘 사회 변화에 따라 변모된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보존회는 현대인의 문화소비 경향이나 수요, 미적 기준에 맞추어 전통민속의 변화를 시도한다. 조전제 축문의 변화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의 연행 방식에 모두 전통문화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주최 단체의 경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외에 게임 등 상품의 개발과 전통의례의 무대화 등은 모두 관계자의 생계 해결이라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상품화와 무대화의 노력을 통해 강릉단오제는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나 전통의례에서 일년 내내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로 변신한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모습은 단지 주최측이나 정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현지인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필드워크를 통해 발견한 강릉시민들의 지역 민속 실천은 기존의 연구에서 그려진 강릉단오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 만들기의 또 다른 차원을 조명하고 있다. 민속학의 선행연구에서 묘사된 강릉단오제는 유교제례와 단오굿, 관노가면극이 핵심 요소인데 그것이 단오제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전통의례가 가진 종교성이나 상징적인 의미는 과거에 비해 이미 약해졌다.

강릉단오제의 또 다른 내용인 세시풍속은 이제 단오제에서만 체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에게도 단오풍속의 체험은 단오제를 찾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많은 제보자에게 강릉단오제 참여나 관람은 일년에 한 번씩 하는 연례행사이고 그것은 현지민들이 실천하는 단오풍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의례나 난장과 마찬가지로 단오풍속도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현재 한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오풍속이 사라진 것과 달리, 강릉시에서 단오제라는 축제를 통해 단오풍속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했다. 강릉단오제 참여나 관람, 소비의 행위는 단오풍속의 실천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행위는 결코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제보자들은

단오제를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사교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 성원 내지 강릉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거나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강릉단오제의 참여와 배제의 원리이다. 단오제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는 축제로 표방되지만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젊은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요즘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노년층이 노쇠하여 더 이상 축제의 주요 관람객이 되지 못한 것과 연관된다. 축제 주최 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오제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200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집단의 항의는 지역문화 만들기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점점 무력해진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일부 상인들이 단오제 기간에 손해를 감수하고 단오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장이 서로 다른 강릉사람들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축제 관계자와의 연줄 등 사회관계는 축제 참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그 중에 많은 단오제 해설사와 보존회원은 학연이나 동호회를 통해 맺은 연줄을 통해 단오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에게 단오제 행사 참여는 사회관계를 만들고 지속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비록 신주빛기나 길놀이 등 시민 참여행사가 있지만 말단의 행정 조직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여전히 사적인 관계에 의지해야 한다.

단오제 참여와 배제의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단오풍속의 사회적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분석 결과는 강릉단오제의 지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전통의례를 전승하는 주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번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강릉단오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단오제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바꿔 말하자면 강릉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맺은 다양한 사회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체 성원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행동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대규모 연례행사인 강릉단오제는 마침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역사회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강릉시에서 그런 풍속은 하나의 실질적 전통으로 전승되고 있다. 해방 후 현대화를 수반한 반전통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전통문화로서의 합법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전승의 가치는 강릉시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은 지역 전통의 합법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강릉단오제의 현대적 전승은 주최 단체와 지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핵심으로 인정된 전통의례와 단오풍속, 난장은 모두 현재 사람들이 준수하는 사회질서에 의해 재구성되었음을 본 연구에서 논의했다. 무형문화재를 지역축제의 형식을 통해 전승하는 데에는 주최 단체의 운영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민속학은 전승자의 행위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운영을 전승의 개념에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산업화와 시장경제 등 현대사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강릉단오제는 대규모 도시축제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지역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는 인정사회”라는 현지인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강릉시는 다양한 사회관계로 엮여 있는 사회공간이기도 하다. 이 사회공간은 다시 여러 “동네”나 “계”로 나누어지는데 각자의 성원들은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성원권을 확인한다. 그 중에서 계 모임도 있고 공동체 축제도 있지만 일년 중의 가장 큰 모임은 현재 한국에서 지역축제로 재구성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지역축제는 지역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집단의 모임으로 구성된 것이고 사회관계가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이다. 강릉단오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의 구조나 사회관계망을 들여다보는 창구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강릉단오제와 연관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떨어진 사람들, 특히 축제를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는 젊은 사람과 종교인, 비강릉인들의 축제 참여를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했다. 이 아쉬운 점은 미래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또한 축제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축제의 역사가 길지만 제의성과 종교성이 강한 과거의 축제에 비해 현재의 축제는 유희성이나 오락성이 점점 증대된다(표인주 2007: 60). 그러나 축제와 일상의 이분법, 즉 축제는 개인을 지배하거나 속박했던 사회질서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방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임재해 2010)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릉단오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제 운영 주체는 관리의 책임으로 인하여 행사장의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그런 관리가 시민들의 축제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오제가 재미없다는 담론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강릉단오제는 다양한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국가 축제 및 무형문화재 정책의 변화, 지방정부의 수용과 조정, 그리고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양상 등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논문 및 단행본

강릉문화원

1999 『강릉단오제 백서』 강릉: 강릉문화원.

강윤희

2004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뿌탈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7(2):23-48.

강은혜

1981 “각설이타령 원형과 장(場)타령에 대한 추론”. 『국어국문학』 85:367-386.

강정원

2002 “동제 전승주체의 변화”. 『한국민속학』 36:1-25.

—

2008 “일제 강점기 단오의 변화”. 『한국민속학』 47(1):169-202.

—

2009 “마을공동체 세시의 쇠퇴: 서울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2(2):3-33.

김경학

2004 “민속놀이의 문화재 지정과 축제화에 따른 갈등양상 및 탈맥락화”. 『민속학연구』 (14):33-57.

김기설

2002 “강릉단오제 금기속”. 『강원민속학』 16:141-150.

—

2011 “강릉단오제 소(素)의 고찰”. 『강원민속학』 25:245-301.

김남일

2005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지역축제의 생산구조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박사논문.

—

2009 “전통문화축제의 지역적 가치: 유네스코 무형유산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7(2):59-95.

김명자

1996 “축제의 기원”. 문화체육부 편찬, 『한국의 지역축제』. Pp. 13-50. 서울: 문화체육부.

김병인

- 2004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 지역축제의 재창조와 문화활용』 .
서울: 민속원.
- 김병철
- 2006 “강원지역 축제의 실태 분석”. 강원도민속학회 편찬, 『강원도
축제의 이해』 . Pp. 609-632. 서울: 국학자료원.
- 김선평
- 2002 “韓國端午民俗 研究史”. 『江原民俗學』 16:15-28.
- 김선평, 김경남
- 1998 『江陵 端午祭 研究』 . 서울: 보고사.
- 김성표
- 2016 “축제다운 축제 만들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6(2):1-11.
- 김용학
- 2003 “한국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층출에서 인적 자본의 역할”.
김성국, 석현호, 임현진, 유석춘 편찬,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 Pp. 99-127. 서울: 전통과현대.
- 김용훈
- 2011 “강릉단오제를 통한 우리 민속 문화의 정서”. 『종교문화학보』
8:207-257.
- 김의숙
- 1995 『강원도 민속 문화론』 서울: 집문당.
- 김이숙
- 2002 “강릉단오굿 제차의 구성과 무가의 특징”. 『강원민속학』 16:79-
92.
- 김종대
- 1999 『한국 민간신앙의 실체와 전승』 . 서울: 민속원.
-
- 2004 『한국의 성신앙 : 중부편』 . 서울: 인디북.
-
- 2005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 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41:95-121.
- 김창수, et al.
- 2013 『지역축제』 . 서울: 대왕사.
- 김태곤
- 1981 『韓國巫俗研究』 . 서울: 集文堂.
- 김택규

-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김홍술
- 2011 “강릉의 제사”. 『강원사학』 24, 25 집 합본:399-428.
- 김희경
- 2017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비평』 16:112-135.
- 남근우
- 1998 “植民地主義 民俗學의 一考察: 신앙 · 의례전승 연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1(3):55-76.
-
- 2006 “민속의 문화재화와 관광화 - ‘강릉단오제’의 포클로리즘(folklorism)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3:205-253.
-
- 2010 “복원주의 민속학의 아이러니 - ‘강릉단오제’의 곤경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52:37-83.
- 秋葉隆
- 1993[1954] 심우성 옮김, 『朝鮮民俗誌』. 서울: 東文選.
- 류정아
- 2003 『축제인류학』 서울: 살림출판사.
- 문화재관리국
-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강원도편)』. 서울: 문화공보부.
-
- 1994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 박부원
- 2016 “강릉단오제 사례를 통한 시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16):89-112.
- 박전열
- 1979 “각설이의 기원과 성격”. 『한국문화인류학』 11:179-189.
- 박환영
- 2006 『도시민속학』. 서울: 역락.
- 배영동
- 2017 “산업화에 따른 마을공동체 민속의 변화와 탈맥락화: 산업농 등장, 탈맥락적 민속, 마을 초월적 전승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2:159-189.
- 백선희

- 2011 『서울시 축제의 질적 관리방안』 .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오순환
- 2017 “공동체 환경변화와 축제에 대한 담론”. 『관광학연구』 41(5):73-89.
오창현
- 2016 “19~21 세기 한국 사회의 변동과 남서 연안부의 지역 축제: 근대 민족주의, 소비주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9(3):361-406.
우경진
- 2017 “지역축제 참여요인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 연구: 2017 화성 전국향 뱃놀이 축제 참가자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6(8):263-279.
유목화
- 2015 “문화관광축제 선정 제도가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실천민속학연구』 (25):389-423.
유철인
- 2004 “굴부르기제와 검은여제”. 역사인류학연구회 편찬,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서산사람들의 삶과 역사인식』 . Pp. 181-208. 서울: 아카넷.
윤동환
- 2000 “세습무의 학습 체계와 곳의 변화: 동해안 곳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133-158.
—
- 2011 “동해안 곳의 전승과 계승”. 『민족미학』 10(2):190-214.
—
- 2014 “강릉단오곳의 실체와 허상”. 『남도민속연구』 29:221-248.
윤용복
- 2015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대응: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28:1-25.
이경엽
- 2004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293-332.
이경화
- 2009 “강릉단오제의 축제 담론 형성에 관한 현장론적 이해”. 『유럽사회문화』 2:1.
이규대
- 1998 “강릉 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 『역사민속학』 7:101-129.
이은진

- 2004 “도시지역 관변 단체의 조직적 특성”. 『지역사회학』 6(1):39-67.
이종수
- 2009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이진교
- 2011 “도시 축제의 실행과 참여집단 : 일본 삿포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의 민속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논문.
-
- 20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전개과정과 지역사회: ‘지역 활성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2):69-104.
이창호
- 2008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 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1):75-122.
이태원
- 2013 “강원도 내 지역감정 양상과 그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14(2):47-82.
이현식
- 2006 “한국의 지역 축제 지원 정책 현황”.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편찬, 『축제 정책과 지역 현황 : 축제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 3. Pp. 51-84.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혜정
- 2015 “통계를 통해서 본 종교인구와 개신교단의 변화”. 『신학과 목회』 44:367-387.
이훈구
- 2003 『연고주의』 서울: 法文社.
임동권
- 1966 『重要無形文化財指定資料: 江陵端午祭』. 서울: 文教部.
-
- 1971 『한국민속학논고』. 서울: 宣明文化社.
-
- 1977 “강릉단오제”. 강릉문화원 편찬, 『임영문화』 제 1 집. Pp. 42-46.
강릉: 강릉문화원.
-
- 1985 『한국세시풍속연구』. 서울: 집문당.
-
- 2002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 경위”. 장정룡 편찬, 『아시아의 단오 민속』. Pp. 123-130. 서울: 국학자료원.

임재해

1989 “단오에서 추석으로 - 안동지역 세시풍속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21:341-365.

—

2010 “마을의 잔치문화에 갈무리된 축제성과 인간해방의 길”.
『남도민속연구』 21(0):205-241.

임창규

2012 “직업계층계층과 문화예술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2(2):5-28.

장정룡

1996 “강릉단오굿”. 『비교민속학』 13:117-129.

—

2003 『강릉단오제』 서울: 집문당.

정수진

2009 “무형문화재의 관광자원화와 포클로리즘: 안성의 아이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놀이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9:57-84.

정은주

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석사논문.

조해진

2014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고찰”. 『스토리앤이미지텔링』
(8):97-126.

최경은

2006 “현대 한국사회의 지역축제 현향과 분석”.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편찬, 『축제 정책과 지역 현황: 축제의 이론적 정립과 새로운 축제 모형
창출을 위한 학제적 접근』 3. Pp. 203-26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최철

1971 “강릉 단오제 연구”. 『아세아연구』 14(4):225-268.

표인주

2007 『축제민속학』. 파주: 태학사.

한교남, 한범수

2011 “한국사회의 사회계층 간 여가소비의 구별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10):181-19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국의 지역문화 : 현황 및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서울:
大旺社.

한양명

2008 “지역축제의 전승과 민속의 변용”. 『비교민속학』 35:445-475.

2009a “고을축제로서 강릉단오제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 『공연문화연구』 18:563-598.

2009b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영산줄다리기의 경우”. 『한국민속학』 49:85-119.

홀콤, 랜들 G., 안드레아 M. 카스티요

2014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 대항하는 두 정치 경제 체제』. 황수연 옮김, 부산: 리버티.

황루시

1999 “강릉단오제의 전통성과 지속성”. 『역사민속학』 9:151-168.

2006 “현대의 공동체와 축제의 기능”. 『口碑文學研究』 22:205-230.

2012 “강릉단오제 전승에 관한 검토”. 『人文學研究』 17:21-44.

2015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재이후 변모에 따른 몇 가지 현안 진단”. 『인문학연구』 20:63-83.

황익주, 정현목

2012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 공동체 형성의 과제: 4 개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2):101-128.

중국어 논문 및 단행본

高静

2016 “从原形解构看韩国学术界对江陵端午祭的认识论转变”. 『文化遗产』 (3):54-63.

贺学君

2006 “韩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的启示——以江陵端午祭为例”. 『民间文化论坛』 (01):67-75.

蒋方

1997 “端午与屈原考释”. 『湖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0(3).

王雪华

2012 “清代吏胥的血缘、地缘和业缘关系”. 『武汉大学学报：人文科学版』 65(3).

萧放

2009 “端午节俗的传统要素与当代意义”. 『民俗研究』 0(4).

张国强

2009 “韩国江陵端午祭研究”. 『湖北民族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7(5):58-61.

张心勤

1982 “端午节非因屈原考”. 『齐鲁学刊』 0(1).

영어 논문 및 단행본

Bak, Sangmee

1997 “McDanold's in Seoul: Food Choices, Identity, and Nationalism”. In *Golden arches east : McDonald's in East Asia* J.L. Watson, ed. Pp. 136-160. Stanford, Calif.: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Bakhtin, M. M.

1984 *Rabelais and his world* H. Iswolsky, trans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ausinger, Hermann

1990 *Folk culture in a world of technology* E. Dettmer, transl.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enedict, Ruth

1969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Cleveland & New York: Meridian Books.

Bestor, Theodore

2010 “Networks, Neighborhoods, and Markets: Fieldwork In Tokyo”. In *Urban Life: Readings of the Anthropology of the City fifth edition*. R.V.K. George Gmelch, Walter P. Zenner, ed. Pp. 20-35. Long Grove: Waveland Press.

Dorson, Richard M

1964 *American folklore*. Chicago: Univ. of Chicago.

Dorson, Richard M.

1950 “Folklore and Fake lore”. *The American Mercury* 70:335-342.

Dundes, Alan

1985 “Nationalistic Inferiority Complexes and the Fabrication of Fakelore: A Reconsideration of Ossian, the Kinder- und Hausmärchen, the Kalevala, and Paul Bunyan”.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22(1):5-18.

Durkheim, Emile

2004 *Readings from Emile Durkheim* [electronic resour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Eliade, Mircea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 the nature of religion*. W.R. Trask, transl. New York: Harcourt Brace.

Falassi, Alessandro

1987 "Festival: Definition and morphology". In *Time out of Time: Essays on the Festival*. A. Falassi, ed. Pp. 1-10. Albuquerque, NM: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Gibson, Chris, and John Connell

2012 *Music festival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ustralia* Burlington, Vt.: Ashgate.

Graburn, Nelson H. H.

1983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0(1):9-33.

Haraway, Donna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3):575-99.

Hobsbawm, E. J., and T. O. Ranger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garth, Hyun-Key Kim

2001 "The Gangneung Dano Festival: The folklorization of the Korean Shamanistic heritage". *Korea Journal* 41(3):254-284.

Horak, Sven

2014 "Antecedent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l relation-based networks in Korea: Yongo , Yonjul and Inmaek".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0(1):78-108.

—

2018 "Join In or Opt Out? A Normative–Ethical Analysis of Affective Ties and Networks in South Kore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9(1):207-220.

Howard, Keith

2011 "Kugak Fusion and the Politics of Korean Musical Consumption". In *Consuming Korean tradition in early and late modernity: commodification, tourism, and performance*. L. Kendall, ed. Pp. 195-215.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Kendall, Laurel, ed.

2011 *Consuming Korean tradition in early and late modernity : commodification, tourism, and performa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Low, Setha

- 1999 "Spacializing Culture: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Costa Rica". In *Theorizing the city : the new urban anthropology reader*. S. Low, ed. Pp. 111-137.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 Moore, Alexander
- 1980 "Walt Disney World: Bounded Ritual Space and the Playful Pilgrimage". *Anthropology Quarterly* 53(4):207-218.
- Nowak, Zachary
- 2014 "Folklore, Fakelore, History: Invented Tradition and the Origins of the Pizza Margherita". *Food, Culture & Society* 17(1):103-124.
- Park, Robert Ezra, Ernest W. Burgess, and Roderick D. McKenzie
- 1984[1925]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ebles, Gustav
- 2010 "The Anthropology of Credit and Debt". *Annu. Rev. Anthropol.* 39(1):225-240.
- Picard, David, and Mike Robinson
- 2006 *Festivals, tourism and social change :remaking worlds* Clevedon Buffalo: Channel View Publications.
- Roche, Maurice
- 2000 *Mega-events and modernity : Olympics and expos i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London: Routledge.
- Roginsky, Dina
- 2007 "Folklore, Folklorism, and Synchronization: Preserved-Created Folklore in Israel".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4(1):41-66.
- Sahlins, Marshall
- 1972 *Stone Age Econom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 1985 *Islands of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ver, John, and Richard Sosis
- 2014 "How Does Male Ritual Behavior Vary Across the Lifespan?" *An Interdisciplinary Biosocial Perspective* 25(1):136-160.
- Shils, Edward Albert
- 1981 *Traditi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Thornbury, Barbara E.
- 1995 "Folklorism and Japan's Folk Performing Arts".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32(3):207-20.
- Turner, Victor Witter
- 1982 *Celebration, studies in festivity and ritual*.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 1995 *The ritual process :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Turner, Victor Witter, and Edith L. B. Turner
- 1978 *Image and pilgrimage in Christian culture :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Wirth, Louis
-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1-24.
Yano, Christine Reiko
- 2002 *Tears of longing : nostalgia and the nation in Japanese popular so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Transmission Agents
of Folk Festival in Modern Korea:
on Gangneung Danoje

Zhao, Zhenk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Danoje is a typical folk festival in Korea which is usually depicted to have originated one thousand years ago. After being admitted as Korea's important intangible asset in 1967, this festival was designated as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by UNESCO in 2005. These events, especially the recent one, have altered the way local people organize the traditional local rituals and the way they spend the traditional holiday. It is the transmission agents who have been playing a key role in making specific changes.

Many groups, including governments and NGOs, cooperate to host the festival every year. Among them, the Organization Committee (Wiwonhoe) and the Preservation Society (Bojonhoe) are the major agents in charge of the transmission of the folk festival. The former plans and organizes the whole urban festival; while the latter focuses on the passing and preservation of the essential part—the traditional rites. However, only the two groups cannot host such a big urban festival which actually consists of hundreds of programs. Therefore, many local NGOs, some of whom are sponsored by the local government, participate in hosting Gangneung Danoje. In addition to the indirect particip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ome local companies also sponsor the festival. Because after being designated as an intangible heritage, Gangneung Danoje has been received as a symbol of the city. Participating in Danoje not only helps local companies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local people, but also serves an opportunit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uild strong emotional ties with local people. In order to maintain its significance, people in the Organization Committee and the Preservation Society have been protecting some essential parts of the festival, including how and when to host the traditional rites. As a result, the Danoje is preserved as a local tradition which is actually difficult to keep itself from changes otherwise.

Although the hosts of Danoje declare the festival is run by the local people, the cent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of Gangneung are making contributions to preserve the festival. Despite all their efforts to maintain the tradition, modernization of the Danoje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the changes of the transmission agents. Back in early 1990, both the Organization Committee and the Preservation Society were a part of Gangneung Cultural Center, a quasi-NGO who also contributed to the transmission of the Gangneung Danoje. Bu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increase its support to Gangneung Danoje, the independence of its real hosts became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independence and become the host of the Danoje, both the Organization Committee and the Preservation Society registered as non-profit corporations in 2007. Meanwhile, many corporations specialized in several areas such as stage performance and stage setting come to cooperate with the hosts, which improves the proficiency of the hosts and industrializes the festival. The industrialization changes the way local people participate in Gangneung Danoje. Because they have to join these corporations who declare to follow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nation-state. Being members of these modern corporations makes them modern subjects who are produced by the value systems of modern society. Although the actual operation of these corporations is different from the ideal, some core values such as seek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constrains the members' social interactions. Even the performers of the traditional rites became sensitive to the national laws regulating intangible assets or traditional arts. In order to continue their careers as teachers of traditional arts, some young members of the Preservation Society go to graduate schools to get advanced degrees. This shows the growing role of modern education in transferring folk culture.

The success of Gangneung Danoje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ive networks made by the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preserving folk culture. The major part of the festival, however,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modernization. Firstly, the hosts manage to separate stages from markets in order to organize the space of Danoje. Secondly, erotic shows and gambling were eliminated so as to open to more people including children. A demographic change of festival-goers, specifically the deduction of elderly people, accounts for the change. In order to continue the festival, the hosts have been developing new programs for young students and managed to cooperate with a fast food company. The festival organizers use the strategy to attract future consumers. They also promote Danoje by developing various products and education programs, preparing stage performance all through the year.

The contemporary transmission of Gangneung Danoje takes place along with the incorporation of the host organization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festival. It shows how folk culture re-contextualizes in modern society: it becomes a means of living while the employees of the host organizations work to preserve traditional culture.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to host the folk festival has been growing.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of Gangneung and other agencies continue to manage the festival in order to construct the regional identity. Ironically, some of their programs turn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to records with tangible forms unintentionally. Meanwhile, the traditional rites and their performers are marginalized. And folk culture is intentionally displayed as an antique.

After being registered as a masterpiece of UNESCO World Intangible Heritage, Gangneung Danoje has become an important symbol of local culture whose value is indisputable. Such a social atmosphere forces some local merchants to hide their negative opinions even when they suffer from a drop in profits during the festival. And the protestants who previously opposed Danoje are criticized by people from other religions or atheists. With this mechanism of participation, Danoje has overcome the crisis of being lost. On one hand, hosting the festival still relies on the local social relations, as various private relationships, including *yunjul*, are still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social life in Gangneung. On the other hand, many informants participate in or go to the festival to build various social relations, which makes Danoje a field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the social relations.

Local people practice the new Dano custom by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They also develop the social meaning of confirming their memberships of communities by socializing in the festival. In this sense, regularly hosting the festival reflects the periodical changes of social relations. Speaking concretely, many local people need to confirm their social networks by participating in a regularly hosted event. As an annual event consisting of many programs and places that can be used as means to socialize, Gangneung Danoje continues to exist to meet their needs. The hosts who implement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ies have to involve local people in the festival through appropriate means of meeting their needs. The social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agents including the hosts, local government and festival-goers enable the festival to be organized on a yearly basis. Among these agents, the host organizations should be regarded as a key factor that shapes the transmission of the festival.

Keywords: transmission agents, interaction, folk culture, festival, regional society

Student Number: 2014-31406